Terran Williams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부장제의 종말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부장제의 종말

Terran Williams



The Spiritual Bakery Publications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Copyright © Terran Williams, 2022

영어 원서에서 번역, 2026년, 저자의 허락을 받음 –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전자적, 기계적 방법이나 복사, 녹음 또는 그 밖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성경 인용은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작권 © 1973, 1978, 1984, 2011 Biblica, Inc. TM

허락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각주에 실린 모든 웹사이트 주소(대개 www.bit.ly 형식으로 줄여 표기했습니다)는 2021년 11월에 접속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마존 페이퍼백 ISBN: 9798401047878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추천의 글

테런 윌리엄스(Terran Williams)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성에 대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직하고도 탄탄하게 살펴봅니다. 이 책은 어떤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도덕적 나침반이 창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남성과 여성의 하나 됨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논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와 씨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자료입니다.

—마이클 버드(Michael Bird) 박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리들리 칼리지(Ridley College) 학장 겸 신약학 강사, 저서 Evangelical Theology

테런 윌리엄스는 여성과 사역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그저 진술하고 논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주석적, 공동체적, 개인적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를 여정으로 이끌고, 그 이야기는 예리한 관찰과 통찰과 신중함을 전해 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방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해 가는 과정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과 함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하듯 마음을 끄는 그의 접근 방식은 복잡한 연구와 해석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신시아 웨스트폴(Cynthia Westfall) 박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맥마스터 신학대학(McMaster Divinity College) 연구 교수, 저서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테런 윌리엄스는 끈질기고 정직한 논리와 두 입장 모두를 안에서부터 아는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 상호주의를 지지하는 논증을 흥미진진하게 쓰고 잘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증거를 그가 보여 주는 대로 읽어 가면서, 저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Craig Keener) 박사, 미국 켄터키주 애즈버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 성서학 교수, The NIV Cultural Backgrounds Study Bible 편집자, 2018–2020년 복음주의신학회(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회장

우리 세대의 기념비적인 책에서 테런 윌리엄스는 성경의 깊이를 탐구하여, 여성들이(그리고 남성들이) 부름받은 높이를 되찾아 줍니다.

—스탈라 웹스터와 대니얼 웹스터(Starla and Daniel Webster), 두바이 시티 라이츠 교회(City Lights Church) 목사

이 책은 시의적절하며 널리 읽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성별, 포용, 평등, 민족성처럼 시금석이 되는 문제에 관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논쟁하는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품위를 갖추고 쓰인 책을 읽는 것은 신선한 일입니다. 이 책의 각 장을 읽고 나면, 정말 좋은 사람이 썼을 뿐 아니라 성경 본문을 제대로 대변하기로 결심한 명료한 사상가가 썼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테런 윌리엄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폭넓게 읽었고,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개념을 신중하게 다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특히 형제들이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언제나 의도하셨던 은혜 충만한 삶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폴 알렉산더(Paul Alexander) 박사, 미국 노스다코타주 트리니티 성경대학 및 대학원(Trinity Bible College and Graduate School) 총장, 세계 오순절 신학교육 연맹(World Alliance for Pentecostal Theological Education) 의장

이 책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학문적이며, 도전적입니다. 읽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이 The Case for Christ를 써서 무신론에 대해 하고자 했던 일을, 테런 윌리엄스는 이 책에서 상호보완주의 신학에 대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곧, 증거에 따라 빚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그 신학을 점점 더 변호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책은 우리 교회들의 지형을 놀랍게 빚어 갈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살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카티아 애덤스(Katia Adams) 박사, 미국 보스턴 더 테이블(The Table) 목사, 저서 Equal

이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이 저작은 저명한 학자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그토록 많은 분열과 상심을 불러온 문제를 정직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울인 성실한 노력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퀸턴 하윗(Quinton Howitt) 박사, 남아프리카 신학교(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및 더 스쿨 오브 리더십(The School of Leadership) 공동 설립자

목회적 세심함과 신학적 예리함으로 쓰인 이 책은, 제가 한 조직을 남자처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전한 동역자로서 이끌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원래 여성이 설교하고 지도하는 것을 배제하는 교단 출신이기에, 이 책은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남편과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사합니다.

—미나 코엘라(Minah Koela),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뷰티풀 게이츠(Beautiful Gates) 대표(CEO)

이 책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섬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모든 신자의 필독서입니다. 테런 윌리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그리고 분명히 모든 목회자가) 하기를 제가 바라는 일을 해냈습니다. 곧, 모든 입장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별과 여성 리더십에 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스스로 연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헌신된 한 신학자가 겸손하게 진리를 찾아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자, 상호보완주의와 평등주의의 신학과 실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입니다.

—케이디 콜(Kadi Cole), 미국 플로리다주 Kadi Cole and Company 대표(CEO), 리더십 컨설턴트, 경영자 코치, 저서 Developing Female Leaders

누군가가 성경을 사랑하는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테런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은 20년 전, 그가 젊은 서퍼들의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세상 속으로 터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그의 눈은 반짝였고 점점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니,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테런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가 좋았고, 어느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되게 하신 모든 모습에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도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담장의 어느 쪽에 서 있든 상관없이,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폴 반 콜러(Paul Van Coller), 조지(George)의 호프 교회(Hope Church), 남아프리카 관계 교회 협회(Association of Related Churches in Southern Africa), 잠비아 프로젝트(Zambia Project)의 리더

이 책은 선교적으로 시급한 책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가장 큰 부분을 침묵시키고, 그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려는 온전한 부르심을 살아 내지 못하게 막아 왔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에서 자란 저는, 잘못된 신학이 뒷받침한 이데올로기가 말로는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저 같은 유색인을 여전히 억압하는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직접 겪어서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는 신학이 상처 입은 여성들과 남성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테런의 책은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논증을 펼치며, 제가 아내와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 사랑해야 하는지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줄리언 애덤스(Julian Adams), 미국 보스턴 더 테이블(The Table) 목사, Frequentsee 디렉터, 저서 Terra Nova

이 책은 분명하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성경을 높이 여기고, 엄밀하게 사고하며, 깊이 파고드는 수고를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테런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이 성경적 진리들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낯선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버티고 서서 꿈쩍하지 않고 싶은 유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스 바슨과 톰 바슨(Jess and Tom Basson),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그레이스 패밀리 교회(Grace Family Church) 목사

전작에서처럼 테런은 쉽고 친근하게 글을 쓰며, 전문적인 세부 사항으로 빠져들지 않고도 핵심 논증들을 다룹니다. 그는 충분히 연구했고, 상호보완주의와 평등주의 논증의 전 영역을 탐구합니다. 그가 아내 줄리(Julie)와 함께 동등한 결혼과 사역으로 나아간 여정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의 논증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 저작들 가운데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이 책은 설득력이 큰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데릭 모퓨(Derek Morphew) 박사, 국제 빈야드 성경 연구원(Vineyard Bible Institute) 설립자, 저서 The Kingdom Reformation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힘 있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남성이 이끌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테런 윌리엄스는 이를테면 신학, 개발학, 사회과학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활용하여, 상호보완주의 신학이 인간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의 저작은 논리적인 만큼 전인적입니다. 놀랍도록 읽기 쉬우며, 복잡한 문제들을 은혜와 솜씨로 다룹니다.

—미미 하다드(Mimi Haddad) 박사, CBE International 회장 겸 대표(CEO), 월드 릴리프(World Relief)와 월드비전 인터내셔널(World Vision International)의 신학 및 젠더 자문

제 생각에 이 책은 상호보완주의/복음주의 평등주의 논쟁에 관한 최고의 책입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 널리 읽혀야 할 탁월하고 일류인 책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여러 권 사고, 널리 빌려주십시오. 이 책은 복음이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를 부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케빈 자일스(Kevin Giles) 박사, 저서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헌사

저는 이 책을 먼저 줄리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제 영혼의 짝이며, 삶에서, 자녀 양육에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시련을 함께 견뎌 온 동반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딸 아이비(Ivy)에게 바칩니다. 아이비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용맹하며, 어리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네가 부름받은 경주를 기쁨과 확신으로 달려가기를, 너보다 앞서 수많은 여성이 견뎌야 했던 자기 의심은 조금도 없이 달려가기를 바란다.

우리 대륙의 사바나에서는 수사자와 암사자가 함께 포효하여 무리의 힘을 드러냅니다. 야생에서 그러하듯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44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하는 질문에 새롭게 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차례

서문 11

프롤로그: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14

1 생각을 바꾸다 17

제1부 – 여성의 추락과 회복 24

2 열등한 성 25

3 상호보완주의의 부상(과 그 함정) 43

4 낙원에서 맺어진 동반자 관계 64

5 구속된 남녀 관계 88

제2부 – (무)제한의 여성들 105

6 고린도의 여성들 106

7 디모데전서 2:11-15 133

8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171

9 사람에게 맞추시는 하나님 203

제3부 – 여성의 사역 220

10 구약의 힘 있는 여성들 221

11 복음서의 힘 있는 여성들 237

12 초대 교회의 힘 있는 여성들 253

13 은사(로마서 12장) 대 성별(디모데전서 3장) 281

제4부 – 여성들을 풀어 주라 297

14 성경적 여성성과 남성성 298

15 하와를 가정에서 해방하기 314

16 교회를 위한 실제적 함의 324

17 사람들 대 가부장제 335

에필로그: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353
부록 1: 하나님은 남성인가? 356
부록 2: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 (계속) 364
부록 3: kephalē의 의미 369
부록 4: 여성은 가르쳐도 되는가? 375
부록 5: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온 두 가지 추가 논증 380
부록 6: 왜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가 387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97
주요 참고 문헌 399
테런 윌리엄스의 다른 책 402



서문

제 삶의 대부분 동안,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동안, 저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교차하는 자리는 내려놓고 다시 집어 드는 여정이었습니다 … 가족과 저 자신과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품고 있던 기대들을 내려놓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고 있던) 저의 주체성과 목적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저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책,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을 쓴 남자는 그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겨우 17살 때였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신참이었고, 그는 그 후 20년 동안 우리 둘 다 집이라고 부르게 될 교회의, 머리가 부스스한 리더였습니다.

다섯 아이, 4채의 집, 18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한 번의 번아웃을 거친 지금도 저는 그때처럼 눈이 동그랗고, 이제는 우리 둘 다 머리가 부스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 아래에는 전투의 상처를 지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배우고 또 잘못 배운 것을 버리기를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상대를 보시는 방식에 더 가깝게 서로를 보는 법을 익혀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남편이 여성에 관한 자신의 신학을 바꾸는 여정에 처음 나섰을 때, 저는 그의 가장 맹렬한 비판자였습니다. 우리 둘 다 전에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여러 해 전에 바로 이 주제와 개인적으로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앙이 요동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말씀하셨는지, 지친 제 마음에 어떻게 부드럽게 속삭이셨는지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내 무릎 위에 앉아 있는데, 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느냐?”

그 순간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과소평가된 어떤 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형제들 곁에 서기 위해 밀치고 떠밀며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마음 가까이에, 제가 가장 있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할과 제한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겨지던 돕는 자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제 자리를 두고 여러 해 동안 씨름한 끝이었기에 그것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억압받는다고 느끼기는커녕, 사역의 기회가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설교했고, 모임을 인도했고, 중요한 리더십 결정에 참여했고, 남편과 동역하여 교회를 개척했고, 수천 명에게 다가간 여성 행사들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지난 지금, 남편이 우리가 틀렸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학으로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증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선, 저 자신은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입장을 바꾼다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여전히 우리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저 남편의 확신을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테런은 세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의 관계가(그리고 우리 교회가) 애초부터 전형적인 상호보완주의 관계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만큼 유능하고 부지런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훌륭한 여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과 잠재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대학 교육과 직장과 사역에서 일찍부터 성공을 누렸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남성들보다 제가 열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호보완주의 신학을 고수하려는 저의 고집(제 생각은 제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과 그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은 테런의 반응은,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등주의적인 동반자 관계였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 곁의 이 남자만이 아니라 이 책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사용하셔서 제가 여성으로서 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빚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전의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저는 제가 미묘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면서, 더 큰 꿈을 꾸기를 그만두고 제 목소리와 잠재력을 줄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저는 결코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거부당하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은사를 받은 많은 자매가 단지 미혼이라는 이유로, 혹은 리더가 아닌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학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상처를 주는데도 저에게는 유익했기에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 신학에 만족했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소망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아직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수십 년 전 하나님의 그 속삭임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참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으며, 결코 자리를 움켜쥐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모든 의미에서 제 형제들과 동등합니다. 다만 이제는 제 신학이 제 실천 및 삶의 경험과 일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이 책의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 주어, 여러분이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맹렬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줄리 윌리엄스



프롤로그: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 역사의 대부분 동안 사람들은, 여성이 그 밖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름이 나오는 인물 3,000명 가운데 200명뿐입니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가정이 수세기 동안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태를 택하셔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통계나 규모에 관심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주역을 맡는 성경의 부분들에서조차, 비록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남녀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언뜻 보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해 주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최초의 유대인입니다. 남자이고, 자유인이며,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의 자손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가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을 끔찍하게 대한 일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하갈을 이용해 아이를 얻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그는 질투하는 아내가 그녀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참담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와 태중의 아이를 구해 주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개입하셔서 그녀를 구하시고, 그녀와 그 아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확신을 주시며 그녀를 돌려보내십니다. 이는 그분이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되울리는 약속입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1]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첫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그분은 한 여인 곁에도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아무 여인이 아니라, 사회적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여인, 곧 여종입니다. 상한 마음과 절망한

1. 창세기 16:10

영혼과 유린당한 몸으로 사막 광야에서 길을 잃은 하갈을 하나님은 보시고, 당시의 사회적 조건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을 미래의 위대함을 그녀를 통해 불러내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인정에 응답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지으신 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2] 그녀의 돌파구는 더 나은 신학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당시 사회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봅니다. 그녀는 성경의 긴 이야기 초반에 심긴 씨앗이며, 그 씨앗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자유인뿐 아니라 종도,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도, 그리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위대함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책을 쓰는가

저는 여성들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한하는 그릇된 교리의 문을 활짝 부수어 열고, 유리 천장을 깨뜨리고, 너무 많은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살아온 자기 의심의 우리를 열어젖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을 들여다보며 다시 발견함으로써 이 일을 합시다.

저는 남성들을 위해 씁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성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여러분이 인류의 절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절반 이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간됨과 제자도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시는 방식으로 여성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자유와 성화를 경험하는 데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러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회의론자들을 위해 씁니다.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할 수 있는지, 또 그래도 되는지, 특히 교회 리더십에 관해서 진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편견과 물려받은 믿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성경을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수많은 웹사이트, 단체, 책, 심지어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 퍼져 온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씁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기간 그러했듯이 여러분이 상호보완주의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믿고 실천하고

2. 창세기 16:13

금지하는 것이 신중하게 숙고된, 성경 전체에 근거한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신학적 입장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경우에는 삶 전체의 궤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많은 가정에 도전해야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처럼, 이 책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향한 나의 깊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3] 제 소망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전율과 과분한 은혜 말입니다.

저는 여성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선 혁명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유감스럽게도 잔치에 늦게 온 사람 같습니다. 자매들의 자유가 이미 눈앞에 보이는 전투의 끝 무렵에야 자기 몫을 보태는 북 치는 소년 같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저는 이 시점에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북을 쳐야 한다는, 거의 거룩한 강권을 느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회가 크게 전진했지만, 저는 가부장적 신학을 붙드는 선의의 교회들이 초래한 깊이 우려스러운 결과들과 늘어나는 (그러나 말해지지 않는) "희생자 수"를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갈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꺾인 영혼과 태어나지 못한 잠재력과 유산된 꿈을 안고 광야로 내몰린 수많은 여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은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는 저의 여정입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전직 가해자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무디고 거침없는 자신감에서 출발하여 방향을 잃게 만드는 복잡함을 지나, 겸손한 경외에 이르는 순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성경에 있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미래의 더 효과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에 대한 소망 가득한 시선으로 글을 쓰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며 씁니다. 제가 이끄는 일을 도왔던 바로 그 교회들을 저도 모르게 약화시켜 온 방식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가 의도치 않게 그들의 세계를 좁게 만들었을지 모르는 모든 여성에게 드리는 저의 사과이며, 제가 한몫을 했던 잘못들을 바로잡으려는 저의 시도입니다.

3. 고린도후서 2:4



1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원칙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다.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일 수 있다."
애덤 그랜트(Adam Grant)

Oxford Dictionary는 가부장제를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사회 조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저는 한때 우리 교회에서 가부장적 교리를 앞장서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4] 대표 설교 목사로서 저는 해마다 여러 차례 수백 명의 새 교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성이 교회와 결혼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면서도 구별된 역할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호 보완성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할이 여성에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남성만이 장로와 목사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라는 문화적 압력이 엄청나지만, 우리는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방향을 찾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히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 신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고 우리는 과거의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리더십 팀은 이 교리를 다시 검토하고, 이 교리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변호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존 해석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진지한 의심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존 파이퍼(John Piper)와 티모시 켈러(Timothy Keller)처럼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별과 리더십을

4. 저는 이전의 제 입장을 규정하는 데 patriarchy(가부장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르쳤던 것에 이보다 더 가까운 단어를 영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포함한 온갖 문제에서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수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잘 훈련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이 주제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고 숙고된 변호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서, 열정을 다해 거침없이 이 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도, 여성이 교회에서 이끄는 것에 반대하는 논증, 그리고 찬성하는 논증을 깊이 탐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이 주제에 관해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제 확신은 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목소리 높여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해 왔는지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제 확신이 반석처럼 견고한 성경 주해 위에 세워졌다고 가정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5]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했고 문화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많은 저자와 학자가 어떻게 그들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문화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의 여정이 이 책에 풀어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경솔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 잠언의 권고를 적용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6] 두 번, 세 번 확인하기 위해 저는 모든 돌을, 곧 모든 본문과 모든 논증을 뒤집어 보았고, 그것을 모든 측면에서 거듭거듭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가장 해방감을 준 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의와 결정적인 순간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가부장제 또는 성별 위계라는 말로 저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떤 영역을 가리키든 간에 그 영역에서 남성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도록 위임받았다는 가정을 뜻합니다. 남성을 불량배, 약탈자, 책임 회피자, 권력에 굶주린 자로 그리는 세속 문화의 뉘앙스와는 달리, 제가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 남성이

5. 이런 경험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앤드루 바틀릿(Andrew Bartlett)은 "Men and Women in Christ"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이르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 여성의 사역에 관해서는 양쪽 모두에 상당히 강력하고 팽팽하게 균형 잡힌 논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 (p. 15)
6. 잠언 18:17

언제나 억압자라거나 그들의 남성성이 필연적으로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무적이게도, 점점 더 많은 가부장적 교회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책에서 저는 주로 상호보완주의라고 불리는 특정한 형태의 가부장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고안된, 최근의 그리고 매우 영향력 있는 수정된 가부장제의 한 유형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에서 여성이 설교하고 목회적 리더십을 맡는 것을 배제하고, 결혼에서 아내의 복종을 지지하며, 그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사회에서의 여성 리더십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상호보완주의는 주로 남편을 돕는 자, 살림하는 자, 자녀를 기르는 자로서의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짧은 역사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수의 교회가 최근 들어 그 가혹한 함의들을 누그러뜨리려 시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들은 여성이 설교하도록 허용합니다(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남성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낮은 단계의 리더십에서만 그렇습니다). 여성은 사회에서 최고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교회에서 담임급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견이 갈리면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라고 부릅니다.

20년 동안 저는 자신을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교회 환경에 있는 다른 많은 지도자처럼, 저도 은사가 많은 여러 여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나 기여를 제한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저는 원래의 상호보완주의 성경 해석 방법이 옳다면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는 제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변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에는 더 포용적인 실천을 뒷받침할 건전한 성경적 논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하든지—여성이 설교하거나 이끌거나 심지어 남성과 함께 이끄는 것도 허용하지 않든지—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왜 믿는지 더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상호보완주의가 틀렸다면, 그것의 온건한 형태라도, 인종차별의 온건한 형태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곧 모든 1차 자료와 2차 자료 하나하나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더 면밀히 조사해 보니, 존경받는 신학자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톰 슈라이너(Tom Schreiner),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Andreas Köstenberger) 같은 이들)과 사랑받는 목회자들(존 파이퍼, 티모시 켈러 같은 이들)이 모두 영향력이 큰 여러 역할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결정적으로 부실한 성경 분석과 균형 잡히지 않은 논증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을 최고위 리더십에서 배제할 물샐틈없는 성경적 논증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논증을 아무리 많이 내놓을 수 있다 해도, 하나하나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저 한데 모은다고 해서 더 견고해지지는 않습니다. 얇은 카드를 많이 쌓는다고 카드로 만든 집이 견고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성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실로 설득력 있는 성경적 논증들을 발견하고 저는 똑같이 놀랐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를 보는 접근에 헌신했기에, 저는 결국 남녀 상호주의라는 신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7] 저는 같은 뜻의 용어인 평등주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 깃발 아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며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성경이 지지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이 책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첫째, 상호보완주의자들도 성평등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이 용어가 성별에 적용될 때 때때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모든 구별을 부정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셋째, 평등만이 결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동반자 관계와 협력하는 하나 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사용하는 정의이자 이 책에서 더 자세히 풀어 갈 입장을 소개합니다.

남녀 상호주의는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입장으로,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면서도 동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나란히 섬기고 협력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은사와 전문성은 성별과 상관없이 인정받고 기려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학은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여성에 대한 신학, 곧 성경 전체를 놓고 올바르게 맞추어 보았을 때 성경이 여성에 대해 가르치는 바입니다.

7. 처음에 저는 “gender mutualism”(젠더 상호주의)을 택했지만, 서구 문화에서 “gender”가 형용사로 쓰일 때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ex mutualism”(성 상호주의)도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것 같았기에,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non-sexy) “male–female mutualism”(남녀 상호주의)에 정착했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1500년대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절실히 필요했던 재검토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자체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틴어 문구 ecclesia semper reformanda에서 나온 말입니다)라는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칼뱅과 루터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부지런히 성찰하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피는 지속적인 과제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수 세기를 이어 온 교회에서는 기이한 것들, 곧 지나간 시대의 낡고 쓸모없는 유물들을 집어 들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려면, 그런 것들은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세대의 결정적인 개혁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교회사를 읽으면서 저는 성령께서 다양한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실천에 대해 교회를 점점 더 큰 명료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감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오랫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빼앗겨 왔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려 했다면, 그 뒤를 이은 개혁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나이, 인종, 계층,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의 대부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내는 일을 소수의 선택된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 왔습니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1436년 인쇄기의 등장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신학과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고상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를 읽고 말할 줄 알며 희귀한 성경 사본을 접할 수 있었던 사제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그리고 실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힘든 주해 작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버림으로써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외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동료 목사에게 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바쁜 목사로서 저는 언제 시간을 내어 제 신학을 성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개혁이 누군가를 욕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열하는 진영들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희화화를 넘어서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의 뻔한 두 "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자는 모두 쓰레기라거나 여자는 모두

이세벨이라는 듯이, 성별은 너무나 자주 서로 맞서도록 내몰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대화의 양편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제가 아는 많은 남성과 여성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한 여성 목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성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여성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길을 걷습니다." 같은 정신으로, 저는 진리와 정의를 정직하게 추구하는 데 삶을 바친 (역시 양 진영 모두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 특정한 문제에서는 팀 켈러나 존 파이퍼 같은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을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평면적인 얼굴마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저 자신의 많은 부분이 그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저는 지금도 여러 면에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을 평가하는 교회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문화 전쟁"에도, 가치관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법에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회의 목소리와 여성들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귀 기울이되, 이 대화에서 우리를 이끄는 일차적인 동력은 성경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구속적인 적용이어야 합니다.

개혁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든, 여러분의 확신에 친절과 온유와 인내를 반드시 더하십시오.

저는 논쟁을 즐기지 않으며,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다르게 믿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상호보완주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 형제자매로서 최고로 존중합니다. 우리의 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기독교 리더십을 맡은 기간의 대부분을 상호보완주의자로 지낸 제가,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어딘가 부족하다고 암시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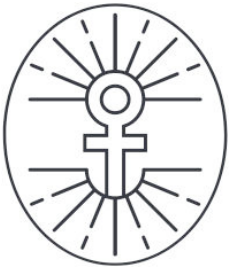
나중에 더 자세히 밝히겠지만, 여성 평등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문화 현상에 교회가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례 연구일 것입니다. 곧, 역사적 교회가 자신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문화적 가정들을 흡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분명히 틀릴 수 있으며—실로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틀리며—그러므로 언제나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 우리의 문화적 눈가리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에 말할 뿐 아니라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질문과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그들의 반론과 그들의 소망과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개 새로운 문화와의 이런 상호작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가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잘못 읽어 온 방식들까지도 말이다.[8]

사도 바울에 따르면,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씻어" 자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점점 더 영광스럽고 티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에 비추어 저는 이 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온갖 곳에 분명 결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이 예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작은 역할이나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8.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ch. 8.



제1부

여성의 추락과 회복



2
열등한 성

"여자는 남자의 타락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 손가락 끝으로라도, 어찌 그런 똥자루를 껴안고 싶어 할 수 있겠는가?" 클뤼니의 오도(Odo of Cluny), 936년[9]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여성에 대해 믿는 것이 교회가 언제나 믿어 온 것이라고 순진하게 가정합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답이 역사 속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내놓았을 답보다 왜 훨씬 더 나은지 살펴봅시다.

이 책 전체에서 우리는 주로 성경을 연구하겠지만,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최근에, 가부장제를 "하나님의 선한 설계"로 어리석게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사에서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역사에서 아주 최근까지, 남성이 여성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심받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가장 큰 종교들은 모두 그것을 가르쳤고, 대부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수록, 남성들은 여성을 특정한 영역에만 가두려는 경향을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슬프게도 기독교 세계는, 그런 억압을 뒤엎을 내재적 자원과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는데도, 대체로 남성 우월이라는 생각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부장제라는 생각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믿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처럼 방대하고 복잡한 책은, 대략적으로 말해, 현실에 대해 사람이 미리 내린 어떤 결론이든 뒷받침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제 나라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에, 가장 학식 있는 "성경적"

9. Patralogia Latina에서 인용, Christine Klapish-Zuber (ed), A History of Women, ch. 1에서 재인용.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성경이 자신들의 인종차별을 꾸짖게 하는 대신, 자신들의 인종차별을 성경 속에 읽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의미를 비틀어 버리는 방식으로 본문을 휘둘렀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인종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20세기 초의 인종 분리 정책에서 비슷한 것을 지지했습니다. 노예 소유주였다가 자기 길의 잘못을 깨달은 존 마셜 할런(John Marshall Harlan) 같은 반대자들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내놓았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자신이 속한 신학적 진영에서 홀로 외치던 목소리였던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종을 근거로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평등과 양립할 수 없는 예속의 표지다."[10]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흑인과 백인의 평등이라는 생각에 경의를 표했을지 모르지만, 흑인들을 지정된 지역으로 분리하고 그들의 투표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평등을 훼손하고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교회 안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훨씬 더 고질적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대륙에서, 거의 모든 세기에 걸쳐, 거의 모든 교회가 여성은 "다르고 열등하다"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로 수정하려는 상호보완주의 교회의 최근 시도가 고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할런의 생각을 되울려 성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별을 근거로 교인들을 분리하는 것은 평등과 양립할 수 없는 예속의 표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점을 더 충분히 다루겠지만, 자신들의 입장이 교회의 역사적 입장이라는 상호보완주의자들의 주장은 심각한 역사적 기억상실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단언하겠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생각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교리가 된 것이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11]

어쩌면 이것이 역사적 교회의 가장 만연하고 오래 지속된 죄일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믿음은 대체로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성공을 거둔 뒤에야 비로소 사회는 여성이 실제로 남성과 동등한 지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여성에 관한 자신의 교리를 급속히 수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와서였습니다. 거의 2천 년 동안 교회의 주요 교사들은 거의 모두 여성에 대해 낮고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그들은 이 시각을 주변 문화에서 물려받았고, 이

10. https://bit.ly/3mzfAEq
11. 이 점은 윌리엄 위트(William Witt)의 공로입니다. 그는 "Icons of Christ"(3장)에서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대부분 동안 교회의 교리였던 여성 열등성의 신학에 대한 그의 연구는 제가 이 장을 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각에 성경으로 도전하는 대신 자기 문화의 여성 혐오가 성경 읽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이토록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고 가르치는 상호보완주의도 남녀 상호주의와 똑같이 교회의 역사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12] 두 입장 모두 불과 6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하며, 따라서 상호보완주의가 남녀 상호주의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의 이전 입장인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는 그 둘보다 훨씬 더 젊으며, 이 모든 입장 가운데 역사적 선례가 가장 적습니다.

교회의 표준 가르침이 된 여성 열등론

기독교가 존재한 처음 몇 세기 동안 수많은 여성을 교회로 이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획기적인 태도, 초기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았던 여성들, 바울 서신에 따른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한 방향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 방향은 여성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문명의 이전 어느 시대에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위를 여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여성을 높이 보고 높이 대우했는데도, 사도 이후 시대의 교회에서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로마의 이웃들보다는 여성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여성이 열등하다는 생각이 빠르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역사 속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의 글 가운데 일부를 가려 뽑은 것으로, 널리 퍼져 있던 이 시각을 들여다보게 해 줍니다.

교부 오리게네스(Origen, 184–253년)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13]는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여성이 탁월하거나 거룩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더라도 단지 그 말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완전한 침묵을 요구했습니다.[14] 마찬가지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 347–407년)는 여성이 무엇이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여자는 아담을 한 번 가르쳤고, 그것도 잘못 가르쳤다. … 그러므로 여자는 교수의 의자에서 내려오라! 여자는 이제 죄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었다."[15] 그는 특히 남성

12. 앤드루 바틀릿도 "Men and Women in Christ"(p. 6–10)에서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역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다."
13. 고린도전서 14:35
14. Patricia Cox Miller (ed), Women in Early Christianity에서 재인용
15. Elizabeth A. Clark, Women in the Early Church에서 재인용

목회자들에게 여성이 그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여자가 죄에 기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 더 각별히 미리 조심해야 한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의 눈뿐 아니라 정숙한 여자의 눈도 마음을 꿰뚫고 어지럽히기 때문이다.”[16]

라틴 기독교의 아버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160–225년)는 한층 더 가혹했습니다. “여자는 하수구 위에 세워진 신전이다.” 그는 여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가) 하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 시대에도 살아 있으니, 죄책 또한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너희는 마귀의 관문이다. 너희는 신적 율법을 처음으로 저버린 자다. 너희는 마귀가 감히 공격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던 그를 설득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그토록 쉽게 무너뜨렸다. 너희가 받아 마땅한 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어야 했다.[17]

그의 독설에 찬 비난 뒤에는, 그가 알던 회중 가운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어떤 남자의 직무[나] 사제직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18] 테르툴리아누스는 로마의 정치적 방식을 교회 구조에 도입하여, 자기 시대의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조직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조직체에서는 오직 남성만이 어떤 종류의 리더십에든 온전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의 정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성적 순결만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순결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긴 논고들을 썼습니다. 여성은 더러운 몸을 씻어서는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둡고 형태 없는 옷으로 가려야 하며, 남자를 유혹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 나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성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특히 죄에 얽매여 있으므로, 그들을 분리하고 종속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년)는 여성에게는 남성과 떨어진 고유한 존엄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기능인 돕는 자로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자는] 혼자서도, 그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와 똑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19] 세기가 흘러도 여성에 대한 이 낮은 시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년)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교회의 위대한 지성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자신이 알던 여성들에게서

16. Philip Schaff (ed), St. Chrysostom에서 재인용
17. Alexander Roberts (ed), Tertullian, Minicius Felix, Commodian, Origen에서 재인용
18. Karen Jo Torjesen, When Women Were Priests에서 재인용
19. Augustine, De Genesis ad litteram, vol. 9.

그에 견줄 만한 지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결함 있는 인간이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또 다른 남성을 낳았을 남성 정자에 사고가 생긴 결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되살림으로써 교회의 성별 신학에 기여했습니다. 이 생각이 함축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자는 본성상 남자에게 복종한다. 남자에게는 이성이 우세하기 때문이다."[20]

아퀴나스는 여성이 남성과 인간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이것은 사상적으로 반가운 혁신이었습니다)과 여성이 남성의 "돕는 자"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곧바로 단서를 달아, 성적 생식을 제외하면 "다른 남자가 언제나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받는 얼마 안 되는 도움을 그녀를 이끄는 것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의 이익과 선을 위해 그들을 사용한다. … 어떤 이들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이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면, 인류 가족에는 좋은 질서가 결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21]

아퀴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성을 지녔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성은 그의 스승인 도미니코회 신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 the Great)에 의해 여성에 관한 끔찍한 생각들로 채워졌습니다. 알베르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이며, 남자에 비해 결함 있고 불완전한 본성을 지녔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 여자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짓말과 악마적인 속임수로 얻으려 한다. 그러므로 모든 여자를 마치 독사와 뿔 달린 마귀를 대하듯 경계해야 한다 … 악하고 비뚤어진 일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영리할, 곧 더 교활할 수 있다. 이성이 남자를 모든 선으로 이끌듯이, 여자의 감정은 여자를 모든 악으로 몰아간다.[22]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이자 언제나 논쟁가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년)는 여성을 인간답게 대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낡은 생각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아주 분명하다. 여자는 아내가 되든지 창녀가 되든지 하도록 지음받았다." "지혜로워지려는 욕망보다 여자에게 더 어울리지 않는 옷은 없다." "남자는 넓고 큰 가슴과 작고 좁은 엉덩이를 가졌으며, 여자보다 더 많은 이해력을 가졌다. 여자는 작고 좁은 가슴과 넓은 엉덩이를 가졌는데, 이는 여자가 집에 머물러 가만히 앉아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음란한 여자에 대해 경고하는 한 구절을 주석하면서, 루터는 그것을 남성과 여성에 관한 자기 생각을 쏟아 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0. Aquinas, Summa Theologica, 1.92.1. www.bit.ly/3CD8B2V
21. 다른 곳에서 아퀴나스는 여성이 교회에서 성품성사를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이유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여자는 종속 상태에 있으므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없다."
22. Filthaut Ephrem (ed), Albertus Magnus: Quaestiones Super De Animalibus, vol. 15, q. 11.

여자는 남자 곁에 있으면서 자녀를 돌보고 기르며 …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와 나머지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여자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남편 위에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잘못과 악에서 비롯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그러므로 여자들은 결코 성공적으로 다스리지 못한다.[23]

역사 속 주요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파괴적이기는 했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녹스(John Knox)는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혐오자로서 단연 으뜸입니다. 가톨릭 여왕들, 곧 스코틀랜드의 기즈의 메리(Mary of Guise)와 잉글랜드의 메리 튜더(Mary Tudor)를 공격하는 격렬한 글에서, 그는 자신의 논증이 성경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권을 갖는 것이 자연에 있어서 괴물 같은 일 그 이상임을 계시하셨다."[24] 녹스에 따르면, 여성은 본성상 약하고, 연약하고, 참을성이 없고, 무력하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며,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여성이 이끌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실로 여성의 조언과 리더십에 복종하는 남성은 그로 인해 스스로 공직에서 자격을 잃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인용하며, 여성은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와 남성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연민도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와 안에서 그녀가 받아 마땅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의 모든 욕구와 의지를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뜻에 내맡겨야 합니다. 녹스는 이 모든 것이 가정과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해 함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가르치거나, 재판하거나,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높여진 여자는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가장 어긋나는 것이다."

동료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의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동시에 명령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본성상(곧 하나님의 통상적인 법에 따라) 오직 순종하도록 태어났으니,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gynaikokratian, 곧 여자들의 통치를 부자연스러운 괴물 같은 것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25]

청교도 존 도드(John Dod)는 1603년에 쓴 십계명 강해에서 이렇게 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적인 두려움은 외적인 온순함과 겸손으로 드러나야 한다. 아랫사람에게 두려움과

23. Luther's Works, vol. 15, 전도서 7:26 주석, p. 130.
24. John Knox,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www.bit.ly/3EG88xc
25. John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디모데전서 2:12 주석에서.)

경외가 없다면, 윗사람에게 건전하고 한결같은 존경이 바쳐질 수 없기 때문이다."[26]

가장 뛰어난 성공회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 1554–1600년)는 여성을 얕잡아 보는 이 비참하고 끈질긴 전통을 이어 갔습니다. 그는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에서 여성의 "판단력은 그 성 때문에 흔히 가장 약하다"고 말했습니다.[27] 그는 결혼식에서 왜 아버지가 신부를 남편에게 넘겨주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본성과 성의 나약함(imbecility) 그 자체가, 그녀로 하여금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지도받고 인도받고 지시받도록 묶어 둔다."[28]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년)는 자신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이 사역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여성의 일차적인 사역은 가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숨 가쁜 순회 사역 여행 중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집에 머무는 여자로서의 처지를 받아들이라고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더 이상 주도권을, 권력이나 돈이나 칭찬을 얻으려고 다투지 마시오. 하나님과 나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사사롭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 당신이 지금 당장 묻힌다 해도, 당신의 인품이 인류에게 무슨 중요성이 있겠소? 혹은 당신이 아예 살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대의에 무슨 손실이겠소?"[29]

제가 이 모든 인용문을 제시하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부들이든, 중세 교회든,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청교도든, 성공회든, 감리교든, 교회의 역사적 입장은 언제나 여성이 "다르고 열등하며" 따라서 성적 생식과 살림 외에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에 대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열등함과 종속을 뒷받침하도록 그럴듯하게 구부릴 수 있는 성경 본문은 모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대부분 동안, 한 여성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었다면, 그녀는 모멸적이고 굴욕적인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은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문시되지 않는 가정, 곧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본래부터 그리고 본질적으로 덜 지적이고, 더 죄스럽고, 유혹에 더 약하고, 정서적으로 더 불안정하다는 생각은, 여성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도 없다는 반박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26. John Dod, A Plaine and Familiar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ements
27. Richard Hooker,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Preface 3.13.
28. Richard Hooker,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Book 5, 43.5. 고대 영어에서 imbecility는 약하거나 발달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29. www.bit.ly/3nQszRt

성경을 이기는 문화

교회가 계속해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렌즈로 문화를 읽는 대신 문화의 렌즈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속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년)의 저작들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뿌리에 있는 문화적 가정들을 형성했고, 이 가정들은 다시 성별 차이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이해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이 기형의 남성이며, 그에 따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정해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어둡고, 은밀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제력이 없고, 경계가 없는" 존재로 묘사했고,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은 "밝고, 정직하고, 선하고, 안정되고, 자제력이 있으며, 경계가 확고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30]

이런 생각들은 그리스-로마 문명 전반에 걸쳐 문화적 태도와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가부장제는 로마 제국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여성에 대해 몇몇 긍정적인 관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추하고 낡은 생각들과 뒤섞었습니다. 교회사 교과서들은 교회 역사의 이 초기 단계를 특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성에 관한 "진리 탐구"로 묘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의 본성에 관한 거짓말들이 은밀하게 교회 교리 속으로 흡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원론이라고 불리는 플라톤 철학의 한 측면이 초기 교회에 도전이 되었고, 여성 비하를 강화했습니다. 이 이단 사상에서 실재는 몸 또는 물질(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여겨짐)과 영 또는 정신(본질적으로 선함)으로 나뉩니다. 세상을 보는 이 그릇된 방식에는 성별 범주도 덧씌워졌습니다. 더 이성적이라고 여겨진 남성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반면, 두뇌가 아니라 몸으로 규정된 여성은 육적인 존재로, 그리고 단지 남성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비성경적인 이분법이 기독교 사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성은 비이성, 육체, 그리고 육체의 죄스러운 욕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여성의 성은 본래부터 죄스럽다는 이 이단적 생각은 교회를 끔찍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제는 성 자체가 타락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독자들에게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을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 그들의 영혼에서 제거된" 곳으로 상상하게 했습니다.[31] 그러나 타락 이후에 성은 필요악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원죄"를 물려주는

30. Kayla Huber, "Everybody's a Little Bit Sexist."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0에서 재인용.
31. Elizabeth A. Clark, Women in the Early Church, p. 122–23.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는 일종의 성병이었습니다. 성에 대한 이 슬픈 이해는, 특히 정체성 전체가 성적 생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여성들에게서, 동정에 대한 과도한 존중, 결혼 안에서도 성을 피하는 금욕,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중에는 사제 독신제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피해야 했고, 여성은 자기 자신을 피해야 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팔라디우스(Palladius, 386–430년)는 이집트 주변의 사막에서 은둔자로서 가난과 정결과 고독 속에 살던 2만 명의 여성에 대해 전하는데, 그들은 정죄받은 자신의 성이라는 짐 아래에서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택한 이 은둔자의 삶은 훗날 수도원에서 독신, 가난, 섬김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성별에 따라 나뉜 수도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문화에서 "가장 경건한" 여성들은 결혼을 피했고, 가능하다면 결혼 안에서의 성도 피했으며, 자신을 최대한 매력 없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엘리자베스 클라크(Elizabeth Clark)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교부들의 태도를 묘사하는 가장 알맞은 단어는 양가감정이다. 여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남성에게 주신 그분의 좋은 선물이었다—그리고 세상의 저주였다. 여성은 정신과 성품 모두에서 약했다—그러면서도 불굴의 용기를 보였고, 놀라운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허영심 많고, 거짓되고, 정욕이 넘치는 존재였다—그러면서도 그들은 남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성적 접촉을 피해 달아났으며, 사형 집행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굵은 베옷과 재로 자신을 단장했다.[32]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 교회 신학에 융합된 이 그리스-로마의 생각들은 중세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양가감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편으로 여성은 악하고 열등한 존재로 그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신의 성을 지워 버릴 수 있다면) 미덕과 거룩함의 본보기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런 양가감정이 그토록 깊이 뿌리박혀 있었으니, 사회와 교회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려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녀를 찾아내 정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신의 종속적인 지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는 여성을 찾아내고, 그녀가 고발당한 무엇이든 "자백"할 때까지 심문관들이 고문하게 한 다음, 즉결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남자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그토록 쉽게 악마화된 여성들에게 거의 동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사악함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악함보다 크다. 용의 독은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잘 치료되며 남자에게 덜 위험하다.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독 있는 짐승을 피하듯 그들을 피할 것이다."[33]

32. Elizabeth A. Clark, Women in the Early Church, p. 15.
33. Karen Jo Torjesen, When Women Were Priests, p. 223에서 재인용.

종교개혁 이전까지 여성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생활과 가정의 역할을 아예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가 되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독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은 여자 수도원의 수녀원장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세 역사는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 가운데 일부에게 영적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와 시에나의 카타리나(Catherine of Siena)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정의 역할을 버린 뒤, 이전에는 남성들만 가졌던 영적 권위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대변했습니다.

이처럼 성별을 내려놓은 영적 역할들 밖에는 오직 예속과 수치만 있었습니다. 2세기의 클레멘스(Cleme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본성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일어나야 한다."[34] 이 모든 것은 교부들이 하나님이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에 잘못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화의 성차별적 전제를 성경 본문에 읽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성경이 일상 언어로 번역되고 인쇄되면서 가능해진 종교개혁은 교회가 교리적 여성 혐오를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창시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복음뿐 아니라 결혼과 성의 선함에도 눈을 떴습니다. 이른바 독신의 영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결혼과 성을 기뻐한 루터와 칼뱅(Calvin)은 1400년에 걸친 교회의 가르침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직 사제들과 목회자들이 결혼했고, "목사의 아내"는 영적 존엄을 지닌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와 가정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영예를 얻었습니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Katherine von Bora)는 그의 여섯 자녀를 키웠고, "1층에만 방이 마흔 개나 되는 거대한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 건물에서 헛간과 양어장과 과수원, 수많은 하인과 자녀들, 병문안 온 손님들, 하숙하는 학생들, 교회 지도자들을 총괄했다."[35]

그러나 이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뱅과 녹스의 끈질긴 성차별적 가르침 때문에 가부장제는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루터의 생각에 하와의 죄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종속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신교 영방은 모두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는 혼인 법령을 제정했습니다.[36] 게다가 루터는 여성의 소명을 교회도 아니고 더 넓은 사회도 아닌 가정에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지고 다니듯이,

34. St. Clement, Pedagogues II, 33, 2.
35. Barbara MacHaffie, Her Story, p. 63.
36. Beth Allison Barr,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ch. 4.

아내는 집에 머물며 가정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아내는 바깥의 일과 국가에 관한 일을 관리할 능력을 박탈당한 자이기 때문이다."[37]

"개신교가 여성에게 남긴 유산은 매우 모호했다." 린달 로퍼(Lyndal Roper)의 말입니다. "여성됨에 내재한 수치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종속은 남았고 가정에 매이는 일은 더 늘었다. 종교개혁은 여성이 남성과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기혼 여성을 남편의 머리됨 아래 단단히 묶어 두는 '새로워진 가부장주의'를 열었다."[38] 가톨릭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이유로 존경했던 마리아 대신, 루터는 부엌에서 일한 마르다를 높이는 듯했습니다. 루터와 칼뱅이 수도원을 폐쇄하자, 한때 이런 곳들이 소수의 여성에게 주었던 독립과 사역의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성 열등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과 미국을 휩쓴 잔혹한 마녀사냥은 교회가 여성을 낮게 보는 시각을 개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Innocent VIII)가 마녀를 기소하라는 칙령을 내리자, 이후 수십 년 동안 거짓으로 고발당한 약 20만 명의 여성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지한 신학자들은 『마녀의 망치』(Hammer of Witches)라는 문서를 써서, 왜 여성이 그토록 쉽게 마귀에게 자신을 넘겨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혀가 가벼우며, 결국 "굽은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유혹받았고, 성이 원죄를 전달하는 통로였으므로, 마녀는 저마다 마귀와 결탁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죄로 꾀어낸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결함(굽은 갈빗대) 때문에 여자는 불완전한 동물이므로 언제나 속인다. … 여자는 마술로든 다른 수단으로든 갖가지 복수를 찾고, 곱씹고, 가한다. 여자들 가운데 그토록 많은 마녀가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 모든 마술은 육욕에서 나오는데, 여자의 육욕은 채워질 줄 모른다."[39] 이 죽음 가운데 단 6%만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철저하게 여성 혐오적이었던 종교개혁의 자녀들은 마녀 화형에서 가톨릭을 능가했습니다. 루터의 독일이 처형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스위스, 잉글랜드, 네덜란드처럼 주로 개신교인 다른 나라들이 35%를 차지했습니다.

개혁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자리를 높이는 데 실패한 곳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더 넓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내세운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성차별을 그대로 붙들고

37. Susan C. Karant-Nunn and Merry E. Wiesner-Hanks, Luther on Women
38. Lyndal Roper, The Holy Household, p. 1–2, Barr, ch. 4에서 재인용.
39. H. Kramer and J. Sprenger, Malleus Maleficarum

있었습니다.[40] 평등에 관한 사상으로 훗날 노예 해방에 기여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년)는 여성의 곤경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교육 전체는 남성과 관련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남성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용하며,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는 것 … 이것이 모든 시대에 여성의 의무이며, 어려서부터 여성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년)의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위계 철폐에 관한 생각에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에게는 "[아내를]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아내의 의무는 자연법의 요구이자 도덕적 의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진보적 관점으로 알려졌던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78년)의 『백과전서』(Encyclopédie)조차 여성을 "약하고, 소심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앙심을 품고, 피상적이며, 기만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은 열등하며 남성 상대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41]

이 장을 쓰면서 저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책이 보여 주겠지만, 그동안 내내 교회는 바로 자기 성경 안에 평등하게 하는 힘의 금광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예속 끝에, 마침내 성경의 남녀 평등 사상 가운데 일부가 더 넓은 문화적 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문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사상들의 함의를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의 다수는 마치 자기 구원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가부장주의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성경적인 신조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성의 부상

현대 역사가라면 누구나 증언하겠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여성들은 태초부터 자신들의 몫이었던 열등성과 종속과 가정에만 국한된 역할에 맞서 왔습니다. 이 저항은 느리지만 꾸준했고, 좌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공은 이제 사회 대부분이 성적 학대, 강간, 여성에 대한 폭력, 교육과 일에서의 불평등한 기회, 불평등한 임금, 성차별적 법률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40.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이 단락은 Alice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1에 빚진 것입니다.
41. 다행히도 훗날 여성 해방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비록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콩도르세 후작(Marquis de Condorcet, 1743–1794년)은 투표권과 공직을 맡을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이 공적 영역에 온전히 들어갈 것을 옹호하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 1748–1793년)는 보편적 평등을 표방하는 체제 안에 성별 위계가 있다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자유와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는 데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끊임없는 남성의 폭정뿐이다. 이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의 "자유"라는 개념을 개인의 구원에 한정했지만, 최근 몇 세기의 신학적 발전은 이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더 넓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새롭게 깨달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민주주의, 노예제 폐지, 노동자의 권리, 사회 복지, 인종 평등, 보통 선거권, 직장 내 여성 평등 같은 위대한 사회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여성의 존엄을 높이는 데 이루어진 진보의 한 예로 여성 참정권을 들어 봅시다. 초기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838년 핏케언 제도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기 전까지는 어떤 민주 국가도 여성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침내 지방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를 허용한 뒤로는, 민주적 선거를 치르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물론 이 혁명의 본래 씨앗은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하신 방식과 갈라디아서 3:28에 나오는 바울의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성의 점진적 해방에는 다른 많은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1800년대에 주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여성들은 온갖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사회 운동 단체를 만들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의 감격은 이전에는 여자 수도원과 수도회에서만 맛볼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글 읽는 법을 가르치려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평화, 절제, 교도소 개혁, 사창가 폐쇄를 위해 로비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세상을 바꿀 자신들의 힘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도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서 모든 신조와 문화와 인종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 여성이 사회의 이등 시민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화에서 여성이 인식되는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학자가 이 운동의 초창기에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꽃핀 여성 해방 운동은 깊은 복음주의적,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42]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 혁명 가운데 하나 속에서, 마침내 여성들이 가장 큰 자유를 쟁취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들의 대의는 다른 요인들의 도움도

42.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39: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동등성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져 있다고 믿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끈 운동이었다. 그들은 노예제와 여성의 예속 모두에 반대했다. '제1물결 페미니스트'의 지도자 가운데에는 복음주의자들인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와 캐서린 부스(Catherine Booth),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어맨다 베리 스미스(Amanda Berry Smith), 캐서린 부시넬(Katherine Bushnell), A. J. 고든(A. J. Gordon), 프레드릭 프랜슨(Fredrik Franson)이 있었다."

받았습니다.

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와 임금은 남성에게 돌아갔지만, 여성들은 가사 이외의 일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수많은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의 빈자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기술을 배우고, 공장을 운영하고, 트럭을 몰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일의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력보다 두뇌가 더 중요해지면서 사무직 부문이 커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에서는 고전했을지 몰라도, 지적인 일은 분명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1950년대에 경구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여성은 언제, 몇 명의 자녀를 가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줄자 시간이 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해방 운동과 대중 시위가 지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민권 운동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여파로 여성 운동도 꽃피기에 이상적인 때가 왔습니다. 1860년대에 노예제가 폐지되고 있을 때, 주로 복음주의자였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종속적 지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사상은 힘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한 세기 뒤,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비백인 인종을 위한 민권이 쟁취되고 있을 때, 여성들은 그 사회적 기세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열등한 지위를 성공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이 용감한 여성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대체로 그들 덕분입니다.

얼마나 깊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수천 년 동안 의문 없이 이어져 온, 여성이 열등하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여성 판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과 의사, 정치인, 대통령, 교수, 장군, 최고경영자가 모두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예속과 해방 모두에 역사적으로 연루되어 온 교회는, 이제 이 지각 변동 같은 사회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기독교 세계와 여성 해방 운동의 충돌

교회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여성은 열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이전의 모든 세기에 가부장적 문화는 이 점에서 교회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에 맞서는 새로운 문화가 도래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최근의 역사이며, 그 주요 사상가와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다수가 아직 살아 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성 해방 운동의 성공에 대한 교회의 첫 반응은 대체로 반발이었습니다. 여성 열등론을 붙든 가장 큰 교회 집단인 로마 가톨릭,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교회가 변화에 가장 적대적이었습니다. 여성을 예속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초기의 외침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존 라이스(John Rice) 같은 저자들이 내놓은 답을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라이스는 Bobbed Hair, Bossy Wives, and Women Preachers(1942)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을 해결하겠다"며 여성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은 남성적인 하나님이시다.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께는 남성 대명사가 쓰인다. … 하나님은 여성스럽지 않으시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요 남자의 짝이다. … 이것을 기억하는 여자는 복이 있다. 여자의 영광은 남자를 돕는 것이요,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43]

덜 대중적이지만 더 학문적인 예로, 1957년이라는 늦은 시기에도 복음주의자 도널드 거스리(Donald Guthrie)는 디모데전서에 관한 틴데일 주석에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둔다."[44] 저명한 성서학자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도 1958년에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 가정에서는 종속과 존중을, 교회에서는 침묵과 도움을 의미할 것이다."[45]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초기의 "신학적" 방어 논리로 무장했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후기 페미니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실제로 위협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초기 형태의 여성 해방 운동은 하나의 사회종교적 현상을 위협했을

43. John Rice, Bobbed Hair, Bossy Wives, and Women Preachers, p. 68.
44.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175.
45. Charles Ryrie, The Place of Women in the Church, p. 146. 그는 핵심 본문들을 검토하면서 한결같이 가장 보수적인 해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11장에서는 예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14장에서는 잠잠하라는 명령을 받는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침묵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여성도 남성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거나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곧 교회가 받아들이게 될 새로운 가르침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다룬 장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성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유능하며 섬길 능력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녀가 영적 특권과 결혼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곧바로 그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뿐입니다. 그 현상이란 산업 혁명으로 인해 남편은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 머물며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도록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잊은 듯한 사실은, 이전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버지도 대개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였고, 온 가족이 노동력이 되어 가축과 밭을 돌보고, 실잣기, 베 짜기, 목공 같은 소규모 생산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던 새로운 "평등주의적" 결혼은—지금은 서구에서 상호보완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흔히 실천하고 있지만—당시에는 "기독교적" 결혼을 뒤엎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관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권위와 복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합의, 그리고 갈림길

상호보완주의 학자 대니얼 도리아니(Daniel Doriani)는 1960년대까지 신학자들이 여성의 "존재론적 열등성"을 전제했다고 말합니다.[46] 이때까지 신학자와 성직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새로운 질문이 들이닥쳤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회 운동, 곧 전례 없는 여성의 사회적 부상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시 동안 교회는 마차를 둥글게 세워 진을 치듯 역사적 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문제를 두고 처음에는 문화와 충돌했지만,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교회의 많은 부분에 놀라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 여성은 남성과 정말 동등하구나."

이것은 지금도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그런 태도와 생각을 성경 본문에 읽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문화적 변화와 그 가운데 있던 개척적이고 끈질긴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교회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갔고, 성경 안에 여성의 본질적 동등성을 확증하는 내용이 실제로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는 …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 작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전제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잘못 읽은 방식까지도 보여 준다."[47]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읽어 보니, 성경은 결국 여성이 덜 이성적이라거나, 죄에 더 취약하다거나, 리더십이 없다거나, 집 밖에서 일할 수 없다고

46.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176.
47.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ch. 8.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동등성의 씨앗은 성경 안에 있었고 교회 역사에서는 잠깐씩만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교회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 동등성을 교회의 교리로 널리,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여성에 관한 기독교 신학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교회의 신학과 단절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수천 년이 지나서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새롭게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셨다면, 안심하십시오. 늘 이래 왔습니다. 문화가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을 때,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 본문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과 몇천 년 전에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노예제를 폐지하고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성경 본문을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발견은 성경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에 새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과 동등하다는 더 넓은 사회의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두 성의 실질적 동등성을 정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처음에는 여성의 동등성에 맞서 뭉쳤지만, 신학을 바꾸었습니다. 1987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는 당대의 주요 가톨릭 신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교회에 구속력 있는 가르침을 발표했습니다.[48]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창조 때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셨다는, 수 세기 동안 유지된 관점을 거부하고, 그 대신 여성의 "본질적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가톨릭의 예와 나란히, 몇몇 용감한 사람이 대담하게 나서서 여성 해방을 지지하며,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완전한 동등성과 상호성이야말로 성경이 언제나 그려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바로 이 때문에 이 책을 써야만 합니다—그들은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들도 여성 열등론에 관한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은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여성 종속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두 집단, 곧 위계주의자와 남녀 상호주의자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성경에 똑같이 헌신했으며, 이는 양측의 남녀 저자들이 서로에게 응답하며 쓴 수많은 책에서 드러납니다. 여성 열등론을 교리에서 버리기로 합의한 뒤,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두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단은 한

48. John Paul II, Mulieris Dignitatem: On the Dignity and Vocation of Women.

입장을, 다른 교단은 다른 입장을 따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입장 모두 교회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주의자들은 "여성은 열등하므로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이전의 교리를 "여성은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남성에게 종속된다"로 바꾸었고, 상호주의자들은 그 대신 "여성은 동등하므로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를 택했습니다.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정중했던 이 대화는 198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 부당하게 이 대화를 너무 일찍 끝내 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호보완주의"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담은 댄버스 선언(Danvers Statement)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워낙 인기를 얻어서, 많은 복음주의자는 이것이 논쟁의 승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이 입장이 옳기 때문에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다른 이유로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승리"에 대한 제 이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3
상호보완주의의 부상(과 그 함정)

"우리는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복종]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문화 전반에 점점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존 파이퍼[49]

빵 반죽을 만들어 모양을 잡은 다음, 끝부분을 잘라 버리고 남은 반죽만 오븐에 넣곤 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빵은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란다." 어머니의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다가, 자기 할머니가 작은 빵틀로 빵을 구웠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빵틀이 너무 작아서 반죽을 넣으려면 끝부분을 잘라 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는 그 작은 빵틀을 안 쓰니까 끝부분을 잘라 낼 필요가 없어요!"[50]

이 짧은 이야기는 상호보완주의와 남녀 상호주의의 차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자는 "교회사에 근거한 논증"을 붙들고, 여성 종속이 하나님의 선한 설계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것에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선한 것은 전혀 없다고 대답합니다. 교회가 이 교리를 받아들인 역사적 이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 열등론이 사회와 교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의문시되지 않던 수천 년 동안에는 여성 종속이 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더 이상 여성 열등론을 붙들지 않는 교회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상호보완주의를 변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교회가 이 "교회사"라는 관념에 호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이므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49. The Danvers Statement, www.bit.ly/2Y6Xhgg
50. 이 매력적인 예화는 William Witt, "Icons of Christ," ch. 3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1960년대까지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 여성 해방 운동의 성공은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여성 열등론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돕는 주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옳게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빵틀을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성별과 리더십에 관한 교리를 같은 출발 전제, 곧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열등하지 않다는 전제로 구워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들은 이 문제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 기껏해야 50년이나 60년 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뒤 신학자들이—그 가운데 많은 이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수정주의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두 교리는 모두 이제 남녀의 본질적 동등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첫째는 훗날 상호보완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것으로, 가부장제를 수정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여성 종속은 붙들기로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진정한 역사적 이유는 거부합니다. 그 대신 창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경적 논거를 찾아냈습니다. 둘째 입장은 흔히 평등주의라고 불리지만 저는 남녀 상호주의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데, 이 입장은 성별 위계를 아예 버렸습니다. 여성 열등론이 이제 널리 거부되었으니, 여성 종속의 관념에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 입장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열등성?	**여성의 종속?**
역사적 위계주의 (100–1960년대)	예	예, 여성은 열등하므로
상호보완주의 (1960년대 이후)	아니요	예, 새로운 이유로
남녀 상호주의 (1960년대 이후)	아니요	아니요

이 장에서 저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1980년대 미국에서 상호보완주의로 포장된 뒤,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교단을 지배하게 된 수정된 성별 위계의 부상(과 그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맨 아래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나머지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서도 그렇지만 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곳의 엄청난 그리스도인 수, 그들이 가진 자원, 미디어와 온라인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신학은 금세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헌신 덕분에 대개는 좋은 일이지만, 이따금 더 위태로운 것이 수출되기도 합니다. 번영 신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는 대륙에서는 많은 교회가 부와 건강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정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아주 부유한 목사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공동체의 교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상호보완주의 신학도 사실상 수출했습니다. 번영 신학은 "교회 성장"을 추구하던 성경 교사들이 기독교를 물질주의와 결합하려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상호보완주의 역시 "교회의 순결"을 추구하던 성경 교사들이 기독교를 온정적 가부장제와 결합하려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앞의 것은 성경으로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뒤의 것은 정교한 성경적 논증의 그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깁니다.

두 신학의 공통점은 비교적 새로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지난 세기 말 미국에서 존 파이퍼, 웨인 그루뎀 등이 시작한 사회종교적 운동으로, 엄선된 성경 구절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엮어 냅니다. 이 운동은 여성 열등론이라는 역사적 가르침은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의 머리됨과 여성의 복종을 지지할 새로운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언어의 장인들은 본질적으로 성별 위계를 재구성하되 그 방식이 하도 교묘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상 그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는 상호보완주의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자면, 모든 지지자가 상호보완주의를 현대인의 귀에 듣기 좋게 만드는 데 똑같이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의 회장을 지낸 러셀 무어(Russell Moore)는 상호보완주의라는 말보다 가부장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51]

상호보완주의를 만든 사람들

모든 교리가 그렇듯, 이 수정된 형태의 가부장제에도 특정한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특정 성경 구절들을 엮어 내는 상호보완주의 특유의 방식은 조지 나이트 3세(George Knight III)가 1977년에 낸 얇은 책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ole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에서 고안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여성 열등론이라는 교회의 역사적 입장을 버리고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택했습니다.

나이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 때 각 성별에 서로 다르고 영구히 구속력 있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28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동등성을 말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회와 교회의 성별 위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함의도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 이전에 이미 종속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뒤, 세 본문

51. www.bit.ly/2ZUrOPf 참조.

(디모데전서 2:11-14, 고린도전서 11:3, 고린도전서 14:33-35)이 교회에서 그가 "창조 질서"라고 부른 것을 바울이 승인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이 말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가 남자의 "우월한 지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디모데전서 2:12의 authentein(그는 이 단어를 "권위를 행사하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은 남성 목회자가 행사하는 권위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14절)라는 구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는데, 이 구절은 수 세기 동안 여성의 도덕적, 지적 열등성의 증거로 읽혀 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와는 "역할 전도"라는 행위로 아담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회했으며, 그것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트의 입장에 대해 다른 신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몇몇 교단이 여성 지도자를 안수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단은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나이트는 교회와 신학계에서 떠오르던 두 스타, 존 파이퍼와 웨인 그루뎀에게 싸움에 뛰어들어 교회에 퍼지고 있는 이른바 "거짓 가르침"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87년 두 차례의 모임에 걸쳐 그들은 소수의 다른 목회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댈러스에서, 그다음에는 댄버스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성 역할에 관한 교리 선언문을 승인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댄버스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또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 협의회(Council of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협의회는 댄버스 선언에 표현된 입장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가부장제나 위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상호보완주의라는 용어를 택했는데, 이 말이 "동등성과 서로에게 유익한 차이"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52]

1989년 그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소책자를 나누어 주고, Christianity Today에 댄버스 선언을 게재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선언이 "널리 동의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관점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협의회는 "책과 논문과 소책자를 출판하고, 학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평신도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53] 이 노력에서 나온 첫 주요 저작은 존 파이퍼와 웨인 그루뎀이 편집한 1991년 논문집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였습니다.[54]

52. John Piper and Grudem, Wayne (eds),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11.
53. 파이퍼와 그루뎀이 Christianity Today에 실은 광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989년 1월 13일.
54. Christianity Today는 이 책을 199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많은 교단 지도자가 모든 논쟁을 끝내는 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밀레니엄이 끝날 무렵,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와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회 같은 교단들이 댄버스 선언을 승인했습니다. 평등주의적 결혼이나 여성 목사 안수나 여성의 설교를 다시는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디모데전서 2:12-15였으므로, 남침례회 신학교들의 존경받는 성서학자인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와 토머스 슈라이너는 이 단락을 상호보완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읽으려는 모든 시도를 반박하기 위해 학술서 Women in the Church를 출간했습니다. 상호보완주의를 뒷받침한 다른 핵심 저작으로는 웨인 그루뎀의 대중서 Evangelical Feminism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비상호보완주의자들이 제시한 100개가 넘는 반론을 반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는 2014년에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 진영이 만들어 낸 것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2001년에 나온 ESV(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 번역, ESV Study Bible(그 주석은 웨인 그루뎀이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D. A. 카슨(D.A. Carson), 팀 켈러가 세운 온라인 콘텐츠 포털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입니다. 이 연합은 초교파적 플랫폼이 되는 대신, 상호보완주의를 신앙고백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연합은 학술지 Themelios와 함께, 상호보완주의에 도전하는 거의 모든 주요 저작을 정기적으로 비판합니다. 거대 출판사 Crossway도 한몫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상호보완주의 저작이 이곳에서 나옵니다.[55]

실로 상호보완주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어서, 그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고려하는 것조차 명백한 어리석음이나 이단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저 스스로 신학에 꽤 밝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이 입장을 따져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결함 있는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왜 그렇게 득세했을까요?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

조지 나이트의 기발한 표현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는 현대인의 귀에 곧바로 먹혀들었습니다. 이것은 "열등하므로 종속된다"는 오래된 개념보다 훨씬 낫습니다. "열등하다"는 말이 "동등하다"로 바뀌었으니 상당한 개선이고, 종속이라는 관념은 "다른

55. 신학 저작들의 상세한 연대기적 역사와 개관은 Jamin Hübner의 탁월한 박사 학위 논문 2장을 보십시오: www.bit.ly/3BNaSY8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일종의 눈속임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표현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다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라는 말만으로도 이 생각을 처음 듣는 대부분의 사람은 만족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단서를 덧붙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호보완주의라는 깡통에 적힌 내용물이 깡통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에 여성에게 기대되던 활동 영역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대중화된 현대 사회학적 구성물입니다. 이 용어는 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맡는 분업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 하는 날에 제가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역할을 나눠 주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모두 제가 서로 다른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에서 (많은 사람이 묻지 않는 듯한) "다른 역할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은 (핵심만 추리면)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는 이끌고, 두 곳 모두에서 여자는 복종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 계통입니다. 조수를 데리고 다니는 부족장은 "아름다운 상호의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계 속에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개념에는 가역성, 곧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아이가 수영장을 청소하고 다른 아이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다음 주에는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호보완주의의 "역할"은 성별에 근거한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권력 관계입니다. 상호보완주의에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특정 역할에서 배제되지만, 남성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배치에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역할이라는 개념은 동등성과 양립할 수 있지만, 태어날 때 정해지는 영구적인 권력 관계라는 개념은 불평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의 과제는 언제나, 두 사람이 염색체만을 근거로 이끌거나 따르도록 바꿀 수 없게 정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참으로 동등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보완주의 변증가들은 삼위일체 안의 관계와의 평행을 끌어와 대답합니다(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또 군대의 장교와 사병, 관리자와 노동자, 대통령과 시민, 목사와 교인 같은 비유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본질적 우월성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정하거나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56] 모든 경우에 역할은 바뀔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에 근거해 그

56. 이어지는 반론들은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3에 빚진 것입니다.

권위를 갖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몸에 근거해 태어날 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특별한 인격, 소명, 훈련, 은사 때문에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언젠가 물러나고, 교인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나 종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염색체나 몸에 실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바람직한 비유를 저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유는 어떤 계층이나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권력 지위가 정해지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또는 피부색이 정치적 권리를 결정했던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태어날 때 역할과 지위를 정하는 이 두 제도는—모든 상호보완주의자도 분명 동의하겠지만—불평등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상호보완주의는 카스트 제도나 아파르트헤이트와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타협과 굴복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남녀 상호주의자들이 성경을 타협한다고 자주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옳게 지지하면서도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성경 자체와 합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참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퍼, 그루뎀, 켈러가 왜 상호보완주의가 자기 단체의 신앙고백에 들어 있는지 설명하는 한 영상에서,[57] 파이퍼는 성경을 다룰 때 "머리됨과 복종을 피해 가는 것은 … 복음에 불길한 징조"라고 경고합니다. 카슨이 거듭니다. "성경이 모호함 없이,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비켜 가는 것은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 한 방식입니다." 켈러는 좀 더 온건한 표현을 쓰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평등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복음주의 남녀 상호주의자들에게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해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 해마다 평생을 바쳐 온 수백 명의 성서학자가 성경을 낮게 본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세계 최고의 보수적 성서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한때는 상호보완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연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 F. 브루스(F.F. Bruce), 레온 모리스(Leon Morris), N. T. 라이트(N.T. Wright), 고든 피(Gordon

57. www.vimeo.com/44525286

Fee),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 필립 페인(Philip Payne),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 스탠리 건드리(Stanley Gundry), 케네스 베일리(Kenneth Bailey), 에이다 스펜서(Aida Spencer), 월터 리펠드(Walter Liefeld), 조엘 그린(Joel Green), 신시아 웨스트폴, 미리엄 애드니(Miriam Adney), 코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 존 스택하우스(John Stackhouse), 마이클 버드를 비롯해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58]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무려 일곱 명의 상호주의자가 복음주의신학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학회는 성경 무오에 대한 신앙 선언에 해마다 서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59] 제 요점은 단순합니다. 많은 상호보완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이 논쟁의 중심은 성경의 해석이지, 성경의 권위가 아닙니다.[60]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상호주의자들을 문화에 굴복하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사회 운동을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위협으로 정죄한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신학자들을 페미니즘과 결탁했다고 습관처럼 비난합니다. 교회 안의 여성 종속 체제를 끝내자고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J. I. 패커(J.I. Packer)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성을 [목사로] 세우려는 압력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존중보다 세속적이고 실용적이며 사회적인 요인에 더 많이 빚지고 있다. 미래 세대는 그들의 선동을, 자유주의 교회가 늘 해 온 것처럼 세속 문화에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께 들이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보게 될 것이다."[61]

이것은 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지만, "타협하는 자들"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습니다.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는 상호보완주의자들을 비성경적 가르침에 맞선 이 시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그 가르침이 "불가피하게 교회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아가는 것을 서서히 부식시킬 것이다. 상호보완주의, 곧 참된 성경적 가르침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히 반문화적이다. 이 창조의 실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 공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62]

문화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그의 우려에는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쾨스텐버거는 자기 말을 자기 입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호보완주의가

58. 이 명단은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2에 빚진 것입니다.
59. 복음주의신학회 회장을 지낸 로저 니콜(Roger Nicole), 케네스 캔처(Kenneth Kantzer), 월터 카이저, 스탠리 건드리, 앨런 F. 존슨(Alan F. Johnson), 밀러드 에릭슨(Millard Erickson), 크레이그 키너, 이렇게 무려 일곱 명이 모두 남녀 상호주의자입니다.
60.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9.
61. J. I. Packer, "Let's Stop Making Women Presbyters," Christianity Today, 11 February 1991
62. www.bit.ly/3bAU0ZG

비교적 새로운 신학적 입장이며, 여성 열등론을 거부한 문화에 동의한 데서 직접 생겨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상호보완주의 자체가 참으로 비성경적인 문화에 대한 굴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문화란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미국의 성 고정관념을 미화하는 극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그 문화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은 일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복종적인 가정의 여왕이었습니다. 요컨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신학적 도전자들이 성경을 타협하고 문화에 굴복한다고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왜곡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차이

약 10년 동안 해마다 여러 차례,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 교육 과정에 모인 수백 명에게 우리가 왜 신학적으로 상호보완주의인지 설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적 결혼에서는 남편이 지배하고 아내는 비굴하게 따릅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의 결혼에서는 아내가 지배하고, 수동적인 남편은 아내의 모든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진정한 동등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평등주의적 결혼에서는 둘이 동등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적 결혼에서는 둘이 동등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차이가 기려지고 존중받습니다.

청중 거의 모두가 이 입장을 받아들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과 입장을 더 주의 깊게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평등주의 입장을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평등주의(또는 남녀 상호주의)는 남자와 여자가 뚜렷이 구별되게,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주의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설계상, 또는 평균적으로, 몸이나 심리적 특성에서 똑같다고 말하는 상호주의 신학자를 저는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요 상호보완주의자는 여전히 자신의 신학적 반대자들을 이렇게 잘못 묘사합니다. 상호보완주의에 관한 책에서 쾨스텐버거 부부는 상호주의자들이 "구별 없는 동등성"이라는 생각을 붙든다고 주장합니다.[63] 실제로 상호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을 유동적이거나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남자만 아버지, 아들, 형제가 될 수 있고 여자만 어머니, 딸,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3.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와 마거릿 쾨스텐버거(Andreas and Margaret Köstenberger)가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트의 천재성이 "인격은 동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만든 데 있었다면, 파이퍼의 천재성은 이 관점에 "상호보완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데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이름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그의 알맞은 돕는 자로 주시는 창세기 2:18의 상호 보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와 남녀 상호주의의 실제 차이를 연구한 지금, 저는 앞의 것을 더 공정하게 정의하면 "위계가 있는 상호 보완성"이고, 뒤의 것은 "위계가 없는 상호 보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64] 우리 교회의 새 교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호주의자와 상호보완주의자의 대화에서, 저는 우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목적을 가지고, 동등하게, 서로 보완하도록 만드셨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울 만큼 많은 공통 기반이 생깁니다. 진짜 의견 차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녀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 차이가 어떤 함의로 이어지는지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는 정말로 너무 커서, 남자가 언제나 권위를 갖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 필요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상호 보완성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나란히 함께 일하라는 부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사역에서 상호보완주의의 상호 보완성 가르침은 서로 다른 성별에 서로 다른 역할이 배정된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성은 특정 사역에서 배제되지만 남성은 어떤 사역에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이든 잠재적으로 어떤 여성의 사역이든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보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제입니다.

사회의 몰락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상호주의자들을 타협하는 자, 굴복하는 자, 성별의 차이를 무너뜨리는 자로 잘못 묘사할 뿐 아니라, 문화 자체의 몰락에 대한 책임 일부를 그들에게 돌리기까지 합니다.

상대 입장을 사회 몰락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정치의 표준 전략이라면, 파이퍼와 그루뎀은 이 수단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켈러와 카슨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파이퍼는 복음연합이 왜 평등주의를 거부하는지 설명하면서, 남성을

64. Groothuis, Pierce, Fee가 편집한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2005년판은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위계 없는 상호 보완성)를 부제로 썼습니다. 2021년판이 이 표현을 포기한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상호보완주의가 상호 보완성을 평등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묘사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지 못한 것을 "잔혹한 남성적 사회", "수동성", "남성성에 대한 혼란", "분노의 순간에 폭발하는 남자들", "동성애 문제 전반", "여성 학대", "아이들에 대한 방치"와 연결 짓습니다.[65] 물론 이것들 대부분은 결코 하나님의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여자에게 남자의 지도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의 모든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파이퍼는 정말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루뎀은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남녀의 진정한 동등성, 그리고 그가 "차이의 철폐"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면 벌어질 재앙들을 한탄합니다.[66] 그는 결혼에서는 그것이 "남편을 겁쟁이로, 아내를 찬탈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적은 훈육과 권위에 대한 너무 적은 존중 속에서 자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책임이 성경이 정한 역할이 아니라 은사와 관심에 따라 나뉠 것"입니다. 인간의 성의 영역에서는 남자가 "남자답지 않고 여자에게 매력이 없게" 되고, 여자는 "여자답지 않고 남자에게 매력이 없게" 되며, 둘 다 "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에 반대하고 그것을 선이 아닌 악으로 여길 것"입니다. 경제에서는 "누구도 크게 부자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복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대규모 의존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그들이 "남자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여자아이들이 또 다른 종류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고 잘하는 모든 패턴을 강제로 근절할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보완주의를 변호한 그루뎀의 가장 대중적인 책에 나오는 그의 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분명히 매우 실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성실하고 부정직합니다. 댄버스 선언이 정치적 문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마 그 마지막 문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문화 전반에 점점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67]

사회종교 분석가 크리스틴 두 메즈(Kristin Du Mez)는 Jesus and John Wayne에서, 페미니즘과 세속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 의미와 정체성의 상실, 성 혁명의 성공으로 특징지어진 한 세기가 끝날 무렵 왜 이런 주장들이 복음주의 미국에서 그렇게 힘을 얻었는지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자신의 권력을 굳히려고 두려움을 부추기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입니다. 보수

65. https://vimeo.com/44525286
66. 이 단락의 이 인용문과 이어지는 인용문들은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ch. 1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67. www.bit.ly/3CFM0CC

복음주의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68]

많은 사려 깊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의문 없이 상호보완주의를 붙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탁월하지만 결국 오해를 낳는 하나의 비유 덕분입니다.

삼위일체 안의 종속

몇 년 전 제 아내는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도 모르는 동료 목회자 아내들을 위해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상호보완주의의 기본 생각, 곧 어떻게 동등하면서 동시에 종속될 수 있는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 아내는 우리의 이른바 다른 역할의 근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캐시 켈러(Kathy Keller)의 탁월한 비유를 읽었고, 그것을 자기 글의 절정으로 넣었습니다. 켈러에 따르면, 가정과 교회 모두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목회자의 아내는 성부께 대한 예수님의 종속이라는 빛 아래 놓입니다.

복종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종의 역할을 맡으신 예수님(빌립보서 2:5-11)은 성부께 대한 그분의 복종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성부와 그분의 동등성은 어느 때에도 의문시되지 않는다. … 성자께서 성부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면서도 종의 역할을 맡아 구원을 위해 [기능적으로] 복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삼위일체의 신비의 한가운데로 이끈다. 같은 진리, 같은 역할을 연기하는 인간 배우들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겠는가?[69]

켈러는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등하시면서도 그분께 종속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제 아내와 많은 동료 목회자 아내들은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맡음으로써 삼위일체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삶을 세상에 보여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인간에 대한 복종이든(목사든, 왕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성부께 대한 예수님의 복종을 본떠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켈러가 언급한 빌립보서 2장의 본문,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본문은 주로 예수님의 겸손과 다른 사람들을

68. "The Rise and Fall of Mars Hill" 팟캐스트 5화(13분 지점)에서. 출처: www.bit.ly/3CEBjAm.
69. Kathy Keller, Jesus, Justice, and Gender Roles, ch. 2.

섬기심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70]

삼위일체는 "인간 배우들이 같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켈러의 말은 위험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계를 삼위일체에 읽어 넣으려는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삼위일체 안의 관계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지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마이클 버드는 그다지 농담만은 아닌 투로, 굳이 하나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남자와 내시 사이의 세 사람 결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드의 요점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성부와 성자의 역할과 연결 짓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71]

나이트의 결정타가 동등하나 다르다라는 용어였고 파이퍼의 결정타가 상호보완주의라는 용어였다면, 그루뎀이 내놓은 것은 삼위일체와 결혼의 유비에 관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1994년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인격의 참된 동등성과 역할의 차이를 보여 주는 성경적 예라는 나이트의 1977년 생각을 처음으로 주류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72] 삼위일체가 남녀 사이에 그들이 그리는 피차 복종의 탁월한 예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그루뎀은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구별된 역할이 사실 삼위일체 안의 영원한 관계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기능적 종속(Eternal Functional Subordination)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성자께서 지상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영겁 전부터 이미 성부께 종속되어 계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루뎀에게는 성부께 대한 성자의 종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아버지께서 단지 아버지시라는 이유로 책임을 맡으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자께서 성부께 '아버지께서는 150억 년 동안 책임을 맡으셨으니, 이제 다음 150억 년은 제 차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73]

팀 켈러와 캐시 켈러는 성자의 영원한 종속을 믿는 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가 상호보완주의적 결혼의 모델이라는 생각을 가장 널리 퍼뜨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결혼의]

70. 이것은 이 본문의 첫머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3-5)
71. 자세한 내용은 이 짧은 영상을 보십시오: www.bit.ly/3waFKAs
72. 조지 나이트 3세는 1977년에 낸 얇은 책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ole of Women"에서 사실 이 유비를 처음 생각해 냈지만, 그것을 발전시켜 공식화된 신학으로 널리 알린 사람은 그루뎀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신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교과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자신의 "Systematic Theology"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73.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ch. 1.

역할은 삼위일체 안의 관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결혼 안에 의도하신 [권위와 복종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분명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74] 그러나 성자의 종속이 영원하다는 그루뎀의 덧씌운 논증이 없으면, 켈러 부부의 삼위일체-결혼 유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자의 성육신에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은 33년 동안 인간이 되시고, 그 기간 동안 자원하여 성부와 성령의 지시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그들의 영원한 동등성과 상호성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성육신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실재의 역사에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의 이 순간을 인간 결혼에서 성 역할의 영구적이고 바꿀 수 없는 규범으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일도 적절한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 아들이 땅에 있던 그 기간과 달리, 아내와 남편은 둘 다 같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뎀은 논증을 보강했습니다. 그를 따라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안의 영원한 관계를 동등성과 "역할"의 관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타크(John Starke), 브루스 웨어(Bruce Ware), 로드릭 더스트(Rodrick Durst), 맬컴 야넬(Malcolm Yarnell), 마이클 오비(Michael Ovey) 같은 다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동등성보다 위계를 삼위일체의 결정적 특징으로 강조하는 삼위일체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성부는 그리스도의 권위이시며, 언제나 그러하셨다. … 권위와 복종의 질서가 없으면 삼위일체도 없다."[75] 오웬 스트래천(Owen Strachan)은 2016년 책 The Grand Design: Male and Female He Made Them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이 책을 "웨인 그루뎀에게 … 우리와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대한 설계를 보여 준 이에게" 헌정합니다.

여성 종속을 위한 이 새 논증에 자신감을 얻은 그루뎀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76] 그러나 2016년, 신뢰받는 다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 힘을 합쳐 그루뎀식 삼위일체론의 심각한 함정에 맞섰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을 처음 비판한 신학자는 2002년 저서 The Trinity and Subordinationism을 쓴 상호주의자 케빈 자일스였습니다.[77] 그러나 2016년에 충분히 많은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 일련의 블로그 글과 그에 이은 온라인 논쟁을 통해 이 이단에 도전하고 나서야, 그 교리는 마침내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상호보완주의자들이 그동안 성별 위계에 관한 자기 입장을 변호하면서 부당하게

74. Timothy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75. Owen Strachan and Gavin Peacock, The Grand Design: Male and Female He Made Them
76.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p. 411 fn.12.
77. Kevin Giles, The Trinity and Subordinationism: The Doctrine of God and the Contemporary Gender Debate

덕을 보았던 비정통적 사상에서 널리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회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루뎀의 영원한 기능적 종속은, 성자가 영원한 본질에서 성부보다 못하다는 고대 이단 아리우스주의만큼 멀리 가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78] 이 이단은 삼위일체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본질적 일치와 동등성을 확언한 공의회에서 초대 교회에 의해 처음 배척되었습니다. 논쟁 중에 리엄 골리거(Liam Goligher)가 어느 글에서 말했듯이, "영원한 삼위일체 안에 성부의 실제적 우위나 성자의 종속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다."[79] 복음연합조차 삼위일체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다시 살피면서, 그가 권위와 복종을 삼위일체 안의 영원한 관계의 특징으로 보는 것을 부인했음을 보여 주는 글을 실었습니다.[80] 신학계의 여론이 워낙 급진적이고 급격하게 바뀌어서, 이제 보수적

78. "영원한 기능적 종속"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homoianism"(유사파)이라고 불리는 반아리우스주의의 한 갈래와 닮았다. 1)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를 정식화할 때 성경의 경륜적 삼위일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2) 그 결과 신격 안의 위계를 특징으로 하는 강한 종속론에 이르며, 3) 결국 성자를 성부보다 못한 영광과 위엄을 지닌 분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Michael F. Bird and Scott Harrower, ed, 2009: "Trinity without Hierarchy: Reclaiming Nicene Orthodoxy in Evangelical Theology," ch 1.) 매슈 팅컴(Matthew Tinkham)은 이 이단을 "신종속론"(neo-subordinationism)이라고 부릅니다. www.bit.ly/3PXG1jT 참조.

79. 출처: www.bit.ly/3wdix0I 다른 학자들은 그루뎀이 "다른 역할"이라는 언어를 권위와 복종과 뒤섞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인격은 동등하나 (성) 역할은 다르다"는 자신의 교리를 삼위일체에 읽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성령과 성부께서 "서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단순히 권위와 복종의 개념과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위계가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할 길이 없다는 그루뎀의 논증은 매우 빈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부께서 구속을 계획하시는 일의 최전선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의 최전선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의 최전선에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다른 "역할"은 질서를 말해 줄지는 몰라도 위계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성부와 성령의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에게 하는 이 "복종"은 그들의 전적으로 독특한 선교적 협력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있는 영원한 위계의 표지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일을 지휘하시지만, 동시에 성부께서는—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공유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시에 계시므로—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진 신격은 하나의 뜻을 공유합니다. 이 사실은 영원한 의미에서 권위와 복종을 의미 있게 말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성부께 대한 예수님의 현재적 종속을 가장 분명하게 부정하는 말은 아마 바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28에서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현 시대에 성부께 복종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그분이 영원히 종속되어 계시다는 것은 참일 수 없습니다. 시대의 끝에 있을 이 미래의 "복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시편 8편이 인용된 24-27절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참 아담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으로서, 곧 신성이 인성을 자기 안에 취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마침내 만물의 종말론적 일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대표하시는 구속받은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새로워진 창조 세계의 왕과 여왕으로서 온전히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때 놀랍게도 모든 인간사와 온 우주에서 죄나 사탄이나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80. www.bit.ly/3x2GWX6 참조.

상호보완주의 진영에서도 결혼을 포함한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삼위일체의 내적 삶에 읽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81] 나이트와 그루뎀 때문에 길을 잃었던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소수의 신학자 집단이 성 역할에 관한 자기 주장을 떠받치려고 접붙인 [삼위일체에 관한] 상호보완주의 내러티브"를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 하나님과 세 동등한 위격을 고백하는, 권위의 정도로 … 구별되지 [않는] 사도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에 대한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82]

얼마나 놀라운 돌파구입니까! 실로 삼위일체의 관계를 인간 공동체에 적용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기를 구하신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83]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를 향해 품으신 끝없는 기쁨과 존중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84] 우리는 우리의 지상 공동체(와 결혼)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령 계통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유대를 통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85]

그러나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지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이, 의심스러운 삼위일체-결혼 평행을 지지한 그루뎀과 켈러 부부의 2016년 이전 책들을 통해 부당하게 상호보완주의 쪽으로 설득되었습니다.[86]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의 유혹

어떤 교회들은 파이퍼, 그루뎀 등이 내놓은 원래의 공식적 상호보완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확고한 상호보완주의 교회입니다. 어쩌면 상호보완주의 입장 문서, 신학교, 교단 소속이 그들의 확신을 굳혀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끄는 일을 도왔던 교회 같은 다른 교회들은 처음에 상호보완주의라고 자처했는데, 그 이유는, 글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반박하는 그루뎀식으로 포장된 상호보완주의 전체를 제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기 전, 우리 교회의 온건한

81. 이 시기에 성자의 영원한 종속 교리가 거부된 다섯 가지 이유를 와이엇 그레이엄(Wyatt Graham)이 요약한 글을 보십시오: www.bit.ly/3mCmusv
82. Michael F. Bird and Scott Harrower, ed, 2009: "Trinity without Hierarchy: Reclaiming Nicene Orthodoxy in Evangelical Theology," ch 1, 2.
83. 요한복음 17:21-23
84. 마태복음 3:16-17, 요한복음 14:31, 누가복음 10:21, 로마서 5:5
85. 요한복음 13:34
86. 그루뎀의 "Systematic Theology"와 켈러 부부의 책 "The Meaning of Marriage"와 "Jesus, Gender and Justice" 같은 책들입니다.

상호보완주의가 원래 버전과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는, 저는 기꺼이 저 자신을 상호보완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들을 위태로운 자리에 둡니다. 그들은 상호주의적 실천을 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상호보완주의라고 주장합니다. 파이퍼, 그루뎀, 슈라이너, 쾨스텐버거 같은 상호보완주의의 창시자들이 이런 온건한 표현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러셀 무어는 한 글에서 상호보완주의 교회 공동체의 경향을 한탄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공동체들은 페미니즘 문화에 걸려들어, "대부분의 복음주의 가정에서 실제적인 결정이 협상과 피차 복종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여성이 "자기 목사가 남성의 머리됨에 대해 가르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여성화된 풀뿌리 신학이 학계와 교단 지도부로 스며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87] 마찬가지로 쾨스텐버거도 교회 리더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합니다.

상호보완주의가 문화적으로 거슬리지 않고 심지어 시대에 맞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열망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실천을 문화에 맞추어, 평등주의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시끄럽고 공격적이거나 어쩌면 더 거슬리는 페미니스트 여성형 리더십의 느낌을 피하려고, 덜 투쟁적인 여성들을 지도자 자리에 앉힐 수도 있다.[88]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상호보완주의자였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사실 제가 이끄는 일을 도왔던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상호보완주의를 받아들였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정말 일관성 없는 상호보완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설교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장로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장로 부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남편만 장로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므로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실 때 아내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들도 장로 모임에 참석했고, 우리의 의사 결정 일부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환영받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제 결혼 생활도 그루뎀이나 파이퍼가 바랐을 것보다 훨씬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여성 집사에 관한 우리의 신학 덕분에 우리는 여성이 여러 사역과 소그룹에서 남성을 이끄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사회 정의 사역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여러분이 상호보완주의 교회이고,

87. 출처: www.bit.ly/3GL5lom
88. 출처: www.bit.ly/3CIkVyG

상호보완주의를 버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낀다면, 이런 방식들로 "타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러나 제 여정을 돌아보면, 자신이 표방하는 입장과 실제 실천 사이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실천과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된 신학과 실천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입장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목회자와 설교자 가운데 많은 이가 ESV와 ESV Study Bible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의 대부분을 좋아하지만, 사도가 NIV처럼 "brothers and sisters"(형제자매들)가 아니라 오직 "brothers"(형제들)에게만 말하는 신약의 많은 본문을 그들이 읽을 때마다 움찔하곤 했습니다. ESV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스터디 바이블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많은 독자가, 그 스터디 노트가 맹렬하게 반대하는데 왜 우리는 여성의 설교를 허용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젊은 장로들과 그 아내들 가운데 일부가 신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파이퍼의 개인 웹사이트와 복음연합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선임 장로들을 존중하려 애쓰면서도, 이제는 여성이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열 개 회중 가운데 하나는 자기 교회에서 여성이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 해에 걸쳐 우리는 성장하는 한 교회 운동에 합류했고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초창기부터 상호보완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달리, 이 운동의 교회 대부분은 자기들이 설교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여성 설교자는 없었습니다. 남성만 장로로 안수받았습니다. "장로 부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평등주의처럼 보이는 실천에 우려를 표했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우리는 상호보완주의라고 자처했으니까요.

한번은 그 운동 전체에서 가장 선임인 목사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목회자 아내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이는 교회를 이끌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그이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모임에 있던 아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말에 크게 격려받았겠지만, 많은 이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 왔던 우리 아내들은 그전까지 한 번도 그저 배우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 일부를 바쳐 사역의

최전선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강하게 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운동에 속한 교회에서 여성이 사역에 제약을 받거나 남성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느껴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있는 상처받은 여성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교회는 젠더와 장로직에 대한 우리 이해의 교리적 기초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고, 저는 파이퍼, 그루뎀, 슈라이너의 신학적, 성경적 논증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종교를 즐기다가 어느 날 비밀 봉투를 열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자신이 사실은 이 우주에 갇힌 세탄(Thetan)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신도처럼, 저도 상호보완주의의 내부 가르침 일부를 실제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상호보완주의를 좋아했습니다. 상호보완주의가 전 세계 교회에 퍼지는 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감추고 있는 정교한 신학적 구성물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배제에 대한 두려움

상호보완주의가 그토록 많은 교단과, 제가 속한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에서 승리를 거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과학에서 편향을 다룬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동맹을 잃게 하지 않을지를 믿습니다.[89] 불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의식적인 편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새로운 생각에 똑같은 본능적 질문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나의 사회적 입지와 자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참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일을 일으킬까?"입니다. (이 문제는 부록 6: 왜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가에서 훨씬 더 깊이 다룹니다.)

여성의 종속에 관한 교리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할지도 모르는 교회들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이전의 교회와 교단은 대개 사례를 받는 남성들이 이끌었습니다. 여성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이 꽤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어, 여성과 남성이 능력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쟁은 여성을 리더십과 강단에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를 두고 각 교회나 교단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89. 저는 부록 6 전체를 인지 편향이라는 주제에 할애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해 순진해지지는 맙시다. 이 문제를 결정해야 했던 이들은 주로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이었지,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결정을 내리려 애쓰던 교회 지도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밑에 깔린 속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평생 사례를 받는 목회자로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내 자리를, 또는 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내리는 결정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과 함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행동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얼리 어답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음, 당신의 용기는 존경하지만, 나는 다수가 어디로 기우는지 볼 때까지 뒤에 물러나 있겠소."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가 자기 자리를, 그리고 아마 일자리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다수가 생각을 바꾸리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이 불확실성 속으로, 복음주의 세계에서 떠오르던 두 스타에게서 분명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타협하는 자들, 문화에 굴복하는 자들, 문화를 파괴하는 자들,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동등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성을 인정합니다. 남녀 간의 권위와 복종은 삼위일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역사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웹사이트가 있고, 성경 번역본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콘퍼런스가 있고, 강력하고 매력적인 설교자들이 있고,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다면 기념비적인 저작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논쟁이 되는 몇 안 되는 본문의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을 두고 양측이 논증하는 건강하고 열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댄버스 선언을 통해, 상호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페미니스트 의제에 맞게 성경을 비튼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상호보완주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모든 토론과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90]

상호보완주의자들의 노력과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노련하고 능숙해서, 어느 편에 설지 망설이던 사람들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여성을 포함하는 데 완강히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던 중간의 사람들은 남이 대신 내려 준 결정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2를 보십시오. 1970년대 중반부터 이 논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자일스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호보완주의자가 아닌 목회자들은, 운 좋게 평등주의 교회나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한, 지하로 숨어들거나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배제에 대한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진영 밖의 사람들이 쓴 저작을 검토하는 일을 맡은 극소수의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의 글을 읽을 때, 저는 그들의 어조가 얼마나 무시하는 투인지, 상대가 실제로 하는 말에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지, 그들의 논증이 얼마나 결함이 있어 보이는지에 거듭거듭 놀랍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에 도전하는 저작을 비평하는 일을 맡은 바로 이 사람들이 대개 상호보완주의 교단과 신학교와 단체의 최고 학문 지도부에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회 신학교 여섯 곳 모두를 보십시오. 매년 교수진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댄버스 선언에 서명해야 합니다. 매. 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상호보완주의는 복음의 진리처럼 여겨질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상호보완주의의 울타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침묵이 테이블에 앉을 자리의 대가라면, 그것은 너무 비싼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남침례회 교단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었던 베스 무어(Beth Moore)는 최근 자기 교단 안에서 상호보완주의가 성경의 권위와 이렇게 불행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그 체계를 만든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계를 세우는 데 참여해 놓고, 여러 사람이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우는 데 도운 것이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했다면, 빅터, 올가미를 가지고 가서 그 괴물을 끌어들이십시오."[91] 자기 학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한때 상호보완주의자였던 이들이 같은 점을 지적하는 베스트셀러를 계속 펴내고 있습니다.[92] 이 타락하고 실패하는 신학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역사는 이쯤 해 두고, 이제 핵심 성경 본문 속으로 뛰어들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호보완주의가 어디에서 잘못되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맨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

91. 2020년 4월 8일 베스 무어의 트위터 피드를 보십시오.
92. 가장 최근에는 베스 앨리슨 바(Beth Allison Barr)의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와 크리스틴 두 메즈의 "Jesus and John Wayne: How White Evangelicals Corrupted a Faith and Fractured a Nation"이 그렇습니다.



4

낙원에서 맺어진 동반자 관계

"하와는 아담보다 우월한 존재도 열등한 존재도 아니라 아담과 동등한 존재다. 그녀는 양극의 한쪽, 곧 북극에 대한 남극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그가 항로를 벗어날 때 그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빅터 해밀턴(Victor Hamilton)[93]

영화 Happy Feet(해피 피트)에서 펭귄 멈블이 신탁을 전하는 러브레이스를 만났을 때, 그는 러브레이스의 목에 비닐 포장재가 감겨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러브레이스는 그것이 "신비한 존재들"[94]이 자신에게 준 "신성한 부적"이며, 따라서 자기 능력의 근원이라고 우깁니다. 물론 우리는 멈블이 그저 짐작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 있는 것은 그가 어린 펭귄이었을 때 헤엄치다 걸려든 것이 분명한 쓰레기 조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멈블과 그의 별난 친구들이 그를 다시 찾았을 때, 러브레이스는 숨 쉬기도 말하기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95] 멈블은 결론을 내립니다. "목에 걸린 게 너무 꽉 조여. 그게 그를 질식시키고 있어!" 러브레이스는 처음에는 그 플라스틱 조각에서 일종의 힘을 얻지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자신을 얽매는지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마침내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보완주의가 창세기 2-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설계"의 결과라고 말하는 "기독교적" 가부장제는 스스로를 진리의 부적이라고 내세웁니다. 곧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남녀 간 권위와 복종이라는 신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그것은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의 일부가 전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하고 숨이 막혀 버린 남녀 관계의 결과입니다.

93. Victor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p. 181.
94. 이 장면의 동영상 클립을 보십시오: www.bit.ly/3BzJGvK
95. 이 장면의 동영상 클립을 보십시오: www.bit.ly/3mCpcyb

성경의 이야기는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인류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혼돈이 뒤따릅니다.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높은 존엄을 내버리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훗날 구속이 예수님 안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시는데, 역시 동산에서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거짓말을 이겨 내십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서 시작하신 일을 두 번째 오심에서 완성하실 때 끝납니다. 인류와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본래 목적이 승리를 거둔, 정교하고 아름다운 정원 도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세상의 위대한 이야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최종 구속이 본래 창조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만물의 시작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탐구는 성경의 첫 장들(과 마지막 장들)에 그토록 큰 무게를 둡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선언문인 댄버스 선언이 성경이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내놓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구별된다. …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별은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메아리를 찾아야 한다. … 결혼에서 아담의 머리됨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선언문은 이 문장들 하나하나 뒤에 증거 본문을 제시하는데, 가장 반복적이고 두드러지게 쓰이는 것이 창세기 1-3장의 구절들입니다. 실제로 한 구절이 세 진술 모두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리의 하중을 떠받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알맞은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8).

창세기 1-3장, 특히 2:18에 대한 이런 읽기에 근거하여, 상호보완주의자들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서의 "남성의 머리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96] 그 안에서 여성은 "존엄과 가치에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권위를 가진 남성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97] 실제로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의 저자 스물두 명 가운데 열아홉 명이 여성의 종속을 주장하는 근거를 창조 또는 창조 질서에 둡니다.

96. 모든 상호보완주의자가 남성의 권위가 더 넓은 사회에까지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 파이퍼와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 같은 대표적 인물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쾨스텐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각 성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목적에 대해 거의 또는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가정 밖의 어떤 활동에든 참여해도 된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출처: www.bit.ly/3by3zsy)
97. 켈러 부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남편의 머리됨이 지닌 부드럽고 섬기는 권위와, 아내의 복종이라는 강하고 은혜로운 선물은 우리를 창조 때 본래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오늘날 성경이 남녀의 동등한 존엄을 가르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문제는 남녀 간의 권위와 복종이 타락 이전 창조의 일부라는 생각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장 전체를 이 문제를 알아내는 데 바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창조 세계의 왕과 여왕

창세기에는 창조에 관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각각은 사건의 순서도 다르고 주제의 강조점도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생각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첫 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처음 닷새 동안 하나님은 "…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창조 행위에서 인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 창조의 정점입니다. 천사도, 은하도, 우리 행성을 누비는 지각 있는 피조물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이로운 세계와도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 사이에 서서 양쪽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제사장으로서 창조 세계를 대표하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머지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그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모든 창조 세계에 비춥니다.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인류와 함께, 인류를 통하여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끄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형상을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 숨겨진 어떤 내재적 표지로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N. T. 라이트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생각을 잘 포착합니다. "각도를 맞춘 거울입니다. 각도를 제대로 맞추면,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98]

98. Alice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3에서 인용.

특히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근본적인 동등성에 주목하십시오. 남성이 여성을 평가 절하해 온 세상에서, 이 본문은 여성이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가치를 여성 자신의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바로잡는 말씀을 줍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우리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둘 다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6-28)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자녀를 낳는 것과 땅을 돌보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고, 동물의 영역에 대한 권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점점 더 에덴화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할 더 많은 사람들로 이 행성을 채우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하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겉모습이 다를 수 있고, 한쪽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일 수 있지만 다른 쪽은 그럴 수 없을지라도,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침을 만들지 않습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권위를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인간됨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반영하려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맹의 복입니다. 각 성별에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엇이 고유하든, 요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인류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에 자기 자신 전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기준과 계획으로 "남성적인" 통치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대표하는 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온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99]

사실, 남자와 여자를 완전한 연합으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장의 흐름에서 뜻밖의 일로 다가옵니다. 앞선 창조의 날들에서 하나님은 궁창과 물과 땅을 나누심으로써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새겨 넣으십니다. 별들조차 구별된 때와 날과 해를 표시하며,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의 파수꾼이 됩니다. 인간이 나머지 창조 세계를 이끄는 일을 맡게 되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압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경계선 긋기를 멈추시고,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위계의 기미조차 전혀 없이 그들을 온전한 동반자로 함께 묶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라", 하와에게

99. 사라 베시(Sarah Bessey)는 "Jesus Feminist", ch. 5에서 J. R. 대니얼 커크(J. R. Daniel Kirk)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합니다.

"너는 자녀를 길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공동의 부모, 공동의 제사장, 공동의 통치자로서 그들이 온전히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후대 역사에서 우리 인간은 소수의 사람만을 왕과 여왕으로 세우겠지만,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지명은 여왕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책의 이 첫 장은 뒤따르는 모든 장과 이야기의 나머지 전체에 틀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 역할이 없습니다. 한 성별이 다른 성별 위에 권위를 가진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땅을 다스립니다. C. S. 루이스(C.S. Lewis)가 에드먼드, 수잔, 피터, 루시가 나니아의 네 왕좌에 앉는 장면으로 아름답게 그려 낸 동맹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는 말합니다. "2장과 3장, 곧 두 번째 기록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호보완주의자들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이끌었다는 주장을 위해 꽤 긴 논거 목록을 쌓아 왔습니다. 저는 이 논거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각각에 차례로 답하면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록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은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여깁니다. 저는 이 목록의 위력을 압니다. 당시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며 대형 교회 설교자였던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이 했던 설교 시리즈에 영감을 받아, 저도 한때 바로 이 목록의 몇 가지 요점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온전한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성경 교사로서, 저는 성경의 첫 장들에 대한 이런 억지스러운 접근에 휩쓸렸던 것을 이제 적잖은 후회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 장에서 저는 여러 상호보완주의 설교자와 학자들이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이끌었음을 증명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다섯 가지 추론을 열거하겠습니다. 부록 2에서는 다른 여섯 가지 논거를 반박합니다.

첫 번째 논거: 아담이 먼저,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

상호보완주의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는 나중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지도자라는 것을 전달한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2:13에서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말은 제7장에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아담이 하와를 책임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바울의 의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주의 깊게 읽은 것에 근거하여, 저는 제7장에서

두 가지 해석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무엇을 의미했든, 창세기 2장은 먼저 그 자체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여성의 종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세기 2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창세기 2장 자체가 그것을 가르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글러스 무(Douglas Moo)는 신약 저자들이 때로 구약 본문을 결정적인 해석이나 증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려는 요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논증이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100]

하나님은 두 성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답이 두드러집니다. 아담이 먼저,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인 하와(와 그녀의 딸들) 없이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외롭고 불완전하며 부족한지를 보여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와 씨앗, 별과 바다 생물, 새와 짐승이 생겨난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 옵니다. "사람 …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와 똑같이 기대가 점점 고조되는 느낌이 다음 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적 천재성의 행위가, 온갖 식물과 동물과 단 한 명의 남자가 이미 자리 잡은 에덴에 아름다운 여자를 선물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물들이 점점 고조되는 크레셴도와 함께, 자신의 짝을 향한 아담의 갈망도 점점 깊어집니다. 동물들 가운데 어느 것도(그리고 그는 그 모두를 일일이 살펴봅니다!) 그의 영혼의 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 있는 재료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만났을 때, 그는 절정의 말로 시작하는 사랑의 노래를 터뜨립니다. "마침내 이것이 …!" (Zoṯ happa'am … !)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남성의 권위에서 여성의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완성에서 깊은 연합과 동반자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더 많은 것을 읽어 넣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제임스 헐리(James Hurley)는, 고대의 장자 상속권 개념 때문에 첫 독자들이 아담의 먼저 됨을 그의 권위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논증을 내놓았습니다. 장자 상속권이란 한 가정의 맏아들이 형제들이 받는 재산의 두 배를 물려받고 가족의 지도권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101] 그러나 아담은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하와는 그의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장자 상속권은 창조 질서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고도로 가부장적인 문화들에는 그들 나름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하시스 창조 이야기에서는 티아마트가

100. D.A. Carson (ed)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p. 188
101. Man and Woman in Biblical Perspective, Zondervan, p. 207

마르두크보다 먼저 묘사되고 먼저 존재하지만, 그 문화에서도 가부장제는 여전히 옹호되었습니다.[102] 분명히 여러 창조 이야기의 고대 독자들에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왔느냐는 위계에 관한 그들의 가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고대 문화에 있던 장자 상속권을 의도적으로 뒤집으시고, 그 대신 나중에 태어난 이들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복으로 주시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에서 위에 야곱, 형들 위에 요셉).

두 번째 논거: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리고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8-9에서 그런 취지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제6장에서 깊이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그가 8-9절을 11-12절로 한정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남녀 간의 상호 보완성을 지지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주어야 할 상호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다는 것은 남자를 여자의 존중받아 마땅한 근원으로 묘사하고,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존중받아 마땅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에게 주는 교훈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의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혼자서는 부족했던 아담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녀에 대해 권위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위하여"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해서 그 가정교사가 아들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103]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그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와를 지으신 것은 자녀를 만드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우리 몸에서 나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속해" 있고 처음에는 우리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와의 기원은 다릅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것은 그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짝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압니다. 남자는 그녀의 창조에 참여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지어지는 동안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어진 상태로 그에게 이끌려 옵니다.

102. 리처드 헤스(Richard Hess)가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h. 4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습니다.
103. 이 비유를 알려 준 친구 앤드루 바틀릿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마이크 윙어(Mike Winger)를 비평하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녀가 그의 몸의 일부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남자를 그녀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아담은 흙을 자기 주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창조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이며 목적 있는 행위라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이 그녀가 흙이 아니라 그에게서 지어진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담뿐 아니라 짐승과 새도 땅에서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같은 방식으로 지으셨다면, 무엇이 그녀를 특별히 아담과 연결해 주었겠습니까? 그녀가 그에게서 지어졌다는 바로 그 점이, 아담이 그녀를 자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선언할 때 하와에 대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갈빗대"를 택한 번역자들은 거의 틀림없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tsela의 다른 용례는 거의 모두 무언가의 "옆면", 대개 그 절반을 가리킵니다.[104]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서 지어졌습니다. 1157년, 파리의 대주교가 되기 직전에, 고대 가부장제에 대한 극히 드문 반대자였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er Lombard)는 이 구절에 대해 올바르게 논평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랫사람이 되도록 그의 발에서 취해진 것도 아니고, 그의 주인이 되도록 그의 머리에서 취해진 것도 아니며, 그의 동반자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진 것이다."[105]

세 번째 논거: "여자라 부르리라"

그루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말할 때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주고 있으며, 그루뎀에 따르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그것을 다스리시듯 아담도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지도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녀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부르다" 또는 "이름 짓다"에 해당하는 같은 단어(kara)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물에 이름을 붙이실 때("낮", "밤", "하늘", "땅", "바다")와 아담이 짐승과 새에게 이름을 지을 때(창세기 2:19-20)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나 종을 분류하는 활동이 자동으로 권위의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104.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mH7w4E
105. Peter Lombard, The Sentences

말입니다.[106] 예를 들어 불과 열세 장 뒤에서[107] 여종 하갈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름을 드립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권위를 가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이 여자를 "여자"라고 부른 것이 반드시 위계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 일이 증명하는 것은 그가 그녀의 독특한 범주, 곧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언어에서 이름은 이름 지어지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종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남자(ish)가 그녀를 "여자"(ishsha)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그가 권위를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특히 낮게 만듭니다. 두 명사의 유사성에 주목하십시오. 아담은 그녀가 동물들과 달리 자신과 같은 존재이며 알맞은 동반자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그녀의 복종이 아니라 그녀의 유사성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완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특히 아담이 황홀경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이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지휘 계통을 알아차리도록 의도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길고 긴 동물들의 서커스 행렬을 지나고 나서, 그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라는 단어를 애초에 고유명사로 보는 번역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대의 모든 독자가 알던 보통명사, 곧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리키는 단순한 명칭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다른 단어: vaiyokra) 것은 창세기 3:20에 와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이 이름 짓기가 타락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타락 이전 관계에 존재했다는 위계에 대해 아무것도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논거: "네가 어디 있느냐?"

부부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뒤 동산에 숨고, 그때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시고 남자에게만 다가가실까요?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죄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추론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106.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이름을 주실 때 그분은 주권적 통치자의 자격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qārā᾽ 자체가 우월성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이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그것이 분명하려면 1장의 '정복하라'와 '다스리라'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이름을 주는 자로 행동하면서 사람은 분별의 자질을 드러낸다." (Victor Hamilton,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07.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16:13)

그러나 대화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분은 손으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은 왜 그들을 찾을 수 없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기록에서는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되며, 그러려면 그분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그분은 두 가지 질문을 더 이어 가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11절) 그분의 사실 확인은 하와에게 무언가를 물으시면서 계속됩니다(13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그리고 아담에게만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화자가 동산 이야기 전체에서 능숙하게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를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사탄과 한 번에 하나씩만 대화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상호작용에는 특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이고, 여자는 남자를 잘못 이끕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탓합니다. 그다음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뱀에게, 그다음 여자에게, 그다음 남자에게 결과를 선언하십니다. 순서는 뱀,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뱀; 그리고 뱀, 여자,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나 남자와 여자 둘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문학적 장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다음 하와에게 물으신 것은 또한 서로 손가락질하는 도미노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뉘우침이 없다는 것과, 죄가 부부 관계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드러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의 순서가 권위의 위계에 대한 그분의 인정을 뜻한다는 논증은, 하나님이 세 당사자와 나누신 두 차례의 대화를 나란히 놓고 보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를 심문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가리키며, 그다음 여자를 심문하시고 여자는 사탄을 고발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세 당사자 각각에게 결과를 밝히시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뒤집어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또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른바 위계에 대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담에게 마지막으로(또는 먼저)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왜 그런 뜻이 전혀 아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논거: Ezer Kenegdo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알맞은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108] 이 구절은 여성이 하나님의 선하고 본래적인 설계의 일부로서 남성의 지도 아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존 파이퍼가 초판을 작성한 댄버스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 열 가지 "교리적" 진술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무려 네 가지의 증거 구절로 이 한 구절을 사용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 구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동산의 삶에서 충성스럽고 알맞은 조수라는 의미에서 남자의 '돕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109] 마찬가지로 조지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면,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돕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권위를 가진다고 … 단언하는 것은 그저 타당한 일이다."[110]

그러나 나이트와 파이퍼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돕는 자는 아랫사람일 수 있지만, 동등한 사람이거나 심지어 윗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는 자녀나, 가정교사의 "도움" 없는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구약에서 결코 종속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돕는 자"로 번역된 단어(히브리어: ezer)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데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밖의 구약에서 ezer가 나오는 19번 가운데, 16번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돕는 자"이신 하나님에 대해[111] 사용되고, 세 번은 군사적 지원, 곧 그것이 없으면 전투에서 패할 증원군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19번 가운데 18번에서, 도움을 받는 쪽은 돕는 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112] 이 가운데 여덟 번은 "돕는 자"가 "구원자", "보호자", 또는 "건져 내는 자"입니다. 나머지 경우에서 도움의 성격은 힘을 제공하는 것이며, 흔히 군사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ezer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108. 창세기 2:18
109. John Piper and Wayne Grudem (eds),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79
110. George Knight,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ole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 p. 43
111. 출애굽기 18:4; 신명기 33:7, 26, 29; 시편 20:2; 33:20; 70:5; 89:19; 115:9, 10, 11; 121:1, 2; 124:8; 146:5; 호세아 13:9를 보십시오.
112. 한 가지 예외는 에스겔 12:14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갈대아 왕이 전투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주위에 아무도 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돕는 자들에 대한 왕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 없이는 그가 완전히 길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 "helper"(돕는 자)는 ezer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일에 절망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오늘날 "helper"라는 말은 대개 자격이 덜한 아랫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성 전기 기술자에게 알맞은 드라이버를 건네주는 견습생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유익합니다. 아닙니다! Ezer는 "강한 돕는 자"로, 더 나아가 "동반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REB, NAB, NRSV, CEV 같은 많은 번역본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떤 방식으로 아담을 돕습니까?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 하와가 아담의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가정주부가 됨으로써 그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그녀가 아담을 돕는 주된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창세기 2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알맞은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녀는 그를 외로움에서 건져 줌으로써 그를 돕습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입니다. 덧붙여,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녀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일을 그와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형상을 지닌 두 존재는 모두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고, 이 행성을 사람으로 채우며 에덴화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113] 하와는 또한 아담에게 주어진 동산을 돌보는 과업에서도 그와 동반자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그를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와 나란히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suitable"(알맞은)로 번역된 단어(히브리어: kenegdo)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그의 ezer가 아니라 그의 ezer kenegdo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알고 보니 영어 단어 "suitable"은, "helper"가 ezer의 번역으로서 부적절한 것만큼이나 kenegdo의 번역으로서 부적절합니다. Kenegdo는 그와 마주하는 그와 같은 존재를 뜻하는 복합 표현입니다. 캐시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맞물리는 두 개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제멋대로 다르지도 않으며,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114]

그녀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자 동맹입니다. 남자에게 부족한 것을 여자가 가지고 있고 채워 줍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남자에게 나중에 덧붙여진 존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 보완자, 짝, 협력자입니다.

113. 어떤 학자들은 ezer라는 단어가 그녀가 남자들에게 줄 궁극적인 도움을 예고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 모든 남자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흥미로운 언어유희로, 창세기 3:15에서 "후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ezer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그의 구원자입니다. 그녀가 세상의 구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4.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그가 전쟁 중이라면 그녀는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그가 세상을 에덴화한다면 그녀는 그의 협력자입니다. 그가 자녀를 기른다면 그녀는 공동의 부모입니다.[115] 첫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관계는 상호 지원, 상호 존중,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안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자 형제이자 남편이자 친구인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에, 딸들과 자매들과 아내들과 여성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맹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도록 남겨지지 않은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우리의 동반자이자 함께 싸우는 전우들 곁에 기쁘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18의 뜻입니다.

이것이 상호보완주의를 얼마나 허무는지 보이십니까? 댄버스 선언의 "교리적" 진술 가운데 네 가지는, (제가 믿는 대로) 반복되는 증거 본문인 창세기 2:18에 대한 잘못된 해석 위에 세워졌다면 흔들거리게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 2:18은 상호보완주의에게 "알맞지 않은 돕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썰렁한 주해 농담은 제쳐 두고, 타락 이전 창세기의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도권의 흔적을 찾는 일이 왜 헛수고로 판명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 넣기(EISEGESIS)의 사례들

해석에 관한 한 읽어 넣기(eisegesis)는 피해야 합니다. 인간 저자도 신적 저자도 넣어 두지 않은 의미를 본문에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주해(exegesis)를 하여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분별해야 합니다.

십 대 때 처음 창세기를 읽었을 때, 저는 창세기 3:16에 이르기까지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에 관한 어떤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다룬 다섯 가지 추론 (그리고 부록 2의 여섯 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듣고 나자, 아담이 책임자였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ers and Preacher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주해는 본문을 배반하며, 우리의 … 전제가 우리의 주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다."

115. 사실 누군가의 ezer kenegdo가 된다는 것은, 그들 또한 여러분에게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은 여러분과 마주하는 여러분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며,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러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에덴화하는 자, 함께 형상을 지닌 자, 공동의 부모,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완성을 위해 그녀에게도 필요한, 자신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져옵니다.

추론이 사람을 오도할 수 있는 힘을 보여 주기 위해, 제가 다음과 같은 논거에 근거하여 타락 이전에 하와가 아담의 윗사람이자 주인이었다고 배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 창세기 1장에서는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마지막에 창조된 하와도 다스립니다. 2) 하와는 "돕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연약한 자를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께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3) 아담은 흙으로, 하와는 살로 지어졌습니다. 4) 부계 거주 문화에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의 가족에 접붙여졌지만, 창세기 2:24는 남자가 자기 가족을 떠나 아내와 합한다고 말합니다. 5) 사탄은 양 떼를 흩으려면 목자를 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6) 하와를 무너뜨리는 데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는 약간의 인간적 압력만으로 충분합니다. 7)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그다음 아담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녀가 지도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8) 하와에게 죄의 결과는 그녀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그녀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면, 아마 교단 전체가 그것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논거를 쌓아 올리고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의 논거 목록과 이 여덟 가지 목록은 모두 같은 오류의 예입니다. 바로 읽어 넣기입니다. 이어서는 안 되는 점들을 이으면 왜곡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창조 질서"는 창조 세계 전체에 적용된다

상호보완주의자가 교회와 가정에서 여성이 남성을 이끌거나 남성과 함께 이끄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 "창조 질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신학적으로 창조는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족이자 최초의 교회였을 뿐 아니라, 최초의 인간 공동체, 곧 사회 자체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대부분의 학계 연구는, 바울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일반적인 남녀 관계의 원형으로 사용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저는 존 파이퍼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높이 삽니다. 그는 창조가 교회 구조와 사회 구조 모두에서 여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다른 신학자의 말을 지지하며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은 …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내게 확신시켜 준다. … 남자 비서를 둔 [한] 여자 상사는 … 양쪽 모두의 인간성에 부담을 줄 것이다 … 이것은 … 창조의 일부이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사실이다."[116]

116. John Piper,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37

How Should Women Lead?라는 글[117]에서 파이퍼는 여성이 남성을 오직 "비인격적으로"만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멀리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나 건물을 설계하는 도시 계획가나 건축가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훈련 교관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놀라운 절제와 복종적인 태도로" "다윗을 설득하여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한" 아비가일처럼 남성을 "비지시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에게 대면하여 교리를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 여자로서 권위 있게 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18])

마찬가지로 케빈 드영(Kevin De Young)은 창조의 설계가 사회에서 남성 리더십이라는 이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119] 창세기 2-3장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의 읽기가 옳다면, 우리는 우리 딸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과 정부에서도 남성을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이끄는 자리에 오르려는 포부를 감히 격려해서는 안 됩니다. 드영은 심지어 "회사 조직도"의 어느 단계에 있게 될지 모르는 자기 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남성은 이끌고 여성은 돕는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여성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겸손히 돕는" 동안 남성들이 "사랑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20]

이 해석이 우리 딸들의 직업 선택지에 얼마나 무거운 제약을 가하는지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파이퍼와 드영이 창세기 2장을 잘못 읽었다고 확신합니다. 여성의 직업적 번영만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호보완주의자 친구들에게 창세기 2장에 성별 위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고려해 보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그렇게 결론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7. www.bit.ly/3LPBXQV
118. 존 파이퍼는 "Do You Use Bible Commentaries Written by Women?"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책과 글쓰기라는 현상이 사이에 끼어들어, 저자인 여성을 독자의 시야 밖에 두고,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여성적 인격이라는 차원을 제거한다."
119. 저는 케빈 드영의 글 "Death to the Patriarchy?"를 여기서 비평합니다: www.bit.ly/3LQLN4W.
120. "Men and Women in the Church", ch. 9에서 드영은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밝힙니다. "남성은 이끌고 여성은 돕는 것, 이것이 남성과 여성이 의도적으로 찾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회사 조직도에 남성과 여성이 모든 단계에 배치되어 있을 수 있는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받아들일 길이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 … 사랑으로 이끄는 남자는 여자가 겸손히 돕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어 준다." 이것은 한 말이 다른 말로 상쇄되는 모순된 메시지입니다. 1) 여성은 사회에서 남성을 이끄는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여성은 실제로는 남성이 이끌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드보라 이야기를 심각하게 잘못 읽어, 그녀가 자신의 지도권을 바락에게 넘기려 했다고 시사합니다. 저는 제10장에서 이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겠습니다.)

가부장제의 기원

가부장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설계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왜 역사상 거의 모든 문화가 그것을 실천해 왔을까요? 창세기 3장은 신학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턱에서 아직 과즙이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121]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상호보완주의자들은 타락 때문에, 타락 이전의, 아내에 대한 남자의 자애로운 다스림이 이제 폭정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여기의 "다스리다"(히브리어: mashal)라는 단어는 억압적인 다스림을 뜻합니다. 경건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신 그는 그녀를 지배할 것입니다. 한때 선했던 것(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의 리더십)이 잔인하고 착취적인 것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이제 하와 위에 지도권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확대하면 남성들이 여성들 위에 지도권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6-28은 남성이 여성과 나란히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 위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두운 일입니까.

히브리어 mashal은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억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관할하다, 지배하다, 또는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81번 나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리더십이나 다스림을 뜻합니다. 첫 용례에서는 해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마지막 용례에서는 제사장이자 왕인 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122] 구약의 모든 용례를 분석하는 주요 성서 히브리어 사전 두 권 모두 이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혹한" 같은 한정어와 연결되지 않는 한, 이 단어의 핵심 의미 개념에는 억압이나 폭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한 가지 표시가, 남자들이 단지 여자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적인 남성의 다스림이 자애로운 남성의 다스림보다 더 나쁘기는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이상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로 남자와

121. 창세기 3:16
122.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www.bit.ly/3nVjfvA.

여자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권력에 기초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로 충분히 끔찍합니다.

이어지는 두 절에서 아담이 직면해야 할 결과는, 그가 본래 취해졌던 바로 그 땅이 이제 가시에 찔려 흘리는 그의 피와 이마의 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먹을 것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하와와 아담의 결과는 평행을 이룹니다. 아담은 이제 자신의 근원(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와는 이제 자신의 근원(아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부장제의 참된 기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통제하게 되는 모든 타락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재앙과도 같은 기본 설정입니다.

하와의 "원함"이란 무엇인가?

하와가 아담을 "원한다"(히브리어: teshuqah)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주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연스러운 갈망. 이 관점은 자기 남자를 향한 하와의 갈망이나 헌신을 자연스러운 것,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16-19절의 문맥은 이것이 비록 좌절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갈망임을 시사합니다. 여자는 자녀를 세상에 낳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끔찍한 고통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전처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지만, 이제는 땅의 가시덤불이 그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땅은 이제 죽음으로 그를 삼킬 것입니다. 이 각각은 하나님이 주신 추구가 탈선하리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가 자기 짝을 향해 품는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다스리려는 그의 결심에 가로막힙니다.

과장된 갈망. 이 관점은 앞의 관점을 수정하여, 자기 남자를 향한 여자의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나 헌신이 타락 이후 우상숭배적인 것이 된다고 봅니다. 마음의 참사랑이 자신을 구해 주기를 기다리는 디즈니 공주처럼, 이 관점은 여자가 왜 그토록 자주 사회적으로 한 남자에게 얽매이는지를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받아 주심과 품이 아니라 그 남자의 받아 줌과 품에서 자신의 일차적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요구가 많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칼뱅이 시사했듯이 비굴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모든 바람에 줏대 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반역적인 갈망. 이 해석에 따르면, 그녀는 그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도 똑같이 대응하여 남녀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상호보완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한때 하나로서 다스리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다스리려 한다"[123]고 말합니다. 비록 남자가

123. Victor Hamilton,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이기겠지만 말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전에 정하신 아담의 다스림에 대한 하와의 반역으로 읽으며, 그 다스림은 이제 폭압적인 것이 됩니다.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은 하와가 이제 남편의 권위에 반역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담에게 맞서고 아담의 리더십에 저항하려는 내적 충동과 욕구가 있다. 그녀의 충동과 욕구와 의지는 남편을 거스르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루뎀이 번역 위원회의 일원이었으니, ESV가 이 구절을 "네 갈망은 네 남편을 거스를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느 관점이 옳을까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지만, 세 번째, 특히 그 상호보완주의 판본은 심각하게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여섯 가지이며, 대략 무게가 커지는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첫째, 이 해석의 함의는 은근히 해롭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통제하는 이유가 그녀가 계속 그에게 싸움을 걸기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의 다스림이 가혹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만한 것이 됩니다. 반항하는 아랫사람을 달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둘째, 바로 앞 절에서 양방향의 지배 다툼이 묘사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16에서 이와 평행하는 양방향의 "남녀 간의 전쟁"이 묘사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본문에서 지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셋째, "통제하려는 욕구"는 새로운 번역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택한 몇 안 되는 최근 번역본들(NLT 같은)은 What is Woman's Desire?[124]라는 제목의 1975년 논문을 따릅니다. 그 논문은 창세기 3:16에서 갈망을 뜻하는 같은 드문 단어가 창세기 4:7에서도 다시 쓰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거기서 가인은 죄가 문에 엎드려 그를 원하지만 그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논문은 두 경우 모두에서 이 단어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뜻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문맥은 상당히 다릅니다.[125] 예를 들어 첫 번째 본문에서 하와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다른 이가 그녀를 다스리게 되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가인은 죄를 막기 위해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문맥을 사용해 한 본문의 단어에 의미를 읽어 넣은 다음, 그 의미를 문맥이 다른 본문으로 옮겨 가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126]

124.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mHetTi
125.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2YguUMU
126. 그런데 웨인 그루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관해 그는 "한 경우에 쓰인 단어의 문맥을 다른 경우의 그 단어 용례에 들여오는 것"은 "해석에서 근본적인 오류"라고 씁니다. (Evangelical Feminism, 5.10)

넷째, ESV가 "갈망 … 거스를"을 택한 것은 특이하고 아마 틀렸을 뿐 아니라,[127]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거스름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 가지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그녀가 자녀를 세상에 낳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듯이, 그녀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의 역할은 그녀가 그를 향해 품는 갈망이나 헌신을 거스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든 우상숭배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 고통은 해산의 진통이 아니라 그가 강요하는 다스림에서 생깁니다.

다섯째,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창세기 저자에게는 한 가지를 뜻하고 아가서 저자에게는 전혀 다른 것을 뜻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창세기 4:7과 아가 7:10—"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의 [teshuqah]가 나를 향하는구나"—에서 teshuqah의 핵심 의미를 조화시켜 보면, 그것은 아마 강한 자연스러운 갈망이나 한결같은 헌신을 가리키지,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아가서가 권력에 기초한 형태의 성이나 사랑을 찬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3:16과 아가 7:10의 문맥은 다르지만, 둘 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섯째, 과거와 현재의 거의 모든 해석자와 번역자는 teshuqah라는 단어를 "돌아섬" 또는 "갈망"으로 받아들입니다.[128] 월터 카이저는 1528년에 이탈리아 수도사 파니노(Pagnino)가 이 단어를 "갈망"으로 번역하기 전에는, 알려진 고대 역본 열두 개가 모두 "돌아섬"이라는 의미를 택했다고 지적합니다.[129] 오늘날의 번역본에는 파니노의 영향이 우세하지만, 성서 히브리어의 대표적 학자인 앤드루 매킨토시(Andrew Macintosh)는 이 단어가 "헌신된"(한결같이 주의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130] 이것은 창세기 4:7의 불길한 은유를 완성합니다. 죄는 웅크린 포식자처럼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고, 이제 경고를 받은 가인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그것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가서에도 들어맞습니다. "그는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쏟는다." 창세기 3:16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두 번째 관점에 신빙성을 더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네 남편에게로 향할 것이다."[131]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지배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127. 이 경우 "for"(향하여)라는 단어를 "contrary"(거슬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은 히브리어 전치사 el을 잘못 번역하는 것입니다. 메리 콘보이(Mary Convoy)와 맷 린치(Matt Lynch)가 이 오류를 잘 비평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T8fjGz 및 www.bit.ly/3MNDPdz
128. 마그 모우치코(Marg Mowczko)의 두 글을 보십시오: www.bit.ly/3ghuPAZ 및 www.bit.ly/3yW4kI3
129. Hard Sayings of the Bible, p. 98.
130. "The Meaning of Hebrew תשוקה," Journal of Semitic Studies LXI/2 (2016), p. 365-87.
131. 20세기 전환기에 중국에서 활동한 여성 선교사 캐서린 부시넬이 이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갈망" 대신 이 단어를 "돌아섬"으로 번역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에게로 돌아서고 있으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죄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먼저 남편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출처: Kristen Du Mez, A New Gospel for Women, p. 121)

이것이야말로 남녀 관계에서 죄의 힘이 빚어낸 진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관점, 곧 제가 택한 관점에 따르면, 부부의 첫 만남이 지녔던 아름다움이 끔찍하게 뒤집혔습니다. 남자는 한때 자신이 찾던 동등한 동반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대체물로 바라보는 그 남자에게서 주인을 발견하고 고통받을 것입니다. 함께 형상을 지닌 이와 함께 다스리고(창세기 1장) 동등한 짝과 협력하는(창세기 2장) 대신, 타락한 남자는 이제 자신을 완성해 줄 존재로 그를 갈망하는 여자를 통제할 것입니다(창세기 3:16). 죄로 부패하여, 여자와 남자 모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친밀한 동반자 관계의 일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6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주일까요, 규정일까요, 아니면 묘사일까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뱀과 땅은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남자와 여자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규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억압하라고, 또는 여자들에게 해산할 때 고통을 겪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묘사입니다. 동산에서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흔해질 한 가지 구체적인 왜곡입니다.

남녀 간의 실패한 관계가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산을 덜 위험하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땅을 경작할 때 거름을 주고 잡초를 없애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관계에서 지배, 짓누르는 열등함, 해로운 우월함, 우상숭배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궁극적으로 남녀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와의 "후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5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상을 잊지 맙시다. 성별 위계와 싸우는 우리에게는 본받고자 할 감동적인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장엄한 첫 만남입니다. 리처드 데이비드슨(Richard Davidson)은 구약의 젠더와 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있는 남자의 창조와 이야기의 끝에 있는 여자의 창조는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 화자는 남자의 창조를 묘사하는 데 여자의 창조를 묘사할 때와 정확히 같은 수의 단어(히브리어로)를 사용한다. 창세기 2장의 움직임은 우월한 자에게서 열등한 자로, 또는 리더십에서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여자는 이야기의 절정이자 정점으로, 그리고 아담과 온전히 동등한 존재로 창조된다.[132]

132. Richard Davidson, Flame of Yahweh, ch. 2.

창세기 2장 어디에서도 남자에게 그녀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가 그녀를 이끌라는 말도, 그녀가 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이 끝날 때 그에게는 그의 외로움을 덜어 주고 그가 앞서 받은 바로 그 소명에서 그와 협력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끝에 있는 신학적 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의 읽기가 옳다면, 그것은 아마 "이러므로 남자가 … 그의 아내를 책임질지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 결혼식에서 인용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와 "한 몸"이라는 말은 이 장이 다스림이나 지휘권이 아니라 상호성과 완전함을 가르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바울은 이 통찰을 확증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창세기 2:24를 언급한 그는, 불과 몇 절 뒤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것을 남편에게 내어 주며 … 남편도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것을 아내에게 내어 주느니라." 바울의 창세기 2장 읽기에 따르면, 두 배우자는 한 몸이므로 둘 다 그 한 몸에 대해 동일한 접근권과 권한을 가집니다.[133]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남성다움에 리더십이 내재하고 여성다움에 복종이 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확언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연합, 상호성, 동등성이지, 위계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첫 언급은 창세기 3:16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남자가 죄의 결과로 여자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성이 여성을 이끌도록 계획하셨다면, 그분이 권위에 관한 다른 두 언급, 곧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창조 세계에 대해 가지는 자애로운 권위와 타락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 스스로 내세우는 권위에 주신 명료함의 적어도 절반만큼이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 본문들에 넣지 않으셨겠습니까? 권위에 관해 그 밖의 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섬기며, 서로 동반자가 되어 나머지 창조 세계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 줍니다.

보지 않게 되고, 비로소 보게 되다

성경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열등하기 때문에 종속된다"는 교회의 역사적

133. 저와 직접 소통하며 고린도전서 6:16과 7:4 사이의 이 연결을 보도록 도와준 앤드루 바틀릿에게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고대 주석가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증하기 위해, 이 타락 이전 기록에 여성의 열등함을 읽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권적인 위치에서 보는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자기 시대의 가부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문화의 눈을 통해 본문을 읽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에 만연한 문화에 맞서기는커녕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부 크리소스토무스[134]뿐 아니라 개신교의 창시자 루터도 창세기 2-3장을 충분히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루터의 전반적으로 낮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창세기 2-3장에 없는 것을 "보지 않게" 되었고 거기 있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에 젊었던 1523년, 그는 창세기를 차례로 설교하면서, 하와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오래된 관점을 의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은 것을 그녀가 그에게 의존한다는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남편의 지성에 가려진 "연약한 작은 여자"로 묘사했고, 아담의 타락을 사탄의 이단에 쉽게 넘어간 그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훨씬 나이가 들고 결혼한 뒤에 그는 같은 본문을 다시 설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와는 영웅적인 여성, 탁월한 철학자가 되어, 가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고, 남편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렸다. 타락 이전에 하와가 아담과 동등했던 면면을 강조하면서, 루터의 사색은 그의 신학적 선배 누구의 것보다도 더 멀리 나아갔다."[135]

하나님의 은혜로, 여성 혐오적인 문화에 목까지 잠겨 있던 루터가 창세기 2장에서 어렴풋이 보게 된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수많은 신학적 여정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나아진 것은 제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읽어 넣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2장의 실제 가르침을 보게 된 그 밤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타락하지 않은 동산에 남성의 리더십이 존재했다고 그토록 확신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적어도 들어 볼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우리 교회의 연구 보고서 일부를 쓰기 시작한 저는,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한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각 논거를 숙고하는 동안 서서히 깨달음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저는 소리 내어

134. 예를 들어 크리소스토무스는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하와는 지음을 받자마자 종속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을 때에도, 그녀가 하나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남자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는 참으로 그녀가 자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했다." (1 Corinthians, Homily 26)
135. Mickey Mattox, Defender of the Most Holy Matriarchs: Martin Luther's Interpretation of the Women of Genesis, p. 252-53 (데이비드슨의 Flame of Yahweh, ch.2, fn. 23에서 인용.)

외쳤습니다. “세상에, 여기 없잖아. 하와는 모든 면에서 아담과 동등해!”[136] 그 순간 아내가 제 곁을 지나가다가 제가 갑자기 터뜨린 소리에 조금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일과, 성경에서 방금 (안) 보게 된 것을 아내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수없이 보아 온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ezer kenegdo예요. 나의 강한 돕는 자이자 완벽한 짝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곳에서 당신은 강해요.”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오해의 들보가 이제 제 마음의 눈에서 제거되자,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제 아내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제가 크리소스토무스와 루터,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이 부당하게 받아들인 창세기 1-2장의 어떤 터무니없는 해석을 가지고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젠더와 성에 관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학자가 쓴 책 가운데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책에서,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제가 이 장에서 제시한 것과 정확히 같은 관점을 취하며, 같은 결론에 이른 창세기 2장에 관한 주요 학술 연구 50편을 인용합니다.[137]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는 창세기 1-2장이 타락 이전에 여자를 종속시킨다는 것을 거부한다.”[138] 예를 들어 The Book of Genesi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는 창세기 3:16에 이르기까지의 부부 관계를 “함께 동등한 자들의 통치 …”로 묘사하며, 그들은 “하나로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Genesis: NIV Application Commentary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세기 2장은 … 성 역할을 확립하거나 표명하지 않는다. 신약 본문들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 전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든, 이 본문은 성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에 관심을 둔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섬긴다.”

세계 교회에서 가장 큰 부분인 로마 가톨릭교회조차 이제는 남녀의 “본질적” 그리고 “근본적” 동등성을 가르치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전적으로 타락의 탓으로 돌립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창세기 3:16이 말하는 “이 악한 유산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말합니다.[139] 가부장제는 진리의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한 자가 처음 우리 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인류의 목에 걸려 버린

136. 창세기 1-3장 같은 문서가 그토록 철저히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기록되었으면서도 가부장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야말로 압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의 아트라하시스 기원 이야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남신 마르두크가 여신 티아마트를 갈기갈기 찢고, 그녀의 몸의 부분들이 우리의 물리적 우주가 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137. 그가 책 “Flame of Yahweh”를 쓴 이후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상호보완주의 성경 대학 밖에서는, 이것이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합의입니다.
138. 케빈 자일스가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2에서 하는 말입니다.
139. John Paul II, Mulieris Dignitatem, p. 36–41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타락 직후에 하와의 후손[140]이 언젠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멍에를 벗기고, 관계를 파괴하며 수많은 사람을 옥죄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일그러뜨리는 억압의 사슬을 제거하고 해체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40. 창세기 3:15를 보십시오.



5
구속된 남녀 관계

"아무런 소란이나 광고도 없이 예수님은 타락의 저주를 끝내셨고, 여성에게 부분적으로 잃어버렸던 고귀함을 다시 입히셨으며, 남녀평등이라는 본래의 창조의 복을 자신의 새 나라 공동체를 위해 되찾으셨다." 존 스토트(John Stott)[141]

저는 아프리카 남쪽 끝에 있는 큰 항구 도시 케이프타운에 삽니다. 이제 배들이 이 도시의 항구를 떠나는 순간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뒤로는 항로를 다시 바꿀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배들은 처음 정한 방향이 결국 이끄는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몇 도의 차이가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하느냐 마이애미에 도착하느냐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읽기와 상호주의적 읽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남녀 사이의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호주의자들은 이런 종류의 위계가 타락 이후에야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른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에 서기로 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메타스토리)를 보는 방식 전체가,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남녀 관계의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은 리우에 도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극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보기에) 상호보완주의의 참으로 비극적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남쪽의 상호보완주의가 아니라 북쪽의 남녀 상호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 이야기 안에는, 특히 구속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처음 방향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41.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ch. 13.

성경에서 신학을 이끌어 낼 때 핵심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본문이 얼마나 많은가라기보다, 성경에서 주된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의 처음 세 장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신학적으로 풍성한지 이미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 포괄적인 성의 신학을 이끌어 낼 때에도 막대한 무게를 지닌 다른 주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하신 방식, 오순절에 여성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신 일, 갈라디아서 3:28에 나타난 구속받은 인류에 대한 바울의 비전,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여성의 친구

제11장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여성들의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분의 지상 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성별 위계를 뒤엎고 성차별을 전복하신 방식입니다. 사실 그분이 여성에게 부여하신 급진적인 존엄은 고대 세계의 종교 지도자로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던 그녀는 역사 속의 가부장제를 연구하면서 각 종교의 창시자들이 어떻게 남성 지배를 조장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 해방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교회에서 제 옆에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하신 방식을 1세기의 랍비 엘리에제르(Eliezer)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다.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는 딸에게 음탕함을 가르치는 자와 같다.”[142] 현대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여성에게 친절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혁명적이셨습니다. 창세기의 그 첫 장들을 잘못 읽은 데다 알려진 세계의 구석구석을 뒤덮은 가부장제가 겹치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세상의 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고,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던 사회적, 종교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벤 시라(Ben Sirach)도 엘리에제르의 경멸을 공유했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앉지 마라. 옷에서 좀이 나오듯 여자에게서 여자의 악의가 나온다. 남자의 악의가

142. The Mishnah, Sotah 3:4, 19a; 21b

여자의 친절보다 낫다. 여자는 수치와 치욕을 낳는다."[143]

그러나 복음서에서 여성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의 사역 여행에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요안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과 동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무려 14번이나 언급되는 그녀는 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실 때,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을 듣습니다. "여자여 …" 처음에 그녀는 그분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여성의 존엄을 세우는 데 선구자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은 일찍이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한 과부의 외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아들을 잃은 그녀의 비통함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취약함을 헤아리십니다.[144] 또 한 번은 12년 동안 만성적인 혈루증으로 고생해 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정결법을 어기고, 그녀는 몰래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자신이 이제 "부정"해졌다는 통념을 무시하시고, 오히려 감히 손을 뻗어 그분에게서 치유의 능력을 끌어낸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끔찍한 금요일, 아들의 처형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찔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성을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던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분의 설교를 여성 인물들로 채우십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과부의 기쁨에 비유하십니다.[145] 다른 곳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이 정의를 구하는 과부의 담대함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146]

그분은 또한 그분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반응한 본보기가 된 특정한 여성들을 부각하십니다. 그분은 용서받은 창녀의 사랑의 행위를 사용하여 한 바리새인의 손님 대접에 소홀했던 태도를 부끄럽게 하십니다.[147] 그분은 가난한 과부의 너그러움을

143. 시락서(집회서) 42:12-14. 시락서는 다른 곳에서 딸은 완전한 손실이며 언제든 수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144. 누가복음 7:11-15
145. 누가복음 15:3-10
146. 누가복음 18:1-8
147. 누가복음 7:36-50

주목하게 하시고[148] 조급한 제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려와 축복받게 하는 어머니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남성의 변덕에 취약하게 내버려 두었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 규범과 법에도 도전하십니다. 한 엄격한 종교 집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은 이 성차별적인 법에 대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들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명령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149] 아내가 남자의 재산으로 여겨지고, 남자들이 저녁을 망쳤다거나 충분히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으며, 이혼당한 아내들이 사회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곧 본래부터 지니고 있고, 떼어 낼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와가 아담에게 소중한 상대이자 동등한 동반자였던 것처럼, 그들의 아내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문화가 결혼의 정의를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며, 남자들에게 그들의 ezer kenegdos를 그냥 처분해 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대우라기보다 인간다운 대우입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대하실 때 요란함을 줄이심으로써 이것을 본보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여성들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나오고, 때로는 배경에 있습니다. 때로는 받고, 때로는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 시대로서는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남자로서, 혹은 여자들을 여자로서 따로 부르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 역할이나 성별에 맞는 영역 안에 머무는 것에 관해 가르치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 작가 사라 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의 기록 전체에서 나는 예수님이 여성을 남성과 조금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좋았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모셔야 할, 고급

148. 마가복음 12:41-44
149. 마태복음 19:1-8

도자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해하거나 기여하거나 일할 능력에 대해 특별 면제를 받지도, 조심스러운 염려를 받지도 않았다. 여성은 성령의 책망을 받기에 너무 사랑스럽거나 연약하지도 않았고, 어둠의 나라를 밀어내기에 너무 교활하거나 질투와 불안과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존재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생색을 내지 않으셨고, 내려다보지도 않으셨다.[150]

베시는 옥스퍼드의 여성 학자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가 품었던 생각의 일부를 되울립니다.

여자들이 구유에 가장 먼저 있었고 십자가에 가장 나중까지 있었던 것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이 사람 같은 남자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없었다. 그들에게 잔소리하지도 않고, 아첨하거나 구슬리거나 생색을 내지도 않은 선지자이자 선생 … 그들의 질문과 논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역을 정해 주지도 않았으며, 여성스러워지라고 재촉하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조롱하지도 않은 분. 내세울 사사로운 속셈도, 지켜야 할 불안한 남성의 체면도 없었던 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자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분.[151]

복음서 기자들은 사회와 사역에서 여성의 존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릴 뿐 아니라, 여성들을 가능한 한 가장 긍정적인 빛으로 그려 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 장들에서 예수님과 여성들의 만남을 살펴보면, 한 여성(마르다)이 그분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분은 그녀를 너무나 부드럽게 대하시고, 제11장에서 보겠지만 그 뒤에 찾아온 그녀의 비통함을 최고의 영예로 맞아 주십니다. 그들이 젖어 있던, 여성을 비난하고 탓하는 사회와 달리, 예수님의 주도에 저항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분을 버리거나 배반하는 여성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에게서 위선, 허영, 변덕, 우둔함, 고의적인 불신, 그리고 철저한 악을 보여 주는 방식과 대조해 보십시오.[152]

혹은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가 쓴 예수님의 전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나오는 곳이 27군데나 있습니다. 천사가 남자인 사가랴에게, 그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건과 관계를 맺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누가가 자신의 걸작의 구조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를 생각하면, 그의 요점을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여성의 온전한 존엄도 옵니다. 이 요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히 세 여성을 대하신 방식을 살펴볼 때 가장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50. Sarah Bessey, Jesus Feminist, ch. 1.
151. Dorothy Sayers, Are Women Human? Essays on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p. 68.
152. 요한복음 12:4-5; 13:2, 27-40, 37-38; 9:24-35; 16:18, 31-32를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 여자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던 세상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미움받던 한 여인과 마주치도록 일부러 여정을 계획하시는 것을 봅니다.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자기 가족 가운데 여성과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낯선 여성과는 말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분이 드러내 놓고 도움을 청하시고 자신과 대화하시는 것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것은 곧 이 여인이 남자들과 맺어 온 관계의 이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필요에 관한 개인적이고 신학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학대를 당해 온 사람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이전에 어떤 남자에게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어떤 개인 사이에 기록된 가장 긴 대화인 이 대화에서, 그분은 그녀의 신학적 질문들에 성실히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당대의 관점을 그분이 은근히 무시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의 결과로 그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되고, 그분의 첫 번째 대규모 전도자가 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남자도 고발했지만, 그는 이 이야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풀려났을 것입니다. 군중은 그녀의 수치와 명백한 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흙에 묻은 채, 드러나고 모욕당한 채, 첫 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며 거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둘레에 보호의 원을 그리십니다.[153] 침묵이 흐르고, 긴장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목소리와 달리,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가 서려 있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그분의 도전은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의 미간을 정통으로 맞힙니다. 하나씩 하나씩, 움켜쥔 주먹들이 무거운 돌을 내려놓습니다. 여인이 몸을 펴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들어 본 적 없는 은혜로 그녀를 부드럽게 덮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중동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요세 벤 요하난(Jose ben Johanan)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스스로 화를 부르며 마침내 지옥을 물려받을 것이다.”[154]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분의 발치에 앉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리십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한 최초의 랍비로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별 규범을 어기십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었고, 손님으로 온 랍비와

153. 이 문장은 탁월한 작가인 사라 베시에게 빚진 것입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154. Perkei Avot 1:5

대화하며 그의 가르침 아래 앉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게다가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장차 랍비가 될 수도 있는 훈련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영예의 자리를 허락하신 일로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으시자, 그분은 그녀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단지 용인하시는 것 이상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냄비를 닦고 있는 마르다를 나무라기까지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아니 사실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155]

복음서에서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한 번 더 만납니다. 체포되시기 불과 엿새 전,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분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저녁 식사에 손님으로 계십니다. 그때 전에 그분의 발치에 앉았던 그녀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돌아 예수님 뒤에 서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내용물을 그분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그 행동도, 이제 방 안에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리아의 희생을 비합리적인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156] 마가복음에서 이보다 더 높은 영예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예수님은 식탁에 앉은 남자들의 분개를 무시하시면서 자신의 평판을 무릅쓰고 그 영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절들을 읽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 주어져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영예롭게 하신 바로 그 여인을 알아보고 영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선교의 성령

오순절에 베드로는 어리둥절해하는 군중에게 120명의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이 부어지신 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 일이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종들에게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157]

155. 누가복음 10:42
156. 마가복음 14:1-9
157. 사도행전 2:17-18; 요엘 2:28-29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종이나 이방인이나 여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에게만 부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종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뿐입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은, 아마도 유대 선지자가 한 예언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예언일 텐데, 성령이 유대인 왕과 선지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가 오리라고 선언합니다. 거기에는 이방인과 신분이 낮은 "종들" 곧 노예들, 그리고 심지어 "딸들"과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 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부터 바깥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성과 노예와 이방인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라 온 유대적 자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조차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됩니다.[158]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때 남자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오순절에 여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시던 방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의 삶에서 여성들과 맺으신 그분의 급진적인 관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때는 또한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159] 한때 지성소에 거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당시 유대 성전 구역은 동심원 모양의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안쪽에서 가장 바깥쪽 순서로, 유대인 남자만 안뜰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 그리고 그다음으로 여자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상징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이 뜰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오직 히브리 남자만 성전 본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오직 한 명의 유대인 남자만 일 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에서 넘쳐흘러 둑을 터뜨리고, 가르는 휘장을 둘로 찢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을 일의 한가운데로 데려오셨다는 그 경이를 느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백성의 구조 안에는 더 이상 "남자만" 또는 "유대인만"의 영역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한 사람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됨의 한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주어집니다. 요엘은 그의 예언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초대와 연결합니다.

158. 사도행전 10:44-48
159. 마태복음 27: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60] 요엘과 베드로의 요점은, 메시아가 오실 때 자유인과 종, 늙은이와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자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첫 교회가 시작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어지기 전인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신자들(그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자매들아 …'"[161] 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16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되,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후에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여성이 포함됩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여자들이며, 33절, 50-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14에서는 바로 그 "그들"이 더 넓은 "그들"로 이어집니다. "그들"(많은 여성을 포함하여)이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다" 구경꾼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163] 시작합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164]

교회에 주어진 가장 높은 복이 성령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잃어버린 바 되어 죽어 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초대 교회의 여성들이—구약성경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남성들과 함께 능력과 선교에 온전히 참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요점을 놓치지 맙시다. 유대인과 남자와 주인이 성경 이야기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인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과 종,

160. 사도행전 2:21, 요엘 2:32
161. 사도행전 1:15-16
162. 누가복음 24:33
163. 사도행전 2:11
164.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서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다시 한번 복음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서 풀려난 뒤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이끕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31)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언급된 여성들이 제외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결과를 볼 때 분명해집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14)

그리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 이와 매우 비슷한 말을 하는, 작지만 무게를 지탱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다른 모든 유대인처럼,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함께 있는 회당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면, 여자들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고대 유대인의 삶에서 더 적은 특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유대인 남자들이 견뎌야 했던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들이 몸에 지니고 다닌 신분의 상징이었고, 그들을 가장 높은 종교적 계층으로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방인과 여자를 모두 배제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언약의 표징이 가져온 평등의 전율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남자의 할례(그 본질상 배제하는 것)가 아니라, 세례가 모든 신자의 예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3:28의 다음 말씀이 회심 전 바울의 아침 기도를 깔끔하게 뒤집는 것으로서, 세례 때 입으로 고백하던 정형 문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165] 핵심 어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었던 사람, 곧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를 대표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똑같이 귀한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인류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받은 인류를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폭발력 있는 본문이자 인류를 위한 바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려 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28을 서신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으면,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께는 두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165. 바로 앞의 문맥이 이 연결을 분명히 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새 신자들은 세례의 물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정체성과 하나됨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 모두, 곧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믿는 유대인들과 그의 믿음을 본받은 믿는 이방인들 모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 많은 관계를 다루기 위해 이 서신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겨 왔고, 이제 같은 구주를 모시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과 진정으로 동등한 자로 서고 싶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구분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무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적, 사회적 차이가 무엇이든 그것은 "여기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초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열등하게 여긴 데 있지만, 바울은 같은 원리가 "자유인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위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나가듯 언급합니다. 그의 핵심 요점은 복음이 민족과 사회적 지위와 성별에 뿌리를 둔 가치와 특권의 위계 체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일종의 문화적 지진을 일으키는 급진적인 신학을 나눕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초기의 미진으로만 느껴졌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 보낸 그의 편지도, 한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돌아오는 자기 종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지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이 가정 교회 지도자에게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도망친 뒤에 오네시모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와 함께 그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만, 그들의 관계의 현상 유지가 깨어지리라는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도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맞으라. 그는 내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이거늘, 하물며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네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166]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과 자유인과 종 사이의 긴장을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게

166. 빌레몬서 1:16

됩니다. 그는 사회적 차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연합시키고 동등하게 하는 능력을 적용함으로써 위계를 가능한 한 해소하려 합니다.[167]

이 모든 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서로를 보고 대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위계를 급진적으로 뒤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골로새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회적 차이를 없애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168]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선물은 그토록 오랫동안 용인되고 존중되어 온 차별과 적대감과 배제와 위계적 규범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복음이 공동체의 실제 삶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는 단지 복음을 믿기만 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기능하는 최선의 방식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실천해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의도된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이 요점을 완전히 놓친 채,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3:28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로만 읽고, 바울이 특히 이 결정적인 신학의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인 실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와 교회가 갖추는 형태를 빚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새로운 길만이 아니라 서로 관계 맺는 새로운 길도 열어 줍니다. 바울이 자라난, 고도로 위계적인 유대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이 새로운 존재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3:28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별에 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167.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긴장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1:17-34에서 바울은 그 공동체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던 죄악된 방식에 맞섭니다. 그는 그들이 주의 만찬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취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둔다고 꾸짖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결합된 복음 안에서 더 나은 길은 "형제자매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168.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회적, 선교적 차원에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도하고, 유대인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 문제를 놓고 그들을 목양하는 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합니다. (고린도전서 9:17-23, 로마서 14-15장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목적지에 이르렀을지라도 매우 다른 길을 통해 왔으며, 매우 다른 문화적 기억과 상상력을 간직하고 있다." (N.T. Wright—출처: www.bit.ly/3q7vQid)

남자도 여자도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종" 사이의 하나됨과 평등을 열거한 뒤에, 바울은 세 번째 쌍을 덧붙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별도 성도 없는 존재가 된다고 바울이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져야 할 것은 긴장된 권력 관계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와 현상 유지가 뚜렷할지 모르지만, "여기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주제이지만, 지금은 신약학자 F. F. 브루스의 이 예리한 관찰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위를 동등하게 한 바울의 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종과 자유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한 그의 말보다 더 많은 제한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가 교회의 교제 안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만큼 자유롭게, 또는 종이 시민만큼 자유롭게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여자가 남자만큼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169]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브루스의 요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의 요점은 바울의 관찰과 일치합니다. 곧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민족성을 근거로 특권이나 권력이나 서열을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효화하는 관찰입니다. 브루스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비일관성을 부각하려 합니다. 그들은 민족적(유대인–이방인) 관계와 사회경제적(종–자유인) 관계와 관련해서는 바울 신학의 함의를 기꺼이 다루면서도, 그것을 남녀 관계에 적용하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결한 신학적 진술 안에서 이 셋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모든 것이 여성과 종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방인에 대해서처럼 풀어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특권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장벽들을 분명히 허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성과 종과 이방인이 문화적 위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과 평등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곳에서는 구별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더라도 깊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이 맡은 사역의 역할은 제12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이제 이야기의 끝으로 건너뛰어 봅시다.

169. F.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는 창세기 3:16의 어두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곧 남자들이 쉽게 여자들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부장제는 마침내 예수님의 Parousia(재림)에 삼켜질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분열과 위계를 어떻게 폐지하는지 보여 주려고 애쓴 갈라디아서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니라."[170] 새 창조란 인류와 우주를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다시 지으실 때 분열과 위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이 미래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과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한번 나란히 다스리게 하십니다(누가복음 22:30).[171]

그러나 어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다스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사도들에게 장차 열두 보좌를 약속하시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 언젠가 큰 영예로 보상하겠다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172] 그러나 그 약속들이 주어지는 본문을 읽어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약속을 주십니다.[173] 요한의 묵시적 환상에 나오는 24 장로에 관해서는, 묵시적 상징을 너무 멀리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24명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과 열두 사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게다가 가장 높은 영예가 영원토록 24명의 자유인 유대인 남자에게 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뿐 아니라 종과 이방인에게도 함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맨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성경의 상징적 진술을 문자적으로 읽는, 너무나 흔한 해석의 실수를 범할 때뿐일 것입니다.

170. 갈라디아서 6:15
171. 다가올 나라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 따르면, 성령이 홍수처럼 부어지고 모든 민족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그 나라의 핵심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172.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173. 마태복음 19장에서, 열두 제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열두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분명히 은유적인 약속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누구든지" 이생과 내생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이 땅에서 나중 된 많은 자가 하늘에서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열두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시기(이 역시 매우 상징적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열두 보좌는 상징적이며, 하늘에서 사도들보다 더 높은 영예로 보상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한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신실함을 하늘의 상과 하늘에서의 권위와 연결하십니다. 4세기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블란디나(Blandina)는 "작고 연약하며 멸시받는 여자 노예"였는데, 죽기까지 신실한 것이 "하늘의 엘리트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빛나는 궁전의 광채 한가운데 앉게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자기보다 높았던 자들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옳았습니다.[174]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한 공동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위해 구별하신 세 가지 "지도자" 기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이어받아—비록 발전된 형태로이긴 하지만—영원 속으로 투사합니다.

여성은 지금도 선지자이며 앞으로도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순절에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예언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지금도 왕이요 제사장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여성들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175] 요한도 여성들을 포함하여, 이 역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176]

여러분의 상상력을 시간의 가장 먼 지평까지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갈라디아서 3:28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지배해 온 성별 위계가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별 사이의 모든 경쟁, 한쪽이 다른 쪽을 깎아내리는 모든 일은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전적인 존중과 협력에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창조는 본래 창조의 회복이자 완전한 개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설계는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자가 되고, 둘 다 왕과 왕비로서 땅을 다스리며, 둘 다 제사장으로서 동산 성전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토록, 구속받은 남자와 여자는 첫 창조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그곳에서 공동 선지자, 공동 통치자, 공동 제사장으로서 나란히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향하고 있는 곳이라면, 왜 우리가 지금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174. Tom Holland, Dominion: The Making of the Western Mind, ch. 4
175. 베드로전서 2:9
176. 요한계시록 5:10

작은 구절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나오는 여성은 200명뿐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인류 이야기에서 여성을 위한 그토록 훌륭한 시작이 있은 뒤에, 우리 첫 조상의 타락은 우리를 파멸적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 대부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순전히 성경의 통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를 더 좋아하신다고 결론지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맞아들이고, 세상과 나누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 남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지중해 세계의 고대 사회적 조건이 종과 여자를 사실상 보이지 않게, 공적 영역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 영역이야말로 성경 이야기의 매우 많은 부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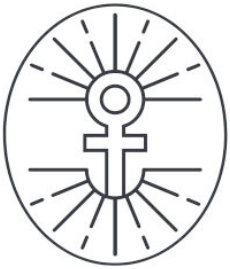
그러므로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통계적 불균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나 임무를 위해 남자를 선호하여 선택하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그분의 계시와 구속의 목적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유대인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보더라도, 엄청난 신학적 무게를 지닌 결정적인 성경 진술들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이 더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그의 자손이 "세상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또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고 하신 선언이 그런 진술입니다. 이런 진술들은 드물고 띄엄띄엄 나오지만, 성경 해석에서, 그리고 교회가 받아들인 신앙과 실천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자유인인 유대인 남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작은 구절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본문이 똑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양으로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리가 특정한 곳들에 엄청난 양으로 모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와 세상의

미래와 역사의 정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를 밝혀내는 일에 관해서라면, 가장 크게 말하는 성경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맨 처음과 맨 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하신 방식, 요엘 2장의 성취로서 성별을 가리지 않는 성령의 부어지심, 그리고 영적 평등에 대한 바울의 급진적인 갈라디아서 3:28 비전입니다. 이 영적 평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사회적, 기능적 평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실은 특히 로마서 16장(제12장에서 풀어 볼 것입니다)과 로마서 12장(제13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런 좌표들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여성을 평가할 때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향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또한 피상적으로 읽으면 여성의 열등함이나 종속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히 옆바람과 같은 세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치열하게 논쟁되는 본문들로 넘어갑니다.



제2부

(무)제한의 여성들



6
고린도의 여성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11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작업이 정말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면, 이 장과 다음 장은 건너뛰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제 첫 원고의 첫 독자였던 아내는 제게 "이 책의 모든 장이 읽는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장과 다음 장은 예외였는데, 이 두 장은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를 위해서라도 이 두 장이 덜 복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는 "성경적" 논증들로 매우 정교하게 짜인 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려면 이 그물을 한 가닥씩 풀어 나가야 합니다.

간단히 개관하자면,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주요 요점은 직설적으로 말해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바울 서신의 세 본문(고린도전서 11:3-16, 고린도전서 14:33-35, 디모데전서 2:11-15)을 잘못 읽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 여성의 종속을 가르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에서 바울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특정 문화에 고유한 감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에 관한 신학의 조각들이 담겨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보편화된 성별 위계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처음 두 본문을 다루고 다음 장에서 세 번째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매번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을 이해하고 비판하려고 노력한 다음, 더 나은 해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말합니다.[177] 이 세 본문은 틀림없이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을 것입니다. (뛰어들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장과 다음 장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싣지 않으려고 매우 중요한 내용 상당수를 미주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곳도 마음껏 파헤쳐 보십시오.)

177. 베드로후서 3:16

고린도전서 11:3-16

첫 번째 본문은 머리 덮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위해서는 부디 '생각하는 모자'를 머리에 쓰십시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그것도 매번 며칠씩 이 본문의 갈피를 잡아 보려고 머리를 싸맸고, 약간의 통찰을 더 얻고 물러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질문도 안고 물러났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제가 도달한 지점까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빠르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장을 읽어 나가면서 다시 돌아와 참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읽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머리카락을 자를 것이요, 만일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 머리에 쓸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하느니라. 11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남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15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긴 머리는 덮개로 여자에게 주어졌느니라. 16 누구든지 이 일에 대하여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나 다른 관례가 없느니라.

가장 논쟁적인 요점부터 먼저 털어놓겠습니다. 만일 이 본문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이 옳다면—비록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지만—그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모든 성인 여성은 남자, 대개 자기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여성은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도 남자들을 이끄는 최고위 지도자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어쩌면 남자들을 이끄는 하위 지도자도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여성은 대체로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는 형제에게, 여성 동료는 남성 동료에게 말입니다. 저는 상호보완주의자였을 때에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 나서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일관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그것도 확실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머리 덮개에 관한 유일한 가르침에서, 바울은 공적 예배 중에 머리카락을 풀어 내리거나 베일을 쓰지 않는 여자들,[178]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기르는 남자들에 대해 염려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문화에서는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의 긴 부분을 그것에 할애합니다.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이, 바울은 단지 더 나은 행동을 명령하는 대신 여러 이유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해석이라는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막 이륙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여러 개의 과속 방지턱에 부딪힙니다.[179] 바울이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상황,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염려한 이유

어떤 여자들은 교회 모임에서 베일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드러내고 있었고, 어떤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예배 모임에서 기도와 예언에 참여할 때 여자들은 베일로 머리를 가리고, 남자들은 머리를

178. 바울이 말하는 것이 1) 두건이나 베일로 가린 머리인지, 아니면 2) 길거나 풀어 내린 머리카락인지에 관한 학계의 논쟁은 지루합니다. 앤서니 티슬턴(Anthony Thiselton)의 권위 있는 고린도전서 주석은 양쪽의 논거를 개관한 뒤, 근소한 차이로 그것이 머리 덮개, 곧 베일이나 두건이라는 쪽을 택합니다. 저도 그 입장을 따릅니다.

179. 윌리엄 위트는 Icons of Christ, 8장에서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답하는 질문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머리 덮개나 머리 장식(숄, 두건, 겉옷 또는 베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리 모양(길거나 풀어 내린 머리카락)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머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kephalē)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서로 다른 짝들, 곧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 사이에 평행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남자들과 여자들 일반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가리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여자는 자기 머리에 대해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쓸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성이 가르친다"는 바울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는 그런 관례가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어떤 관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짧게 유지하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문화적 감수성을 포함한 많은 논거에 근거하여 호소합니다.

왜 여자들은 베일을 벗고, 왜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을까요? 그들이 반항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바울이 전한(갈라디아서 3:28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남녀 평등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 문화의 성별 예법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는 남자처럼 행동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이류 지위를 극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베일을 벗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을 주도한 것은 남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자들이 스스로 베일을 벗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신시아 웨스트폴은 곧 살펴볼 10절에 근거하여, 사실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남자들에게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 입장을 취하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죄악된 태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당대의 문화적 감수성을 지키기 위한 논거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든, 바울은 여자들이 베일을 벗거나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지으셨지만 서로 똑같게 지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하나의 형체 없는 단위로 합쳐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염려는, 그들의 문화에서 여자가 집 밖에서 긴 머리카락을 풀어 늘어뜨리면 그것이 낮은 신분과 성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신시아 웨스트폴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여자 노예와 창녀는 베일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180] 결혼한 여자들은 존중받는 기혼자의 신분과 정숙함과 정절의 상징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들의 머리 덮개는 그들의 영예로운 신분을 말해 주었습니다.[181] 그렇다면 바울의 생각에, 교회 모임에서 모든 여자가 머리를 가릴 때 그것은 모든 여자가—미혼이든 기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예를 받는다는 것, 교회 밖에서는 영예를 받지 못하는 여자들조차 그렇다는 것을 아름답게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여자들, 곧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182]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머리 덮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여자에 대한 반문화적인 높은 관점을 부여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180.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25.
181.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27.
182. 고린도전서 1:26

세 번째 염려는 앞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그 문화에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고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4-6절에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을 두 번,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한 번 사용하는데, 둘 다 "수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베일을 쓰지 않은 머리는 그 여자 자신에 대한 존중, 공동체가 그녀에게 보이는 존중, 그리고—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예배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염려는 위의 모든 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부분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더 큰 단락에 속하는데, 그 단락은 무질서해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특별히 할애되어 있으며,[183]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184] 고린도 교회가 자유와 자기표현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이 어떤 일들(머리 차림, 주의 만찬, 영적 은사를 포함하여)을 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도록 도우려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가 덕을 세우고, 모든 방문자가 호감 있게 이끌리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오늘날 머리 덮개를 고집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권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화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곳의 모든 교회를 위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에 답하려면 먼저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도로 발전된 성의 신학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특정 문화에 고유한 관습을 다루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로 빛나는 성의 신학의 암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진술들을 간단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하나님께(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에게(그들이 "예언"할 때) 말로 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관행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동시에 그렇게 할 때 여자와 남자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든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려면, 여자와 남자 모두의 적극적이고 동등한 말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183. 고린도전서 11-14장
184. 고린도전서 14:40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창조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성,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하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지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가 여성에 대해 낮거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이 더 넓은 사회에서 과거나 현재에 어떤 지위에 있었든 상관없이 최고의 존엄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문화와 세대에서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참여할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교회의 증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의 관점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 모두가 이 본문을 자신들의 교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Village Church의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성에 관한 본문들을 개관하는 작업의 일부로 이 본문(과 다음 본문)을 연구할 때, 남성의 권위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뒷받침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합니다.[185]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주석들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성의 권위를 보지 않습니다.[186]

그러나 많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본문이 여성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남성의 권위 아래 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단순화하려고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매우 복잡하며 현대 해석자들을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해석자들이 삽입자—곧 본문에 추가적인 의미를 읽어 넣는 사람—가 되면서 그 복잡성은 더욱 커집니다. 저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할 때 바로 이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2-16의 영속적인 원리는 남성의 권위에 대한 여성의 복종이다. 이 본문은 여성이 남성의 영적 리더십과 권위 아래에서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에

185. www.bit.ly/3CFKgJO. 33-37쪽을 보십시오.
186. www.bestcommentaries.com은 고든 피(NICNT), 앤서니 티슬턴(NIGTC), 데이비드 갈랜드(David Garland, BECNT)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가장 좋은 주석으로 평가하며, 각각 5.0점 만점에 4.91점, 4.88점, 4.88점을 매깁니다. "11:3의 은유는 흔히 권위 구조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본문의 어떤 것도 그러한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피) "그루뎀의 주장과는 달리, 그것은 '종속'이나 '~에 대한 권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다."(티슬턴) "바울은 여자를 종속적인 역할에 두는 성별 위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갈랜드)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187] 그들은 이것을 다음 네 가지 주장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에 근거합니다. 1) 머리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머리, 곧 권위를 뜻한다. 2) 바울은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 위계를 보았다. 3)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남성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덜 지니고 있다. 4) 고린도의 여성들은 머리에 남성 권위의 상징을 써야 했다. 이제 이 주장들에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주장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뜻하는가?

"머리"는 "위에 있는 머리"를 뜻합니까? 현대 영어에서 "head"(머리)는 상사, 곧 책임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은유로 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어 원어민들도 "머리"라는 은유를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가 남자 머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은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에서 중심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머리"(kephalē)를 "위에 있는 머리"("~에 대한 권위"라는 의미에서)로 읽고, 하나님께서("머리"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머리"로서) 남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자가 ("머리"로서) 여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를 남자의 여자에 대한 권위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에 대한 묘사와 연결함으로써, 그들은 성별 위계가 단지 문화적인 것이거나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이 틀림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뒤따르는 구절들의 문맥에 따라 판단하면, 이 경우 "머리"는 권위가 아니라 영예로운 생명의 근원—곧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나 정체성을 끌어오는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바울 시대에 kephalē가 권위를 뜻한다는 생각은, 매우 드물었거나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록 3: kephalē의 의미"를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 주장을 논증합니다.

187. Köstenberger and Köstenberger,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 p. 160.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흔히 에베소서 5장("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을 상호 참조하는데, 이곳은 바울이 남녀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kephal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다른 곳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에베소서 5장에서 머리가 권위를 뜻하므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권위를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188] 그러나 제8장에서 풀어 보겠지만, 그곳에서도 그 단어는 아마 권위를 뜻하지 않을 것입니다.[189] kephale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단어 연구에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생각이라는 상호보완주의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그리스어를 사용한 교부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Cyril of Alexandria),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Theodore of Mopsuestia),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에우세비우스(Eusebius)는 모두 이곳의 kephale를 근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190]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이 권위가 아니라 근원을 뜻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191]

그렇지만 가능성은 낮더라도, 바울이 여기서 권위를 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각 경우에 바울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맥입니다.[192] 우리는 4-1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고린도전서 11:3에 나오는 세 개의 평행하는 "머리" 진술을 이해해 봅시다.

188. 예를 들어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22-24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할 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kephalē'를 사용하므로, 고린도전서 11:3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출처: www.bit.ly/31rylBA)

189. 에베소서 5장의 "머리"가 "권위"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상호보완주의 논증 가운데 제가 읽은 많은 것들은, 고린도전서 11:3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전형적인 사례처럼, 하나의 약한 해석이 다른 해석을 떠받치는 데 사용되어, 결국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의미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올 때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머리"라는 단어를 꽤 다르게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는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말하는데, 하와는 아담의 몸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반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말하며, 아내는 그의 몸입니다.

190.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ch. 7.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기원후 444년 사망)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3:38,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 사람의 근원, 곧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남자의 머리(kephalē)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사람은 그를 통해 지음을 받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여자의 머리(kephalē)는 남자'이다. 그녀가 그의 살에서 취해졌으므로 참으로 그를 자신의 근원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머리(kephalē)는 하나님'이다. 그가 본성상 그분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191.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ch. 7, fn. 7은 고린도전서 11:3에서 kephalē가 "근원"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학술 저작 40편을 열거합니다. 이 책은 2009년에 출간되었으며, 지금은 그 목록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192. 예를 들어 앨런 존슨은 kephalē라는 단어에 관한, 모든 입장을 망라한 17개의 주요 연구를 메타 연구하여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은유로서의 kephalē가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점점 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출처: www.bit.ly/3GJ9Vnc)

세 머리 이야기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씁니다. 이 세 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는 바울이 그것들을 진술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마지막 줄을 맨 앞에 두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시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라고 읽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순서일까요? 그 답은 바울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남자의 kephalē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논의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의 수단으로 보는 바울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을 창조하셨고, 파생된 의미에서 그 이후의 모든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인 “여자의 kephalē는 남자”는 에덴동산에서 그다음에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신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압니다. 그가 복수형 “women”(여자들)이 아니라 단수형 “woman”(여자)을, “men”(남자들)이 아니라 “man”(남자)을 사용하고, 8절과 12a절로 돌아가서 하와(그가 “여자”라고 부르는)가 아담(“남자”)에게서 나왔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3절이 아담을 하와의 근원으로 말한다는 해석을 확증하듯,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른 의미에서는 아담의 각 아들이 하와의 딸 가운데 한 사람, 곧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왔으며(12b절),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창조주에게서 나왔다(12c절)고 언급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그리스도의 kephalē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상 사역에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지켜보는

세상에 자신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193]

우리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여자의 kephalē이시기도 하다고 말하지 않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또 다른 질문에 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왜 이처럼 낯설고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신학적 진술들을 한데 모으는 것일까요? 4-5절이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바울은 여자와 남자가 각자의 신체적 머리를 다루는 방식을 그들이 각자의 은유적 머리를 대하는 방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은유적 머리가 있다는 전제를 세우는데, 이는 4-5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예배 중에 자신의 신체적 머리에 하는 일이 3절에 언급된 그들의 은유적 kephalē에 반영된다고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남자"(4절)에게 그것은 "그리스도"(3절)이고, "각 여자"(5절)에게 그것은 "남자"(3절)입니다.

현대인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은 kephalē라는 단어의 문자적 용법과 은유적 용법 사이를 오갑니다. 하와는 아담을 자신의 kephalē로 존중했으므로, 하와의 각 딸은 자신의 신체적 머리를 존중함으로써(머리 덮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내어) 아담의 아들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kephalē로 존중했으므로, 아담의 각 아들은 자신의 신체적 머리를 존중함으로써(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3절의 세 진술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4-5절은 분명히 정교한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창적인 사상가인 천재 바울이 자신의 논증에 힘을 더하기 위해 연결 고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로 그들에게(또 우리에게) 성에 관한 발전된 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자신의 논증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3절에서 "권위"를 뜻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193. 골로새서 1:15, 히브리서 1:3. 이 세 번째 줄을 이해하려면, 3절의 세 줄이 대략적으로 평행하는 유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습니다"(또는 "나오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앞부분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 구원함이 되셨으니"(고린도전서 1:30). 그러나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전혀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마도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생명과 정체성을 끌어오시는 방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NIV)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줄이 단지 아들의 성육신적 관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믿는 학자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적용된 kephalē는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영원 속에서든 성육신에서든 아버지는 아들의 kephalē이십니다. 마치 태양이 햇살의 kephalē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햇살 없는 태양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고, 태양 없는 햇살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햇살)는 하나님(태양)과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종속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로 묶는 생각이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여자의 kephale"(3절)라고 말한 다음, 바울은 8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함으로써 같은 요점을 바꾸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하와의 권위가 아니라 근원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194] 또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말하던 것("각 남자의 kephale는 그리스도")에서 옮겨 가, 바울은 12절에서 "모든 것[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권위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들의 근원으로서 초점을 맞춥니다.[195] 이것은 또한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각 남자"의 kephale라고 불리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남자가 그분을 자신의 권위로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남자에게 그분은 창조주이신 근원입니다.

이 점에 무게를 더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kephale"라는 표현은 정통 신앙에서 성부가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제3장에서 보여 드렸듯이, 영원한 삼위일체 관계 안에 이른바 위계를 덧붙이려고 거듭 시도해 온 이들은 바로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남녀 관계에 영구적인 위계가 있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 대한 정통적인 설명은, 성자께서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자께서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 안에서 성부의 뜻에 복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실 성자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196]

194. 신시아 웨스트폴은 "Paul and Gender"(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창조 기사를 언급하는 것, 특히 11:8에서처럼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11:3의 신학적 진술을 다시 이어 가고, 설명하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가까운 문맥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진술은 11:3에서 남자와 여자의 생명의 기원이 염두에 있음을 시사한다."
195. 고린도전서 8:6과 고린도전서 11:12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확증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고린도전서 8:6).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린도전서 11:12). 앞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뒤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와를 창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창조하시는 자 모두를 kephal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원으로 작용하지만 종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예수님이나 아담은 매개적인 근원입니다. 두 종류의 근원 모두 영예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196.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종속론적 관점을 이렇게 논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셨으나, 자신의 명령 아래 있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로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로서 낳으셨다. [아들은] 종이 아니며, 자신을 낳으신 분과 같은 영예를 지니신다." 전통적으로 이해된 삼위일체는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사랑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초기 동방 신학자들은 성부를 "신성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십니다. 서방 신학자들은 성부가 낳으시는 로고스라는 언어, 그리고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나오는 상호 사랑으로서의 성령이라는 언어를 선호합니다.

캐시 켈러는 "[결혼 생활에서의] 머리됨과 복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몇 "은사가 뛰어난 교사들이 [그녀를] 이끌어 신격의 제2위께서 [어떻게]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종의 역할을 맡으셨는지 [보게] 해 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예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 연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1:3에서 바울은 …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의 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 사랑의 권위와 사랑의 복종을 비추고 반영하도록 초대받는다."[197] 안타깝게도, 결혼에 관한 켈러 부부의 베스트셀러가 여러 면에서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 책은 고린도전서 11:3에 대한 잘못된 해석뿐 아니라 잘못된 적용까지 퍼뜨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성부께 대한 성자의 복종을 비추어 내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할당된 역할"을 삼위일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3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행을 이루는 두 줄이 아니라 세 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첫 줄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줄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떤 유사점을 억지로 짜낼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본질은 동등하나 기능은 종속된다"는 것이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내놓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가르치려던 것이 그것이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남자에 관한 첫 줄을 덧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도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머리에 관한 이 논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체적 머리를 욕되게 하는 여자는 자신의 은유적 머리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따르면 그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남자 또는 어떤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쾨스텐버거 같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대개 그것이 남성의 영적 리더십을 가리킨다고 답합니다. 많은 상호보완주의 목회자들은 이를 더 확대하여, 모든 여성은 남편이든 아버지든 남성 목회 팀이든 남성인 머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건전한 답의 실마리는 바로 앞 절에 있습니다. "각 남자"는 "자기 머리"를 존중해야 합니다(4절). 이 표현은 우리를 다시 3절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여자"는 자기 머리를 존중해야 하는데(5절), 이것 역시 우리를 3절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언급된 "남자"가 아담이며, 아담은 모형론적으로 모든 남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197.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말해, 바울은 어떤 특정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다기보다 아담의 모든 아들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kephalē라는 개념과 명예라는 개념을 결합합니다. 다시 말해, 3절에서 바울이 kephalē를 사용한 방식은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근원과 명예라는 두 개념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던진 결정적인 질문에 답해 봅시다. 3절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는 (남자의 창조주로서) 남자의 존중받기에 합당한 근원이고, 남자(아담)는 여자(하와)의 존중받기에 합당한 근원이며,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존중받기에 합당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198]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3절은 그리스도나 여성의 종속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산에서 위계를 보는가?

제4장에서 저는 창세기 1-3장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성별 위계가 창조 때 하나님의 선한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락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과 달리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바울이 타락 이전에 위계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8-9절). 이 구절들에 대해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창세기 2장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역할 구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역할이란 권위와 복종의 역할입니다.[199]

198. 더 길게 답하자면, 3절은 다음과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그리고 모든 남자)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그리스도에게서 얻었으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창세기 2장 후반에서 하와(그리고 모든 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아담에게서 얻었으므로, 아담(그리고 모든 남자)은 그녀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에서(혹은 어쩌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성부에게서 얻으시므로/얻으셨으므로, 성부는 그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kephalē라면, B는 A에게 무엇입니까? 만일 B가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을 A에게서 얻는다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B는 A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곧이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린도전서 11:7)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함축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절에서 깔끔하게 따라 나오는 신학적 귀결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여성이나 그리스도의 종속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199. 톰 슈라이너가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133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전혀 분명하지 않은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3절에서 여성의 종속을 말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에만, 우리는 바울이 타락 이전에 위계를 보았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에 대해 3절에서 이미 말한 것, 곧 "[하와]의 kephale는 [아담]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는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점을 언급합니다. 첫째, 하와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옆구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여성들은 교회의 남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이 그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200] 둘째, 하와는 아담을 위해, 곧 그의 돕는 자이자 동반자, 그의 ezer kenegdo가 되어 그를 완성하고 그와 나란히 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여성들은 동산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함께 동반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남자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고린도의 남자들도 여자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 없이는 그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창세기와 바울은 모두 두 성 사이의 구별과,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도 슈라이너가 이 본문에서 찾았다고 주장하는 위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7절)는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말하면, 이 구절을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상호보완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루뎀이 이 구절을 여성의 종속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구절이 겉으로 보기에 두 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동등"하다는 우리의 공통된 확신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교회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성이 본래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가르침을 변호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덜 지니도록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201] 교회가 그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중 일부만을 아담에게서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모순됩니다. 창세기 1장은

200.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8절)—창세기 2장을 근거로 아담도 하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녀가 그의 근원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는 "Women and Worship at Corinth"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학자들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다른 곳에서처럼 이 지점에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이 장을 감당할 만한 길이로 유지하기 위해, 저는 그 가설을 설명하지 않고 제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신시아 웨스트폴의 해석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두 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아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그리스도는 아담의 존중받는 근원이고 아담은 하와의 존중받는 근원이라는 논증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뿐 아니라 아담에게서도 이어받습니다. 예배 때 그 머리 베일을 씀으로써 여성들은 남성들을 존중합니다.

바울은 명예의 방향이 뒤바뀌는 것도 암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형상(곧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아담의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 안에 비친 자기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기뻐하며 한 말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드디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여성이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의 근원을 존중해야 한다면, 남성은 여성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형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아담에서 하와로)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읽는 대신, 어쩌면 영광이 점점 고조되는 크레셴도로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일 뿐이지만, 하와는 하나님과 아담 모두의 형상이자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두 장 모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마지막에 옵니다. 1장에서는 인류입니다. 2장에서는 여자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와는 살로 지어졌습니다.[202] 여성이 그토록 평가절하되어 온 세상 속에서, 여기 창세기와 바울의 말은 그 무엇보다 반문화적입니다.

여성은 권위의 "상징"을 써야 하는가?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하느니라"(10절). 1881년 RV의 새로운 번역을 따라 ESV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 위에 권위의 상징을 두어야 한다." ESV는 앞에서 인용한 NIV 같은 동적 번역이 아니라 문자적 번역이라고 자처하므로, 여러분은 둘 중 ESV 번역이 더 문자적일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어떤 종류의 표지나 상징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ESV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자의 머리 덮개가 그녀에 대한 남자들의, 혹은 어쩌면 그녀 남편의 "권위"(그리스어: exousia)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202. 여기서 바울의 논증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 오히려 아담이 하와보다 열등하다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성 혐오로 얼룩진 역사의 상당 부분에서 교회가 저지른 오류의 반대편 오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의 여러 측면을 두고 논쟁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단지 "권위의 상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면, 남자들 일반이나 혹은 특정한 남자들이 그녀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여자 자신이 자기 머리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에 "대한 권위"(exousian … epi)를 주시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아홉 번 쓰인 것을 포함하여, 신약성경에서 exousia라는 단어가 쓰인 나머지 102번 모두,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이 지닌 권위를 가리킵니다.[203] 바울의 요점은, 만일 하나님이 창조 때 하와와 그녀의 딸들에게 어떤 종류의 권위를 주셨다면, 어떤 남자도 (그리고 어떤 성경 번역자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ESV 번역이 암시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읽기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권위를 언급하는 유일한 곳이 말하는 것은 여자의 권위입니다. 물론 그녀의 권위는 머리 덮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애초에 그것을 쓰는 일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왜 머리 베일을 쓸 그녀의 권리에 관한 이 점을 덧붙였을까요? 학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시아 웨스트폴은 고린도의 여성들에게 베일을 벗으라고 압박한 것이 여성들 자신이 아니라 일부 남자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여성들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으려는 그 남자들에게 맞서라고 여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스스로 지닌 이 권위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유는 10절 첫머리의 말("그러므로")이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를 8절과 9절로 다시 데려갑니다. 거기서 창조의 정점인 그녀는 아담의 동반자로서 그와 나란히 서므로, 그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창조의 절정이자 아담과 대등한 존재인 그녀가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천사들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많은 제안을 내놓습니다. 제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그 자리에 있던 천사들(하와가 온 영광 가운데 등장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아마 더 개연성 있게는, 같은 편지에서 바울이 앞서 천사들에 관해 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언젠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204] 그렇다면 여성이 자신의 옷차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하와와 그녀의 딸들은 남자들과 나란히 언젠가 온 우주를 다스릴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203. Philip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ch. 10.
204. 고린도전서 6:1-2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4-5절이 지나가듯 말하는 것처럼,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기도와 예언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들을(3-6절), 그리고 여자들도(7, 10절)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어 온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두 성이 동등하며 서로에게 똑같이 의존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11절). 3절에서 그는 아담이 하와의 생물학적 근원이라고 말했지만(따라서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모든 남자가 어머니에게서 생물학적 기원을 얻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남이라"(12절). 따라서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관찰과 이 세상에서 모든 남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관찰을 섞음으로써, 바울은 명예가 양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근거로 성별 위계를 옹호할 여지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두 성을 구별하면서도 상호성, 평등,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려 오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남녀 관계 일반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만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본문 전체를 읽어 보면 바울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관계 맺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으며, 거기에는 부부가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고 주장합니다.[205]

그렇기는 하지만, 바울이 부부에게만 말하고 있다는 소수 학자들의 생각이 옳다면, 5절에서 여자의 은유적인 머리는 아마도 그녀의 paterfamilias, 곧 그리스-로마 문화에 따라 그녀를 "책임지는" 남자를 가리킨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녀에게 그를 존중하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종속된다는 생각은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 전체는 두 성을 동등하게 만드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남편을

205. 미혼 여성과 과부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존엄을 주는 바로 그 머리 덮개를 벗는다고 상상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논증은 12절에서 바울이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모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서 난다"로 읽으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티슬턴은 "1 Corinthians (NIGTC)"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저자들은 이 문제가 더 제한된 가족 범위 안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별 관계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kephale라고 말하는 다른 곳(에베소서 5장)에서 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피차 복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둡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는 상호 의존에 관한 가르침으로 끝맺습니다.

이 본문이 모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든, (가능성은 낮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만을 가리키든, 저는 우리가 "바울은 여자들이 남성의 머리됨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머리 덮개를 쓰기를 원한다"는 상호보완주의의 주장을 자신 있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6]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논증을 창조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함축되는 셈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성향을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오해해 온 여성들에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시대를 거쳐 끼친 치명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슬프게도 파이퍼는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의 첫 장에서 여전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숙한 여성은 … 존경할 만한 남성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성의 힘과 리더십을 인정할 것이다."[207] 다행히 예수님이,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여성을 불구로 만드는 이 잘못된 해석에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권위-복종의 관점에서 읽기 위해 내놓는 논증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왜 그 각각이 거부되어야 하는지 더 잘 보입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성을 깎아내리거나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높이는 본문을 처참하게 왜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뜻 보기에 상호보완주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세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본문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4:33-35

방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여성에게 큰 존엄을 부여합니다. 그는 여성이 기도와 예언에 참여하는 것을 칭찬할 뿐 아니라, 머리 덮개에 관한 그의 말도 모든 여성이 마땅히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지의 뒷부분에는,

206. 슈라이너가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132, 135에서 한 말입니다.
207. 존 파이퍼가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21에서 한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 읽을 때는 분명히 앞의 본문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백성의 모든 회중에서와 같으니라. 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알고자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학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끝없이 논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자가 내놓은 다섯 가지 주요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섯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다른 견해를 발전시킨 것임을 보여 드릴 것이므로 그것을 하위 견해로 다루겠습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 논증들을 저울질한 결과에 따라, 제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순으로 배열하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견해 1: 여성은 예배 모임에서 잠잠해야 한다

학자들은 바울이 11장에서는 여성이 교회 모임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서, 14장에서는 바로 그 활동을 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심해 왔습니다. 여성의 열등함과 종속이 여전히 대체로 의문시되지 않던 1960년대까지,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로부터 주석가 찰스 라이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학자들은, 바울이 여성이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잠잠하기를 의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라이리는 1958년에 여성이 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언제나 특정 성경 구절의 가장 좋은 해석자라면, 이 역사적인 견해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1장에서, 그리고 14장의 대부분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의 지시를 모든 교회의 모든 여성이 잠잠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견해의 불합리함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평등이 발견되면서 더욱 두드러졌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훨씬 더 많은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견해 2: 여성은 예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견해는 바울이 여성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몇 절 앞의 지시와 연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29절). 이 견해는 바울이 여성을

부분적으로만 잠잠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자 예언자와 여자 예언자가 모두 말할 수는 있지만, 여성은 예언의 메시지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습니다.[208]

남편에 대한 언급(35절)을 근거로, 이 견해는 고대 세계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다른 남자들의 예언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색한 일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바울이 암시하는 "질서"를 어기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29절에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의 예언을 듣는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별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해야 하며, 그 무리에는 다른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둘째, 29절은 34절과 35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의 구절들은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서, 예언자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림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으로 주제를 옮깁니다(30-32절). 29절의 표현 가운데 34-35절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언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표현과 여성에게 잠잠하라는 바울의 지시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여성이 집에서 배우고 질문하라는 바울의 제안도 예언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분별하려면 분별의 영적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십니다(12:10).

이 견해는 이처럼 가능성이 낮은데도,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가 계속 이 견해를 내세우고 더 발전시킵니다.

견해 2A: 여성은 남성 장로의 역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견해를 2a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앞의 견해에서 더 최근에 갈라져 나온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루뎀, 카슨, 켈러 부부가 지지하는, 상호보완주의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여성을 잠잠하게 하지는 않지만, 여성을 보편적으로 종속시킬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울이 여성의 예언 분별을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견해 2와 같지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입니다.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뿐이며, 그래서 바울은 여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견해는 원래 견해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이중의 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는 30-32절을 건너뛰어 29절로 갈 뿐 아니라, 편지 전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유로 비약합니다. 그루뎀이 내놓는 논리는, 여성은 즉흥적인 계시를 나누는 예언은 할 수 있지만,

208. 바울이 예언을 "분별한다"는 말로 정확히 무엇을 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출처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비평하는 것을 가리킬까요? 혹은 여러 예언을 종합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 숙고하는 것이나, 전해진 말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언을 평가하는 일에는 교리적 권위가 필요하며 그것은 남성만 될 수 있는 장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견해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12까지 비약합니다. 그 구절은 여성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앞 구절과 서로 참조하여, 여성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할 것"이라는 언급을, 창세기 2장의 성 역할이 가르치는 대로 남성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견해 2에서 언급한 모든 약점이 여기에도 해당되지만, 이 견해는 몇 가지 이유로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체 어디에서도 장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심각한 곡예를 부리지 않는 한, 고린도전서의 어떤 내용도 남성의 권위를 함축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남성만의 기능이라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은사주의 교회들은 장로들에게만 예언을 분별하도록 허용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교회 전체의 성숙함을 신뢰하여 예언의 말을 전하는 일과 분별하는 일을 모두 맡깁니다. 사실 이 편지에서 복종해야 할 리더십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언급은 온 "스데바나의 집"을 향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종" 해야 합니다. 실로 이 집안에는 다른 모든 집안처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들만 예언을 평가하도록 허락된다는 주장보다, 고린도의 남자들이 스데바나 집안의 여성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았다는 주장이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질지도 모릅니다![209]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디모데전서 2:12로 서로 참조하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2:12는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편지의 독자들은 아무도 그 구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절은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 2:12를 잘못 해석하므로(다음 장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로 참조하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빛이 아니라 어둠만 더할 것이 분명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이 단어에 인격적인 대상이 없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여성이 남성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본문에 없는 것을 본문 속으로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더 큰 단락을 참조하여, 이 복종이 11-14장에서 바울의 모든 지시를 이끄는 "질서"의 원리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설령 "율법"이 창세기 2장을 가리킨다 하더라도(창세기 2장은 여성의 복종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유일한 율법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이 본문을 읽는 것을 왜곡하는 데 사용됩니다.

209. 그러나 고린도전서 16:15-16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장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가 겸손히 섬겨 줄 만한, 감동을 주는 섬기는 자들(diakonia)과 동역자들(sunergeo)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견해 2와 견해 2a의 가장 분명한 결함은, 아마도 35절이 예언하는 것이나 예언을 분별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히려 35절은 여성이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210]

견해 3: 바울은 여성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에 바울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적인 무리가 있었고, 바울이 실제로 34-35절에서 그들의 말을 인용한 다음 36-38절에서 반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 교회가 여성들에게 자기 문화의 제약을 강요하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율법주의적 무리의 말을 끼워 넣고 있으므로, 우리는 34-35절 양쪽에 인용 부호가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이 견해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이 편지의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관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뒤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나 내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211]

이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교정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인용한 직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36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반박의 질문에 이어, 그는 질서 있게 행하기만 한다면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그래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37-40절).

34-35절이 로마 제국에서 여성들을 대하던 일반적인 방식과 너무나 비슷하게 들린다는 점도 이 견해에 신빙성을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세기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Livy)는 키케로(Cicero)의 연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전, 공공장소를 뛰어다니고 거리를 막으며 다른 여자들의 남편들에게 말을 거는 … 한 무리의 여자들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들은 같은 것을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수는 없었는가? 당신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과 있을 때보다 밖에서 남의 남편들과 있을 때 더 매력적인가?"[212]

210. 이 견해에 대한 더 철저한 비판은 다음을 보십시오. J. Greenbury, "1 Corinthians 14:34-35: Evaluation of Prophecy Revisited,"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1 (2008): 721–31

211. 고린도전서 6:12. 고린도전서 6:13과 7:1도 보십시오.

212. 다음에서 인용했습니다. M. Lefkowitz and M. Fant, Women's Life in Greece and Rome, p. 171.

이 견해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약점은 이 편지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한 다른 어떤 곳도 이렇게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견해 4: 바울은 이것을 쓰지 않았다

많은 본문 학자들은 여성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는 이 구절들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213] 오히려 초기의 어떤 독자나 필사자가, 아마 여성을 종속시키는 관점을 가지고서, 그것을 여백에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실제 편지 본문에 넣었습니다.

가장 초기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여러 번 확인했고, 그로 인해 여러 본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들을 삽입(interpolation)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에 걸친 본문 비평가들의 작업 덕분에, 우리는 성경 본문의 99.9%에 대해 원래의 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99.9%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0.1%의 불확실성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 본문이 실제로 편지의 어디에 속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34-35절은 동방 사본들에서만 이 장의 현재 자리에 나타납니다. 가장 초기의 서방 사본들에는 이 같은 구절들이 40절 뒤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세기에 히에로니무스(Jerome)가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 라틴어를 쓰는 교회는 지금의 33절에서 36절로 건너뛰어 읽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 초기 필사자가 지금의 34-35절을 여백에 적은 뒤, 그 사본을 베끼던 두 명의 후대 필사자가 그것을 바울의 말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자리에 말입니다.

둘째, 이것은 모순을 설명해 줍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기쁘게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는 머리 덮개 본문에서 한 말을, 바울이 왜 정면으로 뒤집겠습니까? 왜 그는 이 장 앞부분에 나오는 "잠잠하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그 단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담겠습니까? 28절과 30절에서 잠잠함은 일시적이며 누구도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반면에 34절에서 잠잠함은 단호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은 "모든 사람"과 "너희 각 사람"을 말하며[214] 그렇게 함으로써

213.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로는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의 고든 피, "First Corinthians, Interpretation"의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 "Man and Woman: One in Christ"의 필립 페인 등이 있습니다.
214. 23-24절, 36절, 31절을 보십시오.

여성의 발언을 초대합니다. 또한 이 장의 사고의 흐름은 34-35절이 없을 때 훨씬 더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이 40절 뒤에 있다고 해서 더 잘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울답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도 여성의 침묵이나 복종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통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리킬 때 "기록된 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어떤 율법을 가리키기 위해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두 경우에는, 다른 동사(lego)를 사용하고 그 율법을 인용합니다.

이것들과 다른 무게 있는 논증들에도 불구하고,[215] 모든 학자가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다"와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비록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14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며, 이 구절들은 그 위치가 불확실하기는 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초기 사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 영감하셨을지도 모르는 것을 내던지는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는 여전히 물어야 합니다.

견해 5: 모임을 방해하는 학습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 견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아주 특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교회에 주는 명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주는 지속적인 교훈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216]

이 견해의 열쇠는 11-14장이 예배의 올바른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11:3-16에서 바울은 적절한 옷차림에 초점을 맞춥니다. 11:17-34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14:11-32에서 그는 은사의 무질서한 사용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잘못된 때에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로잡습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28절), 예언의 말을 받았으나 자기

215. 예를 들어 바울은 다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관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율법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편지의 다른 모든 명령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은 "교회의 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성도의 모든 교회"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므로 모든 교회의 여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분명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초기 사본에서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완전히 다른 두 자리에 나타나는 긴 단락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구절들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견해에 개연성을 더해 줍니다.

216. 일부 번역은 "주의 백성의 모든 회중에서와 같이"라는 말을 여성을 잠잠하게 하는 이 지시의 첫머리에 붙이지만, 이 견해는 그 말이 질서의 우선성에 관한 앞 문장의 끝에 더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영어 번역 스물아홉 개가 이 문제에서 거의 정확히 반으로 나뉩니다. 참조: www.bit.ly/3mGpFPT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30-3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때에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는 여자들(34-35절)입니다. 세 경우 모두 바울의 관심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무질서한 방식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 모임에 모인 고린도 여성들의 어떤 행동을 정확히 바로잡고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고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성이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배움이 읽기가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이 보통 종교 모임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지 않던 더 넓은 문화 속에서, 이미 예언을 나눌 차례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제 차례가 아닌데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는 대신, 신이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모임을 방해하지 말고 대화는 집에서 남편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일 무엇을 알고자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아마 그들보다 더 많이 교육받았을 그들의 남편들이 그들의 많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잠하라는 이 지시는 여성에게 본래 있는 "창조 질서"나 남녀 사이의 권위-복종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어수선했을 교회 모임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호보완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바울의 관심은 여성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217]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The Message는 그의 의역에서 이 뜻을 잘 담아냅니다. "아내들은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때 말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묻는 편이 더 적절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성들이 머리 덮개를 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11:6)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화에서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배움의 자리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14:35)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교회들을 개척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217.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3세기 뒤에 바울의 이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잠잠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사이에 큰 소음, 많은 떠들썩함과 잡담이 있기 쉬우며, 이곳[대성당]만큼 그런 곳도 없다. …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들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의 강론[설교]이 잡담과 씨름하고 아무도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Homily IX,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에서 인용.)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218] 바울은 교회가 다가가려 하던 문화를 이상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의도에서, 핵심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의 예의범절에 맞추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배움이 중요한 곳에서는 방해가 되는 학습자들에게 모두의 유익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관심을 현대 서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여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견해가 옳은 견해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19]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마지막 한 가지 관찰로 이어집니다.

불분명한 본문

교회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계속 따져 묻고 점점 더 큰 명료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본문이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강한 견해들조차 잠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두려워 가장 보수적인 해석(견해 1)을 택한다면, 여성을 완전히 잠잠하게 하는 것에는 노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노래를 일종의 말하기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220] 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여성이 예언을 분별하거나 설교하는 것만 막는 것은 제게 상당히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보수적인 접근을 택한다면 정말 일관성을 지켜서 모든 여성에게 다음 교회 모임에 쓸 머리 덮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합시다! 존경받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토록 다양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본문이 불분명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좋은 해석 방법에 따르더라도, 이 본문은 교리적 결론의 근거나 모든 곳의 모든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보편적 명령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도, 고린도전서 14장도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이끄는 것, 남편과 나란히 동반자로 서는 것, 남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18. 고린도전서 9:23
219. 하지만 견해 4를 이 견해보다 선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런 단서 없이 세 번이나 언급되는 여성의 침묵 요구가 (단지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여성이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습니다.
220. 골로새서 3:16-17을 보십시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바로 이 구절들을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근거로 제시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7
디모데전서 2:11-15

"여성의 사역에 대한 반대는 흔히 사실상 바울의 본문 하나, 곧 디모데전서 2:11-12에 근거하여 제기된다. 이 어려운 본문과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은 같은 문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성경 본문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면 디모데전서의 이 본문이 제한된 상황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데이비드 숄러(David Scholer)[221]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의 끝부분에서 덤블도어는 적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는 스네이프 교수에게 "세베루스 … 제발!" 하고 애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으며 스네이프는 덤블도어를 죽이고, 우리는 스네이프가 처음부터 볼드모트의 배신자 첩자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마지막 권에 가서야 우리는 (해리와 함께)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해리가 (마법의 펜시브에 쏟아부은) 스네이프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스네이프가 젊은 시절 해리의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호감 가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덤블도어와 해리에게 헌신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되돌릴 수 없는 저주로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덤블도어는, 미리 세베루스에게 자기 목숨을 거두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네이프가 볼드모트의 신뢰를 확실히 얻게 하고, 그 신뢰를 다시 해리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고 나면, "세베루스 … 제발!"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살려 달라고 스네이프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덤블도어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여 달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은 악의 승리이기는커녕, 사실은 어둠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221. https://www.fuller.edu/womeninministry/

제가 이 비유[222]를 소개하는 것은, 문맥에서 떼어 내면 완전히 오해될 수 있는 여기저기의 한 줄이나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기 전에, 이야기의 줄거리에 흠뻑 젖어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아주 긴 이야기 속의 짧은 세 줄(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세 성경 본문)을 문맥에서 뜯어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권위에 헌신되어 있기에(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가 그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는데도 어떤 본문의 한 해석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라는 큰 줄거리에 어긋나게, 그들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그 저자가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부장제를 이상화하고 영구화하려 합니다.

실로 위계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2:8-15에서 바울이 자신의 제자에게 한 말보다 더 자주, 더 강하게 언급되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적 논증이 실패할 때, 이것이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본문입니다. 어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여성과 교회 지도자 안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하게 신빙성 있는 본문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223]

더 나아가기 전에 짧은 경고 한마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깁니다. 이 정도의 해석적 복잡함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곧바로 다음 장으로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상호보완주의의 주된 보루인 디모데전서 2:11-15가 실제로는 상호보완주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드릴 것임을 알아 두십시오.

다음은 이 본문과, 그것에 어느 정도 문맥을 제공하는 이웃 구절들입니다.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체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 위에 권위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인이 되었느니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222. 이 예화는 레베카 매클로플린(Rebecca McLaughlin)의 “Confronting Christianity”(8장)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
223.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타당한 논증은 단 하나뿐이다. … 디모데전서 2:12에 나오는 금지 조항이다.” 수잔 포(Susan Foh)가 “Women in Ministry: Four Views”(1989), 2장에서 한 말입니다.

3:1 미쁘다 이 말이여,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상호보완주의의 관점

상호보완주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주된 구절은 이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을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도로서 나는 모든 상황의 모든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목회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른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으므로 하와를 이끄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질서”는 앞으로 있을 모든 경건한 공동체에 적용됩니다. 남성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규범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교회에서 남성들을 가르치거나 남성 위에 권위를 가지면, 그녀는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사도의 지시와 “창조 질서”를 모두 거스르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세 가지 문제로 나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계적 원리가 가정과 교회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회에도 적용되는지,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두 가지 활동(가르치는 것과 이끄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한 가지 활동(지도자다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여성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만 배제되는지 아니면 남성들이 따르는 교회에서 모든 차원의 지도자 자리에서 배제되는지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에서 쾨스텐버거와 슈라이너 같은 대부분의 원로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더 엄격한 해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쾨스텐버거는 이렇게 씁니다. “바울은 ‘나는 여자가 장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런 가르침과 권위 행사가 이루어지는 직분만이 아니라 바로 이 기능들을 그녀가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224]

가르치다(그리스어: didaskein)는 무슨 뜻입니까? 슈라이너는 그것이 “권위 있는 자료의 전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관심은 여성이 남성에게 오류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진리를

224. 출처: www.bit.ly/3mG7n13

가르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성은 다른 여성과 어린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225] 성인 남성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한 구절, 곧 사도행전 18:26은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 밖에서, 일대일로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디모데전서 2:12의 권위 행사(그리스어: authentein)는 부정적인 권위 사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남성 목회자들이 행사하는 긍정적인 종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지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아담이 …"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는"(그리스어: gar)라는 접속사가 때문에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라는 것입니다. "먼저"와 "그 후"라는 단어는 서열을 함축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울이 창세기 2장을 타락 이전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읽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인이 되었느니라"(14절).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대개 이것을, 창조 질서를 뒤집으려는 사탄의 시도에 하와가 협력한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아담이 책임자였는데도 사탄은 하와에게 말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우회했고, 하와는 아담의 권위를 우회하여 아담과 상의하지 않고 유혹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장 구분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는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생각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곧바로 누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3:1).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 너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답은 … 남성 감독들이다."

225. 이에 대한 예로 디도서 2:3-4와 디모데후서 1:5; 3:15를 보십시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조금씩 만들어진, 거의 전적으로 새로운 해석이라는 사실 말고도,[226] (위에서 요약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에 대해 제가 가진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손상된 교회

이 편지는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였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영감된 성경이므로 모든 교회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들은 이 편지가 다루던 독특한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발굴되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냥 가정하면, 우리는 그 의미와 적용을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2:11-15에서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었을까요?

226. 디모데전서 2:11-14에 대한 상호주의적 해석은 새롭다는 이유로 상호보완주의자들에게 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여성에 관한 성경 본문을 자동으로 자기 문화의 가부장제나 여성 혐오라는 렌즈를 통해 읽었으므로, 그들이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 본문을, 여성의 질적인 열등함에 근거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을 보편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여자들은 가르치고 이끌 능력이 없으므로 남자들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역사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이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 상호보완주의 해석과 (일반적인) 역사적 해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 남성을 가르치는 것만 금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대개 모든 종류의 가르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회의 여성은 남성을 포함하여 누구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위에 권위를 차지하는 것을.”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남성 장로에게만 적합한 목회적 리더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서 오직 남성만이 이끌어야 하는데 여성이 그 남성들에게서 권위를 “찬탈하는”(곧 강제로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자가 … 남자를 가르치는 것.”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정당하게 가르친 일과 조화시키려 애쓰면서, 이것을 여성이 남성 한 사람을 비공식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남성들을 집단으로나 공식적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여성이 남성 한 사람뿐 아니라 남성 무리를 가르치는 것도 막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을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로 보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남성의 영적 리더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여성이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을 다스린다는, 창조에 근거한 보편적 규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인이 되었느니라.”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를 사탄이 뒤집은 것과 그녀가 이 뒤집음에 굴복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여성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속임과 유혹에 더 취약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차이를 더 연구하려면 www.bit.ly/3Q4TWo4 와 www.bit.ly/3xlOXIj 를 보십시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질적인 열등함 때문에 여성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사회 어디에서든 남성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역사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최근의 해석들(상호보완주의 또는 상호주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 앞의 모든 구절에 비추어 읽기만 하면 됩니다. 첫인사를 마친 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곧장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더 이상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1:3-4). 그런 다음 이 “어떤 사람들”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 내내 시야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씁니다(1:5-6). “후메내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멀리 가 버려서,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상태입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1:19-20).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묘사에 곧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내가 … 권하노니”(2:1)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then)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로서 기도하며 사명감을 되찾는 일(2:1-7),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삼가는 일(2:8), 여자들이 과시적이고 유혹적인 외모를 피하는 일(2:9-10), 그리고 한 여자(단수)가 복종함으로 배우고(2:11)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차지하지 않는 일(2:12)에 대해 지시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해석할 때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전화 통화의 한쪽 편만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편지 자체에 있는 증거를 사용하여, 디모데전서 2장의 각 지시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거짓 교사들이 끼친 영향을 다루게 될지 추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거짓 가르침으로 찢긴 교회는 사명감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도하며 사명감을 되찾으라는 지시가 이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과 분열 때문에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에게, 혹은 속았거나 무례한 여자들에게 화를 내며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단은 어떤 식으로든, 특히 일부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남성들을 향해, 과시적이고 교만하며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 하고 독립적인 태도와 행동을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종함으로 배우고 남성들과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구체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증거가 편지 안에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남자들에게만 기도하라고 권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여자들에게만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어떤 남자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9-15 밖에서, 여자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이 답을 줍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들의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저버렸습니다(11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13절). 그들은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줍니다(14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15절). 이것은 이단에 굴복한 것을 가리킵니다.[227]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하는 말은 거짓 가르침이 근본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6:20-21). 거짓 가르침이 정확히 어떻게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 여성들을 사탄에게 "속은" 하와와 비교하는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228]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11-15에 관한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에게서 눈에 띄는 점은,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 이 본문을 포함하여 바울의 편지 전체의 절박한 관심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시 켈러는 "내가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편지 전체는 … 교회 개척 지침서, 곧 하나님의 집의 원리에 따라 …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229] 슈라이너조차 지적하듯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230] 그녀는 또한 "만일 내가 지체하면"이라는 절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은 편지의 모든 주요 단락에 있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거짓 교사들에게 약탈당한 교회를 회복하려는 바울의 다급한 노력을 드러냅니다. 쾨스텐버거와 그루뎀은 바울이 이단과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그 우선 과제에서 벗어난 여담으로 다룹니다.[231] 마치 바울이 자신의 주된 짐과 앞선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추고, 거짓

227.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편지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거짓 가르침 및 그것이 조장하는 타락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20; 2:14; 4:1; 디모데후서 2:23-25를 보십시오.
228. 디모데전서 2:14
229. 캐시 켈러, "Jesus, Gender and Justice." 디모데전서 3:15.
230. J. N. D. 켈리(J.N.D. Kelly)의 1963년 주석과 도널드 거스리의 1957년 주석 같은 아주 오래된 디모데전서 주석들은 이런 접근을 취했지만, 제가 읽은 현대 주석들은 디모데전서의 3분의 1이 거짓 교사들/거짓 가르침을 직접 다룰 뿐 아니라 편지의 나머지 3분의 2도 이 문제의 그림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톰 슈라이너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교회 질서의 지침서로 묘사하는 것은 … 편지의 목적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 …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기만당하는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참조. 디모데전서 2:14; 디모데후서 3:6-9)"(출처: www.bit.ly/3BN3tYQ). 그럼에도 디모데전서 2장이 거짓 가르침을 다룬다는 사실에 대한 흔한 반론은, 바울이 "각처에서"(NIV "everywhere", ESV "in every place") 남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8절).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 신자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는 모든 장소, 가장 분명하게는 교회 모임을 열던 에베소의 많은 집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231. 쾨스텐버거, "Women in The Church," p. 152-155, 그리고 그루뎀, Evangelical Feminism and the Biblical Truth, p. 280-284. 앤드루 바틀릿의 "Men and Women in Christ"(p. 390)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한가운데서 남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 해 온 어떤 여자들을 이제 꾸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앞뒤의 단락뿐 아니라 12절 자체도, 바울이 어떤 여자들이 죄를 짓고 있던 상황을 바로잡고 있다는 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쓴 단어 epitrepo를 살펴봅시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네 단어로 된 구로 번역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차지하는 것을 'I do not permit'(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epitrepo] …"

먼저 이 단어가 현재 시제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점은 바울이 이 상황을 위해 이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루뎀은 "그리스어의 힘"이 이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임을 뜻한다고 고집합니다.[232] 이 고집은 과장된 것입니다. 같은 상호보완주의 학자인 더글러스 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의 현재 시제에 관한 한,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금지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결론만을 허락한다."[233] 이 인정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보편적인 칙령을 쏟아 내고 있다는 모든 주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I do not permit"(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영어 표현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칙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 자신도 "I am not permitting …"(나는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제안합니다.[234]

게다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특정 상황에 국한된 금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epitrepo가 쓰인 모든 경우, 그리고 신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17곳의 대다수에서, 그것은 특정한 상황을 위해 내려진 결정을 가리킵니다.[235] 무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동사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에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236] 만일 바울이

232.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nd the Biblical Truth, p. 301
233. 더글러스 무가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9장에서 한 말입니다.
234. "이 단어의 그리스어 용법에 더 충실한 영어 번역은 'I am not permitting'(나는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으로, 이는 교회 전통의 무게를 지니지 않으며 에베소의 문제에 대응하여 내려진, 그 사례에 국한된 새로운 명령을 나타낸다." Moo, 202
235. 참조: Philip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p. 201-202. 또한 참조: https://biblehub.com/greek/strongs_2010.htm. 예외는 두 곳뿐인데, 고린도전서 14:34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와 마가복음 10:4의 "모세는 … 허락하였나이다"입니다. 저는 앞의 것을 제6장에서 다루며, 이 말들은 삽입이었거나, 사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매우 특수한 상황을 위해 권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결론 내립니다. 뒤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5-12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그가 모세의 명령을 지속적인 이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았음을 보여 줍니다.
236. 출처: https://bit.ly/3mExipX (p. 199)

모든 곳의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 이상을 말하려 했다면, 왜 그냥 "여자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는 결코 "나는 지금 너희가 음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더 단도직입적으로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여기서 이렇게 직관에 어긋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할까요?

요컨대, 바울이 epitrepo라는 단어로 이 금지를 시작한다는 사실은 바울이 지역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근거를 줍니다.

Authentein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의 핵심은, 바울이 여성들에게 (일부) 남성들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일, 곧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 위에 목회적 권위를 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과 권위 행사는, 올바른 사람이 하는 한, 하나님이 정하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성들에게 금하는 일이 남성들도 하지 않기를 바랐을 일임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이 읽기는 무너집니다. 달리 말하면, 이 활동들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 죄가 되는 것임이 드러난다면, 상호보완주의적 읽기는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구체적인 영역은 "authentein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논쟁은 다양한 영어 번역에서 드러납니다. "권위를 행사하다"(to exercise authority, ESV)는 정당한 것이지만, "권위를 차지하다"(to assume authority, NIV)는 부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그녀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학생이 수업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는 부당하게 "권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주관하다"(to have dominion, ASV), "통제하다"(to control, CEB), "위세를 부리다"(to domineer, NEB), "군림하다"(to lord it over, TLB)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는, authentein이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237]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나 다른 어떤 성경 저자가 이 단어를 달리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기원후 62년에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기 전후의 여러 세기 동안 고대 그리스 문헌의 저자들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우 드문 단어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 전 100년과 후 100년 동안, 남아 있는 고대 문헌에서 우리가 가진 이 단어의 용례는 다섯 개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뉘앙스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237.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 단어는 hapax legomenon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번역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은 didaskein(가르치다)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므로 authentein도 긍정적인 의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쾨스텐버거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두 부정사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들을 근거로, didaskein과 authentein이라는 두 동사는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didaskein이 언제나 긍정적인 단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슈라이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didaskein이 언제나 "비공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모인 공적 예배] 안에서 권위 있는 전승을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238] 그들은 유일한 예외는 그것을 거짓 가르침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가로 부정적인 단어가 쓰일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전서 2:12에서 authentein의 긍정적인 의미는 그것이 didaskein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추론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둘째, 헨리 볼드윈(Henry Baldwin) 같은 상호보완주의 언어학자들은 고대 문헌에서 이 단어가 매우 흔히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앨 월터스(Al Wolters)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디모데전서 2:12 해석에서 그토록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학문적 합의에 결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고대 단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추적해 보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를 둘러싼 최근의 학문적 저작들을 읽고 또 읽으며 여러 날을 보낸 뒤, 저는 고대 문헌에서 이 단어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인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구절에서 "권위를 행사하다"가 아마도 옳지 않고 이 단어를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여덟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가르치다"(didaskein)는 부정적인 종류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충분하며, 긍정적인 가르침도 공식적인 가르침도 아닐 수 있습니다. 슈라이너는 성경의 증거를 넘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이 단어가 언제나 긍정적인 행위이며,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매주의 예배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238. Women in the Church, 3rd Edition, p. 175

목회 서신에서 이 단어는 반드시 모인 예배에서의 권위 있는 교리적 가르침에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죄가 되는 종류의 didaskein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239]

어쨌든 didaskein에는 (공식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이라는) 고정된 의미를 주장하면서 authentein에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문맥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모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240]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didaskein하는 것을 금지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교사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있는 심각한 잘못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241] 허락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가르침의 예들도 있지만,[242] 목회 서신에서 didaskein이 금지되는 또 다른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디모데전서 2:12와 가까운 평행을

239.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본문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슈라이너에게는 didaskein이라는 단어를 목회 서신에서 언제나 예배 중에 영적 지도자가 하는 공식적인 교리 설교로 읽어야 한다거나,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건전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할 만한 실질적인 논거가 없습니다. 목회 서신의 다른 곳에서 didaskein이 슈라이너가 말하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때로는 다른 의미를 띱니다. 슈라이너의 주장과 달리, 이 단어는 때로 모인 예배 밖에서의 비공식적인 나눔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2:12에서 didaskein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의미를 뜻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공식적인 설교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나눔도 포함될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매주의 예배에 언제나 남성들이 있다면,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다른 여성들을 가르쳐야 합니까(디도서 2:3-5)?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예배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까(디모데후서 2:24-25)? 모인 예배에서 단 한 사람("여자")이 단 한 사람("남자")을 가르치려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디모데전서 2:12)? 모인 예배에서의 가르침만 염두에 둔 것이라면,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디모데후서 2:2)? 그리고 온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디도서 1:10-11)? 또한 슈라이너의 주장과 달리, 이 단어는 죄가 되는 종류의 가르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적 전승이 아니라 이단적인 내용을 나누는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묘사하는 데 바로 이 didaske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디도서 1:11).

240. Didaskein 자체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각 경우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만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오류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하듯이 이 단어가 본래 긍정적이므로 짝을 이루는 단어 authentein을 지배해야 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짝을 이루는 단어들과 더 넓은 문맥이 그 의미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didaskein은 "거짓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는 수식어가 없는 한 언제나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인위적인 해석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맥이 언제나 의미를 결정합니다.

241. 이 단어가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인 마태복음 5:19a, 디도서 1:11, 요한계시록 2:14, 20을 보십시오.

242. 특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금하는 문맥에서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부정적인 동사가 죄가 되는 종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20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 안의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용납하여 그 여자가 그분의 종들을 "가르쳐"(didaskein) "꾀도록"(kai plana) 내버려 둔 것을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이 한 여자의 죄 된 가르침을 용납했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 …" 그러나 관찰해야 할 중요한 점은, 두 곳 모두에서 금지되는 것은 여성이 하는 죄가 되는 종류의 가르침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문맥과 짝을 이루는 동사 "꾀다"는, 예수님이 두아디라의 그 여자에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만적이고 이단적인 종류의 가르침을 금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잡는 문맥과 짝을 이루는 동사 authentein("위세를 부리다"를 뜻할 수 있습니다)은, 바울이 에베소의 여성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남을 욕되게 하고 공격적인 종류의 가르침을 금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룹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할례파"라고 부르고 "헛된 말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무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243]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이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무언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그런 말하기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본문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 안의 한 무리의 여성들, 특히 남성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분명 무언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며, 그것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남성들에게 말하던 방식을 바울이 바로잡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244]

둘째, authentein이라는 단어가 고대에 언제나 긍정적인 행위로 쓰였다는 학문적 합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12의 의미를 다룬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 저서 Women in the Church의 초판과 제2판에서,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한 장을 맡아 쓴 사람은 볼드윈이었습니다. 그는 문맥에 따라 이 단어가 "다스리다 또는 군림하다, 혹은 통제하다 또는 지배하다, 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다, 혹은 선동하다"를 뜻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245] 디모데전서 2:12에 관해서는 "통제하다 또는 지배하다라는 의미도 …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누군가에 대해 권위를 차지하다"(to assume authority over)도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장은 제3판에서 삭제되고 월터스의 글로 대체되었습니다. 월터스는 authentein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246]—상호보완주의자들의 선호를 훨씬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슈라이너는 이 단어가 때로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247] 프톨레마이오스(Ptolemy)는 Tetrabiblos(기원후 127-148년)에서 어떤 행성이 다른 행성을 제압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243. 디도서 1:10-11
244. 사실 디도가 입을 막아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염려한 세 가지(불복종, 무익한 내용, 속임)가 모두 디모데전서 2:12-14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그의 염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45.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ppendix 7
246. Albert Wolters, "A Semantic Study of Αὐθέντης and its Derivatives," Journal for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11 (Spring 2006): pp. 44-65, 45.
247. "Two Views on Women in Ministry"에서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문맥에서는 이 용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

부정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볼드윈과 그루뎀을 포함하여 제가 읽은 대부분의 학자는 이곳을 "지배하다"로 번역합니다.[248]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4세기 이후)의 교회가 authentein이라는 단어를 흔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여러 세기 뒤의 authentein의 의미는 이 논의와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249] 실제로 볼드윈과 월터스의 연구가 가진 한 가지 문제는 (그루뎀의 kephalē̄ 어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용례의 거의 전부가 신약 시대보다 몇 세기 뒤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단어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는 쓸모가 제한적입니다.[250]

필립 페인은 이 단어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authentein의 의미 가운데 디모데전서 2:12에 들어맞으면서 바울 시대 이전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 유일한 의미는 '권위를 차지하다'이다. '지배하다'는 바울 시대 직후에 의미로 등장하며, '권위를 행사하다'는 훨씬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이다."[251] 페인에 따르면 이 마지막 의미가 처음 확인되는 용례는 4세기, 곧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의 부정적 용법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authentein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252]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시대의 용법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시대 이전에 확인된 이 단어의 두 용례가 우리 연구에 가장

248. 월터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단어를 "지배력을 얻다"(gain mastery) 또는 "권위를 차지하다"(assume authority)로 번역한다는 점에서 혼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그는, 볼드윈과 그루뎀이 이 단어를 "지배하다"로 번역할 때 인정하는 부정적 뉘앙스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월터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동사가 부정과거(aorist) 시제라는 점, 따라서 그것이 지금에야 비로소 상대를 압도하는 작용을 지닌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문맥입니다. 월터스가 보여 주듯이 authentein은 토성이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 장악하는" 것,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 인간을 몸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과 나란히 쓰입니다. 부정과거 시제가 "권위를 차지하다"에서처럼 "기동상"(곧 어떤 행동의 시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제로 표시되는 계속되는 행동, 곧 주어가 앞서 장악한 것을 계속 통제하는 행동이 이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단어의 고대 용례가 이토록 적고, 월터스가 authentein의 명사형 의미를 이 단어 연구에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 단어에 훨씬 가까운 동족어, 그것도 바울의 용법과 시기적으로 가까운 때에 쓰인 단어의 뉘앙스를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입장의 학자도 authentein의 여러 고대 용례를 해석하면서 부정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사이에 이런 의미의 거리를 만들어 내려 하지 않습니다.

249. 특히 교회가 존재한 처음 몇 세기 안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여성 혐오의 영향을 받아 디모데전서 2:12-14를 하와의 열등함을 근거로 여자가 모든 영역에서 남자를 이끄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말씀으로 읽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많은 사람이 authentein을 긍정적인 리더십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또한 4세기의 교회 문헌에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authentein 하신다고 말하는 두 곳도 설명해 줍니다.

250. 월터스는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합니다. "'권위를 행사하다'라는 의미는 주로 이 동사의 후대 용법에 근거한다. … 시대의 전환기 무렵의 authentes 용례가 더 많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251. Philip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ch. 20

252. John Chrysostom, Hom. Col. P. 27–31.

중요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해를 가장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초의 용례는 기원전 27년의 한 apologia(해명서)에 나옵니다.[253] 번역하기가 악명 높을 만큼 어려운 이 글은, 트리폰(Tryphon)이라는 사람이 형제 아스클레피아데스(Asklepiades)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스클레피아데스의 아랫사람이나 종으로 보이는 안틸로코스(Antilochus)에게 자신이 어떻게 authentein 했는지를 해명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트리폰과 안틸로코스는 나룻배를 타고 있었는데, 안틸로코스가 뱃사공에게 뱃삯을 내지 않으려 하자 트리폰이 그에게 authentein 하여 뱃삯을 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억지로 돈을 내게 한 것입니다.[254] 현대인의 귀에는 이것이 점잖은 행동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서 남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의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트리폰은 해명하는 편지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authentein이 결코 뜻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권위를 행사하다"입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을 왜 자기가 나서서 했는지 해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에 이 단어가 "권위를 행사하다"를 전달하기 위해 "언제나 긍정적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255]

셋째, authentein은 그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소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 경우처럼 합의가 거의 없을 때에는 여전히 해 볼 만한 작업입니다.[256] 이 경우 authentein의 첫 부분("aut")은 자기를 뜻하며, 성경의 단어들에서는 주로 자기를 향하거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행동을

253. 파피루스 BGU 1208.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BKHl0Q. 두 번째 용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12의 용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법학자 아리스토니코스(Aristonicus)는 한 저작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한 단락을 논평하면서 그 연설의 "authentein"(곧 "저자" 또는 "창시자")에 대해 말합니다.

254. 안틸로코스가 처음부터 사실은 트리폰의 정당한 권위 아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답하자면,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트리폰이 어떻게, 또 왜 편지의 그토록 많은 부분을 자기 행동을 변호하는 데 할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행동 자체가 그의 약함과 불명예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자기 하인이나 종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고, 뱃사공에게 끼친 모욕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5. 슈라이너는 Two Views of Ministry(p. 10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H. 스콧 볼드윈과 알 월터스의 최근 연구들은 이 용어가 권위의 긍정적인 사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어휘 연구를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에 관한 자민 휘브너의 연구를 읽어 보십시오. "적어도 이 모든 것은,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다른 연구들과 함께) 상호보완주의의 authenteō 연구들이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에 대해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EKqWM8 (p.17)

256. D. A. 카슨은 "Exegetical Fallacie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은 "의미를 분별하는 데에는 다소 '서툰 도구'"이지만, "특히 hapax legomena(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p. 33)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257] 바울은 자신을 남을 주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258] 그러므로 설령 authentein이 비그리스도인 통치자들의 긍정적인 권력 사용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어에 막 들어온 이 단어를 고른 것은, 교만(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기를 향함)이나 이기심(남에게 초점을 두기보다 자기에게 초점을 둠), 또는 그 둘 모두로 기운 죄악된 권위적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월터스의 주장대로 이 단어가 주인이 되다를 뜻한다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긍정적인 행동인지 부정적인 행동인지는 매번 누가 주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고대의 왕, 고대의 노예 소유주가 자기 백성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설령 목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의 주님이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넷째, 이 장 전체가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언어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무엇이 함축되는지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 편지의 문맥은 거짓 교사들에게 짓밟힌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바울은 2장에서도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바로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명령들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죄악된 행동들을 바로잡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을 지닌 채 화를 내고 다투며 기도하지 않는 에베소 남성들(8절), 그리고 화려한 머리 모양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면서 단정함과 선행이 없고, 소란을 그치고 다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복종해야 할 에베소 여성들(9-11절)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들에서 한 번에 한 성별만 다룬다는 것은, 그가 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 각자의 특정한 잘못을 짚어 낸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authentein 하는 것은, 남자가 과시적으로 옷을 입거나 여자가 기도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11절의 앞선 명령이 12절에서 바울이 금하는 것의 정반대라는 점을 기억하면, authentein을 부정적 뉘앙스로 이해하는 것이 잘 들어맞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여성들이, 예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조용히(그리스어는 hesychia이며 여기서는 평화롭게를 뜻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태도로 배우기를(11절)

257. 예를 들어 authadēs = "자기만족적인", authairetos = "자발적으로", autarkeia = "자족", autarkēs = "자족하는", autokatakritos = "스스로 정죄한", autocheir = "자기 손으로", aucheō = "나는 자랑한다". 출처: www.bit.ly/3EKqWM8 (p.18)
258. 고린도후서 4:5를 보십시오.

원하며, 자기를 내세우거나 위세를 부리며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12a절).[259] 그런 가르침은 "조용함"(다시 hesychia)과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12b절).[260]

다섯째, 12절은 금지 명령입니다. 12절의 표현 자체도 부정적 의미를 암시합니다. "여자"의 자리에 사람 A를, "남자"의 자리에 사람 B를 넣고, didaskein 대신 문자 x를, authentein 대신 문자 y를 넣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나는 사람 A가 x 하는 것도, 사람 B에게 y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261] 이것만 읽어도 x와 y는 부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문맥이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맥에서는 아마 부정적일 것입니다.[262] 이상하게도 월터스의 연구는, 고대 문헌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모든 사례 가운데 금지의 문맥에서 쓰인 것은 바울의 편지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터스는 바울이 여자가 "남자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을 공경하라는 바울의 뒤이은 명령과 맞지 않습니다[263](그리고 우리는 종들 가운데 남자가 많았고, 상전 가운데 여자도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한 집안에 남자 종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울은 일부 여성들에게 남자들의 주인(oikodespotein)이 되라고 지시하는 셈입니다.[264]

여섯째, 고대의 용례를 찾는 범위를 명사형까지 넓히면(authentein은 명사 authentas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의 부정적 연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명사 용법에는 가장 강한 종류의 부정적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오래된 용례는 살인을 가리킵니다. 월터스는 이런 의미로 쓰인 명사의 고대 용례 마흔 개를 기록하지만,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의미가 대체로 희미해졌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 다른 의미들, 특히 "주인"이라는 의미에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개념은 바울 시대까지, 어쩌면 그가 읽던

259. 접속사 "de"는 대부분의 번역에서 빠져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여 11절과 12절 사이의 사고의 흐름을 잇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나"보다는 "그리고"를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로 같은 절에서 바울이 "그러나"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alla"를 쓰기 때문입니다.

260. 디모데전서 앞부분의 평행하는 표현을 고려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읽기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의 사고 진행(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압도하지도 말고, 오히려 조용함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1:3-4에서 같은 가르침의 주제에 관한 그의 사고 진행(다르게 가르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변론을 일으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하지도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 가운데 앞의 둘은 부정적으로, 마지막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p. 340)

261. 이 통찰을 준 자민 휘브너에게 감사합니다.

262. 달리 말하면, 바울이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고 있었고 가르침이 칭찬받는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면, 문제의 가르침이 부정적인 형태의 가르침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정적인 행동을 바로잡고 있으므로, 이것이 부정적인 형태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열립니다.

263. 디모데전서 6:2

264. 디모데전서 5:14에서 그는 새로 결혼한 여자들에게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집의 전제 군주(despot)"입니다.

문헌에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서[265]는 자기 자녀를 "죽이는"(authentas) 부모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합니다.[266] 명사의 초기 의미인 "살인"은 거의 희미해졌지만, 의미가 변해 가는 동안에도 부정적 뉘앙스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있습니다[267]—어쨌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남의 삶을 장악하는 것" 사이에는 적어도 개념상의 겹침이 있습니다.[268]

일곱째, 바울이 긍정적인 권위 행사를 염두에 두었다면, 바로 그런 뜻을 지닌 널리 알려진 그리스어 단어들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열 절 앞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쓴 단어(hyperochē)처럼 말입니다. Louw and Nida's Lexicon for the New Testament는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하는 단어 12개와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를 뜻하는 단어 47개를 제시하지만, 바울은 그중 어느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한 성별이 다른 성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말할 때 그는 exousia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이것은 그가 편지들에서 28번 쓴 단어입니다.[269]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가 특별히 목회적 리더십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왜 이 편지 뒷부분에서 목회적 리더십에 쓴 단어(proestōtes)(5:17)나, 교회를 목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poimainō)[270],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단어(hegoumenōn)를 쓰지 않았을까요?[271]

265. 아마 시대의 전환기보다 이삼십 년 앞서 기록되었고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에 포함된 책으로, 바울은 이 문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EKKrE4).
266. 솔로몬의 지혜서 12:6. 솔로몬의 지혜서의 이 단어가 "살인자"가 아니라 "친족 살해자"만을 뜻한다는 월터스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 이러나저러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도로 부정적인 행동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267. 볼드윈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단어의 명사형이 동사형으로 쓰일 때 전체 의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서 동사형을 명사형에서 분리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는 어떤 종류의 대응하는 뉘앙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동사 "adulterate"(불순물을 섞다)는 명사 "adultery"(간음)와 의미가 다르지만, 부정적 뉘앙스는 두 단어에 걸쳐 이어집니다.
268. 월터스는 "살인자"를 뜻하는 "authentēs"와 "주인"을 뜻하는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어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학자들이 이 둘이 서로 다른 어원을 가진다고 거듭 제안해 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겹치는 개념은 자기가 가진 힘을 써서 남 위에 자기를 내세운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269. exousia와 바울이 쓴 authentein의 중요한 차이는 아마, 전자는 실제로 가진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exousia가 그렇습니다(고린도전서 7:4). 반면 후자는 (트리폰의 편지에서 보듯) 정당하게 갖고 있지 않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습니다.
270. 요한복음 21:16,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5:2를 보십시오.
271. 히브리서 13:7, 17, 24를 보십시오.

그가 그 대신 이토록 드문 단어, 매우 독특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를 골랐다는 사실은[272] 그가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 사이에 흔했던 구체적이고 죄악된 행동 하나를 정확히 짚어 바로잡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덟째, 상호보완주의를 전제로 하는 학자들의 결론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사용하는 표준 참고서 적어도 일곱 권 가운데 대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번역(예: 위세를 부리다, 강압적으로 지시하다)을 제시하고, 더 긍정적인 번역을 제시하는 것들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부정적인 함의(예: 독자적인 권위, 자기중심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Analytical Lexicon of the Greek NT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권한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쓰임. 그러므로 통제하다, 위세를 부리다, 군림하다." Nida and Louw는 이 단어를 "통제하다, 억누르다, 위세를 부리다"로 정의하는데, "고함치며 명령하다", "족장처럼 굴다", "호통치다"와 같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BDAG[273]는 이 단어를 "독자적인 권위의 자세를 취하다, 명령하다, 강압적으로 지시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 신시아 웨스트폴이 이 단어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마친 뒤[274] 월터스가 사용한 것과 같은 데이터베이스[275]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authentein이 인격적 행위자와 인격적 [수용자]와 함께 쓰일 때에는, 행위자가 신적 권위나 궁극적 권위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진다."[276]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목회적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웨스트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단어의 모든 용례 가운데 목사나 교회 직분자가 개인이나 집단을 선의로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을 가리키는 용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277] 웨스트폴은 연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authentein"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 리더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데 쓰이는 일차적 근거이므로, 그 의미를 선택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그것을 단지 "권위를

272. 이 단어가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다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영어 동사 "to teach"(가르치다)를 "to pontificate"(훈계조로 떠들다)나 "to harangue"(장황하게 열변을 토하다)와 비교해 보십시오. 또는 "to lead"(이끌다)를 "to drive"(몰아붙이다)나 "to compel"(강요하다)과 비교해 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뒤의 동사들은 "to teach"나 "to lead"와 같은 핵심 개념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색채를 덧붙입니다. 저는 "authentein"이 누군가를 "이끈다"는 구성 개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색채를 지닌 단어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살인"을 뜻하는 이전 단어에서 나왔고, "aut"(자기)라는 형태소를 갖고 있습니다.
273. The Bauer, Danker, Arndt, and Gingrich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의 약자입니다.
274. www.bit.ly/2prxkqm
275. Thesaurus Linguae Graecae 데이터베이스에는 1,200년에 걸친 이 단어의 용례가 300개 넘게 있습니다.
276. Westfall, Paul and Gender, ch. 9
277. Westfall, Paul and Gender, ch. 9

가지다"로 [받아들이고] 나서, 마치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이나 목회적 돌봄을 묘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극도로 오해를 부르는 일이다. 이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전학과 언어학 방법론에 근거하여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어야 한다. … 교회는 책임질 나이에 이르렀다. 이제 authentein이라는 단어에 근거하여 여성을 교회 지도자 직분에서 배제해 온 데 대한 책임(또는 법적 책임)을 질 때이다.

제가 가장 마음이 불편한 것은,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웨스트폴의 언어학적 연구를 검토하는 일을 맡았을 때, 월터스의 연구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녀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그냥 비켜 간다는 점입니다.[278] 그와 대조적으로 자민 휘브너(Jamin Hübner)는 authentein에 대한 자신의 연구와 함께 웨스트폴의 연구를 정중하게 검토하고, 디모데전서 2:12에서 쓰인 이 단어의 부정적 색채는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짓습니다.[279]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해 웨스트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어 문헌 전체에서 이 동사는 일련의 행동을 가리키는데, [그 행동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해를 입거나, 자기 뜻에 반하여 강요당하거나(억지로 하게 되거나), 적어도 자기 이익이 무시당한다. 그 행동들이 주체의 의지를 강요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그 범위는 모욕에서 치명적인 폭력에까지 이른다."

웨스트폴의 결론은 히에로니무스가 4세기의 라틴어 불가타 번역에서 디모데전서 2:12의 authentein을 dominari로 번역했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히에로니무스가 다른 구절에서도 쓴 것과 같은 단어군입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정당한 영적 권위가 있음에도, 자기가 결코 쓰지 않는 리더십의 한 종류가 바로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280]

278. 톰 슈라이너의 웨스트폴 책 비평은 authentein에 관한 그녀의 연구 주장과 제대로 씨름하지 않고, 대신 "그녀는 'authentein'이라는 단어에 대해 월터스만큼 신중한 주해를 많이 한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월터스의 연구에 대해 정중하지만 매우 탄탄한 비평을 내놓습니다. 슈라이너와 비슷하게, www.cbmw.org 는 케이시 호(Casey Haugh)에게 웨스트폴의 책에 대한 서평을 의뢰했는데, 그는 그녀의 주해 연구를 월터스와 비교하며 "웨스트폴은 authentein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해 같은 정도의 관심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월터스는 다른 어조를 보입니다. "나는 웨스트폴의 분석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론 언어학의 문제들을 논의에 끌어들인 데 대해 그녀를 칭찬하며, 나보다 언어학에 더 정통한 사람들이 그녀의 논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한다."
279. www.bit.ly/340JLIS
280. 고린도후서 1:24. 영어: "lord it over"(주관하다), 라틴어 불가타: "dominamur." 히에로니무스는 불가타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에 dominari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이 목회적 리더십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지"(또는 "임의로 주관하지") 말라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경고를 번역할 때에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10:42-43, 베드로전서 5:3을 보십시오. 히에로니무스의 이해에서 이처럼 전제적 권력의 함의가 분명하므로, 그가 디모데전서 2:12에서 이 단어를 단지 경건한 목회적 권위를 가리키는 데 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한 개인 서신에서 주교의

이 단어가 누군가에 대해 권위를 차지하다(페인의 번역)를 뜻하든, 누군가의 주인이 되다(월터스의 번역)를 뜻하든, 자기를 강요하여 상대를 짓밟다(웨스트폴의 번역)를 뜻하든, 그리스도인 여성도, 그리스도인 남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의 읽기는 무너집니다.

바울이 authentein으로 정확히 무엇을 뜻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부정적 뉘앙스를 뒷받침하는 이 논증들의 무게를 생각할 때, 저는 상호보완주의의 읽기와 그것이 흔히 쓰는 번역("권위를 행사하다")이 아마 틀렸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개정된 NIV의 번역("권위를 차지하다", assume authority)[281]과, 적어도 이 경우에는 옛 영어 번역들("권위를 찬탈하다", usurp authority)[282]이 더 낫습니다. 다만 저는 "통제하다"(to control, CEB), "위세를 부리다"(to domineer, NEB), "군림하다"(to lord it over, TLB)가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바울이 이 금지를 교회 모임에 한정한다는 생각의 가장 큰 약점은 아마, 모든 상호보완주의자가 말하듯이 그가 자기 논증의 근거를 "창조 질서"에 둔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금하는 근거를 "창조 질서"에 둔다고 말하면서, 그 "창조 질서"가 모든 관계와 영역에 미치는 함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창조 질서를 근거로)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을 이끄는 것을 금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교회 밖에서, 곧 정부나 기업이나 공직 분야에서 남성을 이끄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못마땅해하심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일은 창조의 한 측면이므로, "창조 질서"에 대한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그들의 딸들은 남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믿음이 딸들의 직업적 가능성에 가하는 제약을 어떻게 피해 갈까요? 그들은 이 본문이 교회의 영역, 특히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를 "모든 교회 모임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처럼 디모데전서 2:1도 기도에 관해 말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스림(dominari)을 왕의 다스림과 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교는 4세기 후반 로마에서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주교의 역할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281. NIV는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이것이 정당한 권위를 긍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권위를 부당하게 빼앗는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는지 독자가 판단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번역을 지지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82. 예를 들어 다음을 보십시오. Geneva(1560년판): "I permit not a woman to … vsurpe authoritie ouer the man." Bishop(1589년): "I suffer not a woman to … vsurpe auctoritie ouer ye man." KJV(1611년): "I suffer not a woman to …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11절은 가르쳐진 말씀 아래에서 배우는 여자들에 관해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장은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 말하고(3:1-12),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3:15).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여성의 가르침과 리더십에 대한 금지의 적용 범위를, 남자들이 함께 있는 교회의 주간 공적 모임으로 한정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먼저, 기도 모임이 교회의 주간 예배 모임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사도행전은 닫힌 문 뒤의 다락방에서, 바닷가에서, 감옥에서 열린 기도 모임들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물론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것에는 교회 모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일 때든 흩어질 때든 교회의 일상생활도 시야에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손,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는 것, 외모를 가꾸는 일,[283] 선행, 배움, 해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로 보아, 바울은 삶 전체를 시야에 두고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의 말대로 바울이 여성이 남성을 이끌고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면, 그 금지는 모든 장소와 모든 무대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응답으로, 마이클 버드에게 문제의 핵심을 짚게 하겠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 스스로가 자기 관점의 함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단서를 달거나 누그러뜨린다는 점,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들 입장의 약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자가 책이나 라디오, 웹사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들이 읽을 히브리서 주석을 쓸 수는 있지만, 남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여자는 대통령, 총리, 최고경영자, 장군, 경찰관이 될 수는 있지만, 목사로 섬길 수는 없다. 여자는 남자에게 프랑스어나 피아노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경이나 신학은 가르칠 수 없다. 여자는 믿지 않는 남자에게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남자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임을 보이기 위해 창세기와 창조 질서에 호소하면서도, 그 제한을 교회 생활이나 주일 예배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일이나 교회 예배당에서만 아니라면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한다면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자가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그토록 분명하게 어기는 일이라면, 이것은 기업이든 정부든 정치든 공직이든 교회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제도 위에

283. 고린도전서 11장을 공부했으므로, 우리는 바울이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기를 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머리 모양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가 여자들의 일상생활 속 외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주권자이시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284]

우리가 상호보완주의의 읽기를 고수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을 이끄는 것을 어디서나 전면적으로 금할 생각이 없다면, 교회에서 이끄는 그리스도인 여성들만 단속하는 우리의 비일관성을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해결책은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는 방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디모데전서 2:12 다음으로,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창조 질서"의 증거 본문으로 내세우는 주된 구절은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들은 이것이 바울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관계 안에서 남성의 권위를 읽어 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빈틈없는 논증일까요?

"이는"(for, gar)라는 단어부터 살펴봅시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여기서 왜냐하면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의 리더십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ar라는 단어가 언제나 "왜냐하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실제로 뜻하는 것은, 앞의 진술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제 제시되리라는 것입니다.[285] 특히 바울은 자기 글에서 온갖 종류의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듯 예시가 되는 사례들도 포함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쨌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 (어떤 번역자들은 gar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indeed를 택하는데, 이는 어쨌든 또는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제 논증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286] 여기서 gar는 아마 바울의 금지를 어떤 원인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와 연결할 것입니다.[287]

284. Mike Bird, Bourgeois Babes, Bossy Wives and Bobby Haircuts: A Case for Gender Equality

285. "마운스(Mounce)는 Pastoral Epistles, 131–35에서 gar를 논의하면서 바울의 gar 용법을 간략히 개관하고 이렇게 결론짓는다. 디모데전서 2:13에서 이 단어가 이유를 도입한다는 증거는 압도적인데, 그 가장 빈번한 용법이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31). 그러나 모든 경우에 논리적 관계는 문맥에서 추론해야 하며, gar 자체가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 단어의 최소한의 의미론적 기여는 뒷받침 자료를 알리는 것이며, 그 자료에는 원인뿐 아니라 예시, 유형, 인용,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뒷받침도 포함될 수 있다. … 특정 본문의 해석은 '가장 빈번한 용법'으로 결정될 수 없다."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ch. 4)

286. 그러나 gar가 여기서 "왜냐하면"을 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시할 13-14절에 대한 두 해석은 모두 여전히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덴의 원형적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13절) 남자에게서 독립하지 않도록(14절) 되어 있다는 것은, 일부 에베소 여성들이 남성들을 존중하지 않던 방식을 바울이 금하는 것(12절)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287. 그러나 gar가 여기서 "왜냐하면"을 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제시할 13-14절에 대한 두 해석은 모두 여전히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덴의 원형적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13절) 남자에게서 독립하지 않도록(14절) 되어 있다는 것은, 일부 에베소 여성들이 남성들을 존중하지 않던 방식을 바울이 금하는 것(12절)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들에서 특히 구약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예시로 사용하여 자기 요점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충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조롱받던 이방인 갈라디아 신자들이 실제로 겪던 일이었습니다.[288] 다른 곳에서는 홍해를 건넌 일, 만나, 구름, 반석, 그리고 광야에서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구원받고 보살핌을 받고도 도덕적 실패와 우상 숭배로 상을 잃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위험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습니다.[289] 나중에는 사탄이 하와를 꾀어낸 이미지를, 같은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순결하고 진실한 헌신에서 떠날 위험에 대한 선례로 사용합니다.[290] 이 모든 예에서 바울은 구약의 사례를 자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의 유비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여성들과, 다른 교회들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금지를 밝힌 다음, 그것을 하나의 유비로 뒷받침합니다. 그가 그리는 평행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창세기 2-3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정확히 무엇을 부각하려는 것일까요?

많은 상호보완주의자는 "먼저"(그리스어 protos)라는 단어가 서열상 먼저를 함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서열의 함의 없이 순서상 먼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을 묘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뒤에 우리가 그에 응답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할 때 쓰입니다.[291] 실제로 같은 단어의 한 형태가 주변 본문에서 두 번, 곧 열 절 앞과 열 절 뒤에서 순서상 먼저를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 기도 … 하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입니다.[292]

장 칼뱅조차 위계적 해석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자가 두 번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속된다는 논증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 앞서 왔지만 … 그분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이다."[293]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되었지만, 그보다 먼저 생겨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 바울이 그런 논증을 펼쳤을까요?

288. 갈라디아서 4:22-24
289. 고린도전서 9:24-10:14
290. 고린도후서 11:3-4
291. 요한복음 20:8, 요한일서 4:18
292. 디모데전서 1:2와 3:10
293. John Calvin, The Epistles of Timothy, Titus and Philemon. 같은 단락에서 하와를 "일종의 부속물", "열등한 조력자"라고 부르는 칼뱅도 그럼에도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아담이 하와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순서만 언급할까요? 설득력 있는 한 가지 답은, 그가 14절에서 말할 내용을 13절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바울은 절 번호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13절과 14절을 떼어 놓으려는 우리의 경향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창세기 2장의 요약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창세기 2:4-20의 말씀처럼)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창세기 2:21-25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은 일의 어떤 측면을 상기시키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14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속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들이 "창조 질서"를 위한 논증의 무게를 13절에 싣지만(저는 그들이 이 구절을 아담이 하와보다 서열이 높다는 뜻으로 잘못 읽었다고 봅니다), 14절에 대해서는 덜 확신한다고 대개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하와가(그리고 그 딸들이) 아담보다(그리고 그 아들들보다) 속임에 더 취약하므로 여자는 영적 지도자와 교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1977년 조지 나이트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294] 하와가 자신에 대한 아담의 정당한 권위를 우회함으로써 사탄과 협력했다는 해석입니다.

여자를 속이는 것이 남자를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거의 2천 년 동안, 1960년대까지 이 구절은 여성의 열등함, 곧 지적 능력의 부족을 포함한 열등함을 뒷받침하는 교회의 증거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해방 운동은 그 문화적 가정을 뒤집었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모두 그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열등이라는 생각을 여성 동등이라는 생각으로 올바르게 대체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 가운데 이 해석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295] 그렇다고 해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이 해석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뎀은 "바울은 하와에게서 여성 일반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본다"고 말하며, 다른 학자의 말을 지지하며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더 관계 지향적이고 양육적이며, 남자는 이성적 분석과 객관성에 더 기운다. 여자를 가르치는 직분에 임명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여자가 교리상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선을 그을 가능성이 더 낮고, 그래서 속임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더 쉽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296]

294. George Knight,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ole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
295. "Women in the Church"(6장)에서 슈라이너는 "이 해석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함축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96.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ch. 2

그러나 이 인용문은 본질적으로 여자가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여자가 많은 남자보다 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며, 많은 남자가 많은 여자보다 속임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하게 칭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자가 더 잘 속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여자는 아무도 가르쳐서는 안 되고,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역사적 해석을 정당하게 버렸습니다.[297] 이제 나이트의 새로운 해석을 평가해 봅시다. 슈라이너는 그 해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속인 뱀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뱀은] 남성 리더십의 양식을 전복시켰고, 유혹하는 동안 하와와만 상호작용했다. 하와는 뱀에게 응답하는 일에 주도권을 쥐었고, 아담은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이 훼손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298]

이 해석의 문제는, 창세기의 기록에도 바울의 논증에도 하와가 속은 일의 본질이 그녀가 서열을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을 훼손한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된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두 본문 모두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두 본문 모두에 거기 없는 것을 읽어 넣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 둘 다 같은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 죄는 결코 "아담의 권위에서 벗어난 것"이나 "하와에 대한 리더십을 포기한 것"으로 언급되지 않고, "열매를 먹은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내의 말을 들은 행위(모든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가 아니라, 열매를 먹자는 그녀의 죄악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창조 질서를 전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13-14절). 하와가 속임에 굴복한 결과, 그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범법자"(transgressor)입니다.

297.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읽기를 가장 포괄적으로 변호하는 책인 Women In The Church의 초판에서, 대니얼 도리아니는 이 본문 해석의 역사에 관한 부록을 씁니다. 그는 1960년대까지 교회가 여성에 대한 금지가 여성의 본질적 열등함에 근거한다고 전제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상호주의자들뿐 아니라 상호보완주의자들도 도리아니가 "재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본문에 대해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느 쪽도 자기 해석이 역사적 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제2판에서는 도리아니의 부록이 삭제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를 부르게도, 5장에서는 상호보완주의 해석을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298. Tom Schreiner. Women in the Church, ch. 6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뒤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주신 명령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유일한 역할 역전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 스스로 자기 신이 되려 한 그들의 시도입니다.

14절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의 두 해석이 심각한 의문에 놓인 이상, 우리는 바울이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인이 되었느니라"라는 말로 달리 무엇을 뜻했을지 물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아마 베드로가 바울의 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말할 때 가리킨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웨스트폴이 말하듯이 "바울은 자기 신학이나, 그 이야기가 금지 명령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타락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제시할 뿐이다."[299] 원래 독자들은 바울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정확히 알았을지 모르지만, 몇 세기 뒤에 같은 편지를 집어 든 우리는 바울이 자기 독자들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중요한 정보 몇 조각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능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합니다. 둘 다 바울이 많은 에베소 여성을 꾸짖고 있다는 생각, 곧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그들의 어머니 하와의 행동에 빗대어 꾸짖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며, 하와가 아담 다음에 지음을 받은 방식이 그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가능한 의미는, 바울이 13절에서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방식을 암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탄이 그녀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였을까요? 그렇다면 하와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하와의 죄는 그녀의 비교적 얕은 확신이 공격받은 결과, 곧 속임이었고, 아담의 죄는 눈을 뻔히 뜨고 지은 것, 곧 속임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300]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여성들이 복음과 경건으로의 그 부르심을 더 확고히 붙잡아야 할 필요를 부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후메내오와 알렉산더" 같은 남자들(사탄의 하수인들)이 앞서 거짓 가르침을 들여왔지만, 많은 에베소 여성들(하와와 같은 이들)이 그 가르침에 가장 깊이 빠졌고, 그래서 남을 가르칠 처지가 아니었으며(12절) 오히려 복종하는 태도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11절). 이와 대조적으로 교회에 남아 있던 남자들은 굳게 서 있었으므로 이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라는 말을 창세기 2장을 되새겨 보라는 초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와는 아담에게서

299.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ch. 4
300. 사실 하와의 속음을 이런 식으로, 곧 창조 질서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야 할 속임의 한 예로 사용하는 것은 바울에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는 한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3)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301] 이 말로 그는 하와의 존재와 목적이, 그녀의 동반자인 아담의 존재와 목적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여자에게 남자가 필요 없다는 에베소의 신화를 바로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잘못은 그녀가 자기 동반자인 아담을 고려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채 유혹에 맞섰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통찰은, 가까이에 있던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하와는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해 줍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독자적이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형제들을 "가르친" 에베소 여성들, 곧 하와의 딸들이 아담의 아들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긴밀하게 동역해야 함을 원형적으로 일깨워 주는 기원 이야기를 잊어버린 여성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가 옳을까요? 저는 두 번째를 선호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의미 모두, 13절과 14절의 생각이 하나로 일관되는 방식으로, 에베소의 죄짓는 여성들과 바울의 금지(12절)와 뒷받침 자료(13-14절)를 잇는 연결의 실을 그려 낸다는 점에서 인정받을 만합니다.[302]

에베소 여성들의 구체적인 죄

이 에베소 여성들 가운데 많은 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금지를 받아야 했을까요? 답은 금지되는 내용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authentein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던져야 할 결정적인 질문은, 바울이 두 개의 별개 행동(가르치는 것과 authentein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행동(authentein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것인지입니다. 쾨스텐버거는 별개의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와 캐시 켈러를 비롯한 많은 상호보완주의자는 두 동사를 결합하는 "또는"(그리스어 oude)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두 동사를, 통합된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행동으로 묶는다고 주장합니다.

필립 페인의 oude 연구는 쾨스텐버거의 논증을 반박하고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303] 흥미롭게도 파이퍼는 authentein의 의미를 오해하기는 했지만, 이미 1989년에 이런 접근을 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 아마 어떤

301. 고린도전서 11:8-9
302. 이 두 의미 어느 것도 13절을 하나의 이유로, 14절을 두 번째 이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을 하나로 묶어, 편지 자체가 보여 주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줌으로써, 12절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일관된 예시를 제공합니다.
303.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32TPjf. 또한 자민 휘브너의 글도 보십시오. 그는 이 문제를 더 섬세하게 다루어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행동이라는 생각을 견지합니다: www.bit.ly/3EKqWM8

식으로든 권위와 관련된 일종의 가르침을 뜻할 것이다. 가르치는 것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함께 간다."[304] 이렇게 읽으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hit and run(뺑소니)에서 "hit"(치다)가 홀로 서지 않는 것처럼 홀로 서지 않습니다. 각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는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바뀝니다. loud and clear(분명하고 똑똑하게)에서의 "loud"가 loud and proud(당당하고 떳떳하게)에서와 다른 뉘앙스를 갖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 장 전체에서 바울은 단어나 구절을 짝지어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고요하고 평안한", "경건과 단정함", "전파하는 자와 사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분노와 다툼", "소박함과 정절", "조용함과 복종함"을 말합니다. 저는 페인과 블롬버그와 켈러의 논지를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두 동사를 함께 쓸 때 흔히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뜻하며, 12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305] 그러므로 바울은 여성들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으로 잘못되게 "남자들에게 authentein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authentein 하는 방식으로 남자들을 가르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여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밀려든 거짓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든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에게 ezer kenegdos가 되는 대신, 유혹적으로 혹은 과시적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9절), 소란을 피우며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11절, 12c절), (남성들의 말을 기꺼이 듣거나 그들에게서 배우려 하기보다) 남성들을 가르치되 그들을 장악하려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12b절).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남성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을 더 깊은 속임에 노출시켰습니다(13-14절). 바울의 해결책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모든 좋은 제자들처럼 복종하며 배우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11절). 그들은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교회의 조화를 지켜야 합니다(12절). 창세기 2장이 말하듯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성에게 의도하신, 남성과의 거룩한 상호 의존을 다시 확인하고(13절), 또 창세기 3장이 말하듯 특히 사탄이 속이려 할 때 아담에게서 자신을 떼어 놓은 하와의 잘못을 피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14절).

304.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GOjAce. 슈라이너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디모데전서 2:11-15는 권위 있는 가르침만을 금한다."
305. 바울이 두 측면을 가진 하나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면, 11절과 12절 끝에 표현된 대로 "가르치거나 authentein 하는 것"이 무엇의 반대인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복종하는 태도로 조용히 배우는 여자들입니다(11절). 이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단어를 써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12절 끝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줄입니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요약하면, 저는 문제가 여성들이 남성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Men and Women in Christ의 저자 앤드루 바틀릿 같은 다른 학자들은 에베소 여성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도 문제였다고 덧붙여 주장합니다.[306] 바틀릿은 이 여성들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여성들은 1) 누구든 가르치는 일과 2) 남성들을 통제하는 일을 둘 다 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합니다. 바울은 앞서 남성 거짓 교사 두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냈지만(1:20), 이 여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가 무엇보다 거짓 가르침을 다루려 한다는 것(1:3), 그리고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특히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압니다.[307] 교회의 많은 여성이 이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5:13). (이것은 목회 서신의 다른 곳에서 바울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대목과 평행을 이룹니다.)[308] 이 여성들은 거짓

306.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모두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여성들이 남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자체였다고 주장하지만, 상호보완주의자가 아닌 학자들은 이 주장을 거부하고 세 가지 접근으로 갈라집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였다는 접근, 여성들이 남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는가였다는 접근, 또는 그 둘의 결합이라는 접근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두 번째 접근을 취합니다. 문제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여성들이 남성들을 대하고 가르친 강압적이고 오만하거나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이 간략히 말하듯 첫 번째나 세 번째 접근도 가능합니다. 앤드루 바틀릿은 "Men and Women in Christ"의 11-13장과 부록 3-6에서, 제가 읽은 것 가운데 이 접근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서로 겹치기는 하지만 두 개의 별개 행동을 금하고 있을 수 있다는 쾨스텐버거의 분석을 받아들여, 바틀릿은 이것을 "나는 여자가 (누구든) 가르치는 것도, 남자에게 authentein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로 읽습니다(부록 4).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증거로부터, 남성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쾌락을 위해 사는 몇몇 부유한 젊은 과부들이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마술과 점성술이 얽힌 거짓되고 무익한 신화를 퍼뜨리고, 자기 부를 과시하며, 단정치 못하게 옷을 입고, 각자 자기 성적 욕구를 채워 줄 남자를 찾고 [있었다]"고 논증합니다(p. 259). "편지 전체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성별 중립적으로 언급한다. 1:3과 5:13에서 우리는 그가 디모데가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거짓 교사로 여러 여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p. 261) "디모데는 그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그들 중 누구도 개혁된 삶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장로나 집사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p. 263) 이 해석에 따르면 하와는 에베소 여성들처럼 "사탄에게 [곧 거짓 교사들을 통해] 속아 금지된 지식을 받아들였고, 남자를 거짓되게 가르치고 압도하여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p. 285) 바틀릿의 접근은 저와 다르지만, 우리 둘은 같은 자리에 이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금지나, 교회에서 여성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p. 286) 만일 바울이, 제가 믿는 대로 서로 맞물린 두 행동("authentein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 행동("가르치는 것"과 "남자에게 authentein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틀릿의 접근이 제 접근보다 낫습니다. 그의 관점은 제 관점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회복될 때까지) 가르치는 일 전반을 금지당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307. 디모데후서 3:6-8을 보십시오.
308. 디도서 1:11

가르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5:15).[309]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교리와 경건에서 회복될 때까지, 이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일도 막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에베소 여성들에 대한 바울의 바로잡음은 현대인의 감수성에는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 이해하면, 그가 이렇게 개입한 지혜를 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행동은, 그것을 몰아간 이단적 생각까지 포함하여, 교회를 둘러싼 고대 지역 사회의 눈에 교회를 추문거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은 관습상 남성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존중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편지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 잘못된 행실이 "책망 받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회의 평판을 해칠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310]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한동안 잠잠하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치에 다시 겸손히 앉으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었던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일부 여성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왜 바울은 모든 여성이 authentein 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에서 그가 모든 남성에게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여성에게 과시적으로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말다툼을 한 남성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도 분명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건한 목사나 교사가 되려는 여성들에 반대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락이 장로와 집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너무 멀리 나갑니다.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고 말할 때 그는 새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에는 서로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은 여러 단락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그런 단락이 여섯 개 있는데, 거짓 가르침으로 손상된 교회를 회복하려는 바울의 시도로 느슨하게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2장에는 사역의 역할에 관해 말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인의 활동(기도, 옷차림, 배움 같은)을 더 잘하는 방식(다투지 않고, 적절하게, 복종하며 등)만 있습니다. 게다가 상호보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여성들 안에 있는 이끌고자 하는 모든 열망을 꺾어 버렸다면, 왜 몇 절 뒤에서 "누구든지"(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포괄적인, 따라서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를 씁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열망을

309. 게다가 디모데전서를 다른 두 목회 서신과 함께 묶어 보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6-7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여자들을 가리키고, 디도서 1:10-11은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310. 디모데전서 5:7, 14

인정하겠습니까?[311] 실제로 그는 2:10에서 방금 에베소 여성들에게 선한 "행실"(ergon)을 하라고 부른 다음, 이제 3:1에서 감독이 되는 것이 그런 선한 "일"(ergon)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대부분의 학자는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 일반이 남성 일반을 잘못 대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고 결론짓지만, 마르틴 루터 같은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바울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못 대하던 방식을 다루는 것으로 읽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아내"와 "남편"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므로, CEB는 12절을 "나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자들은 바울이 남자들(8절)과 여자들(9절)에 대해서는 복수형 단어를 쓰다가 11-12절에서는 각각 단수형으로 바꾼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부부)과 특정한 관계(결혼)를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복수에서 단수로 바꾸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읽는 방식에 반대하는 논증들이 이 읽기를 논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312]

이 본문이 남녀 관계 일반이 아니라 결혼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을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자"에 대한 총칭적 단수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의 말처럼 바울이 남자들(복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한 여자(단수)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면, 왜 "남자들"이 아니라 "한 남자"라고 말할까요? "나는 한 여자(단수)가 … 남자들(복수)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311. 신약성경은 tis라는 용어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씁니다. 이 단어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 또는 "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38에서 이 단어는 "여자"인 "마르다"에게 형용사적으로 쓰입니다.

312. 여러 상호보완주의자는 세 가지 이유로 이 읽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뜻했다면 그 단어들 앞에 "그들의"라는 말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에 관한 그의 주요 가르침 어디에서도 '아내'와 '남편' 앞에 소유격 대명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골로새서 3:18-19, 에베소서 5:22-25, 고린도전서 7:2-4, 11, 14, 33을 보십시오). 둘째, 어떤 이들은 바울이 남자들을 한 집단으로(8절), 이어서 여자들을 한 집단으로(9-10절) 다루다가 갑자기 기혼 여성들과 기혼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편지 어딘가에서, 분명히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을 결혼 생활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곳도 그럴 만한 다른 어느 곳 못지않은 자리입니다. 셋째, 어떤 이들은 바울이 편지에서 복수와 단수를 아무렇게나 바꾸므로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총칭적 단수로 감독(3:2)과 삯을 받기에 합당한 일꾼(5:18)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복수로 말한 뒤(5:17) 본문이 이어지면서 단수로 넘어갑니다(5:19). 그러나 바울은 그의 서신 나머지 어디에서도 총칭적 단수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3:2에서 그가 단수 장로를 쓰는 것은, 이제 디모데가 장로로 찾아야 할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단수 '일꾼'(5:18)은 그가 인용하는 말씀이 단수이기 때문에 쓰입니다. 복수 장로들(5:17)에서 단수(5:19)로 넘어가는 것은, 5:17이 그들의 집단적 리더십을 말하는 반면 5:19는 개별 장로에게 제기된 고발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남자가 한 명만 있는 에베소의 교회 모임을 상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둘째, 바울은 자기 금지의 근거를 성경의 원형적인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두고(13-14절), 이어서 해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15절). 해산 역시 본질상 가정의 일이므로, 결혼의 맥락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셋째, 바울이 그리스어 단어 aner와 gune를 함께 쓰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그는 남편과 아내를 뜻합니다. 성별을 지닌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상호보완주의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통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28("남자도 여자도 없으니")에서 그는 arsen과 thel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성별을 지닌 사람들의 창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마태복음 19:4를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넷째,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가르친다는 언급은 서로 다른 성별의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예절이 중시되던 고대 문화에서 이런 일은 대개 가정에서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그가 에베소의 아내들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자기 남편들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습관에 빠져 있었고, 하와처럼 남편과의 겸손한 동반자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더 깊은 속임에 위험하게 취약해져 있었다는 점을 염려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울은 지혜롭게 이를 가로막고, 이 아내들에게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돌아가고, 동반자로서 남편 곁에 서라고 촉구합니다.

흥미롭게도, 강경한 상호보완주의 운동인 Acts 29 Movement(사도행전 29 운동)의 대표적 교회는 여성을 가르침과 리더십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 성경적 분석을 썼지만, 그 근거로 찾아낸 논증은 단 하나,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읽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서 그들은 바울이 결혼만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아주 정당하게) 인정합니다.[313]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이 특별히 결혼을 가리킨다면, 여성 일반을 남성 일반을 이끌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서 배제하려는 그들의 단 하나의 논증은 무너지고 맙니다.

313. "The Role of Women in the Village Church"의 각주 160을 보십시오: www.bit.ly/3CFKgJO

불분명한 본문과 분명한 본문

저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2:11-14에서 일부 여성들이 죄를 짓고 있던 에베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12절은 모든 곳의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 명령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교회에도 authentein 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가르치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중요한 덧붙임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불분명하므로, 어차피 교리나 교회 관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석학의 한 규칙은 불분명한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14] 주변적인 본문들, 곧 그 본문이 말하는 듯한 내용이 대개 단 한 번만 언급되는 본문들은 분명하고 중심적인 본문들만큼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를 가리라는 지시,[315]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316]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일,[317]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318]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더 불분명한 본문들에 대해 독단적이 되거나 그 위에 중요한 교리나 관행을 세우지 말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더 겸손하고 가볍게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는 확신을 갖고 굳게 붙들면서 말입니다.

불분명한 성경 본문은 결정적인 교리의 타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우선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성경 본문 대부분은 분명하며, 몇몇 본문만 불분명합니다.[319] 어떤 본문을 불분명하다고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본문에는 대체로 모호한 용어가 유난히 많거나, 다른 본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같은 내용을 말하는 다른 성경 본문이 없어 보이거나, 그 본문이 다루는 고대의 상황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낳고, 그 결과 주요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320]

314. 예를 들어 2세기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불확실한 진술은 확실한 진술로, 모호한 진술은 분명하고 명백한 진술로 판단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인용 출처: Gregg Allison, Historical Theology, p. 122)
315. 고린도전서 11:10
316. 고린도전서 15:29
317. 베드로전서 3:19
318. 디모데전서 2:15
319. 우리는 베드로가 바울의 글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베드로후서 3:16). 베드로가 쓴 이 용어는 고대 세계에서 신탁에도 쓰였는데, 신탁은 한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320. 예를 들어, 히브리서 6:4-6에는 적어도 18가지 해석 노선이 있고, 디모데전서 2:12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00년의 교회사에서 이 본문보다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을 알지 못하며, 이보다 더 불분명한 본문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디모데전서 2:12-15는 매우 불분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동사인 authentein은 흐릿한 용어로,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며 바울 생전의 성경 밖 문헌에서도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월터스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나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 시대에 가장 가까운 이 단어의 고대 용례 여덟 개를 연구한 뒤, "이 그리스어 문헌들에서 이 단어의 용례가 드물고 모호하다는 사실이 학계의 합의 부족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과 "이 여덟 개 가운데 대부분은 본문이 의심스럽거나,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연대가 논란이 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월터스는 이 여덟 개 가운데 다섯 개를 각각 "권위를 취하다", "누구보다 더 능숙하다", "창시자가 되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다", "살인을 저지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까지 합니다. 의미가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authentein은 4세기 이전에는 대체로 지하의(즉 구전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언어의 문학 이하의 사용역에 속했기 때문이다."[321] 그래서 디모데전서 2:12에서 이 단어의 참된 의미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엄청난 양의 잉크가 쏟아졌습니다.[322] (그리고 authentein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슈라이너는 "12절의 모든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라고 말합니다.[323]) 자민 휘브너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 단어의 고대 용례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꼼꼼히 평가하고,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을 정당하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authentein'이 1세기에 또는 디모데전서 2:12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그 용어가 1세기에 또는 디모데전서 2:12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단어를 고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 단어에는 어떤 뉘앙스도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권위 행사를 뜻한다고 가정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전 세계 교회의 절반이 목사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이것은 건전한 추론이 아니다.[324]

authentein을 "권위를 행사하다"로 이해하면, 이 구절을 실제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 선교사가 일어서서 믿지 않는 남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도 됩니까? 이 본문은 "남자"가 회심한

321. Al Wolters, "Women In The Church", ch. 2.
322. 고대의 성경 밖 문헌에 나오는 authentein이라는 단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계속해서 어휘상의 문제와 해석상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EHxZ8a
323. 다른 곳에서 그는 이 말과 모순되면서 또한 과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12는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이며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구절이 전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24.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BNaSY8 p.245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면, 어머니나 여성 청소년부 지도자가 소년을 더 이상 가르쳐서는 안 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성이 신학교에서, 또는 남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나 기독교 집회에서 남자를 가르쳐도 됩니까? 남자가 여성이 쓴 교리 관련 책이나 성경 주석을 읽어도 됩니까? 여성이 파라처치 단체나, 남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역을 이끌어도 됩니까? 교회에서 여성은 어느 수준의 리더십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쾨스텐버거가 상호보완주의자들에게 이 금지는 단지 여성의 목회가 아니라 여성이 이끄는 것 자체를 향한 것이라고 상기시키는 만큼,[325] 여성에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소그룹 인도나 자원봉사자 팀 인도처럼 남자들 위에서 하위 수준의 리더십을 갖는 것은 허락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은 은사 있는 여성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상호보완주의 방식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권위 없는 비공식적 가르침과, 오직 목사에게만 적합하다는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구별하는 유일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목사가 아닌 은사 있는 남성 설교자 가운데 이 해석상의 이분법 때문에 설교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한 구절에 대한 이 해석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일부라면, 신약성경의 다른 어떤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토록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 추측, 궤변, 고통과 분열을 낳습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말하는 본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다른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영원히 남성 설교자와 목사만 두기를 원하셨다면, 분명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번째 구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다루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에베소에서 일부 또는 모든 여성이 정확히 어떻게 남자들/남편들에게 죄를 짓고 있었을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이상하리만큼 짧게 축약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측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326]

마지막으로, authentein을 "권위를 행사하다"로 번역하면 이 본문은 여성들이 남자를 실제로 이끌거나 가르치는,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성경의 사례와 충돌하게 됩니다. 제10-1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상호보완주의 해석은

325. "문제를 오직 '여성 장로/감독은 안 된다'로만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최소주의적일 수 있다. … 디모데전서 2:12는 여성이 특정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단순한 표면적 금지보다 더 근본적인 실재에 근거하고 있다." 출처: www.bit.ly/3wsFsFr

326. 상호보완주의자인 더글러스 무는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13-14절)은 창조와 타락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이 11-12절의 명령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P. 68.)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린 성경 속 여성들과 맞지 않습니다.[327] 하나의 성경 본문을—그것에 관해 학술서를 쓰기까지 하면서—그 주제에 관해 성경이 달리 말하는 바에 이끌림을 받지 않은 채 해석하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라고 말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을 다루는 온당하고 건전하며 견고한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같은 주제에 관한 더 분명한 본문이 더 불분명한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끌어야 합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음

이것이 불분명한 본문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아마 이 본문이 14-15절에서 이렇게 끝맺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와는] 속아 죄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정숙함으로 계속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루뎀은 이 구절을, 남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끄는 공적 역할을 맡는 반면 여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역할로 돌아가도록 바울이 이끄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328] 12절이 가르치고 이끄는 공적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 외에도, 이 해석의 주된 약점은 "해산"(일시적인 생물학적 기능)이 "자녀 양육"(오래 지속되는 사회적 역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5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학자가 제안하는 열쇠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와의 죄가 곧바로 고통스러운 "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결을 이어받지만, 여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 나뉩니다. 첫째 가능성은 바울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후손이 언젠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자들은 하와의 딸인 어머니 마리아의 해산을 통해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능성은, 흔히 영적 구원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어근 sōzo가 육체적 보존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329]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 여성들에게 출산이라는

327.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교리를 가르쳤고(부록 4의 "여성이 가르친 사례" 참조), 목회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증거는 제12장 참조). 우리는 성령의 영감 아래 성경의 통일성을 믿기 때문에,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처럼 디모데전서 2:12가 브리스길라가 한 일을 여성이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디모데전서 2:12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328. 공정하게 말하면, 크레이그 블롬버그 같은 다른 상호보완주의자들은 그와 의견이 다릅니다.
329. 사도행전 27:20과 디모데후서 4:18에서 쓰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여자들이 자손을 낳는 것 같은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므로,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적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더 잘 맞습니다.

위험한 일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330]

셋째 가능성은, 거짓 가르침이 결혼을 부정하도록 이끈 데 대해 바울이 반박한다는 것입니다.[331]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잘못 인도된 기혼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나치게 영적인 여성들처럼[332] 결혼의 동반자 관계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남편과 성관계도 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관계와) 해산이 거룩함과 성화의 한 차원임을 다시 강조합니다.[333]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구절 가운데 하나인 15절이 그것이 결론짓는 앞의 구절들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11-15절이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어떤 종류의 교리에도 부적합한 근거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하물며 "창조 질서"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세상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금할 수도 있는 교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단 하나의 본문에 교리를 세우려는 것은 교회가 거듭 빠져 온 유혹이었습니다. 3세기 초에 아리우스(Arius)는 잠언 8:22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지혜를] 낳으셨다." 1500년대 초에 가톨릭교회는 야고보서 2:24에 기대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루터의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디모데전서 2:12를 붙들고 여자가 남자를 이끌거나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잘못은, 단 하나의 불분명한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 있는 그 주제에 관한 더 분명한 가르침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성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교회의 거의 모든 주요 교리마다 정통 교리와 모순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아갈 길은, 성경의

330. 고대 세계에서 출산은 여성의 사망과 장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태어난 직후 자기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여성들은 출산을 무사히 넘기게 해 달라고 흔히 아르테미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해석에 무게를 더해 줍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31. 디모데전서 4:3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32. 고든 피는 고린도전서에 관한 대표적인 주석에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게 된 배경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서신의 뒷부분에서 그는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디모데전서 5:14).
333. 상호보완주의자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Two Views on Women in Ministry"에서 이 해석을 제시합니다. "15절은 번역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구절이지만, 아마도 이단과 결혼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 맞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2장)

그토록 많은 부분이 주는 분명한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적은, 더 불분명한 본문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분명한 본문들이 이 불분명한 본문을 비추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때 특히 잘 드러납니다. 이 질문에는 부록 4에서 답합니다.



8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결혼한 두 사람은 한쪽이 다른 쪽 위에 있는 위계적 관계에 놓인 것도 아니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율적 단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결혼 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다." 리처드 헤이스[334]

"우리 딸들이 언젠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훈련해야 해요." 최근에 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제 생각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이비에게 언젠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기 결혼 생활에서의 리더십과 복종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결혼에 관해 제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물려주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 가르침을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집니다.

한 영역 상호보완주의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결혼에 대해 품고 계신 이상에 아주 온건한 형태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와 복종이 포함된다는 생각을 마침내 완전히 버린 것은, 이 장과 다음 장을 연구하고 쓰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에베소서 5장을 읽은 바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영역 상호보완주의(one-point complementarianism)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복종을 실천해야 하지만,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남자를 이끄는 것은

334. Richard Hays, First Corinthians, p. 116

허용된다고 봅니다.[335] 이는 결혼과 교회 모두에서 여성의 복종을 요구하는 두 영역 상호보완주의(two-point complementarianism)와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의 많은 성경학자와 교회가 한 영역 상호보완주의를 지지합니다.[336]

제 생각에는, 많은 두 영역 상호보완주의자가 이 책을 읽고 교회 리더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내려놓아야겠다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결혼에서는 어떤 형태의 권위와 복종을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몇 년 동안 이 입장을 지녔기 때문에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에 대한 계속된 연구로 인해 제가 한 영역 상호보완주의마저 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겠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서도 이미 대체로 상호주의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20년에 이르는 제 결혼 경험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대등한 사람끼리의 결혼이 지도자와 추종자의 결혼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적" 결혼에 대해 그토록 자주 설교해 온, 아름답게 다듬어진 한 줄짜리 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희생하고, 그녀는 복종한다. 그는 이끌고, 그녀는 따른다. 그는 주도하고, 그녀는 지지한다."[337]

335. 결혼 안에 권위와 복종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아내가 다른 영역에서 남편에게조차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는 자신이 살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집에서는 남편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서 지도자로서 활약했으며, 그 땅에서는 그녀의 남편조차 그녀의 지시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안에서 여성이 복종한다는 것을 근거로 여성이 교회와 사회에서 남자를 이끄는 것을 막는 성경 본문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336. 작은 표본으로, 저는 서유럽의 N. T. 라이트, 동유럽의 하이크 호바니시안(Hayk HovHannisyan), 그리고 한때 호주의 마이클 버드에게서 한 영역 상호보완주의 입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평등주의-상호보완주의 "전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N. T.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의 일부는, 특히 미국에서, 문화가 너무나 양극화되어서 한 칸에 표시를 하면 많은 사람이 페이지의 같은 쪽에 늘어선 다른 열두 칸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페이지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고 문화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어떤 말을 충분히 여러 번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밤하늘의 별 두 개를 가리키며 "저 두 별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포인터스'(The Pointers)라는 별자리입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 별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하늘을 볼 때마다 그 별들이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그 별들은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 안의 한 지점에서 볼 때만 그렇게 가까워 보일 뿐입니다. 남편의 머리됨과 장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인 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반드시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337. 베스 앨리슨 바는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6장)에서 "Happily Ever After"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이끄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338] 바울은 특히 이 장의 초점인 에베소서 5장에서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3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그의 몸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구주이시다.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25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26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27 티나 주름이나 그 밖의 어떤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빛나는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29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몸을 먹이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과 같이 한다—30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32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이 장을 연구하면서, 저는 C. S. 루이스가 쓴 말이 사실임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 입에 파이프를 물고 손에 연필을 쥔 채 어려운 신학의 한 대목을 헤쳐 나갈 때 마음이 저절로 노래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경우 에베소서 5장은 신학으로 가득한 어려운 본문이며, 제가 여러 해 동안 곱씹어 온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과 그토록 씨름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 결혼 생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결혼에 관한 주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이므로, 저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 본문을 "남편은 이끌고 아내는 따른다"로 읽는 것은 저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감수성에 어긋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저만큼 교육받고 유능하며, 여러 면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재정 관리를 더 잘하고, 현재 저보다

338. 그런데도 주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잘못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는 "God, Marriage, Family"(p. 250)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27과 2:24를 모두 인용하시면서(마태복음 19:4-6 및 병행 구절) 창조주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래 계획을 확언하셨다. 이로써 우리 주님은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복종하고 돕는 동반자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강하고 분명하게 확인하셨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실제적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읽어 냅니다. 또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끄는 타고난 지도자로서도 저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에 관해 제게 말씀하시는 만큼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 위에 리더십을 내세우는 것은 제게 자의적일 뿐 아니라 우리 관계와 아내의 역량을 침해하는 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에게 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보다 아내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동반자가 되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셋째, 제가 이 본문과 씨름한 이유는 훌륭한 성경 주석가들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목사들도 자신의 믿음을 실제 결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단어들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5장은 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처음 몇 구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결혼 관계를 바로 앞의 피차 복종에 관한 구절로 틀짓습니까? "머리"는 무슨 뜻입니까? "복종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복종하다"는 21절("피차 복종하라"), 22절(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에서 같은 뜻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네 가지 서로 다른 해석, 곧 네 가지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의 4분의 3이 남편을 향하고 있으므로, 저는 각 견해를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따라 정의하겠습니다. 이 견해들은 남편을 결정권자(견해 1), (교착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견해 2), 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사람(견해 3), 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견해 4)로 봅니다.

견해 1: (일상적인) 결정권자로서의 남편

이것은 웨인 그루뎀의 견해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서 5:21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할 때, 모든 신자가 모든 신자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자기 위에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흐르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결코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에서 "머리"가 누군가 위에 있는 권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이끄는 책임을 지라고, 아내들에게는 이 리더십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이는 바울이 남편에게 단지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이끌라고 촉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에서 창세기 2:24를 인용할 때, 그루뎀은 바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 권위를 타락 이전에 하와에 대해 아담이 가졌던 권위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실제적 의미에 관해, 그루뎀은 자기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들려줍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든 그렇지 않든, 결정을 내릴 책임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두 사람 모두와 관련된 결정을 말하는 것이지, 각자 개인적인 책임 영역에서 내리는 개별적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남성의 머리됨이 남편과 아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10년에 한 번쯤의 경우에만 차이를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남성의 머리됨이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날마다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남성의 머리됨이 있다면, 의사 결정 과정의 초점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조용하고 미묘한 인정이 있다. 그리고 종종 많은 논의가 있고, 서로에 대한 많은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릴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339]

존 파이퍼는 아버지가 일상적인 결정권자였던 부모님의 결혼을 다정하게 회상하면서 이 견해의 일면을 보여 줍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분명히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기도를 인도하셨다. 가족을 불러 모아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 우리를 주일학교와 예배에 데려가셨다. 차를 운전하셨다. 가족이 어디에 앉을지 이끄셨다. 점심을 먹으러 하워드 존슨스(Howard Johnson's)에 가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를 식탁으로 이끄셨다. 종업원을 부르셨다. 계산을 하셨다. 우리가 집안의 규칙을 어기거나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면 상대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때가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 아빠가 집에 오시는 것을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사랑하셨다. 나중에 나는 성경이 이것을 "복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40]

결혼에 관한 대중적인 기독교 서적 대부분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어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 … 반응하고 수용하는 아내는 기꺼이 … 남편의 사랑과 흠모, 보호와 부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어 준다."[341] 또 다른 책도 같은 생각을 되풀이합니다. "남자는 집 밖에서는 상사가 많을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339.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ch. 1
340. John Piper,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h. 1
341. Ed and Gaye Wheat, Intended for Pleasure, fourth edition, p. 30–31

친절하게 권위를 제공하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을 기회가 있다."[342]

자,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까지 거의 모든 성경학자와 그리스도인은 이 본문을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견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은 제 결혼 생활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이 견해를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루뎀과 파이퍼의 삶의 경험이 저와 다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저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와 관련된 결정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내리는 상태에서 친밀한 관계가 잘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견해가 자기 결혼 생활에서 효과가 있다고 지지하는 부부는, 성장 배경이나 문화 때문에 지난날의 "전통적인 결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거나, 타고난 지도자인 남편과 타고난 추종자인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 관계가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니며, 줄리와 저의 관계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견해의 수정안을 제안하기 시작해서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라고 부르고, 저는 "(교착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견해 2: (드문 교착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남편

티모시 켈러와 캐시 켈러(Timothy and Kathy Keller)는 베스트셀러인 The Meaning of Marriage에서 상호보완주의 결혼에 대한 더 온건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그루뎀의 견해와 달리 바울이 21절에서 결혼 안의 성 역할을 피차 복종의 표현으로 틀 짓는다는 사실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들은 피차 복종을 겸손히 상대를 섬기고 기쁘게 하기로 하는 선택으로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2:2-3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헤아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한다(로마서 15:1-3).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douloi", 곧 문자 그대로 종이 되라고까지 말한다(갈라디아서 5:13). …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342. Kevin Leman, Sheet Music, p. 54.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다.[343]

이 견해에 따르면 피차 복종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22-24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25-29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지(희생적인 사랑의 형태로) 말합니다.

피차 복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켈러 부부는 여전히 남편이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내와 피차 복종하는 남편이라는 표현에서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에" 복종하는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옮겨 감으로써 그렇게 합니다.[344] (이것은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의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가 피차 복종이라는 개념에서 쓰일 때와는 다른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전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켈러 부부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아내의 복종이 이해되어 온 방식보다 훨씬 더 온건한 종류의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남편은]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지고 (그로써) 그 결정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권리를 가진다."[345] 다른 곳에서 티모시 켈러는 이것을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내의 의견을 "뒤집을" 권리라고 부릅니다.[346] 다시 말해, 남편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때뿐이며, 일상적인 의사 결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였던 저와, 같은 진영의 다른 많은 교사들은 이런 말로 이 가르침을 적용해 왔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부 캘리포니아의 영향력 있는 상호보완주의 목사인 제 친구 앨런 프로우(Alan Frow)는 자기 결혼 생활의 거의 모든 결정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아내가 제게 '우리는 합의할 수 없어요. 당신이 지도자니까 가서 하나님께 구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다섯 번뿐입니다."[347]

제 결혼 생활에서는 제 "최종 결정권"을 쓸 필요 없이 몇 년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경험에서 줄리에 대한 제 "리더십"과 제게 "복종"해야 할 줄리의 필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43.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2
344.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345.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Appendix
346. Timothy Keller, The Timothy Keller Sermon Archive, 2012–2013
347.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bit.ly/2ZPRZGH

최종 결정권 모델에 대한 의심

저처럼 여러 해 동안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였던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 입장을 신학적으로 고쳐 나가는 어려운 작업이 그만한 수고를 들일 가치가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 년 중 거의 어느 날이든, 그들의 결혼은 상호주의 결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켈러 부부의 견해를 실제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여전히 그 견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합니다). 아주 온건한 형태의 권위와 복종이라도 정말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인지 의문을 품게 되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사실 저는 다섯 가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이상화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아내가 하는 중요한 기여를 그만큼 더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오직 남편에게만 해당하며 모든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자들이 강조하는데도,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여전히 이 점을 사용하여, 아내가 집에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면 교회에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348] 예를 들어 프로우는 인간 가정에서의 결혼 역할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신비로운 거울"[349]이라고 옳게 말하고, 그런 다음 여성이 사회에서 이끄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어떤 신비로운 비춤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약하는 것이 옳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 "비밀"을 공동체 전체에 일반적으로 덧씌워도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남성 장로들은 어떻게든 남편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남자여야 하고), 나머지 교회는 신부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이제 여자들과 남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이상하게도 비유에서 벗어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장로들이 교회의 남편을 대표한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비성경적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 역할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교회의 비유를 고수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요한복음 3:29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랑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348. 존 파이퍼는 이 논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남편이 가정에서 이끄는 방식에 비추어 남자가 이끌어야 한다(에베소서 5:22-33)." 흥미롭게도, 제가 사는 대륙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설교와 교회 지도를 허용하지만,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상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여성 설교자와 목사들이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교인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49.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bit.ly/2ZPRZGH

둘째, 저는 상호보완주의 결혼관에 따르면 왜 바울이 타락이 가져온 바로 그 위계적 구조를 이상화하는지 의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결과를 약속이 아니라 암울한 예고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350]

셋째,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매우 자주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된 배우자 학대의 수준에 계속해서 경악합니다. 일레인 스토키(Elaine Storkey) 같은 사회학자들은 여성의 복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으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자애로운" 권위에 관한 가르침을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의 권위라는 개념 자체에 의해 때때로 "남성의 특권과 자격에 대한 노골적이거나 잠재의식적인 믿음, 곧 남자들이 자기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자유와 지위와 의견에 대한 권리를 당연시하는 믿음"을 갖도록 부추겨집니다.[351] 가장 성화된 남편이 아니라면, 그들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배우자를 열등한 존재로 대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352]

제가 사는 아프리카에서는 성별에 따른 폭력의 수준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불복종을 이유로 아내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심지어 한 목사가 자기 교회의 한 아내를 남편에게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연구[353]는 여성 복종의 교리가 학대받는 아내가 학대하는 결혼 생활을 견디며 버틸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이 학대자에게서 벗어나라는 조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가르침이라면,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귀에 들어가면 너무나 자주 해를 끼치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넷째, 저는 더 강경한 형태보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를 더 좋아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결혼을 낳은 해석이 겨우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호주의 결혼을 낳은 해석보다도 더 젊습니다. 켈러식의 이 새로운 온건한 상호보완주의에 감사하지만, 저는 그루뎀과 러셀 무어 같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더 온건한 접근이 사실상 상호보완주의 결혼보다 상호주의 결혼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을 때 제가 일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아내가 일상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350. 창세기 3:16
351. Elaine Storkey, Scars across humanity: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Violence Against Women, p. 210
352. 생각은 교회 밖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생각이 더 넓은 문화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가르칠 때, 그것은 성별에 따른 폭력의 가능성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 상호주의적이라고 강조할 때, 그것은 분명히 가정 폭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53. 다음을 보십시오: www.ab.co/3bHZF05 및 www.bit.ly/3GNbrVt

우리는 결국 한 번도 “성경적”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등한 결혼 동반자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인정하는” 결혼, 결정이 “협상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 결혼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어가 “성경적” 결혼이나 상호보완주의 결혼이 결코 아닌 “페미니스트” 결혼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354] 그루뎀이 (그리고 역사적 입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실천을 바꾸어 아내를 대신하여 더 많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 신학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어긋나게 계속 사는 것은 일관성 없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왜 복종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없습니다. 견해 1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거슬릴지 모르지만, 수 세기 동안 그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습니다. 문화와 교회의 교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이런 생각은 문화와 교회 모두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편보다 더 지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열등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켈러 부부는 용감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질문이다. ‘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권위를 내려놓는 쪽이 되셨는가?’” 그들의 요점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비추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3장과 제6장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못 묘사할 뿐 아니라, 성경이 아들이 아버지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내려놓는 것과 비교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존 파이퍼는 또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켜보는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로는 멋지게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끄는 견해 1에서만 성립합니다. 견해 2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모습을 형편없이 그려 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날마다의 인도를 받기로 약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아주 가끔씩만 예수님께 비장의 카드를 내밀도록 허락하는 어떤 온건한 협력적 의사 결정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켈러와 파이퍼 같은 신학자들은 빈약한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려 애쓰지만, 흔히 더 실용적인 성향을 지닌 많은 목사는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머리가 둘 달린 것은 무엇이든 괴물이니,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354. www.bit.ly/3nVy1CK

"그래도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두 사람의 연합에서 정말로 최종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잘못됩니까? 저는 스포츠 팀에 주장이, 군대에 장군이, 회사에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연합한 두 사람, 창세기 2:24의 말처럼 이상적으로는 서로 "벌거벗은", 곧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라기보다, 두 사람 모두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인 듯합니다.

결혼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적인 기독교 서적인 Love and Respect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등한 두 사람을 머리로 세워 결혼을 꾸리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혼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다."[355]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주장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읽기를 바라지만, 교회에 다니는 기혼 및 이혼 그리스도인 여성 21,000명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 배우자가 결정을 내리는 부부는, 그 결정을 먼저 배우자와 의논하고 의견을 구하더라도, 결정권을 함께 나누는 부부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7.4배 높다."[356]

많은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조사 대상 수천 명 가운데 약 40%는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믿었고, 약 60%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남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사는 부부는 17.3%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의 78.9%는 최종 결정권자 없이 기능한다. 즉 부부가 함께 결정을 내리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저 같은 목사들이 인정하기를 꺼려 온 두 가지 난제를 마주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결정권자이거나 최종 결정권자라고 믿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둘째,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실천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부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믿는

355. Eggerichs, Love & Respect, p. 221. 그는 어떤 연구나 외부 검증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주장을 했습니다.
356.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ch. 2. 가트맨 연구소(The Gottman Institute)의 한 세속 연구도 이에 동의합니다. 존 가트맨(John Gottman)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에서 이렇게 씁니다. "통계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배우자와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그의 결혼이 스스로 무너질 확률은 81%이다."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라고 고집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온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끄는 부부들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면, 몇 가지 냉정한 자료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이 자기 말이 경청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오히려 자기 의견이 남편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그들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26배 높다. …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더라도, 남편이 결정권을 가진 결혼에서는 정의상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의견이 남편의 의견만큼 무게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결혼은 [더 쉽게] 무너진다.[357]

반대로, 결혼에서 상호성이 주는 유익은 뚜렷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을 내릴 때, 아내들은 자신을 가장 불행한 20%의 결혼보다 가장 행복한 20%의 결혼에 속한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네 배 이상 높고, 성관계 중에 자주 오르가슴을 느낄 가능성이 67% 더 높다."[358] 이 통계는 가장 잘 지내는 결혼(과 성생활)이 함께 문제를 풀어 가기로 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에 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들이기로 하는 결혼임을 확인해 줍니다.

예컨대 열 명으로 이루어진 리더십 팀에서 지도자가 때때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의사 결정 역학을 결혼에 들여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 두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기능적이기보다 훨씬 더 관계적이며, 영혼 차원의 연합을 서약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합의를 찾을 시간 없이 중대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대개는 결정할 시간이 있거나, 그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가장 확신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부가 맡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여전히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 생각에 대해 강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순간에 남편이 지위를 내세운다면, 제게는 그것이 가장 나쁜 결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분명함이 생길 때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도 가운데 최선의

357.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ch. 2.
358. Sheila Gregoire, The Great Sex Rescue, ch. 2.

결과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며, 정말로, 정말로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359]

제 경험은 저를 이런 결론으로 이끕니다. 아내가 어떤 일에 대해 저와 의견을 달리할 만큼 강하게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로 보입니다. 아내가 비장의 카드를 쓰라고 요청한 일을 다섯 번 기억하는 앨런 프로우와 달리, 저는 줄리의 망설임을 무릅쓰고 큰 결정을 내린 기억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줄리는 단지 제 권위를 받아들였다기보다 제 확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줄리의 생각에 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려 했다가 줄리가 용감하게 반발했던 기억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마다 저는 귀를 기울였고, 우리는 최종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줄리의 정당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위를 내세우려 했다면 줄리의 신뢰를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유는, 제가 견해 2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목사이자 친구로서 더 많은 부부와 함께 걸어갈수록, 이런 우려를 덮어 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줄리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려 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배우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게 허락하도록 키우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 견해의 약점까지도 직시하고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다른 가능한 해석들에 열려 있는 편이 더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에베소서 5장 같은 어려운 본문을 그저 표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기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359.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앨런 프로우는 목사로서 평등주의 부부를 상담할 때 "누가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며 최종 결정권 모델을 옹호합니다.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bit.ly/2ZPRZGH. 그러나 이것이 정말 널리 사실입니까? 제 결혼 경험과 제가 상담한 모든 부부의 경험이 어떤 기준이 된다면, 아내가 남편과 합의하지 못할 때 남편의 권위가 발동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그것은 사실 아내가 경험하는 결혼 생활에 엄청난 긴장을 더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상담가들은,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 결혼에서 긴장을 다루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부부는 정말로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상대를 섬기기 위해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남편의 최종 결정권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필사적으로 애쓰면서도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역할을 뒤바꾸어 상상해 보면, 곧 어떤 결정에 대해 강하게 느끼는데 남편도 똑같이 강하게 느끼고 결국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그런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면, 최종 결정권 견해가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지 말라]."

견해 3: 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

이 세 번째 견해를 제대로 살펴보기 전까지, 저는 이것이 당연히 에베소서 5장의 분명한 가르침을 피해 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해석상의 "공중제비"를 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프로우에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견해에 제대로 마음을 기울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주석상의 곡예가 아니라, 건전한 해석에 꼭 필요한 고된 수고를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성경학자 필립 페인은 에베소서 5장에 관해 몇 가지 관찰을 내놓는데, 그 관찰들은 바울이 표면적 읽기가 암시하는 리더십과 복종이 아니라 사실은 평등과 상호성을 결혼의 기초로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피차 복종이라는 틀 안에 둡니다. 페인은 바울이 "복종하다"(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다)라는 단어를 상호적인 표현인 "서로"(그리스어 allelous)와 결합한 것이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혁명적이고 언어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종하다"(그리스어 hypotasso)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을 뜻하지만, 그것을 "서로"와 결합함으로써 바울은 이 복종을 상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의미를 누군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자신을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두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4:25),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4:32)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5:21)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 장의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5:2).

견해 1을 지지하는 강경한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웨인 그루뎀과 케빈 드영은 모두 "서로"라는 표현이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를 뜻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는 상호적 함의를 반박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루뎀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요한계시록 6:4)라는 표현에서 이 용어가 쓰인 것을 언급하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렸다면, 그는 그 용어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영은 "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본문들[360]을 가리키며 그것들이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분명히 상호적이며,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서로"가 쓰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하는 복종이 한 방향으로만(종속된 사람에게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로) 흐르게 하려는 그루뎀과 드영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조지 나이트와 톰 슈라이너 같은 선구적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조차 이 점에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361]

둘째,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아내의 복종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방금 말했듯이 복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이 정부에 하듯이 종속된 사람이 권위자에게 하는 권위에 따르는 복종이 있습니다.[362] 그리고 섬기는 복종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피차 복종을 말할 때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363] 전자는 한 방향이며 요구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상호적일 수 있으며,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읽는 영어 번역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 성경이나 펼쳐 보면 21절 끝에 마침표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번역은 21절과 22절 사이에 "Wives and husbands"(아내와 남편, ESV) 같은 소제목을 넣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단락 구분이나 삽입된 소제목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립니다. 그리스어에는 21절과 22절 사이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실 제게 큰 충격을 준 사실인데,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에는 22절에 "복종하다"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22절은 21절에서 동사를 빌려 오기 때문에 그 단어가

360. 마태복음 24:10; 누가복음 12:1; 고린도전서 7:5; 11:33
361.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반발하는 또 다른 방식은, (에베소서 5:21의) 피차 복종이 세 쌍(남편-아내, 부모-자녀, 주인-노예) 모두를 틀 짓는 것이라면, 둘째와 셋째 쌍은 본질상 위계적이므로 바울이 결혼 안의 리더십과 복종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21에 대한 제 이해는, 그것이 세 쌍 모두를 틀 짓는 구절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전환 구절일 뿐이며,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결혼 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차 복종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이상하게 "아내는 복종하는 아내로서의 자기 역할에 복종하고, 남편은 희생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복종한다"로 바꾸어 표현하는 슈라이너와 나이트 같은 상호보완주의자들보다 훨씬 나은 접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역할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2. 로마서 13:1
363. "hupotasso는 다른 누군가보다 아래에 자리매김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복종에도,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의 복종에도 적합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계 안에 객관적인 서열이 있다. 예를 들어 신자들은 국가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으므로 그 권위에 복종하며 행동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서열이 주관적이다. 신자들은 위계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어야 한다. 곧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겸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로마서 12:10; 빌립보서 2:3)."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p.36)

없는 것입니다.[364]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아내들은 [빠진 단어에 주목] 자기 남편에게 …" 다시 말해, 바울이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신자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종속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두 번째 종류의 복종, 곧 아내들이 겸손히 남편을 섬기고 기쁘게 하기로 선택하는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21절과 22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을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해야 한다"(24절).[365]

셋째, 이 경우 "머리"(그리스어 kephalē)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대 영어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head"(머리)는 권위를 뜻합니다.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head"이고, 지휘관은 소대의 "head"입니다. 게다가 실제 몸의 실제 머리를 떠올릴 때, 우리 현대인은 뇌가 들어 있는 머리가 몸의 통제 센터라고 가정합니다. 머리는 신경계를 통해 몸에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울이 kephalē라는 단어를 골랐을 때 무엇을 뜻했으며 그의 원래 독자들은 무엇을 이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인 남편과 비교하므로 분명 남편의 권위가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비유로 사용할 때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피조 세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했지만, 몸의 kephalē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기로 할 때 그는 대개 권위와 관련되지만 권위와 정확히 같지는 않은 무언가를 강조합니다. 꼭 읽어야 할 "부록 3: kephalē의 의미"에서 저는 그루뎀의 주장과 달리 바울 시대에 이 단어가 흔히 권위를 뜻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 의도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가 이 단어를 결혼에 대한 비유의 일부로,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문학적 고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남녀 관계와 관련하여 쓰인 것은 단 두 번뿐이며(여기와 고린도전서 11:3), 학자들은 각 경우에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물론 저는

364. 신시아 웨스트폴은 "Paul and Gender"(1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 5:18-23은 그리스어에서 한 문장을 이루며, 22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생략(ellipsis)되어 있기 때문에 22절의 아내들에 대한 지시는 문법적으로 21절의 피차 복종에 의존한다."
365.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부모와 자녀,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순종하다"—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서신에서 "복종하다"의 이 의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6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단어가 존경받을 만한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고 논증합니다). 이 단어가 머리와 몸이라는 은유 안에서 쓰인 곳은 에베소서 5장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몸인 아내의 머리"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안타깝게도 가려져 있는 23절의 실제 그리스어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남편 아내의 머리, …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 자신 몸의 구주." 그리스어에서 우리는 바울이 "머리"로 무엇을 뜻하는지 봅니다. 이 세 개의 평행 구절은 바울이 "머리"를 "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바울이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어 단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kyrios(주), exousia(권위), proestōtes(다스리다) 같은 단어 말입니다. 대신 그는 머리와 몸의 은유를 택하고, 그것을 자기 몸의 구주(이 경우에는 주가 아니라)로서 자신을 내주시는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주(섬김과 돌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자 주(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 안에 자기 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만 담습니다. 여기서 머리인 남편이 남편의 돌봄과 섬김을 뜻한다는 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돌봄과 섬김이라는 개념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이라는 또 다른 은유를 엮어 넣는 방식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그의 신부/몸]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은 그녀[그의 신부/몸]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그녀[그의 신부/몸]를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그 밖의 어떤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빛나는 교회로 그녀[그의 신부/몸]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몸을 먹이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과 같이 한다.

보이십니까? 이 본문 전체에서 바울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듯이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21-30절에서 이 삼중의 은유(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를 풀어낸 뒤, 여기에 또 한 겹을 더합니다. 바로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요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심오한 비밀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31절).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의

나머지라는 바울의 비유는, 바울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상 첫 결혼, 그들이 처음으로 은유적인 "한 몸"의 연합을 누렸던 때로 데려가게 해 줍니다. 제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권위와 복종이 아니라 기쁨에 찬 친밀함과 동반자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머리와 몸의 은유를 사용하여 지휘 계통이 아니라 사랑의 유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이끌라고가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시는 말씀으로 읽는 데서 나오는 마지막 통찰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남편이 아내를 이끌라는 지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여기에도 없고 성경 전체의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것은 해석의 판도를 바꾸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강력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종속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생생한 은유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며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피차 복종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366] 그러나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로마 세계의 교회들에 있는 수많은 결혼에서 관찰한 패턴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kephalē, 곧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될 뿐, 그렇게 되라고 명령받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아마 고대 세계에서 아내들이 대개 더 어리고 교육을 덜 받았으며, 자녀 양육에 매여 있었고, 따라서 남편의 경제적, 신체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의존적인 아내를 kephalē로 묘사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 시대의 남편들이 오늘날 제가 아는 많은 남편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다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아내들보다 배우자를 위해 희생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낮았을 것입니다.[367] 이런 이유로 바울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곧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남편에게는 세 배나 많은 말을 하면서 남편의 이기심을 조금씩 깎아 냅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라고 남편을 몰아붙이는

366. 디도서 2:4
367. 남편이 아내보다 더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 데에는 신경학적 설명까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on.today.com/3CKRlsD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 제게 들어맞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희생적이고 겸손하게 배우자를 섬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 성경의 가장 많은 독려와 성령의 계속되는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했던 사람은 줄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 친구 앤드루 바틀릿의 결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자기희생에 먼저 나서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이타적 사랑이라는 아내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사랑해야 할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368]

바울은 33절에서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라"(이끌라가 아니라)고, 아내들에게는 특별히 남편을 "존경하라"(종속되라가 아니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그는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아내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대부분의 남편은 사랑받기를 원하겠지만, 바울은 아마 그 시대의 많은 남녀가 지닌 독특한 심리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견해 3, 곧 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라는 견해를 설명하면서도 저는 그 힘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기를 바랍니다. 이 견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결정을 내리는 남편이라는 그루뎀의 견해를 나쁜 소식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남편이라는 켈러 부부의 견해를 더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저는 이 견해를 좋은 소식이자 아주 실행 가능한 견해로 여깁니다.

그래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그것을 상쇄했더라도, 에베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종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암시하려 했다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결혼을 하나님의 결혼, 곧 하나님/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결혼과 비교하는 것은 적어도 결혼 관계 안의 위계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로 결심한 저는 이 본문을 더욱 곱씹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에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모두 적용했는지 자문했고, 그러다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견해 4: 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로서의 남편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려 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여러 부분이 우리에게 직접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368. Men and Women in Christ, p. 64

독자들의 상황과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매우 다른 상황이나 문화 속에 사는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의미를 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본문, 아니 대부분의 본문에서 우리의 현대 상황은 첫 독자들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서 이 작업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아주, 아주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청중과 차이들(예: 언어, 문화, 환경)의 "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가 그들의 맥락에서의 의미에서 우리 맥락에서의 의미로 곧바로 건너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그 이야기 속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영적 조상들의 자리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강이 넓어서 건너려면 긴 다리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좁은 개울입니다. 우리는 강을 가로지르는 원리화의 다리를 놓기 시작하기 전에 그 강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야 합니다.[369]

이 해석의 열쇠를 에베소서 5장 연구에 적용했을 때, 저는 제 실수, 그리고 이 본문에 관해 제가 읽은 거의 모든 사람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좁은 개울이라고 가정하지만, 사실 그것은 건너려면 긴 다리가 필요한 넓은 강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부부들이 현대의 부부들과 대체로 비슷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우리의 현대 결혼을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쓴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루는 결혼은 우리의 결혼과 너무나 다른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의 결혼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정은 맞벌이 부모 두 사람, 자녀 둘,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대개 아내와 자녀들, 때로는 노예들을 다스리는 한 남자, 곧 paterfamilias(가장)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때문에 가정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었고, 그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없을 때에만 여자가 집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통치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의 통치는 군주정이다"[370]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앞 단락에서 자녀와 노예를 언급했을 때,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22-33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울이 다루는 세 쌍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두 쌍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녀(6:1-4), 주인과 노예(6:5-9)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 남자, 여자, 자녀, 노예의 위계로 이루어진 이 계층화된 고대 가정에 복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는

369. Duvall and Hays, Grasping God's word, ch. 13.
370. Aristotle, Politics, 1255b.

허락되지 않은 권리와 특권과 자유를 가졌고,[371]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벌었습니다. 대개 여성은 남자가 대신 나서지 않으면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적 거래나 금전 거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중해 사회에서 남자가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서른 살이었지만, 여자는 결혼할 때 열여덟 살이나 그보다 어렸다. 남자가 결혼할 때 그는 이미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자가 결혼할 때 그녀는 자기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대답하는 것조차 허락받은 적 없는 소녀였다. 전형적인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약 2년 또는 30개월마다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언제나 "맨발에 임신한 채" 집에 있었다. 그녀는 이전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다음 아이를 낳았다.[372]

대부분의 여성은 집안일 외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의존적이었고, 평생 한 남자—아버지, 혹은 후견인, 그다음에는 남편—아래에 놓였습니다. 종속은 자녀와 노예, 그리고 아내에게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과 문화에서 paterfamilias는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했으며, 누구도, 특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paterfamilias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성은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명령하기에 더 적합하다. … 그 불평등은 영구적이다. …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데서, 여자의 용기는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373]

이제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주가 되는 통치 구조를 만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자 남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가정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 구조를 반드시 뒤엎으려 하기보다 그것을 구속할 길을 찾음으로써 그 구조 안에서 일하려 합니다. 오늘날 좋은 선교사라면 누구나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듯이, 바울은 자신이 맞출 수 있는 것에는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371. 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환경 모두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행동에 관한 바울의 말은 주로 자유인, 특히 노예가 있는 가정을 다스리던 사회 계층을 향한 것이다." (Andrew Bartlett, Men and Women in Christ, p. 66)
372. David Scholer,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0, December 1987, p. 416. www.bit.ly/3bDKpl9
373. Aristotle, Politics, 1259a.

복음이 고대 가정을 만나다

여러분이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이 위계적인 가정들을 어떻게 목양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맥락 속에서 에베소의 가정들을 목양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봅시다.

첫째, 그는 모든 가정 관계를 복음에 잠기게 합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이끌고, 모든 지시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으로 흠뻑 적십니다.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 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 것같이", "나는 그리스도 … 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상상하도록 할 때도 같은 접근을 이어 갑니다. 한 단어 걸러 하나씩 "그리스도"나 "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 모두가 상대와 관계 맺는 방식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도록 솜씨 있게 도우려 합니다.

둘째, 바울은 특히 paterfamilias에게 흔했던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무너뜨립니다. 가정 안의 역할을 규정한 고대의 가정 규범들에서 paterfamilias는 다스리라는 말을 들었고, 나머지 모두는 종속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규범들의 초점은 대부분 정신을 차려야 할 아랫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개선된 "규범"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합니다. 각 관계 쌍에서 그는 남편/부모/주인(세 경우 모두 같은 남자입니다!)에게 그들 자신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paterfamilias가 그들의 문화에 따라 이미 다스리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제 그에게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예를 위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실로 획기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생사여탈권을 준 문화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가 꽃피울 수 있도록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은 복음을 사용하여 paterfamilias에 대한 아내와 자녀와 노예의 종속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형태로 바꿉니다. 그들에게 불복종하라고 제안하지 않으면서, 그는 복음이 그들의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종속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내에게 이것은 남편의 권위에 마지못해 종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하듯이 남편을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놀라운 효과를 냈습니다.

paterfamilias를 거듭 두드리고, 그런 다음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아내, 자녀, 노예—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초대 교회가 힘없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끌어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이교도 비평가 켈수스(Celsus)는 2세기에 교회를 조롱하며 "기독교는 여자와 아이와 노예의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374]

가정 관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그 문화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는 고대의 위계를 없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신적 이상으로 떠받들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전복하는데, 그 방식은 전체 구조가 복음에 잠길 뿐 아니라 결국 복음 안에서 녹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들여다본 이교도라면, 바울이 로마법을 뒤엎으려 하거나 수평적 구조의 평등주의 가정을 실현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속받은 paterfamilias에게서 주목했을 것은, 그가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특이한 방식,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와 노예들 안에 있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순수한 평등주의를 가르친다고 보는 견해 3과 달리, 이 견해는 바울이 남편을 머리라고 부를 때 남편이 문화적 규범으로서 아내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댈 때, 바울은 한쪽이 다른 쪽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paterfamilias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전제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남편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서 아내에 대해 가져야 할 어떤 "역할"이나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문화적 권력을 이상화하기는커녕, 복음으로 그것을 구속하려 합니다.

존 파이퍼의 논증에 대한 반박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바울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실제로 남편이 이끌고 아내가 복종하는 관계를 이상화하고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존 파이퍼는 구속받았으되 여전히 위계적인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세상에 복음을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그리고 그것을 말하려고 책 한 권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고 의존하는

374. 켈수스는 2세기에 살았던 이교도 비평가였습니다. 이 인용문은 로스 셰퍼드 크레이머(Ross Shepherd Kraemer)의 "Her Share of the Blessings"(p. 128)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내를 이끄는 남편의 사랑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다. 남편이 리더십을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그림이 아니다."[375]

그의 논증에는 세 겹의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가정 안의 노예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는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파이퍼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 주시려고 주인-노예 관계를 창조하신 셈이 됩니다.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바울은 실제적이지만 반드시 이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에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혼의 위계가 아니라 그런 결혼의 구속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위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과 서로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이것은 계층화된 결혼보다 상호주의 결혼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해 3에서 지적했듯이, 바울은 kephale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스리는 주가 아니라, 교회의 구주이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지켜보는 세상에 보여 주고자 하시는 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위계적 결혼도 결코 충분히 위계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의 주이시지만, 남편은 결코 아내의 주가 아닙니다.

파이퍼 논증의 약점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복음의 무언가를 보여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일입니다. 상호주의 결혼도 계층화된 결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구하고 친밀한 연합을 비추어 보여 주는 일입니다. 머리와 몸의 비유, 곧 바울이 이어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깊은 사랑의 결속과, 생명력 있고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이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당혹스럽지 않지만, 머리가 몸에서 잘려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몹시 끔찍합니다.

375. John Piper, Momentary Marriage, 6-8장 참조.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지점

웨인 그루뎀은 800쪽에 이르는 책에서 결혼 안에서 아내의 종속을 용감하게 변호하지만, 1세기의 결혼과 오늘날의 결혼 사이의 엄청난 거리는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376] 마찬가지로 켈러 부부도 에베소서 5장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이 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대의 결혼 상황을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넓은 강을 좁은 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대의 가정 구조를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와 매우 다른,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복음을 적용합니다. 바울은 제가 사는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성인 여성 대부분이 남성만큼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조절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사회적으로 자기 위에 남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종류의 결혼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사이에 매우 넓은 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원리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계층화되어 있지 않고 평등주의적인 오늘날 사회의 결혼에 바울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 결혼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와의 최우선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여 독립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본보기로 보여 준 것과 같은 친밀한 한 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더 독립적이고 그래서 더 자기중심적이며,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더 상호 의존적이고 그래서 더 타인 중심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저 같은 남편들은 마땅히,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곧 그분의 신부를 눈부시게 꽃피어나게 하는 사랑을 특별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의 상황과 우리 상황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게 된 저로서는, 바울이 평균적인 현대의 결혼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나이가 더 가깝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어쩌면 둘 다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부부에게 말입니다. "두 분이 동반자로서 잘 협력하고 있군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남편이 지도자가 되고 아내는 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꼭

376. 그루뎀은 paterfamilias라는 단어를 7장 각주 102에서 단 한 번 인용하는데, 거기서는 다른 저자가 가정의 최연장 구성원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창조의 이상이 아담과 하와의 처음 결혼처럼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동반자 관계라고 가르치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이 아닙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며, 사실상 그리스도인 다수의 입장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회칙 Mulieris Dignitatem에서, 아내에 대한 남자의 권위는 "옛것"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관습과 종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자 "복음의 혁신"은 "복종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점입니다.[377] 세계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융통성 없는 교단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리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면, 나머지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남자가 다스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꼭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은 보통 여성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지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우월한 힘을 사용하시듯, 그 힘을 자기희생적으로 사용하여 아내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문화 속의 수천 명의 남편이 충분히 오랫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여성과 아내들은 스스로 사회적, 지적 역량을 키워 가게 되고, 남편과 동등한 동반자가 될 준비를 더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탐구가 저를 이끈 결론입니다. 결혼이 계층화되어 있는 문화에 견해 4—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로서의 남편—를 적용하면, 그 문화는 궁극적으로 변화되어 견해 3과 같은 결혼에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가 스며든 나라들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흔히 골라 연구하는 결혼에 관한 성경 본문의 범위를 조금만 넓혔더라도, 상호주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호는 처음부터 충분히 분명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이끄는 아내들

구약에 언급된 모든 결혼이 가부장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문화적 전제가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것이었다고 무리 없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놀랍게도,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고 외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예언자들의 입에도 없습니다.

377. John Paul II, Mulieris Dignitatem, p. 88.

사실 구약에 나오는 부부들의 힘의 역학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장면들을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을 이끄는 모습을 거듭거듭 발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고, 그분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분이 한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아내]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378]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제가 잘 압니다. 아내들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부적절했던 문화에서, 한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아내는 나중에 남편을 불러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낯선 사람이 가부장적 규범을 어긴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던지,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한 사람이니이까?"[379] 사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천 년도 더 지나서 있을 훨씬 더 중대한 출생을 미리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때 천사는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가 같은 소식을 전하고,[380] 그녀의 남편에게는 나중에야 알립니다.[381] 두 경우 모두 아내가 먼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나중에야 속도를 따라잡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속도를 말입니다). 만약 어떤 "창조 질서"가 있다면(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언자 엘리사를 대접하는 일에 먼저 나선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382] 이번에도 남편은 즉시 아내의 말을 따르며, 이 문제에 대한 아내의 영적 분별력을 본능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kephalē이다"라는 말을 "남편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적용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 해도, 유감스럽게도 그 생각은 성경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려야겠습니다. 남자가(아내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거나 가정 예배를 소집하거나 부부나 가족이 다닐 교회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전에 적어 둔 메모가 있다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378. 창세기 21:12
379. 사사기 13:10-11
380. 누가복음 1:26-38
381. 마태복음 1:18-21
382. 열왕기하 4:8-10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족의 영적 건강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일의 중요성을 조금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은 생각은 남편과 아내 둘 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팀으로서 그리고 각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선택하여 정착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꽃피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머지 가족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가르침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목회 리더십 팀이 되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가부장적 규범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남성 중심 문화의 현실 속에서 길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아내가 한 사람 더 있는데,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녀의 매우 부유한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383] 쫓기는 몸으로 굶주린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음식을 좀 청하자, 나발은 냉정하게 비웃으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크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분노한 다윗은 나발과 그의 소유지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다지 그리스도를 닮은 반응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윗의 살인 의도에 대해 들은 소식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유혈 사태를 막아섭니다. 그녀는 나귀에 음식을 싣고 다윗에게로 가서, 상처 입은 다윗의 자존심에 영리하게 맞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384]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드러내면서도, 다윗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불러내며 자비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무기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나발에게 자신이 그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과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는 것을 알리자, 나발은 심장이 멎는 듯하더니 열흘 뒤에 죽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그녀를 세 번째 아내로 데려오게 하자, 그녀는 몸을 굽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을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참 기막힌 이야기이지만, 그 안의 어떤 내용도 그녀가 나발과 다윗을 모두 자신의 "주"라고 부른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두 남자 모두 그 칭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여기 있는 여성은 분명 가부장제에 적응함으로써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때로 이것은 자신의 "남성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까지 뜻하는데, 본문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정의로운 다른 문화에서였다면 아마 지도자로서 크게 활약했을 여성의 예를 봅니다. 다윗이 그녀에게 끌린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신속히 막아낸 그녀의 전략적 능력과 호감을 주는 외교술 때문이었습니다.

383. 사무엘상 25:3
384. 사무엘상 25:25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규범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상호주의 결혼

아가는 성경에서 한 부부의 다정하고 낭만적이며 성적인 연합의 내적 역학을 탐구하는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남성이 권위를 갖고 여성이 복종하는 관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로맨스와 성에서 둘 다 먼저 다가가고 둘 다 내어 줍니다. 둘 다 주고 둘 다 받습니다. 이 시적인 책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존재로서 벌거벗은 채 서로를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신약에도 그에 상응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단연 결혼에 관한 바울의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성관계와 섬김과 별거에 관해 지침을 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동반자 관계 외의 다른 무엇이라는 암시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은 결혼 안의 권위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성경의 유일한 장이며, 공교롭게도 그 권위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 그리시는 상호적 사랑과 상호적 권위를 강조하는 몇 구절을 뽑아 보겠습니다.[385]

남자마다 자기 아내와, 여자마다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라(2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3절).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내어 주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에 대한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아내에게 내어 주느니라(4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합의상 얼마 동안 하는 것은 예외로 하라(5절).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10-11절).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12-13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14절).

385. NRSV에서 옮겼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15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6절).

그러나 [남자인] 네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 (28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32절, 34절b).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33-34절a).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 1세기 청중에게 틀림없이 놀랍게 들렸을 것이다. 결혼의 두 당사자는 한쪽이 다른 쪽 위에 있는 위계적 관계에 놓이지도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율적 개체로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결혼 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이며, 각 배우자는 상대에게 [속한다]."[386]

제가 처음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가르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라 주시도록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가, 이 주제에 관해 신약에서 유일하게 분명한 가르침을 방금 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39절).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비슷한 아하 순간을 또 맞았습니다. 부부가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예컨대 언제 성관계를 할지, 언제 함께 하나님을 구할지)에 대해 말하는 신약 전체의 유일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합의상 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5절).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남편이 명령하거나 교착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장입니다—그러나 보십시오, 이 장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위도 말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이 장은 성평등과 피차 복종, 그리고 의사 결정의 기초로서의 상호 합의를 장려합니다.

성령께서 저자이신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고린도전서 7장은 에베소서 5장의 해석을 이끌 수 있고 또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요 상호보완주의 저자들 대부분은

386. Richard Hays, First Corinthians, p. 116.

고린도전서 7장을 자기 해석과의 실제 충돌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잠깐 언급하거나,[387] 아니면—더 흔하게는—그냥 무시합니다.[388]

그렇다면 어느 견해를 택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의 결혼과 교회에서 우세해야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견해 1(결정권자로서의 남편)을 거부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곧 억압적인 신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견해 2(교착 상태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남편)는 여러 해 동안 줄리와 제 결혼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 주었고, 저는 그 점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견해 3과 4가 주해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점을 살피고, 결혼에 관해 성경을 더 폭넓게 읽어 보면, 아마 이 견해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요?

어쩌면 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견해 3(동등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은 상호주의 결혼을 지지하고, 견해 4(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로서의 남편)는 그런 결혼과 모순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물론 여전히 강하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는 결혼과 교회에 지침을 주기는 합니다).

387. 예를 들어, 그루뎀의 주요 저작인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는 평등주의자들의 논증을 반박하려고 쓴 책인데, 그 논증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7장이 동등한 결혼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800쪽 가운데 겨우 1쪽을 차지하는 아주 짧은 단락(6.7)에서, 고린도전서 7장은 남편의 권위 있는 리더십을 규제할 뿐이라고 단언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7장이 에베소서 5장에 대한 위계적 해석의 적용을 규제할 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의 해석 자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모호함 없이 말하는 본문은—이것은 모든 해석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일부 해석자만 남편에게 일방적 권위를 준다고 주장하는 본문(에베소서 5장)을 해석할 때 어느 정도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388. 예를 들어, 앤드루 바틀릿이 “Men and Women in Christ”(p.18-19)에서 지적했듯이, 톰 슈라이너는 필립 페인의 2009년 저서 “Man and Woman: One in Christ”에 대한 응답으로 자세한 개요와 반박 시도를 씁니다. 페인은 한 장 전체를 고린도전서 7장에 할애하는데, 이상하게도 슈라이너는 그 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레어 스미스(Claire Smith)는 2012년에 “God’s Good Design: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Men and Women”을 씁니다. 그녀의 목표는 결혼의 가장 좋은 모델을 “결정해야 할” “핵심 성경 본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돈 카슨과 다른 이들의 열렬한 추천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다수는 이 책이 포괄적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결혼에 관한 그녀의 다섯 장 가운데 어느 장도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저자들이 부정직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맹점이 있으며 “확증 편향”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만 찾으려고 성경에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견해 4는 원래 독자들이 이해했을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좀 더 평등주의적인 문화에 사는 우리에게는, 견해 3이 에베소서 5장을 적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의 로맨스가 보여 주는 "한 몸"의 연합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상호 내어 줌과 섬김으로,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합의로 이 하나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갈 때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참된 성평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남아 있는 의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에서(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가부장적 전제를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다음에 이어질 내용일 것입니다.



9
사람에게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 남편들은] 한때 주변 문화가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아내에 대한 권위를 계속 붙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척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우리]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 더 친밀한 결혼 관계를 거둘 것인가?" 피터 데이비즈(Peter Davids)[389]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은 최근 대규모 국제 연구를 후원했는데, 그 연구는 언론 보도에서 여성이 심각하게 과소 대표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영국에서 분석된 온라인 뉴스 기사 가운데 여성이 인용된 목소리로 등장한 것은 29%에 불과했다. 인도에서는 겨우 14%였다."[390]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성을 보고 듣는 것보다 여성을 "보고" "듣는" 경향이 훨씬 덜합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제가 도전받지 않았던 이전 수천 년 동안에는, 사회적 조건이 여성이 공적 역할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더 약화시켰겠습니까? 고고학자 이언 모리스(Ian Morris)는 고대 아테네에 여성이 존재했다는 증거조차 왜 그렇게 적은지 설명합니다. "여성과 노예는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아테네의 "만연한 남성 시민 문화" 때문인데, 그 문화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예속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이 사는 공간까지 통제했고", 그 결과 여성은 당시 문화에서도, 오늘날의 고고학 발굴에서도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391]

갓 태어난 교회가 퍼져 나간 더 넓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여성의 처지는 그다지 낫지 않았습니다. 드문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392] 명예로운 여성은 공적 지도자 역할을 열망하지

389.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p. 238에서 인용.
390. 출처: www.gates.ly/3bMqqQZ
391. 출처: Sandra Joshel and Sheila Murnaghan, Women and Slaves in Greco-Roman Culture, p. 217–20. Barr,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p. 226)에서 재인용.
392. Susan Hylen, Women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참조.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집 안에서의 가사와 자녀 양육 역할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가장 흔한 여성 등장인물은 대개 여자 노예와 매춘부였는데, 이 연극들이 "바깥"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도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은 집에 머물며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지도자형" 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드물었는지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음을 증명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공적 삶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려나야 합니다. 여성들이 숨겨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여성들 가운데 그 은사가 공적 공간에서 인정받고 계발되고 쓰일 기회를 얻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393]

사실 신약에서 남성 지도자들의 아내는 왜 그렇게 드물게 언급될까요? 그리스도인 부부가 평등과 동반자 관계와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는 현대적 강조는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조차 가사와 자녀 양육 역할이 아내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남성에 비해 여성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적은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비평가들은 성경의 신적 영감을 부정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단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오직 남성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 독특하고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적 권위와 성경이 다루는 수많은 역사적 상황을 함께 이해하는 더 나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맞추어 주셨지만, 그 상황 자체를 반드시 이상화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해석 원리를 놓치면, 성경 시대의 여러 곳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관찰에서, 여성은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의 일부로서 모든 곳에서 언제나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순진하게 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맞추심 이해하기

역사의 끝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상적인 사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한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심판의 홍수로 덮어 버리기보다는, 망가진 사회 안에서 구속적으로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은 이런 방식으로

393. 사회적 조건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얼마나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부유한 지역에 있고 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육체노동자가 그 교회에서 앞에 서는 지도자로 섬길 가능성이 얼마나 낮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그리고 따라서 리더십이 있는지)가 의문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노예가 장로가 된 예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처럼 내립니다. “성령의 생수는 [기존의] 사회적 지형 위로 쏟아져, 굽이치는 강처럼 그가 마주치는 지형의 윤곽에 자신을 맞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물의 흐름처럼 그 지형을 다시 빚어, 마침내 굽은 길을 곧게 만든다.”[394]

신약 저자들이 더 넓은 문화의 가부장제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이는 몇몇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사도들은 그 본을 따릅니다. 그들은 아직 돌과 잡초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시대가 겹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사회 체제가 퍼져 있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그 체제들을 완전히 가려 버리겠지만, 지금은 그 체제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 냅니다.

상호보완주의자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오직 남성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남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브리스길라가 (곁에 아굴라와 함께) 히브리서를 썼을 개연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분명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고대 세계에서 글쓰기 훈련을 받은 여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성경의 책들을 오직 남성만 썼다는 사실(브리스길라가 펜을 들었다면 대부분 남성이 썼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읽고 쓸 수 있게 될 궁극적인 shalom을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내의 복종에 대해 좀 더

여성의 고대 사회적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빴습니다(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상황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권력과 공적 역할의 특권을 주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성을 아주 작은 가정 영역에 가두어 노예와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선 여성은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은 나라의 엘리트 남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같은 때에 그의 아내 와스디는 친구들을 초대해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아하수에로는 “주흥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아내에게 자신의 잔치를 버리고 와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와스디가 오기를 거절하자, 아내의 불순종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왕은 분노하여 지혜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와스디를

394.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39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 안의 다른 아내들이 남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그녀의 본을 따를 가능성을 완전히 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남성이 공적 역할에서 이끌고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음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가부장제는 타락의 산물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슷하게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본문 밖에서도 1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한 사도들의 권고는 한결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395]라고 쓰고, 디도에게는 "…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396]라고 씁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397]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읽을 때 이것이 완전히 결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는 이 잘못된 전제가 이 본문들을 피상적이고 잘못되게 읽어야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에베소서 5장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며, 두 편지에는 핵심 내용을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중복한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 앞의 구절들은 두 본문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둘 다 다음 표현들을 같은 순서로 사용합니다. "피차",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차이는, 두 절에 불과한 골로새서 본문이 열세 절에 이르는 더 긴 에베소서 본문의 축약판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골로새서의 최소한의 내용을 확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밝혀 줍니다.

나머지 두 본문, 곧 디도서 2:3-5와 베드로전서 3:1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들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보편적 명령을 주고

395. 골로새서 3:18
396. 디도서 2:5
397. 베드로전서 3:1

있는지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398]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 규범을 따르던 1세기 지중해 사람들에게 준 목회적 조언이며, 따라서 창조의 설계가 아니라 평판에 대한 이해할 만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 규범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 낼 때, 우리는 그것들을 증거 본문으로 사용할 위험에 빠집니다. 문학적 문맥, 곧 이 구절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이 들어 있는 더 큰 본문들을 살펴봅시다.

	아내-남편/ 여성-남성	자녀-부모	노예-주인
에베소서	5:21-33	6:1-4	6:5-9
골로새서	3:18-19	3:20-21	3:22-4:1
베드로전서	3:1-7	언급 없음	2:18-25
디도서	2:1-8	언급 없음	2:9-10
디모데전서	5:1-16	언급 없음	6:1-3

398. 제 책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3:1-7을 자세히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 앤드루 바틀릿의 책 "Men and Women in Christ"의 6장을 추천합니다. 그 장의 제목은 "Submission and Honour: 1 Peter"입니다. 바틀릿은, 제가 보기에 설득력 있게, 베드로가 본질적으로 에베소서 5장의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 피차 복종에 관한 가르침으로 문화의 위계적 질서를 전복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3:1-6에서 문화적으로 기대되던 아내의 복종하는 역할을 뒤엎거나 보편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새로운 복음의 동기로 그것을 수정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얻으려는 노력이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베드로도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문화적으로 기대되던 권위적 역할을 이상화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3:7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강하게 수정합니다. 1) 남편은 아내에게 앞에서 말한 것과 "이와 같이"(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놓치는 듯한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란 하나님과 왕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2:13), 주인에 대한 노예의 태도(2:18-25),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2:21),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태도를 포함하여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3:1-6)입니다. 곧 겸손히 복종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덜 강하다는 점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3)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구원의 동등한 공동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달리) 종속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중"은 이 편지 앞부분에서 모든 신자가 황제에게 드려야 할 복종을 묘사할 때 쓰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2:13(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과 2:17("황제를 존중하라")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정확히 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복종(곧 겸손하고 존중하는 섬김)으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베드로는 에베소서 5장의 바울처럼, 결혼 안에서 복종의 의미를 단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따르는 것에서 겸손히 섬기고 기쁘게 하려는 헌신 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에 따르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반면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이 보여 주듯이, 그리고 어떤 더 넓은 사회 구조 속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양방향으로 흐르는 겸손한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아내가 복종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일방적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들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다면, 이곳이야말로 그것을 언급하기에 완벽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 일방적 권위를 행사하라고 지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문학적 문맥을 분석할 때 무엇이 눈에 띕니까? 첫째, 아내의 복종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이른바 "가정 규범"의 일부이며, 거기서는 남편, 아내, 자녀, 노예로 이루어진 가정 안의 관계들이 다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전 가르침을 따라, 로마법에 따르면 가정은 최연장 남성의 통치 아래 계층화되어야 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없으면 최연장 여성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대의 가정 규범은 위계를 따랐는데, 위에서부터 차례로 말하면 가장, 그다음 아내, 그다음 자녀와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역사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어야 할, 맥락 없이 떠도는 지혜를 쏟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맥락, 곧 로마 사회가 질서 지은 평균적인 고대 가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들 어디에서도 남편은 이끌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아내만 복종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들은 남성의 리더십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들이 명령문에서 하려는 일은 남성의 리더십을 부드럽게 하고 아내의 낮은 지위에 존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여성들이 남편의 리더십을 그저 참고 견디는 대신, 복종을 자발적이고 복음이 힘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모든 본문에서—그리고 이것이 이 장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데—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아내에 대한 지시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노예에 대한 지시와 나란히 갑니다. 두 곳에서는 이 평행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도 적용되지만, 주인-노예의 연결은 매번 나타납니다.

노예제와 가부장제 사이의 평행은 곧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바울과 베드로가 노예제도, 결혼 안의 여성 종속도 이상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하듯이, 함께 일하는 교회들이 때로 이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6장에서, 노예 하갈이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쳤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하갈을 구하고 안심시키신 후, 하나님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399] 우리 가운데 누가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뜻의 표현이었다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에게 주신 그분의 부모 같은 권고는 이상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그녀가 최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보아하니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에게는 광야로 달아나는 것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한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갓 결혼한 제 아버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에서 2년간 의무

399. 창세기 16:9

복무를 하도록 징집되었습니다. 집에 갓 태어난 아이와 젊은 아내가 있었으니 이것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때로 목사는 회중에게 민주적 선거에서 투표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따라서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이 반드시 아니라 해도 말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설교는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1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 가정 규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400]

평판에 대한 염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 외에, 베드로와 바울은 왜 아내와 노예에게 남편과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권하며, 남편과 주인에게는 다시 아내와 노예를 온유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고 지시합니까? 대부분의 본문에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답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지켜보는 세상의 눈앞에서 갓 생겨난 교회들의 신뢰성과 전도적 매력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세상은 마침 여성과 노예가 paterfamilias에게 순종하는 것이 로마법인 세상이었습니다.

본문들에서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드로는 노예와 아내에게 말하기 직전에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권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401]
-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402]
- 바울은 그레데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403]
- 바울은 그레데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404]
- 바울은 에베소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400. 게다가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 가정 규범과 군주제 정부처럼, 민주주의도 어쩌면 사회가 지금까지 찾아낸 최선의 정부 체제일 것입니다.
401. 베드로전서 2:15
402. 베드로전서 3:1-2
403. 디도서 2:5
404. 디도서 2:10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405]

-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준 모든 지시와 관련하여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406]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도, 고난을 겪으며 자주 박해받는 작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교회들에 부정적인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외부인에 대한 염려 없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내부용" 문서입니다(그래서 평판에 대한 염려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세 편지의 동기는 교회가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한, 특정 상황의 염려를 다루는 것입니다. 신시아 웨스트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예 문화였다. 여성이 남편을 통제함으로써 남편의 "주인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의 위계와 후원 체계에 대한 파괴적인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관습을 어기는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여성의 행실은 초기 교회와 다른 분파적 종교 운동을 향한 논쟁적 공격의 먹잇감이었다.[407]

노예와 아내가 법에 따라 paterfamilias에게 복종해야 했던 세상에서, 이 아내들과 노예들은 그 이상을 하도록, 곧 기꺼이 자기 삶을 남편과 주인에게 내어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paterfamilias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들은 그에게도 자기 집안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라는 그 나름의 지시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성별 위계를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서 모든 결혼에 절대화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맞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첫 줄에서, 미래의 완성된 사회에 사는 신자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권을 살아 내면서도 그 사회에 잘 섞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고대 가정의 규범을 이해하면, 이 본문들은 교회가 문화적 규범에 겉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 규범을 전복하도록 인도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 길을 찾아갑니다. 로마 관리들이 그리스도인을 투옥할 구실을 찾고 있었기에, 어떤 도전이든 이 작은 교회들에 감시와 박해를 불러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전서, 디도서,

405. 디모데전서 6:1
406. 디모데전서 5:7, 14
407. 출처: www.bit.ly/3EL7OgM

디모데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불과 몇 년 뒤에, 그 저자인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처형됩니다.

"종들아, 복종하라 … 이와 같이 아내들아, 복종하라"

디도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지도하라는 말을 듣고(2:3), 곧이어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도 듣습니다(2:9).

베드로는 바울의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노예-주인 관계를 말하고, 그다음에 아내-남편 관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18에서 노예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부당한 주인에게도 온전히 존중하며 복종하라는 말을 듣고, 이어 3:1에서 우리는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이 지시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종들아 … 복종하라 … 아내들아 이와 같이 … 복종하라…".

이제 이 장의 핵심 논증입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아내의 복종에 관한 지시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지시로 해석하지만, 노예제를 뒤로한 우리 현대인들은 그와 평행하는, 노예의 복종에 관한 지시가 결국 상황적인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역사는 되풀이되기에, 이 통찰을 어느 정도 깊이 풀어 보겠습니다.

노예제 폐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감각에 이끌린 그리스도인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183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도로서의 노예제를 극복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해방은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존 웨슬리(John Wesley), 존 뉴턴(John Newton), 찰스 피니(Charles Finney), 그림케 자매(the Grimké sisters), 해리엇 스토(Harriet Stowe), 올라우다 에퀴아노(Olaudah Equiano),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 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노예 제도를 영광스럽고도 완전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변혁의 영웅들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되었기에 어쩌면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실은,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들이 남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Southern Baptists)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1845년 북침례교와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18세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노예제가 성경적이라고 믿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 대브니(Robert Dabney)와 J. H. 손웰(J.H. Thornwell) 같은 미국의 성경학자들은 노예 소유를 옹호하는 강력한 성경적 논증을 세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Charles Hodge)는 The Biblical Case for Slavery라는 글을 써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408]

-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을 저주하여 종이 되게 하심으로써,[409] 하나님 자신이 노예제를 제정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승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욥조차 노예를 두었습니다.
- 모세의 율법은 노예제를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제4계명과 제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를 소유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유대인과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410]
- 예수님께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용인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 사도들은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를 정죄하지 않고 규제했습니다.
- 사도들은 노예제를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그리는 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우리를 소유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이 다수파 신학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1845년 나흘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노예제 폐지론자 조너선 블랜처드(Jonathan Blanchard)는 "성경의 폭넓은 원리"와 "성경의 전체 범위"를 개관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의 원리는 정의와 의"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거의 무엇이든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을 인용할 수 있고, 결국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에 반대되는 해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슬프게도, 남부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승인하신다고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노예제를 유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간 내전에서 무기를 들 각오까지 했습니다! 내전이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을 끝낸 것은 아니었지만, 한때 노예를 소유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한 굴욕을 안겨 주어, 결국 노예제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감에 이끌린 거스를 수 없는 문화적 변화가 그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고, 거기서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성경학자는, 이전의 "성경적" 논증이 아무리

408. 이 단락은 케빈 자일스의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8장에 빚지고 있습니다.
409. 창세기 9:20-27
410. 레위기 25:39-41; 25:44-46

많았다 해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은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 관행은 죄라고 믿습니다.

노예제와 가부장제 비교

이제 노예제가 남성이 이끌어야 한다는, 문명의 역사만큼 오래된 전제인 가부장제와 어떻게 평행하는지 분별해 봅시다. 상호보완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논증의 흐름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봅시다.[411]

- 하나님께서 남성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남성의 권위를 승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것은 여족장이 아니라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여왕이 아니라 왕입니다.
- 모세의 율법은 남성의 권위를 지지했습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아내나 나귀나 다른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어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권위에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용인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 사도들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가부장제를 정죄하지 않고 규제했습니다.
- 사도들은 남편의 권위를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를 옹호하려는 시도와 가부장제를 옹호하려는 시도 사이의 놀랍고도 정신이 번쩍 드는 평행이 보이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조차 이제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본문과 "종들은 복종하라"는 본문 사이의 평행을 인정합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베소서 6장의 바울의 글을 사용하는 것은 결혼 안의 여성 종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베소서 5장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명쾌하게 주장했습니다.[412]

411. 이 단락은 케빈 자일스의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8장에 빚지고 있습니다.
412. Pope John Paul II, Mulieris Dignitatem, p. 24. Barr, p. 110에서 재인용.

사과와 오렌지?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들은 이 유사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지 나이트는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본문과 "종들은 복종하라"는 본문이 매우 다르다고, 곧 "사과와 오렌지"처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상호보완주의 신학자 샘 스톰스(Sam Storms)가 쓴 글에서 발췌해 보겠습니다.[413] 그는 우리가 노예제를 정죄하면서도 아내의 복종은 여전히 지지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의 말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인용하되, 그의 말은 기울임꼴과 따옴표로 표시하고, 각각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를 영구적인 이상으로 용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마태복음 19:8, 고린도전서 6:1-8 참조). 노예와 주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그 제도의 선함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톰스도 사회 구조에 맞추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강제된, paterfamilias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 제기해야 할 논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규제합니다.

둘째, "*노예 제도는 창조에 근거하지 않고 타락에서 비롯된 왜곡이다. 반면 결혼과 남성의 머리됨은 타락보다 앞선 본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이다.*"

여기서 스톰스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잘못 해석한 다음, 창세기 3:16이 창조가 아니라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화합니다.

셋째, "*여러 경우에 노예제 해체의 씨앗이 뿌려진다. 빌레몬서 16절, 에베소서 6:9를 보라. 그러나 신약의 어떤 내용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구상되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28,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올바른 읽기, 특히 피차 복종에 관한 그 가르침은 실제로 결혼 안의 남성 우위의 "해체의 씨앗"입니다.

넷째, "*노예제로부터의 논증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무효화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도 무효화하지 않겠는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모두 에베소서 5-6장에서 바울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라.*"

413. 출처: www.bit.ly/2ZXK1LY

스톰스는 단어를 잘못 사용합니다. 자녀는 "순종"해야 하고, 아내와 노예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와 노예를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스톰스는 또한 그 문화의 부모와 자녀가 부모-자녀 구절을 오늘날 서구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읽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고집하겠습니까? 1세기 독자의 귀에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이 성인 자녀에게까지 부모를 단지 공경할 뿐 아니라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414]

그러나 설령 부모-자녀 관계가 그때도 지금과 같았다 하더라도(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혼 안의 성별 위계는 양육 안의 세대 간 위계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삶과 지혜에 대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지에 있으며, 따라서 평등주의 문화에서도 그것이 지켜집니다. 교육받은 두 성인의 결혼에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의 목표는 자녀가 의존과 순종을 넘어 마침내 자기 가정의 지도자로 서게 하는 것이며, 그때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됩니다(바울이 에베소서 5:31에서 암시하듯이).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평생토록 이끄는 것을 영구화하려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그토록 확신하겠습니까?

다섯째, "노예들에게 주는 바울의 지시에서는 노예제와 관련하여 어떤 영구적인 도덕 명령이나 도덕적 절대 규범도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스톰스는 첫 번째 요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근거로 그는 앞의 것은 영구적인 도덕 명령이 아니고 뒤의 것은 그렇다고 확신합니까? 그의 입장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섯째, "바울은 노예가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구상하고 지지한다(고린도전서 7:21). 그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복종과 관련해서는 이에 견줄 만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414.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우리 현대 문화와 중요한 면에서 달랐다. 현대 세계에서는 성인이 된 후 어느 시점에 다 자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서는 성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한참 동안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물 것이 기대되었다." (Howard Marshal,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p. 188.)

그것은 노예제와 달리 결혼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한 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415] 노예제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바람직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동이라는 제도의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의 구속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쓴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규범에 대한 혁명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에서 가능한 한 동등한 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지 나이트와 샘 스톰스의 주장과 달리, 노예제와 가부장제는 정말로 매우 비슷합니다. 사과와 오렌지가 결코 아니라, 같은 타락한 나무에 열린 썩은 열매들입니다. 노예제는 원리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이끈다는 전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 표현이 자애롭든 잔인하든, 두 관행 모두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듯이 "자애로운" 노예제까지 규탄하면서, 동시에 "자애로운" 가부장제의 보루로 남아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노예제를 뒤엎는 것이라면, 같은 돌로 잡는 또 한 마리의 새는 가부장제입니다. 그래서 클라리스 마틴(Clarice Marti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글에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흑인 남성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노예에 관해 설교하고 신학을 할 때는 해방된 해석학을 사용하면서, 여성에 관해서는 문자주의 해석학을 사용할 수 있는가?"[416]

이전의 불의에서 얻는 교훈

노예제와 가부장제 사이의 유사성을 부정함으로써,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미국 남부의 그리스도인 노예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자신들의 신학적 식견을 신뢰하는 교회들을 예수님의 교회가 겪는 두 번째 수치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교회가 자기 백성 가운데 일부를 평가절하하는 일을 연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 남성의 머리됨을 주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들이 남침례교인들(Southern Baptists)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교회 네 곳

415. 제인 후커(Jane Hooker)는 또 다른 논증을 덧붙이는데, 저는 그것을 스톰스의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의 노예 제도 관행과 보다 최근의 미국 노예 제도 관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출처: www.bit.ly/3GNFnk9) 그녀가 이 말로 뜻하는 바는, 최근 몇 세기 동안 노예제를 끝내려 한 사회 운동은 이해할 만하지만 1세기의 노예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도 노예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요점을 놓칩니다. 두 경우 모두 노예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노예에 대한 나쁜 대우와만 싸운 것이 아니라, 노예제의 자애로운 관행과도 싸웠습니다.
416. Cain Felder (ed), Stony the Road we Trod, p. 226. Barr, 6장에서 재인용.

가운데 한 곳이 이 신자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학자들과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안타깝게도 게오르크 헤겔(Georg Hegel)이 경고했듯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인 노예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실패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성경 전체에서 본문을 끌어온 자세한 "학문적" 저작들로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실제로 교단 전체와 성경학자들의 학파 전체가 그러합니다—여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은 사실 수천 년에 걸쳐 그 문화에 뿌리내린 그리스도인의 원리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28에 있는 바울의 인류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는 역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평등과 사회적 위계의 종식이라는 생각을 그토록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회가 노예제와 남성 우위를 무너뜨린 것은 실제로 이 본문에 얼마나 빚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사회 속 복음의 영향에 반발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기념해야 하며,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회의 발견과 진보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경 해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이 평평하다거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발견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고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을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산업 혁명과, 훗날 여성 해방 운동이 될 첫 물결이 서구를 휩쓸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견줄 만한 지성과 역량을 보여 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쳐 왔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자체를 다시 살펴볼 기회입니다.

넷째, 흔한 해석상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 자체로 오해된 증거 본문들을 이어 붙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의 책들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찾아내 우리 시대와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그 본문이 쓰인 역사적 맥락에 깊이 젖어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이익과 집단 사고는 성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읽게 만드는 강력한 편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부록 6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신의 자리나 특권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합니다. 1800년대의 신학 논쟁에서 노예를 소유한 신학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되었어야 했습니까? 상호보완주의 교회와 사역 단체와 대학에서 목사나 지도자나

교수로서 직업과 평판을 잃게 될 사람들이 오늘날 이 문제에서 가장 지배적인 목소리가 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까?

여섯째, 성경을 해석하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다르게 보는 교회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문화에 굴복한 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낮게 본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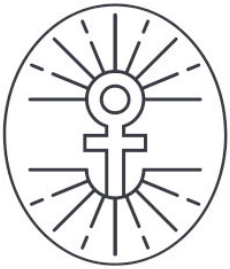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 넓은 문화가 부패한 문화적 관행을 버리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성에 특히 해롭습니다. 가부장제의 보루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해 계속 성경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자해적인 일입니다. 문화와 교회가 노예제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대체로 동의하던 수백 년 동안에는, 교회가 가장 자애로운 형태의 노예제를 권장하면서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교회의 평판에 그리 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경적 근거로 그 관행에 동의한 노예 두 명을 둠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다면 어떤 반응을 얻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표현한 문화적 신념, 곧 "[남자는] 강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여자는] 약하고 수동적이어야 한다. 한쪽은 힘과 의지를 모두 가져야 하고, 다른 쪽은 조금만 저항하면 충분하다"[417]는 신념에 교회가 동의하는 한, 교회가 가부장제에 동조하는 것은 교회의 평판에 그리 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여성 종속의 "공포"를 바탕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TV 시리즈 전체, 곧 The Handmaid's Tale(시녀 이야기)을 만드는 지금, 우리가 딸들에게 남편의 일방적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가르침과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여성들이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교회는 노예를 둔 이 가상의 현대 가정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418]

더 친밀한 결혼을 거두는 것에 더하여, 신자들이 여성의 동등화를 가정을 넘어 교회와 사회로 확장한다면,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복음의 더 큰 신뢰성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들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문화가

417. Jean Jacques Rousseau, Emile or On Education (1762). Barr, 6장에서 재인용.
418. 존 스택하우스는 "Finally Feminist"(p. 56)에서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신약의 맥락이 그러했고 우리 시대의 현대 사회를 제외한 세계 모든 곳이 그러했듯이 사회가 가부장적이었을 때, 교회는 그것에 동조함으로써 스캔들을 피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평등주의적이 된 지금, 스캔들은 교회가 사회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곧 자의적인 성별의 선 없이 여성과 남성이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섬기도록 하는 전례 없는 자유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스캔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과 …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두고 성장시키는 일을 모두 가로막는다. … 이 사회에서 교회가 가부장제를 계속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길에 종교적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역사적으로, 존엄을 부여하는 우리 자신의 복음이 천천히 스며든 영향과, 사랑이 많고 공정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상호보완주의의 어떤 제약도 전혀 모르시는 듯 즐거이, 여성들을 일으키셔서 그 은사를 마음껏 펼치게 하셨으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남성들을 힘 있게 이끌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제3부

여성의 사역



10
구약의 힘 있는 여성들

"주님께서 드보라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쓰신 것은 …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려는 뜻이었다." 니제이 굽타(Nijay Gupta)[419]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인류는 동산에서 거친 세상으로 곤두박질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암울한 예고 그대로, 어디를 보아도 주도권을 쥔 것은 오직 남자들뿐입니다. 일부다처제와 해로운 남성성은 분명 가부장제와 같은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인류 이야기가 시작된 지 겨우 몇 쪽 만에, 가인은 아벨과 경쟁하다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느니 차라리 살인을 택하니 말입니다. 얼마 뒤 라멕은 아내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취하고, 자기에게 상처만 입힌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넘겨 보아도 공적인 세계는 여전히 남자들이 지배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아내의 남편은 낮에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420], 집에 돌아와서도 아마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가 확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 남자가 자손과 친척과 종들과 아내를, 혹은 아내들을 이끌었습니다(창세기에 나오는 아내들 사이의 경쟁 이야기들이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421]

그 후 족장의 이름은 아들들을 통해 이어지지만,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집가는 날 묻혀 버립니다. 지위가 더 낮은 딸들은 그저 남편의 가문에 흡수될 뿐입니다. 여성의 주된 역할은 "생육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가장 비참한 실패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422] 게다가 법과 관습은 여성을 숨 막히게 옥죄는 포장 비닐처럼 작용합니다. 성인 여성조차 미성년자로 여겨져 남성 보호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마음 내키는

419. www.bit.ly/3BFrpwV
420. 잠언 31:23
421.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갈렙, 다윗, 솔로몬, 기드온은 모두 아내가 한 명 이상이었습니다.
422. 출애굽기 23:25-26; 사무엘상 1:1-2:10; 욥기 24:21; 시편 113:9 참조.

대로, 그녀가 하나님께 한 서원도, 그가 그녀에게 한 서원도 무효로 할 권한을 가졌습니다.[423]

그러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꽤 자주 가부장적 규범을 건너뛰어 한 여성을 메시아 이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나 지도자의 자리로 높이십니다. 이 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타락한 사회가 여성에게 어떤 "역할"을 정해 주었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여성 몇 사람을 만나 봅시다. 이들은 말하자면 ezer kenegdos로서 섬긴 이들, 곧 남자들을 이끌고, 구출하고,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남자들에게 맞서는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체제에 맞선 십브라와 부아

부모들이 아들을 통해 장래를 보장받으려고 갓난 딸을 죽이는 일이 흔했던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의 한 바로가 산파들에게 자기 노예 백성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424] 그의 계획은 히브리인들의 미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소녀들이 자랐을 때 결혼할 남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들은 결국 이집트 남자들과 결혼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될 것입니다. 적어도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유대인 산파 십브라와 부아가 목숨을 걸고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맞섭니다. 이로써 그들은 악한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알려진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기 모세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 모세가 80년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할 것입니다.

강한 돕는 자로서, 남자들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리고 억압하는 남자들에게 맞선 저항자로서 애쓴 이 두 ezer kenegdos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425]

423. 민수기 30:3-16, 신명기 24:1-4
424. 출애굽기 1:16
425. 출애굽기 1:20-21

지도자이자 선포자인 미리암

모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산파들에게서 그의 ezer kenegdo 역할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으로 떠밀어 보냄으로써 그의 목숨을 살립니다. 바로의 딸, 그녀 자신도 일종의 ezer kenegdo인 그 공주가 그를 발견해 궁으로 데려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을 위한 미리암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주는 그를 이집트 왕위 계승 서열에 올려놓습니다.

수십 년 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이끌게 하시지만, 그를 일종의 작은 리더십 팀 안에 두십니다. 우리가 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나란히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훨씬 뒤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돌아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를 보내어 너를 인도하게 하였으며 아론과 미리암도 보냈느니라."[426]

미리암은 예언자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처럼 그녀도 "선지자"라고 불립니다.[427] 이제는 닫혀 버린 홍해 길의 건너편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고 찬양의 노래와 춤을 춥니다.[428] 그 가사가 성경으로 기록된 그녀의 승리의 설교 노래는, 천 년도 더 지난 뒤 교회가 전할 복음의 원형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우리의 복음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포로 됨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미리암의 선포는 훗날 예수님의 왕적 구원의 복음을 전할 모든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를 아는 것은 수백 년 뒤 한 시편 기자가 미리암과 그녀의 동무들을, 후대의 모든 예배 인도자와 전도자를 가리키는 초기의 이정표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429]

경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많은 여성이 키를 잡고 강단에 서는 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그들이 남성 지도자들이 계속 빠지는 흔한 유혹들을 쉽게 이겨 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상상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미리암이 영향력의 정점에서

426. 미가 6:4. 때때로 "네 앞에"(ahead of you)로 번역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너의 앞에서"(in front of you)라는 뜻이며, "너를 인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427. 출애굽기 15:20
428. 출애굽기 15:20-21
429. 시편 68:11

경쟁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세를 부당하게 비판한 탓에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나병을 앓고, 그녀가 이끌도록 부름받은 백성은 그녀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430] 이런 도덕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녀에게 베풀어지고, 훗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녀를 애틋하게 기억합니다.[431]

선지자 훌다

유대교의 미쉬나는 히브리 성경의 예언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흔여덟 명의 선지자와 일곱 명의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다."[432] 미리암과 드보라는 (곧 보게 되겠지만) 둘 다 예언 사역과 공적인 지도자 역할을 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선지자와 결혼합니다.[433] 이제 선지자 훌다를 만나 봅시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젊은 왕 요시야는 백성의 영적 활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기 나라의 영적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을 뽑아냄으로써, 많은 선왕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남을 보여 줍니다. 왕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 묻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둘 다 요시야 왕과 동시대 사람인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가지 않고, 다름 아닌 훌다를 부릅니다. 그녀의 사역 이력 가운데 무엇이 그녀를 추천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하늘과 직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낮은 직급의 사람의 아내이므로, 그녀의 예언자적 명성을 뒷받침한 것이 유력한 남자와의 결혼일 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요시야를 대신해 하나님께 구한 다음, 에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해 말합니다. 그녀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고,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며, 요시야의 마음을 칭찬하고, 그가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요시야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거짓 신들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라

430. 민수기 12:1-15. 분명히 해 두자면, 본문 어디에도 미리암이 남성의 권위를 피해 갔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녀와 아론은 모세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잘못을 범했습니다.
431.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미가의 회고 외에도, 토라의 서기관들은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녀를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민수기 20:1; 26:59, 역대상 6:3)
432. 6 Meg. 14a Bar.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75)에서 재인용.
433. 이사야 8:3. 여성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들의 죄는 남성 권위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3:17-24)

할 만한 일을 일으킵니다.[434]덧붙여, 이 이야기 어디에도 홀다가 남자 선지자들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대우받았다는 암시는 없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은 여왕들

저는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곧 왕)가 대부분 남자였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것이 일반 원리로서 남성 권위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 세계에서 왕권이 남성의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전제였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여왕이 단독 통치자로 등장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뿐이었고, 대개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에 관해 고대 이웃 나라들의 규범을 따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들이 첫 왕을 받기 전에 드린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으로 이끌 줄 아셨던 바로 그 생각을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435]

그러니 대부분은 남자 군주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칭송받는 힘 있는 여왕이 몇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유대인 여왕 가운데 가장 유명합니다. 비록 그녀가 그 자리에서 섬긴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녀가 왕과 사적으로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436] 그녀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예언적 깨달음에 힘입어, 그녀는 자기 백성을 몰살하려는 법을 능숙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하만의 악한 동기를 폭로하고, 이어 그의 집안과 함께 자기 백성의 원수 7만 5천 명을 멸망시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 정치적 승리를 기념하여, 그녀는 자신과 삼촌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쓴 법령을 공포하고, 그것은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국 127개 지방의 모든 유대인에게 보내집니다. 이 법은 그들의 운명이 뒤바뀐 것을 해마다 이틀 동안 기념하라고 명하며, "그들의 자손"에게도 적용됩니다.[437]

이 모든 일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사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434. 열왕기하 22:11-23:25
435. 사무엘상 8:19-20
436. 에스더 4:14
437. 에스더 9:29-32

여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실제적이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닿은 여왕은 그녀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은[438]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함을 알아보고 칭송한 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왕권을 미리 내다본 것이기도 했습니다.[439] 바벨론의 갈대아 왕비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있는 예언의 영적 은사를 기억해 내고, 한동안 잊혀 있던 그를 다시 공적인 무대로 불러내는 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440] 이스라엘 자신의 여왕들인 이세벨과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여왕들에 대한 모든 기록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여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고, 오직 그 직분의 오용만이 문제 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때때로 이 여왕들이 단독 섭정으로서가 아니라 왕인 남편과 함께 다스렸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단독으로 다스린 여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사울의 통치부터 시드기야의 통치까지) 500년 동안 어떤 제국에든 그런 여왕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아달랴는 남편이 죽은 뒤 남편 없는 군주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기 하스몬 왕조 시대에는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남편이 죽은 뒤 9년 동안 이스라엘의 단독 군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성들, 곧 체제에 맞선 저항자들, 지도자들, 선포자들,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 곁에서, 특히 한 여성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장차 나올 모든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 찬란한 길을 개척합니다.

사사 드보라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441] 미리암이 (모세를 핵심 지도자로 하는) 하나님 백성의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 기능했을 수 있다면, 드보라는 한동안 하나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곧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438. 열왕기상 10:1-13; 역대하 9:1-12
439. 마가복음 12:32
440. 다니엘 5:10-12
441. 사사기 4:4-5

사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지파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한 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심각한 도덕적 타협과 거짓 신 숭배에 빠졌고, 그러면 이웃 부족들이 그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억압했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뉘우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442] 이 사사들은 영구적인 왕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 또는 "통치했다"고 일컬어집니다.[443]

드보라가 사사기의 다른 다섯 주요 사사와 다른 점은, 그녀만이 선지자이기도 했고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많은 분쟁에 사법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저 군사적 승리를 전문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드보라는 백성을 이끕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의 즉석 발탁"(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으로 등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처음 부르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예언과 지혜의 은사가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무엘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녀처럼 선지자요, 사사요, 군사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의 최고 사법 권위자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드보라가 순전히 사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공적 분쟁의 중재자로서 그녀는 앞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모세의 기능을 이어받아[444] 그녀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의 유일한 구성원으로서 정의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445] 사람들이 온 땅에서 분쟁을 해결하러 그녀에게 나아오자, 그녀는 나라 전체의 재판관 역할을 맡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주요 사사들처럼 드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적 승리로 이끕니다. 자신은 가지 않고 사울을 세워 전쟁에 나가게 한 사무엘처럼,[446] 드보라도 원래는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압제자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447] 그런 다음 그녀는 군사 원정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지휘합니다. 군대의 규모, 차지해야 할 유리한 지점, 공격의 정확한 시점까지 말입니다.

442. 사사기 2:16, 18; 4:10, 14, 24; 5:1-31
443. 대니얼 블록(Daniel Block)은 사사기와 룻기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룻기 1:1은 사사들이 '다스리던'(ESV: ruled) 혹은 '통치하던'(NIV: governed) 시대를 말한다. 히브리어 shaphat, 곧 '재판하다'는 '다스리다, 관리하다, 리더십을 행사하다'라는 뜻이다." (p. 23)
444. 신명기 17:8-13
445. 출애굽기 18:13
446. 사무엘상 10:1
447. 사사기 4:6

그녀가 겨냥하는 원수는 야빈입니다. 야빈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쪽 지파들만 억압합니다. 그녀는 남쪽에 살지만, 야빈의 세력 기반을 충분히 알기에, 그 자신이 북쪽 사람인 바락에게 그를 물리치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바락은 그녀의 뛰어난 전략에 감탄한 나머지, 전투의 최전선에서 자기 곁에 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무기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펼쳐질 때 그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자신에게 조언해 달라고 할 뿐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바락은 군 지휘관이고, 그녀는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예언으로 그에게 승리를 확신시키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는 나아갑니다.[448]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의 평화로 이어지는 승리를 주십니다.[449]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그녀는 바락을 이중창 상대로 삼아, 자기가 지은 노래를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한두 세기 전에 궁지에 몰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처럼,[450]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바락과 함께 드보라를 그 승리에 쓰인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하나로 높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때,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451] 그들이 말하는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바로 자신들인 듯합니다. 노래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452] 온 나라가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성을 포함하여 잘 이끈 지도자들을 존중하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랍비돗과 결혼한 그녀는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신 여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눈여겨봅니다. 그녀는 먼저 선지자이고, 그다음에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 정상이었을 법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도, 그녀 자신이나 이야기 속 누구도 그녀가 남자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녀의 노래에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성적 성품은 그녀의 공적 리더십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독특한 풍미를 더합니다. 많은 전시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영광에 대한 갈망과 달리, 드보라는 군사적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성에 관한 이 점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448. 사사기 4:14
449. 사사기 5:31
450. 출애굽기 15장
451. 사사기 5:1-2. NIV가 "leaders"(지도자들) 대신 "princes"(방백들)라는 말을 쓰면 드보라 자신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5:8에서 자신의 노래 속에 구원자로 그려집니다. 저는 ESV와 NLT가 "leaders"로 이 단어의 뜻을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452. 사사기 5:8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면서, 여성에게 기대할 법한 연민은 그녀의 노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전사한 적군 병사들의 상심한 어머니들을 조롱합니다.[453]

다방면에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중요한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혼자 전투에 나가는 일을 맡깁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육체적으로 더 강하므로 싸움은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확신받은 그녀는 바락에게 자기 없이 이 일을 해내는 영예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투에서 그녀가 곁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자 그녀는 이제 그가 보통 남자들의 몫인 전투의 영광을 "한 여인"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과, 야빈의 장군을 죽일 또 다른 여성 야엘을 함께 가리키는 예언적 언급입니다.[454]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남성을 떠받드는 문화 속에서, 여기 하나님을 대변하는 한 여성이 있고, 장군이든 평민이든 기꺼이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남자들에 대한 드보라의 정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는 듯, 흔히 세 가지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이었다는 주장,[455]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신 것은 그 땅의 남자들이 수동적이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주장,[456]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을

453. 사사기 5:28-30. 사실 드보라의 소름 끼치는 노래 속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이어서 자기 딸들마저 곧 포로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54. 사사기 4:21. 바락과 드보라처럼 그녀도 사사기 5:24-26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존귀하게 그려집니다.
455. 그들은 그녀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법적 중재자로 행동했고, 바락에게도 개인적으로 명령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개인들을 상대하더라도 그녀의 역할은 공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녀가 내린 명령으로 1만 명의 남자가 무기를 들었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훨씬 더 큰 공동체를 이끌어 축하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 노래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녀의 리더십을 노래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드보라가 남자들을 이끈 일을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조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은 억지스럽고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456. 그러나 이야기 어디에도 남자들이 선지자나 사법 권위자나 군사 전략가의 역할을 거부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락이 주저한 것은 이 역할들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불안해한 유일한 것은 드보라 없이 전투로 진군을 이끄는 일이었고, 그 때문에 그는 전투의 영광을 드보라와 야엘과 나누어야 하는 문화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고르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뜻밖의 사람을 택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사사 옷니엘은 전형적인 사사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세 사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의외성을 좋아하심을 보여 줍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이는 흔히 오른손잡이 전사와 싸우도록 훈련받은 보통의 전투원을 기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미천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누구도 군사적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첫 번째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뜻밖에 택하신 지도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왼손잡이 지도자나 불리한 배경을 가진 소심한 지도자를 거부하지 않듯이, 여성 지도자들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457] 이 논증들은 어느 것도 제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실제로 보여 주는 것은, 한 여성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 영역과 시민적 영역 모두에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오늘날 두 영역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 이끌도록 부름받을 수 있는, 경건하고 은사 있는 여성들을 위해 길을 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녀의 시민적 역할만 인정합니다. 그루뎀은 그녀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녀의 사법적 일을 오늘날의 상담가나 민사 재판관의 일에 비유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녀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그녀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민적 권위를 가진 군주로서가 아니라, 여선지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서 재판하였다. 그녀는 악습을 바로잡고 고충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그리하였다."[458] 그루뎀과 헨리는 둘 다,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종교적 리더십과 동시에 사회적 리더십(정치, 사법, 군사 영역을 포함하여)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선례입니다. 충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고대 히브리인들도 여성의 리더십을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 가장 강한 남자들을 포함해 한 공동체 전체를 유능하게 이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사역이 현대의 사역 현장에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사/구원자를 선택하신 방식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도자의 유형을 보여 주는 구약의 가장 좋은 본보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문화에 매인 제도들, 이를테면 족장들의 경우 남성 장자 상속, 제사장 제도의 경우 세밀한 모세 율법, 혹은 고대 근동의 흔한 지정학적 제도인 남성 왕권 같은 것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사사의 임명은 고대 사회가 가장 선호하거나 가장 그럴 법한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 근거합니다. 사사기의 여섯 주요 구원자 가운데

457. 그루뎀은 "Evangelical Feminism"(4장)에서, 그녀가 바락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말함으로써 "남성 리더십의 정당성"을 확인한다고 이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또한 전투에 함께 가 달라는 바락의 고집을 그녀가 꾸짖은 것도 같은 점을 증명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추론일 뿐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실제 전투에 나가는 일은 남자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을 그녀가 올바로 깨달았다는 설명이 훨씬 더 잘 들어맞습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따라서 힘이 관건인 군사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소 전투를 이끌겠다는 포부가 없으며, 육체적 전투는 남자들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바락이 이끌기는 하지만, 그의 리더십조차 그녀가 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녀가 선호한 전략은 (사무엘처럼) 군 지휘관에게 전쟁을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최고 사령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독권을 지닌 지도자로서 여전히 지도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리더십을 실행하도록 한 남자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설령 그녀가 바락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하더라도(그럴 수는 없지만), 그 땅의 최고 사법 권위를 지닌 그녀의 역할은 우리가 바락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분명합니다.

458. 출처: www.bit.ly/3bIr6am

드보라가 아마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그 땅의 최고 정치·군사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선지자이자 최고 사법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남자가 이끌어야 한다는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예외적인 리더십은 그런 규칙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남성 통치 권위의 이른바 "패턴"을 거스릅니다. 가부장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한 여성을 택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원래 독자들(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별과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전제를 송두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novum"(이야기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 역할을 합니다. 고대의 사사기 독자에게는 남자가 이끄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 문화적으로 당연했고, 놀라운 세부 사항이야말로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에 관한 이 기록에서 그들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남성이라는 성별과 같은 상자 안에 잘못 넣어 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시는 하나님

훌다, 미리암, 에스더, 드보라를 제쳐 두더라도 질문은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주로 남자들을 지도자로 택하십니까?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구약의 남성 장로들, 남성 씨족 지도자들, 남성 족장들, 남성 왕들 등을 열거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오직 남자만 이끌어야 한다는 영원한 규범을 세우시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하나님의 구속 과정에 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역할들 가운데 어느 것도 특별히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 남성 장로, 남성 씨족 지도자, 남성 족장, 남성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관행을 따르도록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이를 일종의 보편적 이상으로 승인하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분량과 그것이 다루는 방대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천천히 구속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종종 이상적이지 않은, 때로는 참으로 끔찍한 문화적 현실에 맞추어 주시면서, 그 안에 마침내 그것을 구속으로 이끌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은 오늘날의 중동만큼이나 철저히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씨족과 지파의 지도자는 언제나 남자였고, 여성이 지파나 씨족을 이끌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입니다. 모세가 가문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려 할 때, 그는 "장로"라고 불리는 연장자 남자 70명을 뽑습니다. "장로" 이야기가 나왔으니, 남성 장로들이 성읍 문에 앉곤 했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더 넓은 세계의 표준적인 지도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459]

그러나 기존의 가부장제라는 문화적 관행 속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행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승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라는 문화적 관행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인 열두 족장을 나게 하신 것이 일부다처제를 승인하신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다처제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들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여럿인 남자들이 될 정도였습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제9장에서 보았습니다. 일부다처제와 노예제와 가부장제가 표준이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관행들 가운데 어느 것을 이상화하거나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전 세계적인 구속 목적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긴 과정에서, 그분은 궁극적으로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꺼이 참아 주시는 듯합니다.

그래도, 설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제나 남자만 지도자로 택하셨다 하더라도(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일반적인 문화적 패턴이 예수님의 교회로 옮겨져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은 문자 그대로 한 나라였지만, 그분이 오신 뒤에, 특히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뒤에는 새로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들이 한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안에 있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정학적 백성이 아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 씨족 지도자, 대제사장, 국가적 선지자 같은 고대의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대체로 옛 언약 아래의 믿음과 새 언약 아래의 믿음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상호보완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규범으로서의 남성 리더십을 위해 구약에서 또 하나의 논증을 끌어냅니다.

남성 제사장

459. 창세기 50:7

구약의 세 가지 큰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여선지자들과 힘 있는 여왕들을 알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이 남자들에게만, 그것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맡겨진 직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직이었습니다.

일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 점을 크게 부풀립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지도자 역할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하나의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리더십을 여성에게 열어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신약에서는 장로가 그 예외이다."[460]

아주 최근에는 다른 학자들이 두 가지 논증을 더해 이 논증에 힘을 실었는데, 둘 다 구약의 제사장과 교회의 장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첫째, 그들은 지도적 제사장인 아론과 레위가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461] 이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장로들과 어느 정도 상응합니다.[462] 둘째, 그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와 그 기물의 수호자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의 영적, 도덕적 수호자여야 하는 오늘날 장로들의 일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런 논증들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남자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부장제를 승인하셨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자만 제사장이었던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들, 어쩌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을 성소 운영에서 배제한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만 걸어야 한다면 저는 첫 번째에 걸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은 월경 중인 여성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고, 따라서 매달 4분의 1 동안은 성전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고 피식 웃을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 속에서 이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는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463] 그렇다면 여성이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을

460. Craig Blomberg, "Two Views of Women in Ministry"
461. 레위기 10:11, 말라기 2:7
462. 디모데전서 3:2
463. 레위기 15:19, 22

것입니다. 그들의 들쭉날쭉한 월경 주기에 맞추어 근무표를 짜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464]

둘째, 여성 제사장을 두었다면 매춘과 예배를 결합한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과 연관 지어질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465] 셋째, 제사장들은 몸이 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몸으로 막아야 했고, 필요하다면 처형해야 했습니다.[466]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 자르고 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존재한 처음 300-400년 동안 제사장들은 성소 전체와 그 모든 기구를 거듭 꾸려 이곳저곳으로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제사장직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남자였다는 사실을 선례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남자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모세의 의식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셨듯이,[467] 모세의 율법은 이상적인 사회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회에서 주어진 양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남자만 제사장이었다는 사실(그것도 한 지파에서만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우리의 질문에 아무런 무게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약을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신자인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나 경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오직 레위 지파의 남자로 태어나는 것과 운 좋게 신체적 흠이 없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직분은 영적 리더십의 전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 사이에 있다고 주장되는 연결은 매우 빈약합니다. 재산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은 백성을 영적,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과 매우

464.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결 규정을 끝내러 오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이 연이어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접촉하심으로써 부정해지셨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465. 신명기 23:17이 이를 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부도덕한 관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거듭 금하셨습니다.
466. 민수기 18:7
467. 마태복음 19:8

다릅니다.[468] 전자는 남자들에게 있는 육체적 힘과 관련이 있지만, 후자는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영적 성숙과 교리적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군주, 부모도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고, 이 역할들에는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469]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결코 목사의 전신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의 전신이었고,[470]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모든 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 이들의 전신이었다는 점입니다.[471] 신약 어디에서도 목사를 제사장과 직접 연결하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제사장이 교회의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에 상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초석 하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까?

이 장의 요점으로 돌아갑시다. 고대 근동에서 남성 지배가 규범이었음에도 남자들을 이끌며 그들의 ezer kenegdos, 곧 강한 동반자로 행동한 이 훌륭한 여성들의 본보기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에서 온전한 동반자로서 남자들과 나란히 설 날을 미리 비추는 섬광입니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활동하리라는 요엘의 예언은,[472] 여성들이 더 크게 일어나 리더십과 설교의 겉옷을 입게 될 미래에 대한 이 기대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회와 교회에서 여성을 강력한 지도와 가르침의 역할에 택하실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가부장적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성들의 많은 본보기는, 그분이 장차 지도자를 택하실 때에도 계속 사람을 외모로 보지

468. 최근 한 상호보완주의 신학자는 여기에 아담이 동산을 지킨 일을 더해 이 논증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담이 동산-성전의 제사장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했고, 남자 제사장들이 물리적 성전을 지켜야 했으므로, 남자 장로들이 교회-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학적으로 동산-성전, 물리적 성전, 교회-성전 사이에 연결이 있기는 하지만(그곳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장된 패턴은 세 가지 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강한 돕는 자로 아담에게 주셔서 동산-성전을 돌보는 일에서 그와 동반하게 하십니다(창세기 2:18). 그러므로 아담이 남자라는 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신약에 따르면 아담은 교회 목사들의 전신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전신이며(고린도전서 15:45),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의 전신입니다(베드로전서 2:5). 셋째, 아담은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지키는 동산 위에 있고 그 일부가 아니지만, 목사들은 교회-성전 위에 있지 않고 그 일부입니다.
469. 게다가 (제사장 전체가 아니라) 레위와 아론이 가르친다고 언급된다고 해서, 모든 제사장이 교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470. 히브리서 8-10장
471. 베드로전서 2:5
472. 요엘 2:28-29

않으실 것이며, 거기에는 그들의 염색체가 XX인지 XY인지도 포함된다고 기대하게 해야 합니다.[473]

마침내 저주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않고, 그들은 서로 나란히 다스릴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첫 장에서 분명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473. 또는 과학이 인터섹스인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어떤 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복음서의 힘 있는 여성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곧 초대 교회에서 복음의 중심이었던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데이비드 숄러[474]

다행히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성을 높이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사역의 이 부분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고 지음받았다는 상호보완주의의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의 가치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여성의 사역을 풀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란 본질적으로 여성과 사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상호보완주의자가 앞다투어 지적하는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남성 사도만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꽤 자주, 그들이 복음서에서 여성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에 관해 주목하는 것은 이것뿐인 듯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성이 사역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끌기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그분의 교회의 모든 미래 리더십을 위한 일종의 본틀로 다루는 것이 잘못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대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성 전용 사역 기능이라는 생각을 승인하셨다는 바로 그 생각을 반박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인데도,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사역으로 풀어 주시고, 그들을 성별에 맞는 어떤 "영역" 안에 묶어 두는 일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의 맨 앞, 한가운데에 세우시는 모습에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 나라의 강력한 일꾼으로 쓰신 여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를 여실 분이라는 것을

474. www.fuller.edu/womeninministry/

처음으로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처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한 첫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뒤집힌 은혜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처음으로 전한(아니, 사실은 노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처음으로 고난을, 특히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신 첫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위험하고 점령당한 땅에 사는 신분 낮은 십 대 소녀였지만,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이 얼마나 복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475] 그녀가 (남자나 문화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자나 문화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치를 그녀에게 부여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일의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성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 인간을 해방하러 오셨을 때, 남성의 본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친히 취하셨기 때문이다. 여성의 본성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476] 루시 페피아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에 대해 이렇게 논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을 때, 그분은 한 여성의 태라는 감추어진 곳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기로 하셨을 때, 그분은 그 육신을 한 여성에게서 취하기로 하셨다. … 한 남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한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연결되신다."[477]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지 오래된 뒤에도, 마리아는 그분을 섬기는 사역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려는 자세에서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혹은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곤경에 빠질 거라고 예수님 얼굴에 대고 말한 사람이 그녀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그 끔찍했던 첫 성금요일, 군병이 자기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지켜보며 자기 영혼이 찔리는 일을 겪은 사람이 그녀 말고 또 누가 있는가?

475. 누가복음 1:52
476. Thomas Oden, Classic Christianity: A Systematic Theology, p. 266에서 재인용.
477. Lucy Peppiatt,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ch. 2.

예수님이 포대기에 안전하게 싸인 아기에 불과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다."[478]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대답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아닙니다. 단연코 마리아입니다. 메시아를 자기 태에 품고, 그분이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을 살려 낸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인류 역사에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녀의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지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보도록 맡기신 대리 아들 요한은, 예언적으로 그녀를 아이를 낳는 동안 마귀적인 붉은 용과 싸워 살아남는 여인으로 그립니다.[479]

여선지자 안나

"또 선지자 안나가 있었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에게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니라."[480]

안나는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선지자라 불린 사람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순간에 앞선 꼬박 5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남은 생애를 성전에서 보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떠난 반려자를 향한 그녀의 아픔은 세상의 구주를 향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바치려고 성전에 왔을 때, 그녀는 그분을 보는 눈, 정말로 그분을 알아보는 눈을 받습니다.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녀가 그 즉시 찬양을 터뜨리면서 모든 실망은 자취를 감추고,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완수합니다.[481]

성전 경내에서, 종교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믿는 남자들을 가르칠 권한이 없다는 그 어떤 상호보완주의 가르침도 기분 좋게 모르는 채, 그녀는 믿음의 여자들과 남자들에게 성경의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구원하는 왕이 될 아기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녀를 "덮어 줄" 남편이나 곁에 서 줄 남편 없이 해냅니다.

478. Lucy Peppiatt,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ch. 2.
479. 요한계시록 12:1-6
480. 누가복음 2:36-37
481. 누가복음 2:38

우물가의 여인

성경을 읽는 사람 누구에게든,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여 큰 전도의 열매를 거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오순절 날의 베드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년이나 앞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5장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일대일로 신학적 대화를 나누신 것, 그것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장 긴 대화를 나누신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녀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뿐 아니라 일종의 공적인 부흥을 이끈 최초의 전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생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녀는 그저 목마른 또 하나의 영혼일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자기 마을에서 신분의 사다리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이른 아침에, 그것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우물에 오곤 했지만, 그녀는 여기 홀로, 그것도 한낮의 더위 속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자들의 눈에 그녀가 낙인찍힌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많은 남자들과 만났다 헤어졌다 한다며 그녀를 헐뜯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그녀와 신학적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점차 그분의 자기 계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절정으로 이끄시자, 그녀는 정결하게 하는 생수를 한 모금 들이켜고, 낡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방금 받은 그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려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482]

그 결과 "많은 … 사람이 … 그 여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83] 그녀는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은 역사상 최초의 사람일 뿐 아니라, 안나에 이어 이 발견을 남자든 여자든 들으려는 누구에게나 널리 알린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택하시고 존중하셨다는 것은, 따돌림당하던 그녀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선포자라는 높은 지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482. 요한복음 4:28-30
483. 요한복음 4:39-42

그녀의 전도 사역을 축소하는 학자들은 "그녀는 그저 자기 간증을 나누었을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녀는 가서 사람들을 찾았고, 말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으며, 그분을 메시아로 선포했고,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해 짧게 가르치시면서 그녀의 생생한 본보기까지 사용하십니다. 무리를 추수할 때가 된 밭에 비유하신 뒤, 그분은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484] 그분의 설교는, 그 전도자가 새 친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언덕을 올라오는 가운데 끝납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을지 모르지만[485] (27절), 그녀의 전도 사역이 당시 그들 누구의 사역보다도 뛰어난 방식으로 곧바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증인 마르다

"마르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녀가 한번은 일을 그르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보다 그분의 살림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택하여 그분께 배울 기회를 놓쳤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예수님께서 주문하시지도 않은 육신의 식사를 준비한 것이었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자매에게 영적인 식사를 차려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또 다른 때에는 놀라울 만큼 제대로 해내어, 이제 성경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난 사람들이 저마다 그분에 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깨닫도록 그려 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독자인 우리에게도 열어 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우물가 여인의 깨달음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제 그녀의 1세기 마을 사람들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들과 지역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의 글에서 무대에 세우는 예수님의 여성 증인은 그녀만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 관한 결정적인 무언가를 증언합니다.

그녀에게 가기 전에 짧게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증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한 장면입니다.[486]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복음의 전반부

484. 요한복음 4:36
485. 요한복음 4:27
486. 마가복음 8:29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후반부(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를 잇는 경첩 역할을 합니다.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계시의 반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 고백을 활용하듯이 요한도 예수님께 드린 마르다의 증언 고백을 똑같이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오라버니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녀가 대답합니다(그리고 여기서 그녀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487] 요한은 후대를 위해 그녀의 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가 예수님 안에서 보고 예수님에 관해 말한 것은, 요한복음의 수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측근 여성들

복음서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 23명의 이름을 밝힙니다. 열두 제자, 요셉 유스도, 나사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름이 밝혀진 나머지 일곱 제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살로메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488]

이 본문은 예수님께 열두 제자보다 더 넓은 측근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이가 여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해방하시는 손길을 경험한 이 갈릴리 여성들은 때때로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 한 팀이 되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고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487. 요한복음 11:25-27
488. 누가복음 8:1-3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제자로, 사명의 동행자로,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 사명을 후원하는 후원자로 택하셨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의존하고 빚진 자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 매우 존중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이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이 들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선교 팀을 특별히 선발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측근 무리에 있던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니 어쩌면 모두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전역에 걸친 선교 대공세에 보내신 36쌍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489]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가정과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초대와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용기 있게 규탄했을 것이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분의 왕적 권능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헬라어 heterous)이라는 단어가 남성형이라는 전제에서, 72명의 선발대가 모두 남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남성 중심 언어를 쓰던 고대의 화자들이 혼성 집단을 묘사할 때 으레 단어의 남성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인 "저는 자와 맹인과 장애인과 말 못하는 자와 기타 여럿[heterous]"[490]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자의 환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여성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 측근의 이 여성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핵심 증인이 되고, 그 비극적인 금요일에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되며, 또한 부활 주일에 그분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이 됩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임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금쯤이면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실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489.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름이 나오는 제자들 대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는, 가장 헌신된 제자 72명을 따로 찾으셨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여성들이 포함되었다고 더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선교에 대한 접근에서 종종 전략적이셨던 예수님께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이스라엘이 남자들의 공적 사역을 더 잘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90. 마태복음 15:30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의 이 중대한 사건들 하나하나, 곧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많은 사람이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은, 그분이 주로 여성들을 이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 사건을 모두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동료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자 제자들이 도망친 지 한참 뒤까지 그곳에 남아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491]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분을 장사하는 일을 돕기까지 했습니다.[492] 그리고 그들은 주일 새벽 첫 빛에 무덤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 …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493]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한 사흘 뒤 그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 동료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이 본 것을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사실 그 첫 부활 주일의 상당 시간 동안, 이 여성들은 지구상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지닌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 전체가 이 몇 안 되는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이 정도입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신 자신과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그녀는 돌이켜 그분께 아람어로 "랍오니!"(선생님이라는 뜻) 하고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494]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덜하거나 아예 곧바로 무시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택하셨을까요?[495] 그리고 남자 제자들조차 아마 그들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덧붙이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전합니다.[496] 물론 그날 늦게 남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여자들의 메시지를 의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매들의 말을

491. 마태복음 27:55-56; 마가복음 15:40-41
492. 마태복음 27:57-61; 마가복음 15:42-47; 누가복음 23:50-56
493. 마태복음 28:5-6
494. 요한복음 20:15-18
495. 예를 들어 유대 랍비 율법은 여자 백 명의 증언이 남자 한 명의 증언만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496. 누가복음 24:11

듣지 않은 그들의 실패를 호되게 짚으셨다는 사실은,[497] 교회가 세상에 막 출범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분이 우리 남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교훈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매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통찰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에 꿰매어 넣으셨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그 뒤를 잇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들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선적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여 …"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날"에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하와를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며 "여자"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하와 …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아담의 이야기를 재연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déjà vu의 순간에, 새 창조의 시대에 사는 모든 여성을 대표합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선포하는 상대가 누구든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선포자로서 기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와는 첫 창조의 동산에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메시지를 아담에게 전했을 때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 무덤과 새 창조의 동산에서는 저주가 뒤집힙니다. 이제 하와의 딸이 하나님의 해방하는 메시지를 아담의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 낡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와 함께 여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최전선에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능성도 함께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현실이라는 새 시대에 여성들에게 첫 번째 결정적 사역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평등과 잠재적 사역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성을 사역의 역할로 높이신 것은 침투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며,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498]

마리아는 또한 일종의 사도적 역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들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역은 사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499] 사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보내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애정을 담아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N. T. 라이트도 이에 동의합니다. "사도가 부활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면, 어느 남자보다도

497. 마가복음 16:14
498. Grant Osborne, Women in Jesus' Ministry, pp. 289-90.
499. 사도행전 1:22; 2:32

먼저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다."[500] 분명히 하자면, 그녀는 엄밀히 말해 열두 사도의 일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더 넓은 무리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사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새 창조가 동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사적인 자리에서만, 여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상호보완주의의 가르침과 반대로)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에게,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사적인 자리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왜 남성 사도만 있었는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최고 리더십 팀에서 여성을 배제하려고 내놓는 또 하나의 합리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서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셨지만, 그럼에도 열두 사도를 택하실 때는 여성을 배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모든 상호보완주의자가 이 점에 그만큼 무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퍼와 그루뎀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께서 열두 남자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수께서 교회에서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장로직을 선호하셨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501]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실질적인 논증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이 주장을 펴는 이들은 거의 같은 기본 논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그 핵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사도로 남자만 택하신 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가부장적 문화의 사회적 관습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미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자만 이끈다는 원칙을 본으로 보여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회적 관습을 뒤엎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셨음을 압니다(여인과 단둘이 대화하신 일이나 안식일에 사역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실천을 따라, 교회의 목회 리더십 팀에서는 남자들만 섬겨야 합니다.

처음 읽으면 이 논리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하면 산산이 부서져 먼지가 됩니다.

500. www.bit.ly/3k5tah6
501.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62

우선 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사도들의 남성성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사도에 관한 예수님의 패턴이, 각 지역 교회가 어떤 목사나 장로를 선출할지에 대한 패턴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둘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열두 명을 두어야 합니까? 그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남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젊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을 뜻하니까요. 이 질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열두 유대인 남자를 택하신 것을 이후 모든 목사나 장로 선택의 문자적 본틀로 삼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별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민족적 편견(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계급적 편견(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도 가지셨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분이 열두 사람을 택하신 것이 구속사의 특정한 목적과 시점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상호보완주의 논증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님께서 남자들을 택하셨을 이유가 두 가지뿐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성을 열두 제자에서 제외한 데에는 매우 분명한 상징적 이유가 있고, 어쩌면 몇 가지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상징적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이미지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상징적 행동을 능숙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에게 떡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하늘의 떡을 받게 한 참 모세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수도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눈에 띄지 않게 오셔서 교만한 원수들을 멸하실 겸손한 메시아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의 부패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시기와 장소도 풍부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어느 곳에서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지만, 폭정과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 옛 일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마리의 어린양이 희생되는 바로 그 도시에서, 유월절 기간에 죽으십니다.

이제 제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유대인 남자를 택하신 것은 아마도 그분의 모든 상징적 행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히브리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열두 명의 자유인 유대 남자를 택하심으로써, 그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깨어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지도 아래 재구성하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시적인 설명에 따르면,[502] 그들은 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온 나라가 그로부터 나온

502. 마태복음 19:28과 누가복음 22:30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열두 제자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선언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503] 그것은 그야말로 상징으로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열두 유대인 남자 제자로 이루어진 그분의 작은 팀이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선봉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남자 사도를 택하신 것은, 그들이 열두 명이어야 하고 또한 유대인이고 자유인이어야 한다는 그분의 선택과 상응합니다.[504] 그분은 훗날 어떤 지역 교회가 생겨나든 그 교회를 이끌 리더십 팀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역 교회를 언급하신 유일한 대목에서, 그분은 몇몇 지도자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여된 영적 권위를 강조하십니다.[505]

후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팀을 좀 더 다양하게 꾸리셨더라면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징적 의미가 (훗날 세계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게 될 우리 대부분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원래 선교지, 곧 히브리 성경에 의해 세계관이 철저히 형성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자 여섯과 여자 여섯, 혹은 유대인 여섯과 이방인 여섯, 혹은 노인 여섯과 젊은이 여섯, 혹은 노예 여섯과 자유인 여섯을 부르셨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랬다면 그 상징은 그것이 의도된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 내는 일만이 아니라 상징에 관심을 두셨다는 가장 큰 단서는, 아마도 열두 제자 대부분이 불과 몇 년 만에 눈에 띄는 사역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두드러진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다시는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상징을 우선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유다의 후임자를 그토록 찾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열한 명이 열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두 남자가 예루살렘 앞에 서서 그들을 그들의 메시아께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503. 누가복음 22:14-30

504. 마이클 버드는 “Evangelical Theology”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교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닌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숫자 12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유대 지파 연맹이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쪽의 열 지파는 8세기에 앗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두 지파는 6세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남은 자들만 유대로 돌아왔다. 큰 소망 하나는, 구원의 시대가 동트면 새롭게 된 유대 왕국 안에서 열두 지파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함께 일어나리라는 것이었다(예: 이사야 34:10; 43:5; 56:8). 열두 제자를 택하심으로써 … 예수께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그분과 그분의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의 선봉대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롭게 된 나라를 다스릴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마태복음 19:28/누가복음 22:30), 그분의 사역을 오직 이스라엘에 집중하셨으며(마태복음 10:5-6; 15:24), 많은 사람이 곧 동서로부터 와서 이 중대한 사건에 참여하리라고 선언하셨다(마태복음 8:10-12/누가복음 13:28-30).”

505. 마태복음 18:17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도시에 처음 전한 설교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506]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열 사도와 함께 서서"였다면, 예수님께 그토록 중요했던 상징적 메시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팀으로 기능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일이 새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것이라기보다 새 이스라엘의 선봉대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가 늘어나 목회적 문제까지 다루게 되자, 그들은 교회가 일곱 지도자를 선출하여 함께 교회를 이끌게 합니다.[507] 목회적 리더십의 실무적 측면에서 벗어나려는 이 결단은, 얼마 뒤 사도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다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사도행전이 열두 사도를 이 후대의 장로들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508] 그렇다면 열두 사도가 장로들과 그토록 구별되는데, 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사도들의 남성성을 장로들의 남성성을 위한 논증으로 사용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509]

복음이 이스라엘 너머로 퍼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바나바, 실라를 포함하여 열두 사도를 넘어서는 더 넓은 사도 무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더 큰 무리는 더 이상 열두 사도에게 내재된 상징적 메시지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여성, 유니아가 그 무리에 포함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510] (그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상징은 차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팀에 남자만 택하신 데에는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사회적 관습을 깨는 데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활동에서 종종 전략적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신 일,[511] 사역 초기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자제하기로 하신 일, 그리고 사명을 위해 교회가 단계별로 지리적으로 확장되도록 계획하신 일이 그렇습니다.[512] 예수님 자신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셨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셔서 "뱀 같이 지혜로우"셨고, 따라서 순진하지 않으셨으며, 실제적이고 전략적이셨습니다.

506. 사도행전 2:14
507. 사도행전 6:1-6
508. 사도행전 11:30; 15:2 참조.
509.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래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언급하신 장로들은, 그것도 자주 언급하신 장로들은,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예루살렘의 악한 장로들뿐입니다.
510. 로마서 16:7
511. 마가복음 12:17
512. 사도행전 1:8

예수님의 선교적 우선순위가 먼저 이스라엘에 다가가는 것이었으므로,[513]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사도로 택하시는 것이 아마 더 전략적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다가간다는 그분의 당면한 우선순위에 더 잘 맞습니다. 또한 철저히 가부장적인 이스라엘은 남자들의 공적 사역을 더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성을 운동의 최고 공적 지도자로 세웠다면, 철저히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새 운동과 그 메시지의 신뢰성에 불필요한 의심을 드리웠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한 여자의 증언을 얼마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거부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주된 공적 증인은 남자 사도들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남자들을 택하신 데에는 다른 실제적인 이유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그분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랍비가 제자를 길러 내는 유대교의 제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제도는 마침 남성들만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초기의 사도직에는 사명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일과 순교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어머니들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514]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실천에서 기껏해야 추론할 수 있을 뿐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고 계시던 교회에서 나중에 지도할 사람들의 성별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리더십에 관한 예수님의 명시적인 가르침은 섬김을 리더십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목회적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515]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를 삼는 일을 분명히 우선하셨습니다.[516] 그러나 보십시오. 이 두 사역 기능 가운데

513. 마태복음 10:5-6; 15:24 참조.
514.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26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떠나는 것만 언급할 뿐 남편을 떠나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직이 순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셨습니다(교회 전승에 따르면 열두 사도 가운데 열한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성들이 몇몇 사역 여행에서 이따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는 했지만(누가복음 8:1-3), 아마도 예수님은 그 문화에서 자녀 양육을 주로 맡았던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영영 떠나 자신과 함께 다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요구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 멀리까지 다니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여기저기 다니는 일은 훨씬 드물었습니다. 여성들은 더 큰 위험에 처했고,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에 훨씬 더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부활 이후를 다루는 부분에 여행했다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이름이 나오는 여성이 네 명뿐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사역 후반기의 베드로의 아내(그때는 아이들이 다 컸을까요?), 틀림없이 경호원을 둘 형편이 되었을 부유한 후원자 뵈뵈, 그리고 둘 다 남편과 함께 여행한 유니아와 브리스길라입니다(아이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리소스토무스는 마태복음 23:14에 관한 제73설교에서, 브리스길라를 포함해 "남자다운 용기로" 여행에 나선 극소수의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그 시절 선교 여행은 군대에서 싸우는 일처럼 남성의 신체적 힘에 더 적합했습니다.
515. 마가복음 10:42-45
516. 마태복음 28:19

어느 것도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신 일에 여러 생각과 추론을 덧붙여 읽는 것은, 예수님이 여성들을 힘 있게 사역의 자리로 풀어 주신 방식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본문을 일관성 없이 읽는 데 근거합니다(그런 읽기는 열두 제자의 성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고유한 특성은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으로 여성의 편에 서셨고, 사역자로서의 여성의 편에 서셨습니다. 역사상 그분보다 앞선 어떤 공적 인물보다 훨씬 더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매들의 날개를 꺾어 놓은 가부장제를 체계적으로 허무셨고, 사명이 그들을 이끄는 곳이라면 남성에게만 허락되던 역할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한 번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암시하신 적이 없는 이유, 곧 여성을 열두 제자에서 배제하신 이유를 침묵에서 추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종류의 배제를 확대하여 여성의 리더십을 모든 시대에 걸쳐 금지하는 것은, 성별에 맞는 영역 따위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성들을 사역의 자리로 풀어 주심으로써 그토록 자주 가부장적 규범을 거스르신 예수님의 실천과 크게 모순됩니다.

여성이 먼저

예수님이 열두 남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그것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여성 리더십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열두 유대인 남자를 택하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1세기 이스라엘에 있던 성별에 따른 제약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들을 사역의 자리로 풀어 주신 방식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은 여성 리더십에 반대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여성을 맨 뒤에 두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자주 여성을 맨 앞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 처음 듣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여성이었고,[517] 최초의 사마리아인 회심자이자 공적 전도자도,[518]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도,[519]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계시를 처음 받은 사람도,[520] 예수님의 사명에서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도,[521]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522]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먼저 오는 것을 정당한 지도자가 되는 것과 잘못 뒤섞으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517. 누가복음 1:32-35
518. 요한복음 4:7-42
519. 마태복음 15:21-28
520. 요한복음 11:23-27
521. 마태복음 26:7-11
522. 요한복음 20:16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모든 "처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유다 지파의 사자의 형제들은 사자로 대하면서, 그분의 자매들은 길들여 새끼 고양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성만이 다스리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온 길고도 슬픈 전통이 있었지만, 우리 세상과 우리 교회에는 사역의 권위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성을 억누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성들을 대하시고 받아들이신 방식은 너무나 놀랍도록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가 마침내 남성의 은사와 동등하게 인정받고 발휘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퇴보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제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여성의 정체성과 사역을 존귀하게 하신 일은, 오늘날 사회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을 해방하게 된 주요한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회에 끼친 장기적인 영향으로 내세워야 하며,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아무리 많은 결함 있는 논증을 내놓더라도 그 논증에 근거해 이것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런 논증의 눈으로 여성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신 대로 여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그것은 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이 여성을 보았던 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
초대 교회의 힘 있는 여성들

"오늘날 신자들은 여성 안수,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일 등을 두고 나뉘어 있지만, [로마서 16장은] 그런 반대가 바울을 어리둥절하게 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 [바울은] 여성이 복음의 교사나 지도자, 선포자, 선교사가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신약 시대에 여성들이 후대에 직분으로 불리게 될 사역을 수행했는가? 모든 증거는 그 대답이 '그렇다'임을 보여 준다." 윌리엄 위트[523]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지친 나그네들을 맞아들여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에 그는 그들의 팔다리를 잡아 늘이거나 발을 잘라 내어 몸이 침대에 꼭 맞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증의 영역에서 쓰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입장을 취한 뒤, 사실은 그 입장을 반증하는 다른 정보들에 그 입장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정보들에 없는 생각을 집어넣어, 곧 정보를 잡아 늘이거나 그 일부를 잘라 내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524]

구약과 복음서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사역하는 여성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에 맞선 상호보완주의의 반론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미리암, 홀다, 드보라, 막달라 마리아, 뵈뵈, 브리스길라, 유니아 같은 여성들의 역할과 공헌을 축소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애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사역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523. William Witt, Icons of Christ, p. 99
524. 이것은 흔히 "특수 변론의 오류(the fallacy of special pleading)"라고 불립니다. 이전의 믿음이 상충하는 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그 자료를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나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리스도인 남성을 권위 있게 가르치거나 그들 위에 목회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잘못 읽고, 그것을 이용해 오늘날 여성의 사역을 제한할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성의 사역까지 제한하고 다른 틀에 끼워 맞춥니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는, 성경 시대의 믿는 여성이 바로 그들의 해석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 곧 하나님께 쓰임 받아 남성을 영적으로 이끌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상호보완주의자는 이미 결론을 내려 둡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적 지도자였을 리가 없고, (이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교회들을 목양하고 가르쳤을 리가 없으며, 유니아는 새 길을 연 여성 사도, 그것도 뛰어난 사도였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여성들과 다른 성경 속 여성들을 직접 연구하면서, 저는 문제가 그들의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침대의 자의적인 크기, 곧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 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을 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자료를 "얼버무려 넘기는" 온갖 추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의 사역에 대한 케빈 드영의 요약을 들어 보십시오. "그녀는 학식 있고 지혜롭고 영향력 있었을지 모르지만, 남성들 위에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525]

디모데전서 2장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 정경의 구속적 흐름, 예수 사역의 궤적,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서 얻는 초대 교회 생활의 모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526]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오늘과 내일의 교회에 있는 제 자매들의 정당한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를 변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성경 속 여성들의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를 깎아 내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저는 성경 속 제 자매들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브리스길라가 한 남자를 가르치는 동안 반드시 남편의 덮개 아래 있도록 조심했다고, 또는 그 일이 정식 그리스도인 모임 밖에서 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또는 그녀가 아무런 교리적 권위 없이 말하면서 그를 더 잘 아는 교회의 남성 목사들에게 보냈다고 믿어야 합니까? 드보라가 자신의 리더십이 사적인 것으로 남도록, 또는 하나님이 실제로 택하신 지도자인 바락 아래에 숨도록 지도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드보라와 다른 이들의 사역을 묘사하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른바 상호보완주의적 선호에서 죄악 되게 벗어나 있었거나, 아니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525. 출처: www.bit.ly/3nXd763
526. 에이미 에틱슨(Amy Etikson)의 말입니다. 출처: www.bit.ly/2ZQo0Pj (p. 61)

쪽으로, 이 성경 속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을 영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규칙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성 목사는 없었는가?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는 사마리아로, 이어서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로 하나씩 퍼져 나가는 단계마다 여성들이 핵심 회심자로 여러 번 언급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차릴 것입니다.[527] 그러나 누가는 이 초대 교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때, 먼저 열두 사도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사역에 (사도행전 1-12장), 그다음에는 더 넓은 사도 집단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바울에게 (사도행전 13-28장) 초점을 맞추고, 예컨대 스데반, 빌립, 바나바에게는 부차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다른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여성이 맡았던 힘 있는 사역의 역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도 이런 여성들의 공헌을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여성들 가운데 누구도 교회의 장로나 목사로 명시적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복음의 전진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교회에서 최고의 목회적 권위나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 자신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슈라이너의 프로크루스테스적 진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은 주목할 만하고 의미 있었지만, 그것은 남성의 리더십을 결코 대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남성의 리더십을 돕는 역할을 했다."[528]

이 장에서 저는 초대 교회에서 여성들이 남긴 힘 있는 공헌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주장에 답하려 합니다. 또한 신약에 이름이 나오는 여성 교회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는 상호보완주의의 주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헌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른 남성들과 나란히 선 여성은 없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장로"와 "목사"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정치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목사와 장로에 관한 구절들을 다르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구분하지만, 이 장에서 저는 신약이 "장로", "목사", "감독"이라는 용어를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리키는 말로 바꾸어 가며 쓴다고 봅니다.[529]

527. 사도행전 5:14; 8:12; 16:13-15; 17:4, 12, 34 및 18:2.
528.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p. 216.
529. 사도행전 20:17, 28; 베드로전서 4:1-2; 디도서 1:5-7을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양을 돌보는 목자의 비유를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적용합니다. 성경에는 여성 목자들이 있었는데도,[530]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웬일인지 성경에 여성 목사는 없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약에는 여성 목사나 장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성경을 넘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 말을 어느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얻었는데, 그는 훨씬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여성 장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러분은 이것이 침묵에서 나온 논증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것은 침묵에서 나온 논증이다. 그러나 그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다."[531]

연구를 하면서 저는 초대 교회에서 이름이 나오는 남성 장로나 목사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적어도 열 명은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 장로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함께 장로 된 자들"에게 말하는데,[532] 이로써 그는 비록 본래 사도였지만 사역 후반에는 장로의 역할도 겸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가 자신의 직분이 아니라 나이만을 가리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곧바로 분명해지는 것은 신약이 베드로 외에는 어떤 목사나 장로의 이름도 알려 주지 않으며, 베드로조차 장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언급된 많은 교회, 아니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의 지도를 받게 되었음을 압니다.[533] 베드로가 장로였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왜 아무도 장로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분명히 이 정보는 신약의 여러 저자의 관심 범위와 목적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들에 이름이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목사나 장로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행히도 그들이 누구였을지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530. 창세기 29:9; 아가 1:5-8
531. 샘 스톰스. 출처: www.bit.ly/3CL3GNt
532. 베드로전서 5:1-2.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베드로전서 2:25)으로 불리시지만, 이것은 온 교회에 대한 그분의 유일무이한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장로"(요한이서 1:1)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련한 사도로서 그의 나이와 지혜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533. 사도행전 14:23, 데살로니가전서 5:12, 디모데전서 5:17을 보십시오.

장로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는 기준

어떤 상호보완주의 학자도 초대 교회에 여성 장로가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여성 장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과 반대로, 여성 장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제부터 논증하려 합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도, 서신서의 바울도 장로나 목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 장로들이 누구였을지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저는 신약에 이름이 나오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최고 리더십 팀에서 섬기는 목사였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다섯 가지 주요 지표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체포된 사람들은 아마도 앞에 서는 지도자나 교사나 목사였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어느 시점에 박해가 일어나 교회의 누군가가 체포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의심받는 공동체의 주동자나 공적인 대변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첫 회심자들이나 이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은, 이후의 회심자들을 돌보고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교부 클레멘스의 글에는 이것이 흔한 관행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셋째, 교회를 맞아들인 가정 지도자들은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자체의 전용 공간을 가진 현대 교회와 달리, 초대 교회는 대부분 보통보다 큰 집을 근거지로 삼았고, 그 집안 전체와 모임에 함께 온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런 가정 지도자들 가운데서 장로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 교회 지도자가 실제로 교회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교회를 개척하여 회심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세우고 가르친 사람들은 아마 교회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인정하건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빌립 같은 전도자나 바울 같은 사도가 교회를 시작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서 그 교회를 다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지만, 때로는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바울의 로마서 16장 명단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아마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서신의 끝에서 바울은 약 27명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긴

이름 목록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이방인 선교라는 최전선의 사역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한 동역자들에게 붙였던 바로 그 용어들을 붙입니다. 이렇게 지칭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 교회의 리더십 팀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초대 교회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타당한 지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로나 목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름이 나오는 남성 한 사람마다, 자격이나 기능에서 이 남성들과 하나하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름이 나오는 여성이 한 명 이상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해의 표적

어떤 집단을 박해할 때 거의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 지도자들을 골라내어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체포와 투옥의 표적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이치에 맞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당시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의 최고 지도자요 교사요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처형된 직후, 사울이 이웃 마을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박해를 이어 가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534] 실제로 이것은 그의 간증의 일부가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박해했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결박"했다고 회고합니다.[535] 바울이 보기에, 그가 박해한 신생 교회들의 많은 여성은 (단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들을 붙잡아 가두지 않고서는 그 운동을 멈출 수 없다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N. T.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들 역시 공동체 안의 지도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졌을 때에만 말이 된다."[536] 이것이 이 여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 교회의 최고 리더십 팀에 속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전도나 가르침이나 지도의 역할을 맡은 여성들만이 표적이 될 만했을 것입니다.

534. 사도행전 8:1, 3
535. 사도행전 22:4
536. 참조: www.bit.ly/3BEnYqo

교회의 여성 “첫 열매”

바울과 사도들은 흔히 신생 교회의 첫 회심자나 첫 교인을 지도자로 택했습니다. 성숙한 교회들은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닌 지도자를 뽑을 여유가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 생긴 교회들에도 어떤 형태로든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Clement of Rome)는 주후 95년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첫 열매”를 교회의 지도자로 택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537] 이는 사도행전 14:23에서 확인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때, 불과 몇 달 전 이전 여행에서 얻은 회심자들 가운데서 목사들을 세웁니다. 또한 많은 해석자가 스데바나를 고린도의 장로였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 교회에 “첫 회심자”(문자적으로 “첫 열매”)였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의 훌륭한 본보기였던 “이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합니다.[538] 그러므로 장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무르익은 사람이었습니다(조금 더 무르익은 정도였을지라도). 또 그들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쏟아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것은, 여성이 교회의 첫 회심자나 첫 교인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루디아는 유럽에서 바울의 첫 회심자였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었으며, 그 교회는 그녀의 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539]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맞아들인 여성들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던 부유하고 존경받는 가정 지도자 빌레몬이 아마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으리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이 그를 주께로 인도했고,[540] 그곳은 아마 에베소였을 것이며,[541] 바울이 가르침으로 그를 세운 뒤 골로새로 보내 그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542]

537. “사도들은 여러 지방과 고을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첫 회심자들을 성령으로 시험해 본 뒤 장래의 신자들을 위한 감독으로 세웠다 …” (클레멘스1서 42)
538. 고린도전서 16:16-17
539. 사도행전 16:13-40
540. 빌레몬서 3, 8-9, 19
541. 사도행전 19:9-10
542. 빌레몬서 1, 5, 7

그런데 잠깐만요. (일부 교부들이 그랬듯이[543]) 빌레몬이 골로새의 장로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눔바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녀가 골로새의 또 다른 가정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을 압니다.[544]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개척 전도와 세계 선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역 교회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 교회들을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맞아들이고, 짐작건대 이끌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흔히 가정 교회 지도자를 "다음 주에는 누구 집에서 모일까요?"라고 묻는 현대 소그룹의 장소 제공자와 잘못 비교하면서 이 점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세기 가정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가정 지도자는 대개 남성이었고 paterfamilias(가장)라고 불렸지만, 남편이 죽고 가장 연장자가 여성이라면 그녀가 materfamilias(여가장)로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자녀, 친척, 노예, 세입자를 포함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감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관계 능력, 조직 능력, 관리 능력이 필요했고,[545]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며 물질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의 지도자가 그 가정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눔바는 단지 문을 열어 준 것 이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교회들은 지역 전도와 회심자 양육의 근거지 역할을 했고, 이 모든 일에는 리더십과 훈련과 자원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교회 맞아들이기(hosting)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활동 근거지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거기서 집주인은 교회의 목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열쇠였다."[546]

그들이 경건한 삶의 이력이 있고 복음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면, 목회적 리더십을 맡을 이상적인 후보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2에 나오는 목사의 세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는 자들"(헬라어 kopiōntas), "너희를 돌보는" 자들(헬라어 proistamenous), 그리고 "너희를 권하는" 자들(헬라어 nouthetountas)입니다. "수고함"은 사역을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노동을 말합니다.[547] "돌봄"은 공동체에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관리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543. 예를 들어 다음 자료의 XLVI 단락을 보십시오: www.bit.ly/3CN1tRo
544. 골로새서 4:15. 눔바가 남성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회가 '그녀의'(autēs) 집에서 모였다"고 말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헬라어 사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45. 바울이 디모데전서 5:14에서 materfamilias에게 "집을 다스리라"고, 문자적으로는 집의 "전제 군주"(despot)가 되라고 권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546. 자민 휘브너. 출처: www.bit.ly/3BNaSY8
547. 데살로니가전서 2:9와 3:5를 보십시오.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548] "권함"은 바로잡는 가르침을 포함합니다.[549]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이런 책임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들은 바로 좋은 가정 지도자가 탁월하게 해내는 기술과 능력이었습니다. 더욱이 집주인들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주변 공동체에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550]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교회에서 지도적 권위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551]

초기 그리스-로마 환경과 1세기 교회의 형태에 관한 전문가인 브라이언 캐퍼(Brian Capper)는, 한 도시의 교회는 하나 이상의 가정 교회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바울 회중의 "세포" 구조로부터 … 지역 지도자가 여럿이었던 이유가 드러난다. 각 하위 집단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모였다. 그런 지도자 각자가 장로/감독이었으며, 각 도시에는 그런 이들이 여럿 있었다. … 고대 세계에서 집주인에게는 자기 집에서 열리는 모든 모임에 대한 최종 통제권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관습이었고 일반적인 예절이었다. 자기 집에서 교회 모임을 연 초기 그리스도인 집주인들은 언제나 신앙의 연륜이 더 깊었고 복음의 지역 후원자였기에, 지역 차원에서 회중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 사회적 지위, 성숙함, 너그러움, 카리스마, 사도의 위임이 한데 어우러져 이 복음의 지역 후원자들에게 권위를 주었다. … 장로에게 교회란 그야말로 자기 가정의 연장이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맞아들였기 때문이다.[552]

이것은 고대의 상황에 더 가까웠던 후대의 가부장적 독자들이 교회를 맞아들인 여성들에 대한 언급 앞에서 왜 주춤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필사자들은 눔바의 분명한 지도자 역할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녀의 이름을 남성형으로 바꾸어 "그"를 눔바스(Nympha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것보다 성경 인물의 성별을 바꾸는 편이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입니다.

요컨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낮았음에도, 사람들을 맞아들일 만큼 넓은 집을 가진 materfamilias는 같은 능력을 갖추었기에 교회 지도의 일에 paterfamilias와 똑같이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신약이 교회가 모였던 집들을 자세히 언급할 때 남성의 이름보다 여성의 이름을 더 많이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눔바와 루디아뿐 아니라,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근거지 역할을

548.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8에서 "다스리는 은사"와 관련된 기능에도 쓰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모든 부지런한 가정 지도자에게 기대되던 일에도 쓰입니다.
549. 고린도전서 4:14를 보십시오.
550. 한 예로 사도행전 17:5-7을 보십시오.
551. www.bit.ly/3bHJPmo
552. www.rb.gy/cmxtqm

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553] 그 집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글로에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고린도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우려를 알리려고 바울에게 갔던 글로에,[554] 곧 다시 다룰 브리스길라,[555] 그리고 아마도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불린 이름 없는 여성 가정 교회 지도자도 있습니다.[556]

여성 교회 개척자

목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지만 사도는 아닌 사람입니다. 남성의 예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아굴라입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도왔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맞아들였으며, 그 사역에 재정을 댔습니다.[557] 바울 아래에서 18개월 동안 훈련받은 뒤 그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이르매 바울이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558] 이는 그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단 한 번의 전도 설교로 얻은 몇몇 회심자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었던 듯합니다.[559] 바울이 떠나 있던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아굴라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맞아들였고, 그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560] 그는 계속 회당을 찾아가 복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어느 안식일에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561]

아볼로는 구약을 알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은 그분에 대해 들은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에는 아직 빈틈이 있었고, 아굴라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553. 사도행전 12:12
554. 고린도전서 1:11
555. 로마서 16:3
556. 상호보완주의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주장은 왜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그의 자녀들"과 구별되는지(요한이서 1), 또 왜 "그녀"가 요한이 요한삼서를 써 보낸 개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리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Scott McKnight, "The Elect Lady," Patheos (blog), September 18, 2014, www.bit.ly/3CMNSd1
557. 사도행전 18:1-3
558. 사도행전 18:18
559. 사도행전 18:19-21
560. 사도행전 18:27
561. 사도행전 18:24-26

이르더라." "풀어 이르다"(헬라어 exethento)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며, 바울의 로마 사역을 묘사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풀어 이르더라."[562] 아굴라가 우선한 것은 단지 회심자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사절들을 내보내는 일이었기에, 그는 아볼로에게 다른 도시로 가라고 격려했고, 그곳에서 아굴라가 그에게 베푼 신학 훈련은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563]

분명히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나 목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은 어디에서도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교회를 이끈다"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아굴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앞의 단락들에서 저는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빼놓았지만, 사도행전 18장은 그의 이름을 꼼꼼하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과 짝지어 놓습니다. 아굴라가 한 모든 일을 브리스길라도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맞아들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며 교회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거점을 세우도록 에베소에 두 사람 모두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자기들의 집에 새 회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지역 회당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다른 본문들의 증거에 근거해,[564] 우리는 아굴라가 에베소의 장로나 목사였다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약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 증거에 근거할 때, 그가 아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리더십이나 교회 지도자 지위를 누렸다고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소명과 사역에서 동등한 동료이자 동반자로 일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27명에게 이름을 불러 문안합니다. 이 초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가 아주 작았으니, 분명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교회 리더십 팀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였을까요? 가장 좋은 단서는 바울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562. 사도행전 28:23
563. 사도행전 18:27-28
564. 여기서는 사도행전 18장을 깊이 다루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저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부가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끈 역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증거도 다루었습니다. www.terranwilliams.com에 실린 제 글 "Was Priscilla a pastor?"(www.rb.gy/ttr2do)를 보십시오. 이 글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브리스길라라는 생각을 바로잡으려는"(disabuse Priscilla as a pastor) 마크 엘리스(Mark Ellis)의 시도를 반박합니다.

가운데 일부에게만 붙이는 표현, 곧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헬라어 polla ekopiasen en kyrio)과 "동역자"(헬라어 synergos)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기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용어들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 아볼로, 우르바노, 디도, 에바브로디도, 마가, 에바브라,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565] 이들은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보려는 그의 사업에서 주된 동반자들입니다. 바울은 또 "수고하다"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장로직의 핵심 기능을 가리킵니다.[566] 그것은 또한 그가 자신의 사역을 묘사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567]

분명히 바울은 "목사"(교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경우)나 "선교사"(새로운 지역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사역 직함을 쓰는 습관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주 안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교회가 복종해야 할 사람들을 묘사하려고 이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합니다.[568]

흥미롭게도 로마서 16장 명단에는 이런 용어들과 그 밖에 진지한 사역 공헌과 관련된 용어들로 묘사된 사람이 열 명 있습니다. 다음에 할 말을 들으시려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여성입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동역자"로 불리고(3절), 마리아(6절),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12절)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언급으로는 사도인 유니아(7절),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이자(1절)[569] 바울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patroness)인 뵈뵈

565. 로마서 16:21, 고린도전서 3:9, 로마서 16:9, 고린도후서 8:23, 빌립보서 2:25, 골로새서 4:11, 빌레몬서 24를 보십시오.
566. 데살로니가전서 5:12
567. 고린도전서 4:12; 15:10; 갈라디아서 4:11; 빌립보서 2:16; 골로새서 1:29; 디모데전서 4:10
568. 고린도전서 16:16.
569. 뵈뵈를 잠시 기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집사"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정말 집사였는지를 두고 논쟁합니다. "diakonos"라는 용어가 때로는 빌립보서 1:1에 언급된 집사 직분이 아니라 "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diakonos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특정 지역 교회와 명시적으로 연결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바울이 단지 "종"을 뜻했다면, 아마 "섬기는 자"(diakoneo)(로마서 15:25) 같은 동사형이나 일반적인 용어인 "섬김"(diakonia)(고린도전서 16:15)을 썼을 것입니다. 현재 분사(집사로 있는)는 지속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겐그레아 교회의"라는 한정어와 결합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N. T. 라이트는 이 용어를 "집사" 이외의 다른 뜻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종"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를 한 단계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뵈뵈가 교회의 유급 직원이었거나(무엇을 하는?), 아니면 달리 알려지지 않은 '종'이라는 사역 직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레이그 키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본문이 여성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독자는 아마 여기서 그 의미[집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일곱 곳에서 복음의 사도인 자신에게 이 용어를 적용하고(고린도전서 3:5; 고린도후서 3:6; 6:4; 11:23; 에베소서 3:7; 골로새서 1:23, 25), 복음 안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이 용어를 씁니다(에베소서 6:21; 골로새서 1:7; 4:7; 데살로니가전서 3:2; 디모데전서 4:6).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자기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역이나 책임 있는 직위를 맡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2절)가 있습니다. 또한 뵈뵈는 바울에게서, 자, 북을 울려 주십시오, 로마서를 맡아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교회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붙여집니다. 바울은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존중하며, 그들을 "복음에 [그와] 함께 힘쓴" "동역자"로 칭찬합니다.[570] "힘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synēthlēsan)는 승리를 얻으려고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는 운동선수나 군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자기 자신의 헌신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571]

N. T.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서 16장이 이 편지에서 가장 지루한 장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들을 연구하고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와 바울의 가르침이 실제로 얼마나 힘 있게 실천되고 있었는지에 놀라게 된다."[572] 이렇게 지칭된 여성들의 명단은 그들과 남성들 사이에 지위나 섬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바울이 사역의 칭호로 존중한 로마 교회의 이 여성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그들 교회의 최고 리더십 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니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들이 대부분 이동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신시아 웨스트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기독교에서 이 용어들은 후에 안수받은 성직자가 될 이들과 밀접하게 상응한다. 바울은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이 용어들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573]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사회적 힘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여성에게 공적인 목소리나 공동체 지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던 그 극도로 남성 우월적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리스도를 위해 중요한 사역에 나서고 있었으며 그 일로 사도 바울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그토록 여성에게 적대적인 문화에서도 여성이 사역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면, 우리 문화의 사회적 조건이 더 이상 그것을 막지 않는 지금,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 있는 공헌에 얼마나 더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은 그 교회들의 목사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저는 신약이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지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단서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 믿음에 먼저 들어와 다른 이들을 제자로 양육할

570. 빌립보서 4:3
571. 이 두 여성은 교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들이 서로 갈등을 빚자 바울은 일치의 중요성에 관해 편지 한 통 전체, 곧 빌립보서를 써야 했습니다.
572. www.bit.ly/3URMrTN
573.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ch. 8.

수 있었던 사람들, 자기 가정을 교회의 근거지로 바꾼 사람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그리고/또는 로마서 16장에서 사역의 성취에 대한 최고의 영예로 지칭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아니지만, 각 단서는 그런 사람이 그들 교회의 리더십 팀에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주 모두에서 이름이 두드러지는 여성이 한 명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박해의 주요 표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녀가 복음 안에서 그와 동역함으로써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574] 이는 교회 사역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적대적인 당국의 주목을 끌 만큼 컸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더 새로운 신자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첫 열매"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모두의 맨 첫 교인이었고, 두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무르익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에서 그녀는 바울이 없는 동안 첫 몇몇 회심자를 돌보고 제자로 양육할 남다른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지역 회당을 잠깐 방문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로, 나중에 (또 다른) 에베소의 목사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575]

그녀는 가정 교회 지도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녀가 자기 가정을 무려 세 교회, 곧 고린도, 에베소, 로마 교회의 활동 근거지로 바꾸었다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그녀와 남편은 오늘날 교회 개척자들이 할 법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새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도우려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했고, 전도했고, 회심자들을 모았고, 그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쳤고, 그들을 사역자로 길러 냈으며, 선교를 위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16장 명단에서 "동역자"로 불립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서 문안받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녀의 이름이 맨 처음입니다! 그녀의 사역은 너무나

574. 로마서 16:3
575. 제 글 "Was Priscilla a pastor?"(www.rb.gy/ttr2do)를 보십시오. 이 글에서 저는 사도행전 18:17-19, 27과 20:18에 근거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얻은 맨 첫 회심자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 두었고,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잘 알려져 있어서, 바울은 그 사역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감사까지 그녀에게 전합니다![576]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내놓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다섯 가지 범주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하나 이상의 교회에서 최고 리더십 팀의 일원으로 섬겼다는 거의 가장 강력한 본문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말하겠습니다.

요점을 확실히 하는 김에 그 함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심하게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살고 일했음에도 거의 확실하게 목사였던 1세기 여성 제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한 21세기의 강하게 평등주의적인 환경에서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을 기쁘게 목회 리더십 팀으로 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목사 브리스길라에 대한 반론들

제가 너무 빨리 나아갔다면, 잠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편처럼 정말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제 결론에 다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가 최고 지도자이자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흔히 네 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이 감독을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 나머지 세 가지 반론은 지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브리스길라가 단지 아굴라를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상호보완주의 진영에서는 "사역자 부부"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 용어가 아무리 멋지다 해도, 그 핵심만 남기면 그들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남편이 마땅히 지도자이고 아내는 그의 유능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하와가 아담의 "충실한 조수"였다는 존 파이퍼의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남편의 리더십 은사가 부부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아내가 자신의 리더십 은사를 발휘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아굴라는 목사였고 브리스길라는 단지 그의 놀랍도록 유능한 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 "지도자–돕는 자" 모델은 극히 개연성이 낮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가 언급되는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은 그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현대인의 귀에는 그것이 별 의미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가부장적 문헌에서는 아내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예컨대 신약에서 이름이 나오는 아내가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입니다.

576. 로마서 16:3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누가가 둘 다 각자의 글에서 그녀의 이름을 먼저 쓴다는 사실, 그리고 여섯 번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한 지 몇 절 뒤에 바울은 또 다른 부부를 언급하는데, 이때는 남자의 이름을 먼저 쓰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그녀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이었음을 보여 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좋은 가문 출신이고 아굴라는 낮은 가문 출신이었거나, 그녀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설명은 더 분명한 의미를 비켜 갑니다. 신약 저자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일관되게 먼저 쓸 때, 그것은 대개 그 사람의 사역상의 두드러짐(이는 다시 그 사람의 특정한 은사와 관련됩니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가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사도들의 명단에서 언제나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또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한 일을 언급할 때는 바나바를 바울보다 먼저 쓰지만, 그들이 마침내 선교 여행길에 오르고 바울의 설교와 기적 사역이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자, 그때부터는 바울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577]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부부들을 조사해 보니,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는 다른 세 부부뿐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랍비돗보다 먼저,[578] 여선지자 훌다는 살룸보다 먼저,[579] 마리아는 요셉보다 먼저 언급됩니다.[580] 이 모든 경우에,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더 두드러진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두드러지게 된 은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녀가 남편의 사역에 딸린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녀는 적어도 아굴라와 동등했고, 그녀의 공적 은사는 그의 은사만큼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장로”와 “목사”가 남성형 단어라는 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리스길라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존경받았더라도, 그녀가 결코 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바로 남자였고, 그러므로 장로도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577. 사도행전 11:26, 30; 12:25; 13:1-2에서는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바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첫 단계였던 바보 섬에서의 극적인 사역 이후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13, 42, 43, 46, 49; 14:1, 3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교회를 개척한 일을 묘사할 때, 그녀의 이름을 세 번이나 먼저 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18, 19, 26을 보십시오.
578. 사사기 4:4
579. 열왕기하 22:14
580. 마태복음 1:18

이 반론은 고대 헬라어가 모든 고대 언어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적(androcentric)이었다는 것, 곧 남성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이제 빠르게 남성 중심성을 버리고 있는 영어조차 여전히 양성 모두에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총칭적인 "he"(그)는 "he or she"(그 또는 그녀)를 대신할 수 있고, "mankind"(인류)와 "manmade"(인공의)는 여성을 포함하며, "chairman"(의장)이나 "fireman"(소방관) 같은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런 남성 중심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중성 없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형은 오직 한 여성이나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킬 때에만 쓰입니다. 한 남성이나 남성들을 가리킬 때, 또는 남녀가 섞인 집단을 가리킬 때에는 남성 명사형이 쓰입니다.[581]

베드로가 오순절에 군중 속의 수천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말할 때, 그는 그들을 "형제들"(adelphoi)과 "사람들"(andres, 남자들)이라는 남성 명사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언급할 때도, 여성들이 분명히 함께 있는 곳에서조차 남성형이 쓰입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묘사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많은 선지자를 언급할 때도, 여성들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남성형이 쓰입니다.[582] 또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adelphoi(문자적으로 '형제들')를 만나 보고 위로하니라."[583] 그런데 루디아와 다른 많은 여성이 그 남녀 혼성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도 그 집단은 집합적인 남성 명사로 묘사됩니다. 이런 남성 중심적인 언어 사용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때로는 지도자 직분에 있는 한 여성조차 남성 명사로 묘사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뵈뵈는 여성인데도 로마서 16:1에서 deaconess("집사"의 여성형)가 아니라 deacon(집사)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 장로들을 택하여"[584] 세웠다는 기록을 읽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장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가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았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물론 당시의 극도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많은 교회가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팀을 두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때 브리스길라가 그 교회에 있었다면, 반드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581. 때로는 문맥상 저자가 남성만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때에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하며, 때로는 독자가 여성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582. 고린도전서 11:2; 14:29를 보십시오.
583. 사도행전 16:40
584. 사도행전 14:23

제 요점을 보여 줄 상상의 한 장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그곳을 떠났고, 얼마 후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만을 근처 도시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하루 동안 지난 2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목회 사역을 위해 그들에게 새롭게 힘을 북돋워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그들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585] 모임은 그들이 바울을 둘러싸 울며 기도하고 그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이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불려 왔습니다.[586] 이제 브리스길라가 밀레도로 가는 여행에 함께하려 하자 아굴라가 "여보, 바울은 장로들만 오라고 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교회에서 남편과 조금도 다름없이 목사로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반론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남성들만 이끌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남성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사도행전 1-5장), 그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일을 도울 일곱 남자를 세운 것은(사도행전 6-8장) 사실이지만, 두 사실 모두 모든 교회를 위한 보편적 본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두 제자가 남성이었다는 것의 상징적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그것은 앞 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 지역 상황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일곱 남자를 선택하는데, 이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취약한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들 사이의 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대 문화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소외된 여성들이 그 일을 위해 (다른 여성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남성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겉보기에 남성 중심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로 풀려난 새로운 신학적 현실이 신생 1세기 교회에 스며드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 듯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초대 교회가 아주 최근에 받은 복음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관행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신약에 묘사된 "초대 교회" 시대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10년 동안 교회는 주로 예루살렘의 한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그 뒤 교회는 유대인 기반을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그곳에서 주로 이방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의 이런 발전에 따라, 유대인만의 리더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585. 사도행전 20:38
586. 사도행전 20:17

신학적으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었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처음부터 신학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없"었지만, 교회가 여성들을 더 온전히 세워 쓰는 일에서 더디게 진전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이 두 단계 가운데 어느 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가장 잘 공명합니까? 우리는 주후 35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마 주후 57년의 로마 교회에서 더 나은 길잡이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 분파가 아니었고(로마서 1-15장의 큰 주제), 더 이상 남성 지배적이지도 않았습니다(로마서 16장의 큰 주제).

결론적으로, 브리스길라가 목사였다고 믿을 좋은 이유는 많고, 그렇지 않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브리스길라에게만 너무 매달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또 다른 여성이 언급되는데, 그녀의 사역 이력은 역사 속 교회와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을 축소하는 것을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사도 유니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한 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또 다른 부부를 칭찬합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나의 동족 유대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587]

우리는 때때로 세계 교회의 첫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역이 모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인식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여기 사도행전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분명 엄청나게 중요하고 새 길을 여는 사역을 했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아직 그 도시에도 그 교회에도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가 개척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부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봅니다. 바울처럼 유대인이었던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었고,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예루살렘 신자들의 핵심 그룹에 속했다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더 넓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들의 결혼에 상호보완주의의 "지도자-돕는 자 패턴"을 읽어 넣을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587. 로마서 16:7

똑같은 칭찬을 동시에 돌림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사역자 부부로 대합니다. 둘 다 사도이고, 둘 다 개척 사역에서 뛰어났으며, 둘 다 투옥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계주의 해석자들은 오랫동안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그녀의 사역을 축소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유니아가 여성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 후기까지는 여성으로 인정되었지만,[588] 14세기 로마의 아이기디우스(Giles of Rome)는 그녀가 사도로 불렸다는 이유로 그녀를 남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환"은 한 학자의 표현대로 "남성 우월주의적 상상력이 지어낸 허구"였습니다.[589] 유니아(Junia)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로마 제국에서 흔한 여성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고대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검색해 보아도, 남성 이름이라고 하는 유니아스(Junias)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590] 20세기에 그녀를 남성으로 부르는 경향이 다시 일어났지만, 이제 40년 가까이 학계의 합의는 그녀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왔습니다.[591] (일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여전히 다르게 주장하지만 말입니다.[592])

둘째,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001년에 두 상호보완주의 학자가[593] 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높이 존중받았다"라고 번역하여 그녀를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으로 만든 ESV 번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의 주장(그리고 그에 따른 이 구절의 ESV 번역)은 동료 평가(peer review)라는 원칙을 견뎌 내지 못했습니다. 린다 벨빌(Linda Belleville), 엘던 엡(Eldon Epp), 리처드 보컴 같은 본문 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어휘와 문법을 분석한 뒤 이 주장을 곧바로 논박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이해와 일치하게, 이 구절을 유니아가 여성이자 사도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594]

588. 다음을 보십시오: Paul Jewett, Romans, p. 961–62. 예외는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315-403)인데, 그는 남성 유니아스를 언급하지만 로마서 16:3의 브리스길라도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을 만한 증인에서 제외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Eldon Epp, Junia, p. 34.
589. Paul Jewett, Romans, p. 962.
590.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276
591. 예를 들어 M. J. 라그랑주(M.J. Lagrange), 레온 모리스, 존 지슬러(John Ziesler), J. A. 피츠마이어(J. A. Fitzmyer), C. E. B. 크랜필드(C. E. B. Cranfield), 제임스 던(James Dunn) 같은 최근의 로마서 주석가들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
592. 그러나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와 더글러스 무 같은 대부분의 원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과 사실상 모든 현재의 주석가들은 그녀가 여성이었음을 인정합니다.
593. 마이클 뷰러(Michael Burer)와 대니얼 월리스(Daniel Wallace), "Was Junia Really an Apostle? A Re-examination of Romans 16:7" NTS 47 (2001), p. 76–91.
594. 다음을 보십시오: Linda Belleville, "A Re-examination of Romans 16:7 in Light of Primary Source Materials," NTS 51 (2005): p. 231–49; Eldon Epp, Junia: The First Woman Apostle; Richard Bauckham, Gospel Women, p. 165–85.

그들의 논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톰 슈라이너조차 마침내 그녀가 여성이자 사도였음을 인정했습니다.[595] 하지만 그는 동시에 또 다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슈라이너는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단어는 아마 '교회 개척자들'이나 '선교사들'을 가리킬 것이며, 따라서 유니아와 안드로니고를 열두 사도나 바울과 같은 수준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596]

그러나 슈라이너는 사도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지만, 신약에는 세 종류의 "사도"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의 사도는 예수님이 아직 땅에 계실 때 택하신 열두 사도입니다. 다음은 둘째 유형의 사도입니다. 이는 바울, 바나바, 야고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사도 집단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지금 일으켜 보내실 수 있는 이들입니다.[597] 신약에서 사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모두 이 두 용법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교회 이야기가 수십 년쯤 진행된 뒤 로마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사도들"이 더 이상 열두 사도가 아니라 더 넓은 집단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유형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교회가 중요한 임무, 특히 재정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 선택해 보낸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단 두 곳에서만, 이 단어는 지역 교회가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교회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겨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로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내고,[598] 여러 교회는 각각 누군가를 선택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재정 헌금을 함께 전달하도록 보냅니다.[599] NIV는 여기서 이 단어를 "representatives"(대표자들)로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니아가 "사도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때 어느 유형을 가리킵니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열두 제자"라고 부르는 첫째 유형의 사도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600] 또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띤, 교회들의 셋째 유형 대표자에 불과한 사람들도 거의 확실히

595. 1995년의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p221)에서 그는 유니아가 사도라는 어떤 확실성에도 이의를 제기하지만, 2005년의 "Two Views of Women in Ministry"(ch. 1)에서는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립 페인의 책 "One in Christ"에 대한 서평에서 그는 페인에게 동의합니다. "유니아는 거의 확실히 여성이었고, 바울은 그녀를 사도로 밝힌다." (출처: www.bit.ly/3qaJctI)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에 동의하는 다른 최고 수준의 상호보완주의 학자로는 로마서 주석(p. 923)의 더글러스 무와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p. 153)의 쾨스텐버거가 있습니다.
596. 슈라이너가 "Two Views of Ministry", p. 105에서 한 말입니다. 더글러스 무도 로마서 주석 p. 922에서 비슷한 논증을 합니다.
597. 사도행전 14:14, 고린도전서 9:5-6, 갈라디아서 1:19를 보십시오.
598. 빌립보서 2:25
599. 고린도후서 8:23
600. 고린도전서 15:5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바울이 보냄을 받은 대표자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쓰는 두 곳에서 소유격 대명사로 그것을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사도"이고, 헌금을 전달하는 이들은 "교회들의 사도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둘째 유형의 사도는 어느 지역 교회의 대표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단순히 "사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단지 어떤 교회의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헌금을 전달한 이들도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투옥될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지만, 유니아와 그녀의 남편은 투옥되었습니다. 둘째 유형 사도의 일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울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위임을 받아 큰 대가를 치르는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며, 그 교회들의 교리를 정하고, 목사를 길러 세우고 안수하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더 넓은 사도 집단 안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몇몇처럼 그도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도 부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슈라이너가 유니아를 단지 "교회 개척자"나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그녀를 바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지 우리는 의아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보기에 유니아가 자신과 동등한 사람임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녀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다[곧, 그 무리에서 으뜸이다]"라는 말이 달리 무엇을 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리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니아에게 그토록 감명받은 이유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오래 사도의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녀는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슈라이너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니아를 바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려는 그의 시도는, 그녀를 자신과 더 비슷한 존재로, 아니 자신보다 더한 존재로까지 만들려는 바울의 시도와 정반대로 갑니다. 어쩌면 슈라이너는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로마서 16장에 대한 고대 주석에서 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사인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덕스러운 행실로 뛰어났다. 참으로 이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컸기에 사도라는 칭호에까지 합당하다고 여겨졌겠는가."[601]

우리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유니아는 여성이었고,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둘째 유형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601. John Chrysostom, Homily 31 on Romans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사도직이라는 사역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은 두 곳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령께서 세상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첫째"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602]

이것은 단순한 질문 하나를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서 16:7이 사도였던 한 여성, 곧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사역에 속했던 여성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여성이 지역 교회 지도자를 포함해 그보다 낮은 어느 차원의 사역에서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성이 교회에서 높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상호보완주의의 믿음과 너무나 모순되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학자들이 왜 그토록 애를 써서 유니아의 성별과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려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603]

여선지자들

신약에는 여성 사도(유니아), 여성 전도자(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목사이자 교사인 여성(브리스길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11에 언급된 다섯 가지 리더십 직분을 떠올리게 합니다("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라."[604]). 이는 다시 우리가 이 장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곧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성경의 여선지자 전통(미리암, 드보라, 훌다를 포함)을 이어받고, 여자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신약에는 이름이 나오는 여선지자가 여럿 있습니다. 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빌립의 네 딸입니다.[605]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이름 없는 여성들도 인정합니다.[606]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한 여선지자이자 교사이며 어쩌면 지도자였을 여성을 꾸짖으시고, 회개할

602. 고린도전서 12:28-29. 에베소서 4:11도 보십시오.
603.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함의는, 브리스길라를 목사로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니아가 남편과 사도 직분을 함께 맡았다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와 목회 리더십 직분을 함께 맡는 것도 통상적인 일이었으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4.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은사를 여러 사람(여성 포함)에게 주어진 기능으로 말하지만, 에베소서 4:11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특정 지도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605. 누가복음 2:36; 사도행전 1:14와 2:17; 사도행전 21:9
606. 고린도전서 11:4

시간까지 주십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성으로서 가르치고 예언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부도덕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607]

신약에서는 덜 흔한 선지자의 리더십 직분(에베소서 4:11에 언급됨)과 더 흔한 예언의 은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본문에는 여성이 은사만 가질 수 있고 직분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선지자 직분을 맡았던 여성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608] 고린도전서 14장을 분석하면서 데릭 모퓨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바울에게 예언은 특정한 종류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선지자의 가르침은 교사의 가르침과 겹치며, 그것이 주어지는 방식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받는 지위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609]

교사와 선지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교사를 선지자보다 높은 서열에 두는 경향이 있는 현대 교단들은, 가르침은 신뢰할 만하므로 권위가 있지만 예언은 더 즉흥적일 수 있으므로 권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신약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실제로는 교사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모두 참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어야 하지만, 둘 다 참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교회들이 분별해야 합니다.[610]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을 거짓 예언과, 따라서 가르침을 예언과 한데 묶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611] 가르침과 예언이 이처럼 개념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예언이 [성경적] 설교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장 칼뱅조차 예언을 '현재의 필요에 적용된 성경 해석'으로 보았다."[612]

신약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가르침은 "공식적인" 사역이고 예언은 "비공식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 방식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613] 바울이 에베소서 4:11에서

607. 요한계시록 2:20-24
608. 고린도전서 14:26
609. 데릭 모퓨는 "Equal but Different"에서 E. E. 엘리스(E.E. Ellis)의 "Prophecy and Hermeneutics in Early Christianty"(p. 141)를 인용합니다.
610. 고린도전서 14:29; 요한계시록 2:20, 24
611. 베드로후서 2:1
612.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6.
613. 케빈 자일스는 한 상호보완주의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언의 권위 있는 기능은 제도화된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발언에 있다."(ch. 6) 그러나 이 논증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가르침에는 고유한 권위가 없다. 권위 있는 것은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발언'이다."

언급하는 다섯 가지 리더십 직분 밖에서, 바울이 "공식적인" 사역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표현하는 데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곳은 에베소서 2:20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교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목사나 교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28에서 바울은 직분들을 가장 두드러지고 전략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덜한 것까지 차례로 배열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우리에게는 가르침에 예언보다 더 높은 서열을 부여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선지자가 교사보다 서열이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과 예언은 둘 다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고 하나님에게서 온 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요컨대, 여성은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사역에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목사나 교사는 될 수 없다는 상호보완주의의 논증은, 많은 현대 교회 환경에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신학과는 모순됩니다.

교회사에서 나온 논증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목사로서의 브리스길라와 사도로서의 유니아를 모두 반박하려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아는 한 교부들은 2세기 이후로 여성을 지도자나 교사로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를 점점 더 엄격하게 단속했습니다.[614]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2장에서 우리는 많은 교부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았듯이,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놓쳤고, 성경의 렌즈로 그들의 문화를 읽기보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렌즈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기리는 신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성 혐오가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여성의 열등함과 종속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어,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여성 집사를 안수한 교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지만, 온갖 주제에 대해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교회사를 비판하기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몇 세기 동안 교회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정의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교회 리더십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에서는 빠르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말에 이르러 신약이 강조한 복수 리더십 체제는 버려졌습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각 교회가 단독 감독제(monarchical episcopate), 곧 한 사람의 목사에 의해 이끌어지도록 지도했는데, 이 생각은 지금도 널리 실행되고 있습니다.

614. 적어도 일부 여성이 교부 시대에 교회의 장로(presbyter)로 안수받고 있었다는 것은, 주후 370년 라오디게아 공의회 같은 공의회에서 그런 관행을 금지했다는 사실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야 장로교인들 같은 그룹들이 복수 리더십 체제라는 생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단 전체가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천 년 넘는 "교회사"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그 이탈이 신약이 처음부터 가르쳐 온 것을 재발견한 데 근거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사에 그토록 만연했던 여성의 열등함과 종속을 모두 거부하는 것도 신약이 처음부터 가르쳐 온 것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지난 세기에 인류 역사는 대체로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사회의 키를 잡도록 허락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수 리더십 체제로 운영되는 많은 교회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단독 감독제의 여러 세기 동안에는 한 남성만이 교회를 이끌었으므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많은 여성이 둘째 단계의 사역에서 그와 나란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 리더십 체제를 되찾은 사람들이 리더십 팀의 모든 사람이 남성이어야 한다고 전제하자, 이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남성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학자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재발견한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목사였고, 유니아가 사도였으며, 여선지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활동에서도 여성을 배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된 성경 이해에 근거해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치시며, 복음의 함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피하려고 전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615]

"성경적" 대 "성경주의적"

제가 이 모든 말을 했는데도, 어떤 이들은 브리스길라나 다른 여성이 목사였다는 것이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은 한, 우리는 신중한 쪽을 택해 오늘날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문제는, 신약에서 어떤 이방인이나 노예가 장로로 안수받았다는 절대적인 확실성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였을 수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자유인 유대인 남성인 베드로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615. 마태복음 15:2-6

이방인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까?[616] 우리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예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 장로를 두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방인 장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도록 의도된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biblical) 접근이 아니라 성경주의적(biblicist) 접근입니다. 성경주의적 접근은 뒷받침하는 구절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적 접근은, 그 관행을 정확히 규정하는 근거 구절을 찾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원리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교회의 선교에 관해서라면, 증거 본문을 찾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움에 찬 성경주의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맞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선교 지향적인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는 수많은 일에서 이미 우리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악기와 음향 장비를 사용하고, 전문 중보기도 팀을 조직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지도자 양성 과정을 만들고, 여러 명의 사역자를 고용하고, 성경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건물을 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서로, 그리고 어른들과

616. 현재 교회에서 우리는 왜 이방인을 안수하는 것을 그토록 편안하게 여길까요? 이방인 장로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 논증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 장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증에서와 똑같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이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헬라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헬라인 디도는 장로가 아니라 사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기에 이방인이라기보다 유대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이방인이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장로가 아니라 사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그는 장로가 아니라 여행 동반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어느 도시에서든 먼저 유대인에게 가고 그다음에야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었으므로, 그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무리 가운데서 장로를 세웠으리라는 것은 적어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듣고서 그 때문에 이방인이 장로가 되는 것을 금지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성경의 예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 장로로 섬기는 것을 막으려 할까요? 누군가 이방인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변호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음 네 가지 논증 가운데 하나를 들 것입니다. 1) 갈라디아서 3:28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구절이 성별에 대해서도 같은 것, 곧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지붕 위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 뒤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부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순절에 여성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것이 증명하듯이, 여성들도 온전한 일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디도 같은 헬라인 사도 대리인을 지적하여, 장로처럼 권위가 더 낮은 사람들도 헬라인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권위의 스펙트럼에서 디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도 유니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로마 제국과 1세기를 넘어서면 이방인만 있는 문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유대인을 찾을 수 있었던 신약의 마을과 도시들과는 다릅니다(팔레스타인 밖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1세기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달리 평등주의적 문화 속에 있다는 평등주의의 논증과 같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신약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묘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성 목사를 세울 자유는 성경에서 그와 나란히 가는 강조점을 지닌 방향입니다. 교회 안에 여성 전도자, 여성 가정 지도자, 여성 교사, 여성 선지자, 여성 집사, 여성 사도가 분명히 있었고, 이를 분명하게 금하는 성경 말씀이 없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성 장로를 세우시고 그것이 선교에 유익한 상황에서는—오늘날 대부분의 평등주의 문화가 그렇습니다—여성 장로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일입니다. 자민 휘브너가 말하듯이, "장로직이나 목회직을 이 다른 기능들과 구별된 별도의 특별한 범주로 따로 떼어 놓아서, 한쪽 성이 한 역할에서는 자동적으로, 보편적으로, 영구적으로 배제되면서도 다른 기능은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617] 신약 시대에 남성만 장로였다고 확신할 수 없고, 여성의 장로직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말씀이 전혀 없으며, 브리스길라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였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가 여성 지도자와 교사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사역하도록 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적 은사를 인정하는 지도 원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617. 자민 휘브너가 박사 학위 논문 "A New Case for Female Elders"에서 한 말입니다. (출처: www.bit.ly/3BNaSY8 p.171)



13

은사(로마서 12장) 대 성별(디모데전서 3장)

"성별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걸러 내면, 하나님께서 …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엇이든 결국 벽장 선반 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은사들을 거부당할 때 생길 수 있는 좌절감도 그 결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인격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 무시당했을 때 겪는 분노나 슬픔이다." 앨리스 매슈스(Alice Mathews)[618]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치르게 하는 대가 가운데 하나는 인구의 절반이 기여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 가운데 너무나 자주, 다른 이들이 그 일에 더 적합할 수 있는데도 자신이 승진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기여를 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멀린다 게이츠(Melinda Gates)는 리더십 분야의 여성에 관한 2019년 저서에서 성평등의 저울을 균형 있게 맞추는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거나, 세상을 개선하는 최선의 길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남성 지배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배든 해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가 거짓된 위계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그런 위계 안에서는 권력과 기회가 기술, 노력, 재능, 성취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별, 나이, 부, 특권에 따라 주어진다.[619]

교회가 성별을 근거로 지도자와 교사를 선택할 때에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부장적 성격이 매우 강한 상황(예를 들어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외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남성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선교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림돌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은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분명해 보입니다.

618. Alice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3
619. Melinda Gates, The Moment of Lift: How Empowering Women Changes the World

바울이 로마, 에베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가 어느 시점에 이끄는 일을 도왔던 교회들입니다)에 나오는 여러 영적 은사 목록[620]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로마 교회가 여성들을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역할로 그토록 편안하게 풀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역할을 나누는 기초가 은사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니, 예언하는 은사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고, 주는 일이라면 너그럽게 주고, 이끄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이끌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면 즐거움으로 하라.[621]

만일 바울이 어떤 역할은 성별에 따라 제한된다고 믿었다면, 바로 이곳이 그 말을 하기에 완벽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는 바울이 이 은사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라도 여성을 배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622] 편지 끝까지 읽어 가다가, 예를 들어 증거로 볼 때 남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브리스길라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설명을 얻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는 가르침과 리더십의 영적 은사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영적 은사

지위나 민족이나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직분과 기능으로 풀어 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반면에 영적 은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앞의 것은 인간의 선호에 근거하고, 뒤의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그의 걸작인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실제적인 하나 됨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3장과 로마서 1-11장에서 그는 하나 됨의 신학적 기초로 시작하고, 이어서 에베소서 4-6장과 로마서 12-15장에서는 그 하나 됨을 실제로 살아 내는 데 필요한 경건을 자세히 풀어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12:3-8과 에베소서 4:11-16에 나오는 평등을 드러내는 영적 은사에 관한 가르침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하나로 붙여

620. 에베소서 4:11,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6-8을 보십시오.
621. 로마서 12:6-8
622. 남성 대명사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if it is teaching, then let him teach”(가르치는 일이라면 그로 가르치게 하라)와 같은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주는 접착제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포함한 은사들을 민족과 상관없이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불균형을 다루는 바울의 신학적 논의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상관없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그의 가르침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그리고 덧붙이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가 보기를 기대하는 하나 됨을 촉진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회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하나 됨을 세우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성별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교회인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일에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도록 풀어 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억누르는 일의 위험

디모데전서 2:12를 어떤 여성도 어떤 남성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금지로 잘못 해석하는 일의 비극은, 그것이 성령께서 이런 은사로 능력을 주신 여성들에게 구속복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어린이와 다른 여성들에게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모욕할 뿐 아니라—그리고 이것이 저의 진짜 염려인데—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교회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상호보완주의를 세운 한 여성은, 남성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은사 위에 베일을 덮으라고 사실상 조언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이라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불명예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사용할 기회를 포기할 것이다."[623] 마찬가지로 케빈 드영도 "여성들에게는 가르침과 리더십의 은사를 포함한 중요한 영적 은사들이 있다"라고 인정한 뒤에, 그럼에도 이 은사들을 남성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습니다. "어린이와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 여성의 은사를 낭비하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624] 그러나 다른

623. 도로시 패터슨(Dorothy Patterson)이 "Women in the Church" (2nd Edition), ch. 6에서 한 말입니다.

신자들의 기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해를 끼치는 정서를 경계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625]

저는 방금 유급 교회 사역을 그만둔 매우 탁월한 은사를 지닌 한 여성 지도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의 남성들에 의해 교회에서 자신의 기여가 밀려나고, 불신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자이자 전 학장으로서 80대인 앨리스 매슈스도 평생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은사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전, 남편과 내가 유럽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나는 침대에 앉아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있었다. 달란트 비유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니,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겠습니까?” 성별이 은사를 이겨 버렸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드물지 않은 경험이다.[626]

상호보완주의 교회는 개인들에게 상처를 줄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 전체의 선교적 효과도 가로막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 저는 가까운 한 교회가 성별에 상관없이 은사를 따라 남성과 여성을 풀어 주면서 수천 명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끕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설교합니다.

존 파이퍼와 톰 슈라이너는 남성만 이끌고 여성은 그 남성들을 돕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이끌고 가르치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얼마 동안 몇 차례, 저는 하나님의 영께서 여성의 기여가 억눌리는 것에 대한 그분 자신의 슬픔을 제게 나누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번은 어느 상호보완주의 운동의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한 여성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해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15분 동안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메모를 하며 그녀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적으로 박식한 한 남성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신학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지침을 충실히 지켰는데도 말입니다. “여자가 강단 뒤에 서면 소름이 끼쳐.” 그의 말에 저는 슬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시는 것처럼 그녀를 보지 못했기에, 그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24. 출처: www.bit.ly/3k2AA4x
625. 고린도전서 12:21
626. Alice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3

단 하나의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교회에 강요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남녀가 함께하는 전도, 제자 삼기, 목양, 리더십, 교회 개척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었을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위험을 안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은사가 작동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627] 성령께서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7장에서 제시했듯이, 열린 마음을 가진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들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구속복을 입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한 여성을 사용하여 우리를 섬기실 때 소름이 끼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왜곡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시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임의로 부시며"[628]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변자를 누구든 세우시는 분입니다.[629] 고든 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증거는 성령께서 성별을 포괄하시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하여 잠재적으로 몸 전체를 자유롭게 하여 모든 지체가 섬기고 여러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나의 관심사는 여성 사역이라는 의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의제이며, 교회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속박과 구조로부터 성령을 풀어 드리자는 호소이다.[630]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사를 억누르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그 은사에 상한선을 씌우는 것, 또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 은사가 애초에 발견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허비할 때

교회 역사에는 여성 사역이 순간적으로 크게 분출한 때들이 있었지만, 1900년 이전의 교회 역사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교회를 이끈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망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한 가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온갖 은사를

627. 에베소서 4:16
628. 요한복음 3:8
629. 출애굽기 15:20; 사사기 2:16; 4:4; 에스더 4:14
630. 출처: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2005, p. 254.

지닌 사람들을 앞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도주의의 힘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된 방침과 절차를 세워,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을 대신하게 합니다. 한때 은사가 이끌던 것을 이제는 직무 기술서를 지키는 일이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수 세기에 걸친 부흥들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은 새 포도주가 쏟아부어지는 모습입니다. 여성들을 포함해서 온갖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등장하여 이끌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양합니다. 지난 세기 초의 오순절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수많은 여성이 전도와 설교와 개척적인 리더십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제도주의가 슬며시 들어오고, 교회는 "전문" 사역자(소수의 엘리트가 하나님의 일 대부분을 하는 것)와 (때로는 은사가 덜한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되돌아갑니다. 마리아 보치아(Maria Boccia)는 Hidden History of Women Leaders of the Church에서 교회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이 슬픈 양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리더십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카리스마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을 때, 여성들은 포함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더십은 제도화되었고, 세속의 가부장적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으며, 여성들은 배제되었다."[631]

이것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한, 로마서 16장에 묘사된 것 이후로 교회에 남녀가 함께하는 리더십 팀은 결코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지 수십 년 만에, 강력한 가부장주의와 제도주의가 교회를 단단히 휘감았습니다. 예를 들어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를 서열화된 직분자의 계층을 지닌 로마 사회의 축소판으로 새롭게 그려 냈고, 그리하여 목회자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은사의 역동적인 사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성직자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고, 남성만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어떤 여성도 이끌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 교회는 자신의 구속적 잠재력의 일부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하십니다(그분은 완전한 교회를 가져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 교회 (또는 교회들의 운동)가 성령의 공급의 일부를 잃지 않으려면, 통치의 위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리더십과 가르침의 근거를 성별에 두는 낡은 가죽 부대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초대 교회와 그 뒤에 일어난 수많은 부흥이 무언가를 보여 준다면, 더 나은 가죽 부대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곧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의 은사에 상한선을 씌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 은사를 알아보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631. 출처: Journal of Biblical Equality, September 1990, p. 58.

사회적 여건은 은사의 계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저는 여성 해방 운동이 거둔 성공을 기뻐합니다. 특히 그들이 교육과 직업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일을 기뻐합니다. 큰 그림, 곧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풀려날 때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수백만 명의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을 여성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회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세상의 역사에서 낭비된 모든 재능과 은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교육이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도 해당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빛을 보지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열려 보지도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토록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과거의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성별을 제한하는 신학을 가진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신학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지닌 여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 은사가 발견되고 계발되더라도 남성이 없는 방으로 그 은사를 제한합니다.

저는 평등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의 사회적 여건은, 제 딸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회에서 어떤 직업적 기여든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더 높여 줍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그녀의 사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위계주의 학자들이 흔히 제기하는 반론을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근거가 성별이 아니라면, 왜 디모데전서 3:2는 목회자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질문은 그 구절 자체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해석 방법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합니다.

로마서 대 디모데전서: 규범적 서신 대 교정적 서신

그 표현이 나오는 단락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며**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리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력을 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되, 온전히 존경받을 만한 방식으로 그리할지니 (사람이 자기 가족[문자적으로는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와 같은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수치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632]

이 단락은 그레데 섬에서 사도적 사역을 하던 디도에게 주어진 장로의 자격 요건 목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633] 둘의 차이는, 디모데전서 단락이 이어서 집사들에 대한 비슷하지만 더 짧은 자격 요건 목록을 덧붙인다는 점입니다.[634] 세 부분 모두, 곧 장로에 관한 디도서의 부분과 장로와 집사에 관한 디모데전서의 두 부분 모두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이라는 표현을 자격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로마서 12장 및 16장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남성이라는 것이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은사와 부르심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6장을 디모데전서 3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만일 제가 제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그의 삶을 위한 최선의 지혜도 나누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편지를 써서 그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잘못 처리한 방식에 대한 염려를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조언했다고 합시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 아이가 앞의 긍정적인 편지로 뒤의 교정하는 편지의 틀을 잡기를 저는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과 16장이 디모데전서 3장의 틀을 잡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7장에서 보여 주었듯이, 디모데전서 전체는 주로 교정하는 어조를 띠고 있으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해를 입은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 단락들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진리들을 주의 깊게 발굴해 내야 합니다.

다시 제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제 딸이, 제가 그녀의 오빠에게 그의 삶의 엉망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쓴 편지를 읽는다면, 저는 그녀가 그 편지에서 제가 한 말을 모두 생각 없이 적용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적용하면, 로마서는 제가 다섯 아이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쓰는 회람 편지에 더 가깝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주로 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가 말하는 거의 모든

632. 디모데후서 3:1-7
633. 디도서 1:6-9
634. 디모데전서 3:8-12

것이 어느 곳의 어느 교회에든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그 교회에 가 본 적조차 없어서,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교회에 쓰듯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정 회중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도전들을 헤쳐 나가는 특정 지도자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은, 그 내용을 모든 교회에 적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단락으로 더 흐릿한 단락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처음 읽을 때에는 충분히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많은 단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곧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분명한 단락이 더 흐릿한 단락에 빛을 비추어야 하므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 시도는 로마서 12장과 16장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635]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읽는 두 가지 방법

성별과 교회 리더십에 관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이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들의 장로는 남성이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곳의 모든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울이 그 그리스-로마 교회들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가장 적합한 장로는 paterfamilias, 곧 남성 가장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예외도 가능하다고 읽는 것입니다.[636]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은 읽기라고 제안합니다. N. T. 라이트가 말하듯이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독을] 남성으로 지칭하지만 … 이는 그리스어 문법이 보통 두 성을 함께 지칭하기 때문이며, 또 교회 초기에는 대부분의 공동체 지도자가 아마 남성이었기

635.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떤 특정 부분을 해석하든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교정적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규범적 서신인 로마서의 렌즈를 통해 읽는 것이 그 반대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636. 이 책을 다 쓴 뒤에 저는 앤드루 바틀릿의 "Men and Women in Christ"를 읽었고, 315-327쪽에서 세 번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따라서 성별을 포괄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래서 감독이 남성일 것이라고 전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11절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부록 5에서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저는 그의 관점으로 갈아탔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이 단락을 여성을 목회 역할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여성을 이 특정한 사역과 소명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637]

라이트가 "그리스어 문법은 보통 두 성을 함께 지칭한다"고 말할 때 그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우리의 영어 번역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는 어휘는 주로 성별을 포괄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638]에 나오는 "누구든지"(tis)라는 바울의 단어는 성별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디모데전서 3장의 목록에도 디도서의 목록에도 남성 대명사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의 감독에 관한 목록의 영어 번역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his … He … his … his … him …he … his … he … He … he … He … he …"(그의 … 그는 … 그의 … 그의 … 그를 … 그는 … 그의 … 그는 … 그는 … 그는 … 그는 … 그는 …). 이것은 원래의 독자들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방식으로 거의 모든 줄에서 남성을 떠올리도록 우리를 오도합니다.

성별을 포괄할 이러한 가능성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문자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목록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읽을 때 남성을 암시하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실제로 이 문맥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반적인 사람 누구에게나 쓰이는 표현입니다. 물론 오직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한 남편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디모데전서 5:9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지만 바울은 고대의 남성 중심적인 다른 그리스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집단에 두 성이 모두 포함될 때 어떤 표현의 남성형을 사용했으므로, 여기에서도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남성 중심적으로 표현된 율법을 인용하실 때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639] 이 율법은 이웃의 남편을 탐내서는 안 되는 아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남성이라는 것이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의 요점이 아니라면, 무엇이 요점일까요? 이 표현은 혼인과 성생활에서 일부일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배우자가 둘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합니다.[640] 슈라이너 같은(그리고 다른)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조차 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637. Tom Wright, Paul for Everyone: The Pastoral Letters, p. 29
638. "누구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라는 같은 단어(tis)가 5절에, 그리고 디도서 1:6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남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tis) 나를 따라오려거든 …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24)
639. 마가복음 10:12
640. "한 아내의 남편"은 그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이해해야 하는 관용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mailman"(우편집배원)이나 "chairman"(의장)처럼 "man"이 들어간 직함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 대상이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성이 기본 성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Philip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ch. 24의 논의를 보십시오.

1:6-9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 요건은, 그들이 한 여자의 남자여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하여,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여성이 장로로 섬기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641]

그러나 (그렇게 볼 실질적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 목록에서 특별히 남성만을 지칭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울이 기껏해야 그 상황에서는 장로가 아마 남성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었을 뿐, 이것을 반드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엄격하고 확고한 규칙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자를 선택할 때 디모데전서 3장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장로가 이끄는" 교회들에서 섬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도 바울이 말한, 상황에 더 좌우되는 자격 요건들을 누가 이끌 수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법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품과 관련된 자질("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계적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자질("다스릴 줄 알며"), 교리적 지식과 관련된 자질("가르치기를 잘하며")은 보편적이라는 데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언급된, 상황에 더 좌우되는 요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구속력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나이가 많고("장로"라는 말은 연장자임을 암시합니다), 결혼했으며, 장성한 자녀가 둘 이상 있고,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섬기며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안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둘 이상 없거나, 행실이 바르거나 믿음이 있는 자녀를 두지 않았거나, 자기 가정(흔히 종들과 친척들과 세입자들이 함께 있는 가정)을 갖지 않은, 그리고 이 논리를 확장하면, 남성이 아닌 목회자를 안수할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디모데와 바울 자신이—모두 미혼이었습니다—교회의 최고 리더십 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정말 믿어야 하겠습니까? 상식을 조금만 사용해도 우리는 이 목록에 있는 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적합한 장로에 대한 바울의 전제이지, 남은 모든 시대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의 종류에 대한 그의 보편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성품 특성들은 우리가 장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성경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 특성 목록조차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목록은 내적인 자질이 아니라 외적인

641. 출처: www. bit.ly/31ls4qR p. 36. 마찬가지로 남성만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더글러스 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한 여자의 남자]이 여성을 분명하게 배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 것이다." (The Interpretation of 1 Timothy 2: 11-15: A Rejoinder.) 크레이그 블롬버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Two Views on Women in Ministry, ch. 1).

자질, 곧 의롭게 보이는 것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일까요? 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련된 특성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을까요? 왜 이 목록은 당시의 그리스 문헌과 그토록 놀랍게 닮아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6절)를 제외하면 목록에 있는 자질 하나하나가 그리스-로마 세계의 비그리스도인 공직자에게도 기대되었을 만한 것일까요? 왜 이 특성들을 보여 주지 못하면 "수치"(7절)에 빠지게 될까요?[642] 왜 바울은 장로들을 세울 때 자신의 지침을 모두 적용하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는 여기서 새로 믿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6절), 그와 바나바는 때때로 새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643]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평판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짓 교사들과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미 수치를 겪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록의 배후에는, 교회가 지도자들의 신뢰성을 통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뢰성과 증언을 되찾아야 한다는 바울의 절박한 관심이 있습니다.[644] 그 문화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보다 더 나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이라는 것,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 복종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은 모두 그 시대에 새로 생겨나는 어떤 단체의 지도자에게서든 바람직하고 눈에 보이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적 요인이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러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미혼이거나, 더 젊거나, 여성인 지도자가 교회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갓 결혼한 남자로서, 연장자다운 면모는 거의 없이(저는 아직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의 영적 리더십을 받아들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올바르게 읽는 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그 지침 가운데 많은 것이 얼마나 상황에 따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보편적인 법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부 명부"를 둔 교회에 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3-9는 60세가 넘은(59세 이하가 아닌) 과부(홀아비가 아닌)만 교회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60세보다 젊은 홀아비들도

642. 문화적 신뢰성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편지 전체를 이끄는 주요 동력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외인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 … 수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10, 15; 3:4, 8, 11; 5:10; 6:1은 교회의 외부 평판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643. 사도행전 14:8-23

644. 윌리엄 마운스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주석에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목록을 한데 모으고, 이 두 편지에서 바울의 대적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면, 바울의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묘사가 대적들에게서 정반대의 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들)를 황폐하게 한 대적들과 전혀 닮지 않은 지도자들을 찾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지원합니다! 그들에게 왜 디모데전서 5장의 "분명한 가르침"을 무시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에베소의 상황과는 다른 자신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올바르게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오늘날의 어떤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고 경건한 미혼 남성이나 기혼 여성을 최고 리더십 팀에 추가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상처 입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들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올바르게 대답합니다.

"그녀가 못 하는 일이 있을까?"

저는 균형 잡힌 사람이자 경험 많은 전문가로서 제 아내가 보여 주는 놀라운 능숙함에 자주 감탄하며,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목회에 관해서라면, 이 질문은 경건하고 적절한 은사를 지닌 여성들에 대해서도 던져 볼 만합니다.

신약성경은 장로나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기능을 모두 자세히 다룹니다. 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제 눈에 띄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여성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 반복되는)의 성품 자격 목록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용어(앞에서 저는 이것을 "혼인과 성생활에서 일부일처를 지키는"이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를 제외하면, 이 목록에는 현대의 독자가 남성만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다른 곳에서 그는 경건한 여성들이 바로 이 같은 자질을 구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직은 선한 일이며(3:1), 여성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5:10). 장로들과, 다른 곳에서 언급되는 여성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3:2; 5:7), 절제하고(3:2; 3:11), 자기를 다스리고(3:2; 2:9, 15), 단정하고(3:2; 2:9), 나그네를 대접하고(3:2; 5:10), 술에 취하지 않고(3:3; 디도서 2:3),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3:4; 5:14), 외인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3:7; 5:7, 10).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3:2), 여성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디도서 2:3). 장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3:3), 여성들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2:9). 장로는 자녀들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품위를 보여야 하고(3:4), 여성들도 품위를 보여야 합니다(3:11). 장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어서

교만하여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되며(3:6), 여성들은 겸손해야 하고 정죄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5:10, 12).[645]

성품 특성은 그렇다 치고, 목회자나 장로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해 그들은 "양 떼를 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들은 또한 좋은 본을 보이고,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예언하는 일과, 영적 은사를 전해 주기 위해 안수하는 일에 관여할 수도 있다."[646] 이 기능들 가운데, 그것을 할 만큼 충분한 은사와 훈련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성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는 성경 단락이 없는 상황에서(이 책에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단락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격 목록과 기능 목록 어디에도, 바울이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3:1)라고 쓰면서 "누구든지" 추구하라고 초대하는 바로 그 부르심을 여성이 추구하지 못하게 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평등주의 문화에서는, 성품을 갖추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역량이 있는 여성들도 교회 리더십으로 안수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이라는 바울의 말 외에도, 상호보완주의자들이 남성만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끌어오는 논증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록 5: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온 두 가지 추가 논증"에서 다룹니다.)

가르침과 리더십의 기초인 은사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규범적 서신인 로마서에서 교회에서 이끌고 가르치는 일의 기초로서 은사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교정적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전서가 지도자와 교사를 선택할 때 은사를 인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편지 끝부분의 한 핵심 구절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일을 잘 이끄는 장로들은 갑절로 존경받기에 합당하니, 말씀을 전하고

645. 앤드루 바틀릿이 "Men and Women in Christ" (p. 318-319)에서 이 점들을 제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더 포함한다. 관용하며, 폭력을 쓰지 아니하며(1:13과 비교하라),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다(3:3). 이것들이 여성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646. 사도행전 20:28; 디모데전서 3:5; 5:17; 베드로전서 5:2-3; 사도행전 20:28-31, 야고보서 5:14-15, 디모데전서 4:14. 이 기능 목록을 제공해 준 앤드루 바틀릿의 "Men and Women in Christ" (p. 294)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목록을 거의 그대로 인용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하니라."[647] 이 구절에서 은사를 암묵적으로 가리키는 두 가지에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어떤 장로들이 "교회를 이끄는 일"을 특히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끈다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proestōtes)는 교회를 이끄는 일에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648] 그런데—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별과 무관한 "리더십의 은사"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 요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들은 더욱 그러하니라"라고 씀으로써, 어떤 장로들은 아마 다른 장로들보다 그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제 경험도 여기에 동의하게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저 다른 설교자들보다 설교에 더 은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따르면, 목회 리더십 팀은 (자기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깊이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649]

이 장을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적용하려고 해야 할 "성령의 가죽 부대"는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지, 결코 성별에 따른 배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 훈련하고, 가르침과 리더십이라는 영향력이 큰 사역으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것을 직접 명령합니다. "가르치는 일이라면 … 가르치고, … 이끄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이끌라."[650] 우리는 은사 있는 여성들에게 위협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여성 사역을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신약학자 벤 위더링턴의 다음 결론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문제는 강한 여성들이 아니라 … 강한 여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미심쩍은 주해까지 동원하여 여러 수단으로 그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와 은혜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해 온 남성들이다."[651]

예수전도단(YWAM)의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은 고 조용기(David Yonggi Cho) 목사가 언젠가 자신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모두

647. 디모데전서 5:17
648.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5:12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 동사의 동족어를 사용하여 교회 리더십을 묘사합니다.
649. 디모데전서 4:14
650. 로마서 12:6-8
651. 출처: www.bit.ly/3BJj5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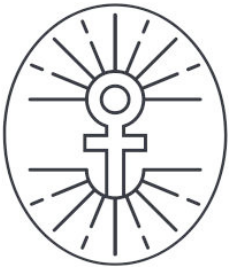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붙잡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성들을 풀어 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제게 '목사님 교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의 여성들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652]

바로 최근에 저는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성인 50명으로 교회를 재개척했고, 그 교회가 수천 명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부 아프리카의 큰 교회 연합과, 전에 잠비아에서 개척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회 연합도 이끌고 있기에, 저는 그에게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과 사역 모두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은사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부어 줄 가죽 부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아내와 저는 함께 이끕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배가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둘 다 팀으로서 이끌고 일하며, 각자의 강점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서로 이끌기도 하고 서로 복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고 서로를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잠비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에게는 남성 교회 지도자의 수보다 기회가 더 많습니다. 흔히 여성들이 가장 은사가 많고 가장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과 그들이 이끄는 교회들이 번성하는 것을 거듭거듭 봅니다.

우리가 은사 있는 여성들을 밀어내거나 깎아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은사 있는 여성들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이끄는 교회들과 우리가 섬기는 세상과 남성들에게서도 그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빼앗습니다.

652. Loren Cunningham, Why Not Women? A Biblical Study of Women in Missions, Ministry, and Leadership



제4부

여성들을 풀어 주라



14

성경적 여성성과 남성성

"양육하는 여성, 이끄는 남성이라는 오래된 전통적 관념을 내려놓으라. 슈퍼우먼인 여성, 억압자인 남성이라는 새로운 관념도 내려놓으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곧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라." **애나 퀸들런(Anna Quindlen)**[653]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여덟 살 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엄마,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해 줄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인간의 미덕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 주십시오."[654] 그러나 저도 그에게 똑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략 그 나이인 제 아이들에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해 줄까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가 그의 입에 말을 넣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말입니다.

그가 작성한 댄버스 선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을 부르셔서 여성을 이끌고 부양하고 보호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그 대신 이 리더십과 부양과 보호에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가정과 자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제 아이들이 올바르게 남성적인 남성과 올바르게 여성적인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파이퍼는 이렇게 대답해 봅니다.

성숙한 남성다움의 중심에는, 남성의 다양한 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여성을 이끌고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자애로운 책임감이 있다. … 그리고 … 성숙한 여성다움의 중심에는, 여성의 다양한 관계에 맞는 방식으로 합당한 남성들의 힘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북돋우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655]

653. 1999년 마운트 홀리요크 칼리지(Mount Holyoke) 졸업식 연설
654. 다음을 보십시오: www.vimeo.com/44525286
655. 출처: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h. 1.

그런데 보십시오. 파이퍼는 이제 결혼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남녀 사이의 모든 관계에 투영합니다. 그가 옳다면, 저는 여덟 살 된 제 딸이 네 명의 남자 형제들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들과 딸에게 정말 이것을 기대하실까요? 성경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는 질문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다루어 봅시다.

교리로서의 상호 보완성

성경의 첫 장에서 인류에 관한 맨 처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성적 이형성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밤과 낮, 해와 달이라는 언어가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성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짝이 되는 상대입니다. 퍼즐의 두 조각처럼,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언급하심으로써 성별의 구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656]

성경의 둘째 장도 두 성의 상호 보완성을 보여 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남성과 여성 일반의 원형으로 본다면, 우리는 "서로 닮았으면서도 마주 서는"(kenegdo) 존재입니다. 우리는 짝이 되는 상대로서 서로를 완성하며, 또한 서로의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생각들을 합쳐서 말하면, 우리는 "짝이 되는 동역자(counterpartners)"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첫 장들을 향해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 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찾느라 애를 먹습니다. 분명히 남성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젖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그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성을 임신시키는 일 외에,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의 첫 장들에 분명한 답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역할 규정"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출산할 때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방향이 자녀 양육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일까요? 그리고

656. 마태복음 19:4. 흥미롭게도 거짓된 영지주의의 예수만이 그 차이를 없앱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 그리하여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게 될 때 …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도마복음 22).

남성은 밭 때문에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경제적 부양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방식일까요?

우리가 이 벌들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추론하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단락은 묘사하는 것일까요, 규정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원래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무언가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농경 문화를 향해 쓰였습니다. 그 문화에서 남자들은 농사일 가운데 몸이 고된 쪽을 맡고, 아내들은 여섯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벌들에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든 문화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성별에 따라 배타적인 영역을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자녀를 기르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생육하고"). 하와가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아담도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기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화자는,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추론합니다.[657])

그리고 둘 다 밭을 가는 일에 참여합니다("땅을 정복하라"). 하와가 오기 전에 아담이 동산에 두어져 그것을 경작하게 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이자 동반자로 주어졌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일의 짐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658] 이런 부양자와 양육자 역할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이 역할들을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강요할 때, 그들은 이 단락의 분명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적 이형성과 상호 보완성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3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영역에 대한 규정이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657. 창세기 2:24를 보십시오.
658. 앨러스테어 로버츠(Alastair Roberts)는 최근에 우리가 성별의 차이에 관해 본문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창세기 1장에 비추어 읽으면, 창세기 2장에 묘사된 남자의 소명은 주로 창조의 첫 사흘의 과업, 곧 이름 짓기, 길들이기, 나누기, 다스리기에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소명은 주로 채우기, 영화롭게 하기, 생성하기, 교제를 이루기, 새 생명을 낳기를 포함하는데, 이는 창조의 둘째 사흘과 연관된 과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방식이 흥미진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접근이며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eisegesis)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저는 그래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여자의 소명에도 "다스리기"를 포함시켜 로버츠의 제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결국 여섯째 날은 무엇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사회적 구성물인가?

"진짜 남자"나 "진짜 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은, 성별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포스트모던 사상이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현대 문화에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생물학적 성은 차치하고, 이제는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개념이 유전자보다는 양육 환경과 문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논증이 지닌 힘의 일부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많은 메타 분석이 같은 결론을 보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이를 제외하면,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해서 일반화로 적용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결론을 사회 과학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페미니즘의 의제라며 내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기 전에,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행성에서 지어졌고(하나는 화성에서, 다른 하나는 금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재료로 지어졌으며("뼈"와 "살"), 같은 모양과 형상(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모양", 곧 닮음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의 "닮음"에서 그 유비를 찾습니다. 또한 kenegdo라는 단어는 차이보다 같음을 더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맞은"이라는 번역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서로 상응하는 것, 곧 인간으로서의 "같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아무리 애써도 동산의 짐승들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를 과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티크바 프라이머-켄스키(Tikva Frymer-Kensky)는 구약성경의 여성들을 연구하고,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여성됨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여성들의 목표와 전략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성경에서 여성들이 묘사되는 방식에는 독특하게 "여성적인" 것이 전혀 없으며, 그들의 목표나 전략에도 특별히 여성다운 것이 전혀 없다. 여성들의 목표는 성경의 남성 인물들과 이야기의 저자들이 지닌 목표와 똑같다.[659]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비록 미미할지라도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차이를 지닌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659. Tikva Frymer-Kensky,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ch. 11

동양의 노점상들에게서 들은 표현을 빌리자면, 남성과 여성은 “same, same, but different”(같고, 같지만, 다르다)입니다.

차이점들

우리 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우뇌와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좌뇌 사이를 오가며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뇌에서는 신경 연결이 평균적으로 각 반구 안에서 앞에서 뒤로 이어지며, 이것이 지각과 협응 동작에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뇌에는 두 반구를 가로지르는 경로가 훨씬 더 많아서, 소통하고 지각하는 일에 더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때문에 남성은 흔히 길을 찾고 한 가지 과제를 완수하는 일을 더 잘하고, 여성은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일과 집단적 문제 해결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평균적으로 남성은 더 직선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더 포괄적이고 양방향적이며 맥락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660] 아마 이것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성숙해지려 하고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성숙해진다는 널리 알려진 구분을 설명해 주는지도 모릅니다.[661]

또한 뇌 스캔은 회색질(정보가 처리되는 곳)과 백질(정보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기적으로 전달되는 곳)의 양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백질이 더 많은 남성은 신체적 협응에서 쉽게 뛰어나고, 여성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고 사회적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662]

제 생각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회 과학자들이 성격 유형에서 열 가지 스펙트럼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각 스펙트럼은 한 사람이 연민, 공손함, 상상력, 근면함, 열정, 기분의 안정, 질서 정연함, 자기주장, 분석적 사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얼마나 낮거나

660. 이 주제에 관한 두 기사를 보십시오. www.bit.ly/2ZR6n12 및 www.cbsn.ws/2YaJ7L6
661.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Cited by Tim and Kathy Keller: “The Meaning of Marriage”, ch. 6.
662. Alice Mathews,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ch. 13

높은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이 스펙트럼 가운데 많은 것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표가 이것을 보여 줍니다.[663]

	여성 백분위	남성 백분위
연민이 많음	61	39
공손함	59	41
상상력이 풍부함	56.5	44.5
열정적임	55	45
질서 정연함	54.5	45.5
근면함	50	50
자기주장이 강함	48	52
분석적 사고	45	55
기분이 안정됨	42.5	57.5
침착함을 유지함	40	60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해, 무작위로 뽑은 남성 100명과 여성 100명으로 남녀 100쌍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면함에 관해서는, 통계적 확률상 절반의 쌍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면하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남성이 더 근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근면한 정도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연민에 관해서는, 61쌍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민이 많고, 나머지 39쌍에서는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근면함에서는 동점이지만, 여성은 평균적으로 연민, 공손함, 상상력, 열정, 질서 정연함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남성은 자기주장, 분석적 사고, 기분의 안정, 침착함 유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664]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평균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들을 각 개인이나 부부에 대한 기대로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보면, 어떤 집의 딸이 그녀의 남자 형제보다 더 분석적이고, 그 남자 형제는 그녀보다 더 연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맡길 때에도, 우리는 성별에 따라 후보자를 자동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고난 기계공인 여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만일 그런 여성이 한 명 있다면, 그녀를 설득해서 다른 무언가가 되게 하려 해 보아야 소용없다. … 만일 [그녀가] 일류 변호사나

663. 출처: www.bit.ly/3pZn7OU
664.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q6HGJh. 공정하게 말하자면, 사회 과학은 이 평균들이 어느 정도까지 본성의 결과이고 어느 정도까지 양육의 결과인지를 아직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나 건축가나 기술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에 도전해 보도록 허락해야 한다. 규칙은 [이래야 한다.] 먼저 일이 있고, 그다음 그 일을 세상의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남자든 여자든, 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못생겼든 아름답든, [그 일이] 열려야 한다.[665]

이것이 성 역할을 규정하려는 상호보완주의 논증의 한 가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자기주장이 강해서 지휘하는 일에 더 자연스럽게 능할 수 있고, 여성은 평균적으로 질서정연함과 연민 덕분에 집안을 정돈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인해 이런 평균에서 벗어나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 역할들을 강요하는 것은 극도로 해롭습니다.

사실 저는 성 고정관념을 뒷받침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성 고정관념을 깨는 성경의 남성들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오늘날의 문화적 가정 대부분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남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남자가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한다는, 성별에 따른 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교한 일을 고안하고" "정교하게 짠 의복"을 만드는 은사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666] 또 다윗 왕이 전쟁터로 돌진하거나 거인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남자를 택하신 것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그가 수금을 타고 감정이 풍부한 시를 쓴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남성다운 용기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그분의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667] 진짜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짜 남자는 무기를 휘두른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남자는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요한이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게 하셨습니다. 진짜 남자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665. Dorothy Sayers, Are Women Human? Essays on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p. 19, 29. Cited in William Witt, Icons of Christ, ch. 17
666. 출애굽기 31:1-10
667. 마태복음 21:12-17; 23:27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고 준비하셨으며,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668]

우리는 흔히 바울이 멈출 줄 모르는 투지, 지칠 줄 모르는 야망, 온갖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은 "남성적인" 특성의 본보기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사역을 이끌고 형성하는 은유들을 찾을 때, 그는 자주 여성적인 은유를 붙잡습니다. 한 교회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669]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 같이, 8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돌보았노라."[670]

또는 결혼에 관한 에베소서 5장의 바울의 말을 몇 번 더 읽어 보고, 이상적인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내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녀의 옷을 빨아 주십니다. 그 문화에서 이것들은 집안일이었습니다.[671] 그리스도와 남편, 교회와 아내를 견주는 바울의 비유에서, 모든 남성 독자는 예수님의 신부에 비유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흔히 그들의 "남성됨"이라는 본성 때문에 독립과 고립을 추구하는 남성들은,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연약한 자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일입니다.

성 고정관념을 깨는 성경의 여성들

우리는 또한 "전통적인" 여성성을 "성경적인" 여성성과 혼동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죽이는 것은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야엘과 시스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린이 성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여인 야엘은 두려움 없이 도망치는 적군 장군의 머리에 장막 말뚝을 박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672] 또는 포위된 자기 성을 구하기 위해 한 남자의 머리를 베어 성벽 너머로 던지게 하여, 진을 친 적들을 달랜 여인은 어떻습니까?[673]

668. 이러한 통찰을 자신의 블로그에 나누어 준 제 친구 마고 데이비스(Margo Davies)에게 감사드립니다. www.bit.ly/3mLLnlK
669. 갈라디아서 4:19
670. 데살로니가전서 2:7-8
671. 27절은 심지어 그분이 아내의 혼례복을 마련하고 손질하시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672. 사사기 4장. 마찬가지로 외경에서 그 이름이 단순히 "유대 여인"이라는 뜻인 유딧은 꾀를 써서 적군 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벱니다.
673. 사무엘하 2:22

이 여성들은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에 나오는 고전적으로 "여성적인" 인물들, 곧 "늘 자기 감정에 대해 일기를 쓰고, 결혼에서 가장 좋은 상대를 얻으려고 궁리하고, 거의 모든 감정적 고통에 기절하고, 꽉 조이는 코르셋을 포함해 옷을 겹겹이 입고, 일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인물들과 얼마나 다릅니까![674] 그들은 결코 엘리자베스 엘리엇(Elisabeth Elliot)이 성경적 여성성을 부정확하게 이상화하면서 염두에 둔 여성들이 아닙니다. "여성은 자신을 내어 맡기고, 돕고, 반응하며, 남편은 부양하고, 보호하고, 주도한다. 성경적인 여성은 복종하는 여성이다."[675]

물론 고대의 가부장적 세계에서는(그리고 오늘날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도)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남성이 이끌도록 순순히 따르며, 공적 영역에 삶이 매여 있는 남성들에게 음식과 성이라는 위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계에 맞추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최고 이상으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전적인 역할을 거스른 성경의 모든 여성이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 줍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관한 세 단락[676]에서 번역의 편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경은 룻이 "고결한 성품"(noble character)의 여인이었다고, "고결한 성품"의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그리고 잠언 31장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하는 "고결한 일들"(noble things)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nayil은 이 각 단락에서 "고결한"(noble)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다른 95번의 경우에는 남성에게 쓰이면서 "용맹한"(valiant), "용사"(warrior), 또는 "힘"(strength)으로 번역되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의 여성들도 용맹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그리고 교회의 선한 남편이신 예수님처럼 집안일도 하라고) 요청한다면, 에베소서 6장에서 그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용사가 되어 방패와 검을 들고 어둠을 몰아내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남성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여성들, 곧 우리 남성들과 나란히 서는 여성들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의 너무나 많은 것이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풀어 주어, 불의와 속임수에 맞서는 응징자로서, 억압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구하려는 자유의 투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한 횃불을 든 자와 옹호자로서 우리 남성들과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단지 바라는 미래에

674. 이 인용문을 처음 어디에서 보았는지 찾을 수 없지만, 제 말은 아닙니다.
675. Elisabeth Elliot, Let Me Be A Woman, p. 50. Cited in Barr, Introduction
676. 룻기 3:11, 잠언 31:29, 잠언 12:4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여성 용사들은 이미 거듭거듭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가장 훌륭한 남자들은 여자들"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라는 책은 "일이 어렵고 위험할수록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기록합니다.[677]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성경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이 개념들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는 것을 제게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며, 우리는 몸으로 주어진 성적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티크바 프라이머-켄스키(Tikva Frymer-Kensky)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인간 행동의 어떤 특성도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여성적'과 '남성적'이라는 두 극 사이에 속성을 나누지 않고, 남성의 공격성—여성의 수용성, 남성의 혁신—여성의 보존, 남성의 밖으로 뻗어 나감—여성의 품어 담음 … 같은 양극성이나, 우리가 성별의 구별을 생각할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다른 어떤 양극성의 구별도 암시하지 않는다.[678]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트위터를 열어 한 침례교 신학교 교수의 글을 읽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교회들이 흔히 여성 강사를 초청하는 어머니날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가끔이라도 여성 설교자가 선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679] 그러고 나서 그는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느냐는 우리의 질문을 예상하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트윗에서 그는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활동은 여성들이 잘 해낼 때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일입니다.[680] 그의 피드를 보고 있으니, "정사와 권세들은 창조 질서를 미워하고,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또 다른 트윗이 뜹니다.[681] 그의 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677.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p. 143. Cited in Bessey, Jesus Feminist, ch. 8.
678. Frymer-Kensky,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p. 141.
679. www.bit.ly/2ZNt9ai
680. www.bit.ly/3nQAwpC
681. www.bit.ly/2ZS465M

만일 사탄의 전략이 군대의 절반으로 하여금 나머지 절반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실제로 미워하는 것은, 힘으로 하나 되어 영적 전쟁과 복음 선포에서 나란히 서 있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댄버스 선언은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성자는 다른 곳에서 "남성적"을 "힘과 리더십"으로, "여성적"을 "남성의 힘과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여러분이 남성인데도 여성의 힘과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다면, 또는 여러분이 이끌기를 원하는 강한 여성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함의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진정한 표시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비밀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5장이 고정관념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요약해 줄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권위의 홀을 지니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엄 있으시면서도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종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높이 들리셔서 우뚝 서 계시지만, 또한 몸을 굽혀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은 강하시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권위 있으시면서도 다가가기 쉬우시며, 단호하시면서도 순순히 따르시고, 포효하시면서도 우시며, 꺾이지 않으시면서도 깨어지셨습니다.

천성적으로 예수님의 사자 같은 면모에 치우치기 쉬운, 단호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682] 천성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면모에 치우치기 쉬운, 온화하지만 쉽게 위축되는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느니라."[683] 분명히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위해 애쓰라고 결코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성경적인' 여성 또는 남성이 되라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682. 마태복음 11:29
683. 마태복음 11:12

그래서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썼지, "여성적인 일을 버렸노라"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듯 여성다움을 남성다움과 대조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는 둘 다를 어린아이다움과 대조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시를 기다리고, 자기중심적이며, 두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몹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의존하며, 더 많은 주도권과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성숙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명령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여성을 위한 명령이 하나, 남성을 위한 명령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움과 힘을 잘 관리하기

먼저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지시부터 살펴봅시다: "나는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되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684]

바울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구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사실 다른 곳에서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창조의 정점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685] 그러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여성이 너무 쉽게 피상적인 아름다움에 만족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잠언 31장의 여인은 덧없는 겉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빛나는 사랑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에게 주목을 끌려 한 부유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오히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착취적으로 이용하려고 유혹적인 옷차림을 하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옷을 입는 방식이 남성이 그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여성이 남성의 성적 순결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경건한 여성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자기표현을 찬양한다고들 하지만,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이상적인 몸이라는 폭정에 이토록 시달린 적은 없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도 적지 않아서, 젊은 세대의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수치가 치솟고 있습니다.[686] 끝없이 완벽함과 더 많은 "좋아요"를 추구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향한 우리의

684. 디모데전서 2:9-10
685. 고린도전서 11:15
686. www.bit.ly/3bIo4mc

자연스러운 욕구는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결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휘두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남성의 관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남자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여자들에게 음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로서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은 여성조차 음욕을 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자로서, 음욕에 대한 해결책은 여성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늘 여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히려 제 순결을 지키는 가장 좋은 전투 전략은 하나님이 여성을 보시는 방식으로 여성을 참으로 보는 것입니다—성적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로서 말입니다.

이제 남성에게 주어진, 그들의 신체적 힘과 관련될 수 있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여성 앞에서 남성이 자신의 신체적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687] 여성들은 여기서 베드로의 말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보편적인 사실을 언급할 뿐입니다. 성인 남성은 거의 언제나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남성은 특히 자신의 힘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하며, 결코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끔찍하게도, 가정 폭력은 지난 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앞서 제2장에서 강조했듯이, 여성이 동등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여성의 종속이 의문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와서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New York Daily Mirror에 실린 1960년대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목이 "여자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볼기를 때려야 하는가?"였습니다.[688] 편지를 보낸 네 남자의 의견을 보면, 대답은 만장일치로 '그렇다!'입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누가 대장인지 배운다." 테디 갤렐(Teddy Gallel)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많은 여자가 이 세상이 남자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곤 하고, 가정의 대장 자리에서 물러난 많은 남자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저는 여성의 무려 50%가 평생에 강간이나 성적 학대를 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남자가 자신의 힘을 여성을 보호하는 데가 아니라 여성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사용한 예입니다. 남성의 신체적 힘을 얼마나 잘못 사용한 것입니까!

687. 베드로전서 3:7
688. www.bit.ly/3EI1Tcr

구약의 전쟁과 전투에서 거친 완력이 필요할 때 최전선에 보내진 것은 남자들이었습니다.[689]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요셉이 자신들의 몸을 지켜 주는 방패가 되리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690] 실제로 바울은 모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691]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일반화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가라앉는 배 위에서 나이 든 여성이 마지막 구명조끼를 젊은 남성에게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더 강한 아내가 장애가 있는 남편을 위험으로부터 몸으로 막아 줄 때도 있을 수 있으며, 라합 같은 여성이 무고한 남성 도망자들을 자기 집에 숨겨 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692]

매우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많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처럼 여성의 신체적 약함을 감정적 또는 영적 약함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교회 역사 내내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약하다고 잘못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며, 이 말씀이 여성을 사역의 역할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근에 저는 수천 개 교회로 이루어진 한 상호보완주의 운동의 대표적 신학자가 내놓은 논증을 읽었습니다. 그는 남자가 신체적 보호자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옳게 지적하고, 이어서 목회자의 주된 직무가 양 떼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옳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는 그러므로 남자가 교회를 이끄는 일에 더 적합하다고 잘못 추론합니다.[693] 사실 삶의 비신체적인 측면에 관해서라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남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계 없는 상호 보완성을 되찾기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지음받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출발점에 섭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들은 본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차이가 본질적으로 권위-복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상호 보완성은 위계적이며, 그 결과 오히려 상호 보완성을 잃게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치리와 강단 설교처럼 남성의 목소리만 들리는 남성 전용 구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689. 신명기 20:7-8, 여호수아 1:14
690. 마태복음 2:13-14
691. 에베소서 5:25 이하
692. 여호수아 2장
693. 마찬가지로 오웬 스트래천은 "The Grand Design"에서 영적 어둠에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와 공격성은 본래 남성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주장을 위해 사용하는 본문들—고린도전서 16:13-14, 이사야 19:16, 열왕기상 2:2, 에스겔 22:30—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체적 전투에는 신체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는 신체적 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여성도 하나님의 일의 최전선에서 용기 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반영할 남녀의 상호 보완성을 훼손합니다.

이 장에서 저는 상호 보완성을 상호보완주의로부터 되찾아 와서, 그것을 위계가 아니라 상호성과 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나란히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적 능력이나 리더십을 어느 한 성별과 연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치는, 평균적으로 여성은 한 방식으로, 남성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이끌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뇌 구조나, 이 장 앞부분의 표에 나온 열 가지 항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성은 평균적으로 더 연민이 많고 창의적이며, 남성은 평균적으로 더 단호하고 분석적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강점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의 결혼과 사역과 일터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균적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리더십 팀은 평균적으로, 그들이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무엇이든 그곳에 훨씬 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사회가 교회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최고 수준의 리더십에 포함시키는 일의 유익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포괄적인 연구에서[694]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비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팀에 여성이 더해지면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73%로 껑충 뛰어오릅니다![695]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경주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뚝거리며 깡충깡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다리가 모두 제 기능을 하면 훨씬 더 큰 보폭으로 훨씬 더 먼 거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저마다 고유하게 서로 보완하며 기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화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을 묘사한 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는 한쪽 다리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어쨌든 다른 쪽 다리는 열등하다고, 즉 비합리성과 불안정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이제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성경의 원래 의미와 의도도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두 다리로 달릴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694. www.bit.ly/3BKuImw
695. 팀이 성별, 연령, 성장 지역, 고등 교육을 받은 곳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 그 수치는 87%까지 올라갑니다.

더 많이 함께 협력해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그 길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은 더 큰 성장과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만, 더 큰 복잡성과 오해로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오랜 편견은 특히 끈질깁니다. 결혼이 그토록 힘들 수 있는 이유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그것은 대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데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회일 뿐입니다.

결국 성경이 정의하는 삶의 목표는 더 남성다워지거나 더 여성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이시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 가는 것입니다.



15

하와를 가정에서 해방하기

"여성의 전통적인 일거리를 빼앗아 놓고는, 여성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모든 여성은 인간이다—이 말은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리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도로시 세이어즈[696]

최근 한 저명한 성경 교사는 남침례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설교자에게 두 마디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집에 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베스 무어를 개인적으로 깎아내린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상호보완주의 신학에 충실한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남침례교는 여러 해에 걸친 논의 끝에, 여성의 가정화를 하나님이 정하신 여성의 운명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아내는 …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서 남편의 돕는 자로 섬길,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다."[697] 상호보완주의자들에 따르면, 아담은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자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가정 안에서만 온전히 날아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조차 그녀는 집안을 돌보고 그의 아이들을 보살핌으로써 "가정의 머리"인 아담을 돕는 데 그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런 종류의 남성 우월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5세기에 한 교부는 동료 남편들에게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무가 있다. 우리가 모은 것을 보존하고, 우리의 수입을 지키며, 우리 집안을 돌보는 것이다. … 우리의 삶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라는 두 활동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나누실 때, 집안의 관리를 여자에게 맡기셨다. … 여자는 공적인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집안에서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698]

696. Dorothy Sayers, Are Women Human? p. 32.
697. Barry Hankins, Uneasy in Babylon, p. 214–215. Barr, ch. 1에서 재인용.
698. St John Chrysostom, On Marriage and Family Life

이런 종류의 교리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정도는 덜하지만—가정에서 여성이 내놓을 수 있는 온전한 기여를 위축시킵니다. 물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안전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온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신 여성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여성은요? 어머니의 수십 년 인생에서도,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시기(그녀가 전업으로 여기에 헌신하기로 선택한다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가정의 역할을 미화함으로써, 여성이 삶의 다른 모든 단계에서 맡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역할의 무게를 깎아내립니다.

사라 베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에 관한 폭넓은 신학을 배우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구속적인 화평을 이루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갈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 사역이 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역할에 초점을 맞춘 미국 남부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699] 실제로, 하나님이 여성 안에서 보시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여성 가정화 교리는,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넓은 삶이 아니라 더 작고, 제한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어머니들을 기리며

제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성의 주된 기여가 어머니 역할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는 교리 때문에 여성이 위축되어 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의 역할 또한 결코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존중하고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줄리가 우리 다섯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겸허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역할 가운데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역할이며,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세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에게 주로 가정과 자녀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댄버스 선언은 성경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전통적인 것—생계를 책임지는 아빠와 살림하는 엄마—을 성경적인 것과 혼동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은 최근에 만들어진 문화적 발명품입니다. 아버지들이 무리 지어 일하러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에 널리 퍼졌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조립 라인에서 일해 온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지역을 제외하면, 그런 가족은 세계 경제 지형에서

699. Sarah Bessey, Jesus Feminist, ch. 3.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60%가 싱글맘 손에서 자라고,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의 아이들이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어머니 손에서 자라는 제 나라에서는, 경건한 어머니라면 이상적으로 가정의 역할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지나친 강조와 기대는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죄책감을 더 얹어 줄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게다가 잠언 31장의 어머니조차 "밭을 살펴 보고 사며" 그 돈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700]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는가?

쾨스텐버거는 상호보완주의가 말하는 여성의 가정화에 대해 이른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성들은 "집에서 일하는 자"가 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여성의 삶의 기쁨과 일은 그녀가 무엇보다 가족과 가정에 중심을 둘 때 가장 잘 실현될 것이다. 동시에 상호보완주의는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남편의 질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요인이 없는 한, 가족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에서 물러설 필요는 없다.[701]

다시 말해, 여성은 집 밖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이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까? 쾨스텐버거는 이 편지를 받은 교회의 그리스-로마 문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문(text)을 문맥(context)에서 떼어 냄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구실(pretext)을 내놓습니다.

플라톤은 남자는 "국가를 다스려야" 하고(그것이 공적 영역입니다) 여자는 "자기 집을 돌보고, 집 안의 것을 지키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702] 필론(Philo)은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집안일 밖의 일에 참견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은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여자는 거리의 부랑자처럼 다른 남자들의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성전에 가야 할 때는 예외지만, 그때에도 시장이 붐빌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가도록 애써야 한다.[703]

700. 잠언 31:15-16
701. www.bit.ly/3SHnecQ
702. Plato, Meno, section 71e–f
703. Philo. 출처: www.bit.ly/3kquueP

바울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집에서 일하는 자가 되라"고 권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였습니다.[704]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유일한 지시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품위 있는" 여성이라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기대되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신생 그리스도인 집단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던 구경꾼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705]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집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라는 인식을 막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706] "집안일에 바쁘라"는 이 지시는 보편적인 이상이나 법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유익을 위한, 상황에 맞춘 지혜입니다.[707]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여성을(남성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 양육 중심에 두기 위해 제시하는 또 다른 증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적 문맥이 간과됩니다. 물론 그 장에서 언급되는, 교회의 구제에 의존하는 무일푼의 과부들은 자기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는 데 시간과 힘을 써야 합니다.[708] 그리고 재혼하여 paterfamilias(가장)의 부양을 받게 되는 젊은 과부들은 그 대신 노예와 자녀를 포함한 자기 집안을 관리해야 합니다.[709] 게다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일부 여성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일할 수 있는 "누구든지"(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일해서 "자기 친족을 돌보라"고 말합니다.[710]

요컨대,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5장은 이토록 강하게 진술된 획일적인 교리를 위한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곳의 모든 여성이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살도록 명령받은 것은 아닙니다.

704. 디도서 2:5. NIV 번역 "busy at home"(집안일에 바쁜)은, 여성들이 단지 집안일과 자녀 양육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일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705. 디도서 2:5
706. 디모데전서 5:13
707. 상류층의 아주 적은 수의 여성들이 후원자, 사업주, 공직자로서 공적인 역할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엘리트 여성에게만 용인되었습니다—대다수 여성은 집 밖에서 남자처럼 행동하면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교회에서 이런 부유한 여성은 너무나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회심했을 때 누가는 그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사도행전 13:50, 17:12, 34).
708. 디모데전서 5:3-4
709. 디모데전서 5:14
710. 디모데전서 5:8

일하는 여성들

세상 대부분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어머니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농촌 지역 상당수가 그렇듯이, 산업화 이전의 문화에서 여성들은 일꾼이 될 많은 자녀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인생의 상당 기간 대개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도, 집에서 멀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옷 만들기, 그리고 어린아이와 병자와 노인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강하고 집을 떠날 수 있었으므로,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711]

도로시 세이어즈는 1971년의 유명한 에세이 Are Women Human?(여성은 인간인가?)에서 실 잣기, 염색, 베 짜기, 음식 조달, 양조, 저장 식품 만들기, 절임, 토지 관리처럼 산업화 이전의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돈벌이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찾아오고 …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다—그러나 현대 문명은 여성들이 돌보던 이 모든 즐겁고 이윤이 남는 활동을 가정에서 빼앗아, 대공장의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지휘하고 조직하도록 거대 산업에 넘겨주었다. 여성의 전통적인 일거리를 빼앗아 놓고는, 여성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모든 여성은 인간이다—이 말은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리고 인간에게는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 일은 무엇보다 먹고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직업이나 생업 안에서—그 밖에서가 아니라—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712]

이 진술에서 세이어즈는 “집에 머무는 것”이 고대 그레데나 에베소의 경건한 여성이 생계를 벌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상호보완주의의 오해를 폭로합니다. 1세기에 “집”은 여성이 수입을 위해 일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실 잣기, 염색, 베 짜기, 음식 조달, 양조, 저장 식품 만들기, 절임, 토지 관리.” 그런데도 성경 시대에도 일부 여성은 집 밖의 일에 종사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이자 군사 전략가였고, 에스더는 왕비이자 입법자였습니다.

711. Carrie Miles, The Redemption of Love: Rescuing Marriage and Sexuality from the Economics of a Fallen World, p. 43-46. Witt, Icons of Christ, ch. 7에서 재인용.
712. Dorothy Sayers, Are Women Human? p. 32; 그리고 Dorothy Sayers, Why Work? (출처: www. bit.ly/31wL85K)

신약에서 우리는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두아디라는 자색 염료의 제조와 판매로 알려진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염료를 구입하여 그리스에 있는 또 다른 집으로 운반했는데, 그 집은 아마 그녀의 사업장도 겸했을 것입니다. 꿈에서 바울은 한 "마게도냐 남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실제로는 여자인 루디아였고, 그것도 독신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라, 그녀는 유럽에서 바울이 얻은 첫 회심자였습니다. 복음에 마음을 연 그녀는 이어서 자기 집과 사업장을 열었고, 이제 그곳은 그 도시에 새로 생긴 교회의 모임 장소까지 겸하여 세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713] 모든 여성, 특히 독신 여성은 루디아의 진취적인 태도, 직업적 성공, 사역의 열매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결혼이야말로 여성의 진정으로 고귀한 목적이라는 상호보완주의의 어떤 믿음에도 억눌리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다비다, 곧 도르가를 만납니다. 그녀는 욥바 성의 과부들을 위해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죽음에서 살렸을 때, 그 기적을 축하하러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그녀가 옷을 지어 입혔던 바로 그 과부들이었습니다.[714] 그녀의 본보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섬기는 교회들뿐 아니라 자선 단체, 구호 활동, 비영리 단체의 설립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 속 여성들은 집 밖에서 자신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통계적으로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가장 주저하는" 집단이며[715] 여성 CEO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장 불편해하는 집단입니다. 이처럼 널리 퍼진 불안은, 남성 권위의 이유가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믿는 많은 상호보완주의자들 사이에 만연한 정서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남녀 위계가 정말로 창조 원리라면, 그것은 교회에만 적용되고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여성의 지도를 받기를 주저하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공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창조 질서"를 주창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도, 바울은 노예들(그중 절반은 남자였습니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716] 이 질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 주인들 중 상당수는

713. 사도행전 16:11-16, 40
714. 사도행전 9:32-43
715. 2017년 바나(Barna)의 연구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은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가장 주저하는" 집단입니다. 그들 중 "앞으로 노동 인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은 52%에 불과합니다(미국 일반 인구보다 20% 낮은 수치). 출처: www.bit.ly/3CNBtoX
716. 에베소서 6:9, 골로새서 4:1

여성인 materfamilias(여성 가장)였는데도 말입니다. 과부는 단독 권위를 가졌을 것이고, 아내는 자기 노예들에 대해 위임된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성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적이고 지시적일 때, 그것은 …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어긋날 것"이라는 파이퍼의 염려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materfamilias가 남성 주인과 똑같이 남성 노예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은, 바락이 한때 드보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자들이 여성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리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장애물들과 더불어, 일하는 여성들은 남녀 임금 격차(Gender Wage Gap)라는 모욕과 불의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많은 여성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집 밖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로 그 여성들을 평가절하하는 일을 굳혔습니다. 1833년, 영국의 공장 감독관 제임스 미첼(James Mitchell)은 이를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그녀의 낮은 임금은 그녀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녀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도록 마련해 둔 것이다."[717]

상호보완주의가 많은 교회에서 이 불의를 영속시키는 한 가지 방식은, 주요 사역 직원의 채용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일이 지닌 "치리적" 성격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상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 똑같이 무거운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여성들은, 신학적 확신에 따라 그들의 일이 권위적이라기보다 지원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흔히 더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가정의 역할을 칭송한 적이 없다

흥미롭게도, 현재 상호보완주의가 여성의 가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가장 크게 도전하는 성경 인물은 예수님과 바울 두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뒤집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문화에서 여성의 주된 목적은 자녀, 가급적이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대신해 그 칭찬을 받으시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718] 예수님은 왜 겉보기에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성의 주된 가치의 중심을 가정과 자녀 양육의 역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한 사람의 인격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717. Beth Allison Barr,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p. 164
718. 누가복음 11:27-28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심적입니다.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새 창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그것이 인생의 참된 상입니다.

저 자신도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족을 위해 삶을 쏟아붓는 법에 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감을 감사히 여깁니다—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혈연 가족에 집중하는 우상에 거듭 도전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받는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719]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결혼한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으로 다 주께 헌신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720]

바울의 진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른바 "현재의 위기"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721] 그러나 그의 정서를 고려할 때, 저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것처럼 바울도 댄버스 선언에 동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댄버스 선언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가르침을 최근에 발명된 전통적 가족이라는 우상과 결합하려는 혼합주의적 시도입니다.

바울의 방대한 글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저는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단 한 번밖에 찾지 못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녀는 "[그]에게도 어머니가 되어 준" 사람입니다. 저 역시 때때로 저를 자기 날개 아래 품어 준 교회 안의 어머니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바울은 그녀를 생물학적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머니처럼 섬기는 사람으로서 칭찬합니다.

성령께서 결코 쓰지 않으신 대본

어떤 문화든 진화적으로 발전하면서 기독교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여성이 일터에 나가고 더 많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직접 참여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최근 경향은, 제가 믿기로는, 나쁜 것으로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719. 마태복음 10:37-38
720. 고린도전서 7:34-35
721. 고린도전서 7:26

고대 그리스-로마의 가정도, 1950년대의 전통적 가족도, 성령께서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을 위해 쓰신 대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여성을 살림하고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남성을 생계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지도 않으십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 역할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들처럼 전통적 가족을 영적 소명과 결합시키지는 맙시다. 그렇게 하면 여성의 온전한 기여를 억누르고,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기여와 목소리를 위해 자리를 내어 주려는 남성의 의지와 능력도 약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여성이 전통적인 역할 속에서 번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여성이 그러할 것이라거나 그래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여성들에게는, 만약 그들이 "여성의 가장 높은 소명은 남편과 자녀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 여성은 이타심과 순종을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바람과 꿈을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대본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통적인 역할들은 "종의 멍에"가 됩니다.[722]

제 아내를 단지 양육과 사역, 그리고 일과 돈벌이에서 저를 돕는 지원자가 아니라 저의 동반자로 보는 것의 흥미로운 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다양한 변화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지금까지 보낸 대부분의 세월 동안, 매달 수입의 대부분은 제가 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내가 더 많이 버는 상황에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책을 쓰고 또 다른 학위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과 아이들 관련 일을 더 많이 맡는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권이었습니다(물론 아이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엄마의 요리가 언제나 제 요리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수십 년 동안 고정된 역할에 묶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더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를 분명히 선택하겠습니다.

동시에, 더 전통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부부에게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더 보수적인 대본을 선택함으로써 일종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을 모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으로 이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신학은 그런 결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반화가 존재하든, 모든 어머니가 빵을 만드는 일(살림)에 더 적합하고 모든 아버지가 빵을 버는 일(생계)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거부할 만큼 예외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최대한 섬기는 일을 향해 한 팀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722. Beth Allison Barr,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ch. 7.

제가 아는 부부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아내들은 집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아내들은 그런 생각만 해도 질색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갈망하고, 어떤 이들은 집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꺼이 경력에 대한 포부를 내려놓고, 어떤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계속 발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상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모델을 받아들이든, 바울은 한부모가 아닌 한 아내와 남편 둘 다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723]—다음 세대를 길러 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과업이어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희생을 함께 모을 가치가 있습니다.

723. 디모데전서 5:14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을 다스리는 아내들을 언급하고, 디모데전서 3:4, 12는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기르는 남편들을 언급합니다.



16
교회를 위한 실제적 함의

"신학적 질문은 중요하지만, 여성이 사역에서 리더십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가늠하게 하는 선행 지표는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문화다. 우리는 성별보다 은사를 보는 문화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회로 초대할 의향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가?" 케이디 콜[724]

제 교회에서 성별 위계라는 교리적 오류에 눈뜨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점점 커져 가는 저의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제가 아는 너무나 많은 여성에게서 상당하고 때로는 더 뛰어난 영적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도—오직 남자들만이 최고 지도자로 안수를 받았고, 따라서 실질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전면적인 금지의 이른바 성경적 근거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저는 여성 배제를 옹호하는 데 사용된 논증들의 단층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본문을 꼼꼼히 걸러 살피면서, 저는 제가 속한 상호보완주의 진영에서 편리하게 무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많은 추가 본문과 논증도 발견했습니다. 남녀의 권위-복종을 성경 해석의 통합 원리로 읽는 대신, 저는 훨씬 더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결혼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남녀의 상호성을 말하는, 조화를 이루고 자유롭게 하는 해석학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교회가 여성 배제의 신학에서 같은 단층선을 보기 시작했지만, 실제적인 함의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마비된 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자주, 실용주의가 순수한 주해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교회 리더십에 관해 성별을 더 포용하는 신학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덜 신학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실제적 우려들을 다루면서 최대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724. www.bit.ly/2ZRzaCO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제 경험으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회가 남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여성이 이끌고 설교하도록 세워질 경우, 교회가 남성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두는 능력을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고령화된 리더십 팀을 가진 교회가 나이 든 지도자들을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서 더 젊은 지도자들을 더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으로만 구성된 팀은 비슷한 은사를 가진 남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은사 있는 여성들을 더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가 언제나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많은 여성이 (예수님처럼) 온유하지만, 다른 많은 여성은 (예수님처럼) 강하고 지시적입니다. 새로 더해지는 여성 지도자가 교회의 메시지와 결정에 더 감성적이고 협력적인 측면만을 가져오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물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여성이 그들과 나란히 이끌기 위해 나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함께 장로로 섬기는 젠 피더슨(Jen Pedersen)의 말처럼, "남자들이 수동적일 때 우리 여자들이 나서기는 너무나 쉽다—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은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가 함께 서는 것이다."

교회가 여성을 더 높은 수준의 사역에 포함하도록 신학을 바꾼 뒤에도, 여성들이 이 새로운 기회로 올라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성들에게만 맡겨 두는 대신, 우리는 여성 리더십과 관련하여 교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차별적인 이중 잣대를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저는 자신의 분야에서 같은 문제에 도전하려 한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시도를 떠올립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쓰는 어휘가 다르다. 남자가 무언가를 하면 전략적이라고 한다.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면 계산적이라고 한다. 남자는 반응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자는 과잉 반응만 할 수 있다."[725]

케이디 콜은 Developing Female Leaders에서, 교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은 여성들을 인터뷰해 보니 그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남자의 열정은, 특히

725. www.cbsn.ws/3wNUpSk

감정적으로 민감한 리더십 문제에 관해서는, 강하고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오는 똑같은 열정은 화가 나 있고, 밀어붙이며, 고집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지시와 기대를 제시하는 남자는 좋은 지도자로 여겨지는 반면, 똑같이 하는 여자는 흔히 위세를 부린다고 여겨진다."[726]

아마 우리 교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문화가 실제로 어떤지 알아내는 것입니다—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로 지내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무언가가 당신이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끄는 남자들은 이미 이 질문들의 답을 안다고 잘못 가정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팀을 이루고 더 건강한 교회 문화를 세우려면, 첫걸음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727]

제 경험상, 전략적 은사가 있는 여성들이 리더십 회의에서 놀라울 만큼 조용한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조지 서랫(George Surrat)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험이 여러분의 문화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과 분명히 공명하기 때문에 나누려 합니다. 그가 새로 합류한 팀원에게 왜 그렇게 조용한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끊임없이 끼어들고 서로의 말을 덮으며 이야기해서 한마디 끼어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게다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제 의견이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서랫은 지나치게 예의 바른 이 지도자에게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남자들로 가득한 방에서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결코 질문받지 못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728] 이 모든 이야기의 요지는,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리더십 팀에 처음 초대될 때, 정말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려면 개인적인 격려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지도자들이 여성과 나란히 이끌도록 코칭하라

서랫에게서 더 많은 지혜를 얻어 봅시다. 그의 아내와 딸은 둘 다 뛰어난 지도자이지만, 리더십 논의의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남자들 때문에 생기는 고통도 잘

726. Kadi Cole, Developing Female Leaders, ch. 3.
727. 이 재치 있는 패러디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여자들을 대신해 말할 때 저지르는 실수를 드러냅니다: www.bit.ly/3bKamzu
728. George Surrat, Why Women Don't Lead in your Church, www.bit.ly/2YgL4FR

압니다. 그런 그가 여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인 남자들에게 네 가지 조언을 줍니다.[729]

경청하기: 여성은 많은 남성보다 더 섬세한 의사소통 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논의에 맥락, 감정, 관계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더 복합적인 결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끼어들지 않기: 남성들은 특히 대화가 감정적으로 고조될 때 서로 자주 끼어듭니다. 이것은 언제나 무례한 일이지만, 특히 많은 여성 지도자가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명확히 하는 질문하기: 이해를 위해 질문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되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끌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결론에 이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맥락을 물어보십시오.

신뢰하기: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테이블에 새로 앉게 된 여성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끄는 일을 믿고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받아야 할 하급 파트너나 아이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을 지적인 성인으로 믿고 이끄는 일을 맡기고, 말과 행동으로 그 신뢰를 굳게 하십시오.

서랫은 남성들이(그리고 어쩌면 여성들도)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혐오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서랫은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종 차별주의자를 리더십에 두겠습니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대하며 그들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지도자를 용인하겠습니까?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면, 성별을 차별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남성 지도자들이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본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리더십 팀들에게서 흔히 듣는 반발은, 여성이 함께 있으면 "방 안의 역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랫이 쓰듯이, 이 말은 대화가 "남자들만 있을 때 더 진정성 있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십 팀에 있을 때 대화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언제나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넓은 관점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며, 따라서 더 나은 결정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729. www.bit.ly/2YgL4FR

교회가 여성의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이끌라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 언제나 어느 정도의 리더십 수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교회를 변화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더십 팀만 성경적·신학적 여정을 거쳐 여성을 이끌고 설교하는 자리로 풀어 주기 시작하고, 교회 전체는 비슷한 여정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설교와 소그룹 여정을 위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이끌고 가르치는 일에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부여하시는 가치를 가르친 다음에는,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과 설교하는 여성들을—어쩌면 천천히, 조금씩—접하게 하십시오. 여성이 할 수 있는 큰 기여에 대해 가르치기만 하고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성이 설교하는 것을 듣거나 여성이 이끄는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성경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800년대의 구세군은 스스로를 여성 리더십의 개척자로 여겼습니다. 1929년, 구세군을 창립한 부부의 아들인 브램웰 부스(Bramwell Booth)는 바로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군의 여성들이 오늘날 서구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전반의 해방에 한몫을 해 왔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지난 세월 멸시받던 구세군 병사들의 작은 무리 앞에서 행진한 여성들은, 여성이 지휘하는 광경, 여성이 공적인 의무에 움츠러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바 자신의 열등함을 극복하는 광경에 대중의 마음을 익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여성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에게 여성들이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730]

구세군이 한 일 중 하나는 여성을 남성과 같은 지도자 직분에 공개적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은 여성에게 남성과 비슷한 기능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목회 리더십 팀에서 그들의 관점을 구하거나 설교를 하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능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인정하는 성경적 직분이나 소명을 여성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이끌거나 가르치도록 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그의 기여를 축소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730. Bramwell Booth, Echoes and Memories, p.172

우리를 섬기는 이들에게서 최대한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가르치시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직분 둘 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731]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상호보완주의였지만, 우리는 여성들이 목회적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들의 목회 직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의 삶에 임한 은혜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서 아내가 한 사역을 개인적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그녀의 설교와 리더십 기여를 돌아보면,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를 (단지 목사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고 생각했다면, 교회에 기여하는 면에서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올라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고 그녀의 말을 듣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면, 아마 그녀가 내놓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녀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그러나 불완전한 부분만을 끌어 썼고, 그녀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732]

여성 지도자와 설교자에게 투자하고 멘토링하라

앞으로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와 설교자를 더 많이 보려면, 오늘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직접 훌륭한 지도자와 설교자를 길러 온 저는, 그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저 같은 기존 지도자들이 잠재적 지도자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을 단계적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개발 파이프라인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자로 지낸 세월을 돌아보면, 인재를 찾는 제 눈에는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사 있는 남자들을 찾고 있었고, 틀림없이 은사 있는 많은 여성을 놓쳤습니다. 그 최종 결과로, 여러 해가 지난 뒤 우리 교회는 검증된 남성 지도자와 설교자들로 가득했지만, 그에 견줄 만한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확증 편향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있는 여성들을 더 높은 수준의 기여로 풀어 주기를 원하셨다면, 왜 그런 여성이 이렇게 적을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여성에게 비슷한(또는 더 뛰어난) 리더십과 의사소통 은사를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녀의 형제만이 발견되고,

731. 마태복음 10:41
732. 저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많은 것을 향해 손을 뻗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 그녀의 겸손을 보여 주는 표시였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돌아보니 그녀에게는 내놓을 것이 더 있었습니다.

훈련받고, 기회를 얻고, 코칭받고, 세워졌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차별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에게는 여성 사역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이끌거나 그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돌아가며 맡는 것을 보아 왔지만—그녀가 보기에는—그들이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제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 여성들은 덜 다듬어진 은사로 사역했고,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바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훈련받은 남성 지도자들은 훈련받지 못한 여성 지도자들이 절뚝거리며 겨우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생각납니다. 일터에서 탁월한 소통가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설교하기를 갈망해 왔는데도, 목회자들은 그녀의 남편을 포함해 남자들만 "설교자 훈련"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해 크게 상심한 그녀는 남편에게 그 훈련을 녹음해 달라고 부탁해, 혼자 몰래 훈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케이디 콜은 한 여성 지도자를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저를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리에 두는 동시에 그 모든 과정 내내 저를 멘토링해 준 것이었습니다. 큰 성장의 시기에 저는 결코 혼자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멘토는 관계적으로 멘티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남성 멘토들은 여성 멘티와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초기 주창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리 그레이엄 규칙(The Billy Graham Rule)이라고 알려진 이 생각은, 정직한 남성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결코 여성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는 이 규칙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733] 물론 여전히 실제적인 지혜는 필요합니다. 멘토링 점심이 멘토링 저녁보다 아마 더 지혜로울 것이고, 사역 여행에 한 사람만 데려가기보다 두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더 낫고, 한 사람에게만 투자하기보다 두 사람을 동시에 멘토링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다고 죄악된 욕망이 억눌러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인정합시다—외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외도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혹을 줄이거나 이기도록 (또는 둘 다) 돕는 성품, 지혜, 영적 깊이, 적절한 관계적 경계를 갖춘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피하지 않고도 유혹을 지혜롭게 다루는 성숙함을 길러야

733. 예를 들어, 요한복음 4:8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단둘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상호보완주의 남성이 그랬을 것처럼) 이 상황을 피하시는 대신 의도적으로 이 순간을 찾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기회를 통해 그녀와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십니다.

합니다.[734]

부부 사역을 다시 생각하라

상호보완주의의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서 부부에게 획일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된 틀—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틀—은 제가 "베드로와 아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735] 이 모델에서 남편은 지도자이고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남자는 사도 베드로처럼 앞에 나서는 지도자 또는 설교자이거나 둘 다이고, 그의 아내는(이 경우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의 사역을 기쁘게 지원합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많은 부부에게, 어쩌면 대부분의 부부에게 이 모델은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사역하는 모든 부부에게 이것이 맞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다른 가능한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드보라와 랍비돗" 모델이 있습니다.[736] 이 경우 아내는 앞에 나서는 지도자이고, 남편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입니다. 상호보완주의 진영에서조차,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역으로 부름받은 여성이 많으며, 아마 무대 뒤에서 일하는 데 더 은사가 있는 그들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위한 아내의 일을 자랑스럽게 뒷받침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와 남편은 함께 일함으로써 자신들의 리더십 은사를 결합합니다—이 성경 속 부부가 사업과 가정 관리와 교회 리더십에서 함께 협력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 결혼 생활을 가장 잘 묘사하는 모델입니다. 제 아내는 별도의 소명을 추구하기보다 사역에서 저와 한 팀이 되기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리더십 은사를 제 은사와 합칩니다. 저도 똑같은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734. 이 문제에 대한 더 포괄적인 답을 원한다면, 케이디 콜의 "Developing Female Leaders"에 실린 "Create a safe environment"라는 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녀는 또한 일터와 교회에서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관계 문제도 다룹니다.

735.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를 지원하기만 했을 뿐, 자신의 공적 사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분은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38-40) 우리는 다른 사도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결혼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십 년 뒤, 베드로의 사역 여행에 동행하여 유럽으로 갔을 때까지 언급되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9:5)—아마 그때쯤 자녀들이 다 자라서 그녀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36. 사사기 4:4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737] 모델도 잊지 맙시다. 왕비 에스더는 남편의 몇몇 리더십 활동을 지원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리더십 역량은 다른 기회와 영역에 집중했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지원을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종류의 사역 속 결혼에는 공적 리더십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이 있지만, 이 경우 그들은 서로 다른 두 조직을 이끕니다.

보시다시피, 부부가 사역에 참여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위계적인 결혼관은 첫 번째 모델("베드로와 아내 모델")만 지지하며, 다르게 만들어진 수많은 부부에게 의심과 우려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호주의적 비전은 모든 모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모델을 기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역 속 결혼 모델은 성별을 포용하는 교회 리더십 팀의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 혼성 팀

남녀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두 리더십 팀도 정확히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각 팀은 그 교회에 있는 리더십 은사들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팀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루디아나 디모데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십 은사를 가진 독신 여성과 독신 남성입니다. 신약은 독신자와 기혼자에게 동등한 부르심을 부여하므로, 결혼 여부가 누군가를 리더십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독신자들이 독특한 집중력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738]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한두 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같은 리더십 소명을 받았고, 둘 다 팀에 속한 부부입니다.
- 베드로나 아하수에로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십 은사를 가진 기혼 남성으로, 그들의 아내는 더 지원하는 역할을 선호하거나, 다른 곳에 온전히 쏟고 있는 리더십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리더십 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737. 아하수에로는 경건한 남자의 모범이 아니며, 그의 결혼들도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건한 결혼에서 본받을 수 있는 그의 행동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동안 아내들(처음에는 와스디, 그다음에는 에스더)이 각자 자신의 일을 추진하도록 허용했습니다—와스디는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고, 에스더는 법을 썼습니다. 이런 결혼 방식은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드물었고 최상류층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이 유일한 예입니다. 여성이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 남성과 동등해지고 있는 많은 현대 문화에서는, 결혼한 배우자들이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나 직업이나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합니다.
738. 고린도전서 7:32-34

아내들의 한정된 자원봉사 역량을 몇 시간씩 이어지는 회의에 앉아 있게 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역량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수 있는 요구를 지우는 데 써 버리는 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감당할 역량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드보라나 에스더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십 은사를 가진 기혼 여성으로, 그들의 남편은 더 지원하는 역할을 선호하거나 다른 곳에 온전히 쏟고 있는 리더십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리더십 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 팀을 남녀 혼성으로 꾸리는 상호주의 교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결합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성별 포용적 리더십 모델의 주된 과제는 베드로의 아내와 드보라의 남편을 돌보고 그들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배우자들에게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계속 포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목회 팀의 관계적 유대 활동입니다. 즐거운 하루 나들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 또는 교회를 위한 집중 기도 시간에 그들을 함께 초대하면, 그들을 원 밖이 아니라 원 안에 머물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 팀의 모든 구성에는 강점과 함께 잠재적 약점도 있습니다. "베드로들"로만 이루어진 상호보완주의 모델처럼 단순하지만 자칫 메마를 수 있는 구조를 택하기보다는, 다양성의 복잡함을 끌어안고 지혜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분은 각 리더십 팀이 그 특정한 시기에 맞는 특정한 실천 방식을 찾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서 배우라

많은 교회 리더십 팀이 자신들의 교리를 상호보완주의에서 상호주의로 바꾸었거나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리더십을 맡아 온 세월 동안, 저는 교회의 신학을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일에 두 번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배운 것은, 신학을 바로 세우는 것과 교회 전체를 한배에 태우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전환을 이룬 다른 교회들에게서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저는 롭 딕슨 박사(Dr. Rob Dixon)와 에이프릴 피엣(April Fiet)이, 이미 이 개선을 이룬 교회들과 진행한 집중 인터뷰를 바탕으로, 남녀 상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합니다.[739]

739. www.bit.ly/3nECNFR

예를 들어, 우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유력한 교회인 벤트 트리 바이블 펠로십(Bent Tree Bible Fellowship)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상호주의에 저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촉매를 보내셨을지도 모른다고 분별했습니다—더 나은 신학을 제시한, 그들 가운데 있는 신뢰받는 지도자이자 신학자 한 사람, 그리고 여성을 최고 리더십 팀에서 배제하는 것과 점점 더 어긋나 보이던, 오랫동안 지켜 온 공동 리더십의 가치였습니다. 벤트 트리의 남성으로만 구성된 장로 팀은 꼬박 1년 동안 관련 본문을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연구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읽은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연구 결과를 나누려고 모였을 때, 그 그룹은 성경 연구에서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에서도 만장일치였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도 더 이상 여성에게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투명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 교리적 변화에 회중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들의 성명, 설교 한 편,[740] 그들이 작성한 신학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교회 안의 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거나 우려를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하거나 불안해하는 교인들과 이 대화를 다가가기 쉽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며, 목회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전환을 이룬 교회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교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교리적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교리적 변화를 이룬 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깊이 숨을 고를 때입니다. 그런 다음 구조적·문화적 변화를 실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여성과 남성이 참으로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분별해 가면서 말입니다—이 모든 것은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게 전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40.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 설교를 들어 보십시오: www.bit.ly/3xbsb4h



17
사람들 대 가부장제

"남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는 이 이야기는 섬뜩하며,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베스 앨리슨 바[741]

"40년 동안 목회자로 지내 온 내 경험으로는, 교회 생활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인정될 때 모든 것이 더 나아진다." 케빈 자일스[742]

최근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그리고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대화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계속 행진하고 있어. 상호보완주의가 장갑처럼 꼭 들어맞는, 재능 있는 남자들과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 문제는 이것이 그 자체로 리더인 아내들과 독신 여성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들은 여성 사역, 어린이 사역, 행정 사역, 상담 사역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 줄 수 있는데도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음, 적어도 주된 문제는 아니야." 아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된 문제는 상호보완주의 신학과 실천이 남자들에게 여자를 보도록 훈련하는 방식이고, 어쩌면 더 슬프게도, 여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도록 훈련하는 방식이야. 아무리 미묘하다 해도, 그 메시지는 여자가 어떤 면에서 남자보다 못하고, 그래서 내어 줄 것도 적다는 거야. 그런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아무리 호의적이고 그들을 "존중"한다 해도,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과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에는 잘해야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최악의 경우에는 우월감이 깔리게 될 수밖에 없어.

741. The New Yorker 인터뷰, 2021년 7월 25일. 출처: www.bit.ly/2YjaG4Z
742.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h. 8

아내는 잘 알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온 평생 동안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에 자신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기질과 기회와 자신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문제는 신학입니다. 교회의 신학은 우리가 생각하듯 어딘가의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된, 아무도 열어 보지 않은 성경 논증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의 지각이고, 비전이며, 현실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에 관한 신학은 곧 우리가 여성을 보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호보완주의 신학을 버린 일이 가져온 주된 결과는, 여성에 대한 제 인식이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예전보다 여성들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제 눈에서 들보들을 빼내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아이디어, 관점, 분별력, 표현력, 방향 제시 등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 줄 수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볼수록, 아담(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무게와 확신을 더 깊이 느낍니다.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유리 천장과 금빛 새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계속 제 길에 보내셔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숙하고 은사 있는 한 신자는, 교회에서 이끌고 설교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영적 경험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진하게 털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녀가 남자였다면 그 소명 의식은 정당한 것으로 칭찬받았겠지만, 남자가 아니니 그 부르심은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교회를 떠났고, 다른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여전히 헌신된 상호보완주의자인 또 다른 여성은,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애써 온 끝에 자기 목소리를 거의 잃어버렸고, 그 결과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목사인 한 친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함께 이끌어 온 아내가 이제는 일터에 열정적으로 자신을 쏟고 있으며 교회를 섬길 의욕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바깥세상에서는 자신의 은사가 존중받고 남자들이 자신을 동료로 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은사 있는 리더인 또 다른 친구는 평생 교회에서 일한 끝에 마침내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략적 아이디어를 성별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확신과 비전이 강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이세벨로 여겨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사흘간의 콘퍼런스가 끝난 뒤,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한 여성 리더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콘퍼런스 기간 내내 날마다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포부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방어적이 되지만, 그녀는 기독교 리더십은 남자들의 일이라는 메시지가 자신에게 전달된 미묘한 방식들과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방식들을 하나하나 짚어 줍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하려고 애쓰고, 마침내 그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 말 밑에 깔린 깊은 실망과 상처까지 말입니다.

더 최근에 저는 목회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사역하는 여성에 관한 워크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남성 중심의 환경에서 자기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르심을 거듭거듭 의심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제 형제들은 결코 자기 부르심을 의심하라는 부추김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중 잣대를 한탄합니다. “리더십에 있는 많은 남자가 실제로 공격적이라는 잘못을 범하는데도, 남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그것을 용인합니다. 반면 여자는 그저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기만 해도 죄를 짓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에게 다가갔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온갖 카리스마와 사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민을 진정으로 들을 줄 모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 같은 자기 삶의 남자들에게 대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친구가, 자기 아내와 딸을 자기 교회에 계속 참여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은사 있는 여성들인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그에게 말하고, 그는 그들을 달리 설득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제게 털어놓아 준 여성들의 이 우연한 이야기들은 모두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환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남동풍이 때로 몇 주씩 계속해서 울부짖듯 붑니다. 그 결과 많은 나무가 북서쪽으로 영구히 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교회의 "신학", 곧 핵심 주제에 관한 그 교회의 신념 체계와 성경 해석 방식이 그 무엇보다 교회의 태도와 전제와 관행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보완주의도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람에 충분히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늘 부는 바람 속에서 살아온 여성은 휘어지기 쉽습니다. 사역의 잠재력은 꺾이고, 개인의 안녕은 위태로워집니다. (아니요, 저는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여 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743])

돌아보면, 저는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제한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사역 미래를 생각하다가 문득 제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아이들을 인도하시리라 신뢰하면서도, 저는 제 아들들이 언젠가 목사가 되어 다른 이들과 팀을 이루어 교회를 가르치고 이끄는 짜릿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형제들 곁에서 놀고 있는 외동딸 아이비를 바라보았고, 저는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여성이 부딪히는 유리 천장은, 여성을 제자리에 묶어 두려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는 가부장제의 설계자들이 만든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천장들은 성별에 관한 우리의 신학으로 아주 미묘하게 지어집니다. 여기 제가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빠가, 딸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기여에 보이지 않지만 뚫을 수 없는 경계를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딸이 올바른 남자와 결혼해야만 남자 형제들과 같은 수준의 기여를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멈추게 하세요!"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을 쓰는 동안 저는 제가 사는 도시의 한 교회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리더십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팀의 여성들을 "보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게) "듣는" 영적 훈련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리더십 회의에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쓰는 일이 마치 트럭을 끌고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가는 건, 이게 멈췄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책을 쓰는 일, 곧 진이 빠지고 시간이 많이 들며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을 뜻했습니다.

743. 지난 15년간의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평균 연령 47세의 여성 2,234명을 연구한 결과, 포용적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보다 상호보완주의 교회에 다니는 여성이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Patricia Holman and Amy Burdette, "When Religion Hurts: Structural Sexism and Health in Religious Congreg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1, Vol. 86 (2): 234–55.)

그러자 팀의 한 여성이 "멈추게 하세요!"라고 말하더니, 그 짧은 명령을 예언적인 무게를 담아 두 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여성을 이런 식으로 보고 대하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그녀의 간청에는 거의 하늘에서 보내온 듯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인내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녀의 말을 계속 떠올리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세요! 멈추게 하세요!" 이 책은 그 방향으로 드리는 저의 작은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상호보완주의가 성경 전체를 제대로 해석한다는 면에서 과녁을 빗나간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해로운가?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상호보완주의 리더였던 저는, 누룩으로서의 상호보완주의가 모든 빵 덩어리(모든 교회)에 똑같은 정도로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겪어서 압니다. 제가 함께 이끌었던 교회 같은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은, 여성을 배제하는 교리와 여성을 풀어 주는 교리를 최대한 잘 섞어서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려고 애씁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에서조차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성차별적 태도를 너무 쉽게 숨겨 줍니다. 적대적인(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성차별이든 "호의적인"(그래서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빠진) 성차별이든, 성차별은 남성이 여성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의사였던 래리 나사르(Larry Nassar)를 가해자로 고발하며 공개적으로 나선 수많은 피해자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레이첼 덴홀랜더(Rachael Denhollander)는 자신이 속한 남침례교단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가져야 할 조용하고 복종적인 영역에 관한 설교는 수백 편, 말 그대로 수백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한 설교는 단 한 편도 듣지 못했습니다."[74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교회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거짓 가르침을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종차별적 태도를 회개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문화권의 수많은 비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죄악된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동안,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그저 상호보완주의 신학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슬픕니다.

744. 출처: www.bit.ly/3COpaJc

상호보완주의는 뇌의 한쪽만 쓰는 교회를 만듭니다. 여성을 최고 리더십 팀과 설교 팀에서 배제함으로써, 교회는 스스로 사각지대를 갖게 됩니다. 곧 의사 결정에서, 목회적 접근에서, 성경 해석에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향한 사역에서 뇌의 양쪽을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앨런 허쉬(Alan Hirsch)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사역과 리더십에서 남성의 지배를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과 똑같은 (다소 뇌의 한쪽만 쓰는) 결과를 계속 얻게 될 것이다."[745]

이것이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의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는 두 가지 주된 역할, 곧 설교와 목회 리더십의 역할을 남성에게만 배분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의 목소리와 절실히 필요한 여성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은 적어도 여성을 리더십 회의와 강단으로 초대함으로써 이를 완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시에 여성들이 정말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소외된, 은사 있고 부르심 받은 일부 여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줍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거나 은사가 있는 여성들이 간과되거나, 남성들에게 밀려 무례하게 옆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호보완주의에는 가스라이팅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끌거나 설교하고 싶은 여성에게, 애초에 그런 잘못된, 아니 죄악된 소원을 품었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비난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바라기만 해도,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은사가 있는 한 여성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라고 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제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거부하고, 이제 불의를 당했다는 정당한 의식을 품게 된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저 고통을 묻어 두고 계속 섬겨야 합니까? 목소리를 내고 조롱이나 더 심한 가스라이팅을 감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합니까? 세 가지 선택지 모두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간과된 여성의 고통, 곧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은 아주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은사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직 성별 말고는 아무 이유 없이 소외될 때 자신이 치르는 대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745. Alan Hirsch and Dave Ferguson, On the Verge, ch. 3.

교회에서도, 덜 유능한 사람이 성별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승진할 때 그 대가는 평범함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여성의 리더십 잠재력을 억누르는 데 한몫합니다. 이 점에 관해 리더십 컨설턴트 케이디 콜의 말을 인용합니다.

신실하고 성숙한 여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곧 자원봉사 팀을 운영하는 일이든 주일학교 반을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공식적인 리더십 역할이든, 리더십의 요소들을 마땅히 맡아야 할 때,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신이 권위를 찬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지 안다면 [남성들은] 놀랄지도 모른다. 경건한 여성들은 어딘가에 아마도 자신이 그 아래에서 살아야 할 선이 있으리라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문제는, 그 선이 이를테면 7쯤에 있다면 [남성들에게는 10인데], 대부분의 경건한 여성은 실수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4 정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746]

저는 콜의 통찰이 여기서 아주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끌었던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교회들에서, 저는 왜 그토록 많은 남성이 리더로서 (당연하게도) 날아오르는 반면, 특정 영역에서 이끌도록 격려받은 여성들은 대개 그저 그런 수준까지만 올라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리 천장, 곧 성별에 따른 제한선이 있으면 그 근처까지라도 가는 여성은 극히 드뭅니다. 문제는 유리 천장이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리 천장이 끈적이는 바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한몫합니다. 애덤 갈린스키(Adam Galinsky)는 TED 강연 How to Speak Up for Yourself [747]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대함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는 도덕적 확신, 공동체의 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발판,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여성이 침묵당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성의 복종과 침묵에 관한 교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지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이나 권한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목소리를 내면, 복종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거나 자기 성별에 맞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받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746. www.bit.ly/3wvNjlD
747. www.bit.ly/3k7dsSF. 이 강연을 알려 준 윌리엄 위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을 허용하는 소수의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은 가르치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말라는 지침을 받습니다(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여성 설교자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설교하는 도중 언제라도 자신이 지나친 확신을 드러내거나, 어떤 교리적 진술에 발을 헛디뎌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창립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메리 캐시언(Mary Kassian)은 존 파이퍼의 웹사이트에 Women Teaching Men—How Far Is Too Far?[748]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일 아침이나 주일 저녁 또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해도 되는지 자주 묻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간증을 나눠도 되는지도 묻습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서, 또는 종교 콘퍼런스의 혼성 청중 앞에서 말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되는지, 기도 모임을 인도해도 되는지, 남성을 개인적으로 멘토링해도 되는지, TV나 라디오에서 설교해도 되는지, 글이나 책을 통해 남성을 가르쳐도 되는지도 묻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르치는 영적 은사를 가진 여성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남성의 머리됨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젊은 여성이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적] 순결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그녀는 두 경우 모두 성경에서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을 남성과 성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빗댐으로써, 그리고 그로써 여성이 그 선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암시함으로써, 널리 읽힌 그녀의 글은 이미 수많은 여성을 침묵의 바닥에 붙여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캐시언이 언급한 말할 기회들을 아예 피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혹은 옳은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직접적이고 확신 있게 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할 것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꾼 가운데 많은 이를 묶어 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꾼을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다음 그 일꾼들이 실제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역 교회와 주일 강단은 이 사명을 이루는 데 너무나 핵심적인 도구이기에, 리더십과 설교 은사의 절반을 무시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캐럴린 커스티스 제임스(Carolyn Custis James)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절반이 뒤로 물러서 있으면,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서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우리의 사명은 차질을 빚는다."[749]

748. www.bit.ly/3fxTcKC
749. Carolyn Custis James, Half the Church, p. 162. Cited in Bessey, ch. 10.

상호보완주의는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여성 리더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립니다. 20년 동안 함께 이끌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을 처음 고려했을 때, 저는 그 교회에 촉매 역할을 하는 리더십 은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로 쓰셨고, 저는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저와 비슷한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가장 젊은 회중, 곧 수백 명의 20대들 뒤편에 서서, 이 무리 가운데 어떤 남자가 제 기도의 응답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올 촉매적 은사들이 여성이라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제 눈이 무리의 나머지 절반을 향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한적인 신학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은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리 길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여성들이 품은 하나님 나라의 꿈에 상한선을 씌웁니다. 모든 야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는, 성령에게서 난 야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20대에 저는 빠르게 성장하던 교회 개척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던 저는 이 운동을 앞장서 이끌던 나이 많은 남성들을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내가 하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하겠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운동의 리더가, 나이는 리더십의 기준이 아니며 오직 경건함과 은사만이 기준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상황적 요인들을 방정식에서 제거함으로써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저를 일깨웠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나이도 성별도 아니고 오직 경건함과 은사가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잠재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해 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결국 설교자나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임무에서든 탁월하게 해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온화한 남성들에게는 특히 가혹하고, 본래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공격적인 남성들은 지나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 진영에서 저는 "강한 여성"을 이끌지 못하는 "약한 남성"이라는 문제에 관한 많은 대화를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눈 속에 훨씬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남성들은 타고난 리더다. 상호보완주의 신학에 따르면, 잘 이끄는 남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잘 이끌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남자이고, 가정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면, 리더가 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 일에 별로 능숙하지도

않은 저쪽의 저 남자보다 자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영성인가, 아니면 그저 성격인가?[750]

반대로, 상호보완주의는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들에게는 특히 매정하고, 본래 복종적인 여성들은 지나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여성들이나 본래 순응적인 여성들은 현 상태에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가부장제의 전제들은 스스로를 확증했습니다. 자녀에게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했고, 그동안 남편들은 사회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키워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전업주부 어머니들이 같은 전제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내의 복종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또한 경건한 여성상의 본보기로 칭송받습니다.

더 흔하게는 일하는 여성들, 특히 직장에서 권위를 부여받고 리더십 은사를 지닌 여성들이 이 상황의 불공정함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항의의 목소리를 내면, 그들의 강한 의견과 기꺼이 목소리를 내려는 태도는 곧바로 복종하지 않는 영의 징후로 인식됩니다.

이 성차별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호보완주의적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자기 생각을 기꺼이 말하는 자신감 있는 남성은 잠재적 리더로 보이지만, 목소리를 내는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잠재적 위협으로 보입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사회 속의 파괴적인 성별 위계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일부 잃게 만듭니다.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전 세계적 재앙 뒤에는 성 불평등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로 황폐해진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고통을 낳는 불의하고 죄악된 태도와 체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해방운동 안의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습니다.

남성이 우선권을 갖고 여성이 그들에게 종속된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수천만 명의 여아 태아를 낙태로 이끄는 남아 선호, 교육과 건강과 소득과 재산 소유와 일자리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 널리 퍼져 있고 용인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주로 성매매를 위한 여성 인신매매.[751]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도 이런 불의를 공공연히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여성을 남성과 진정으로 동등한 자리로 높이는 성별 상호성의 교리는 사회에 훨씬 더 좋은 선물입니다.

750. Kristen Rosser in “The Consequences of Complementarianism for Men.” www.bit.ly/3BNNCsL
751. Giles, 549

그것은 불의를 영속시킬 수도 있는 편견의 씨앗을 제공하는 대신, 사회의 구속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가부장적 사고방식 때문에 보통의 어린 소녀가 누리는 삶의 질이 전적으로 아버지와 삼촌과 남자 형제들의 선의나 악의에 좌우됩니다. 여성에게 주체성이 거의 없는 성 불평등 문화는 여성을 남성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런 문화는 종교적인 경향이 있고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신앙 공동체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이 소녀들은 간접적으로 무엇이 가르쳐지느냐에도 좌우됩니다. 안타깝게도 50개국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 수준은 종교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752] 제1세계에서 적용되는 상호보완주의 가르침은 더 넓은 사회가 그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가끔에 불과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그러하듯 이른바 "3분의 2 세계"로 흘러 들어가면 그 부정적 영향은 배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동체의 규범과 열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종교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의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근원이자 변화의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다."[753] 그렇다면 잘못된 여성 종속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고통받는 수백만 여성을 위해 성평등에 관한 분명한 외침을 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상호보완주의는 교회의 신학적 능력과 해석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책을 통해 보여드리려 애썼듯이, 상호보완주의는 잘못된 해석학을 정상으로 만듭니다. 불분명한 본문 위에 주요 교리를 세우고, 더 분명한 본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불분명한 본문 해석을 허용합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핵심 교리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남침례교 신학교 교수들이 해마다 댄버스 선언에 서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어야 하겠습니까? 상호보완주의는 사물을 다르게 보는, 생각하는 성경 신자들을 악마화하며, 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에 굴복한다고 비난합니다. 사회와 관계 맺을 때 비판적 정통이 아니라 반동주의를 부추깁니다. 최근까지는 심지어 삼위일체까지 논쟁에 끌어들여, 성별 위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려고 신성 안의 영원한 관계들을 다시 상상하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남겨 주지 못합니다. 상호보완주의에 맞서는 것이 정말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용기를 준 것은 미래의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호보완주의 교회나 교단 안에 있는 현재의 권력 구조와 연합 관계 때문에 그들이 이 영역에서 신학을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752. 출처: www.bit.ly/3xSsK5k
753. Berke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and World Affairs; Georgetown University (2008). Challenges of Change: Faith, Gender and Development, p.5

만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림에서 빼고 20년 뒤 같은 교회를 이끌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상상해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언젠가 교회 리더십 팀에 앉아, 점점 더 변호할 수 없게 되어 가는 이 교리를 그들이 변호해야 하는 슬픈 장면을 상상합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을 그들에게 정리하라고 남겨 두다니,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꽤 빈약한 논증과 모호한 실용적 염려에 근거한 위계적 신학을 그토록 기꺼이 옹호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린 소녀의 꿈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버릴 이유를 하나 더 줍니다. 독신 여성들로 하여금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쓸모와 기여가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남성 리더와 결혼한 여성들이, 어쩌면 더 은사 있고 더 헌신했지만 독신이거나 리더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허락받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교회에서도 허락받아) 이끌고 가르치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학대하는 남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대신해 뇌의 한쪽만 쓰는 제한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끝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어른-어른" 결혼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억누르는 "부모-자녀형" 결혼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 엄마에게 죄책감과 압박감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일하는 동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집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고, 압박감은 하루 종일 일한 뒤에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일이 남편보다 자신에게 더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주체성 일부를 내려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번영은 주로 남편이 그녀를 얼마나 잘 이끄느냐에 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754]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755] 이 격언은 주로 사람과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리와 그 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참된 교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의 쓴 열매를 볼 때, 저는 그 타당성을 두 배로 의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754. 제 아내 줄리의 설명입니다. "상호보완주의 안에서는 남편에게 맡겨 버리고 주도권을 덜 쥐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저는 꽤 자주 제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둘의 방향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일에서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물론 결코 드러내 놓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작으면서도 매우 중대한 온갖 결정들에서 그랬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의미에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55. 마태복음 12:33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내내 이 "기독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성경적 대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토록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 대안 말입니다.

극좌 이념인가, 미끄러운 비탈길인가?

많은 이들은 남녀 상호주의가 극좌 이념의 만연한 영향력, 곧 그 정체성 정치에 영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념은 아이러니하게도 학대적인 형태의 가부장제에서 피해자였던 이들을 새로운 억압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는 쓰레기다.' 그러니 차라리 여자가 이끌게 하라!"

그러나 이전에 권력을 박탈당했던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권력 역학을 뒤집으려는 사람들은, 처음 보기보다 여성 혐오적인 권력의 수호자들과 더 가깝습니다. 과거의 지배자를 지배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며, 실제로 남녀 관계의 붕괴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와 달리 남녀 상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특권을 가진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그 누구도 다른 이를 다스릴 본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성경적 확신에 근거합니다. 남녀 상호주의는 어느 한쪽을 어떻게든 우월하다고 보는 대신, 상대의 참된 가치를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약점과 사각지대와 죄를 자각하는 데 뿌리를 둔 상호 의존을 추구합니다.

이 책에서 상호주의를 지지하는 논증들은 종종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문화에 떠밀려 근본적인 기독교 정통을 점점 느슨하게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등주의적 문화가 이 대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책에서 입증했듯이, 성경은 실제로 여성의 존엄과 기여를 회복시키는 촉매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성 혐오와 가부장제가 수천 년 동안 인류 문화를 지배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신자가 교회 전체의 이 변화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입니다.

변화의 주역 되기

교리적 차원에서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책은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확신을 더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 교회에 속해 있고 이 책의 논증 대부분이 설득력 있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남녀 위계에서 남녀 상호주의로 옮겨 가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목소리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때로는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겉보기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민수기에 숨겨진 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불평등을 영속시키는 법과 규범에 도전하는 일이 영적으로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지를 확신시켜 주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주된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재산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갔고, 딸들에게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섯 여성이 용감하게 힘을 모아 이 불의한 제도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그 제도의 가부장적 성격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다섯 딸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는 친절하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쁘게도) 여성들의 말에 동의하십니다. 더 공정한 법이 제정됩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756]

오늘날에도 교회의 규범이나 정책, 정부의 법, 기업의 절차가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훼손하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 불의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세처럼 그들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맥락에서 여성들은 리더십과 가르침처럼 가장 중요한 사역 기능을 남성이 지배하는 경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구약의 개념은 성경 후반부에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각자의 영적인 기업, 곧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각자가 맡은 고유한 사역을 가리키게 됩니다.[757]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의 기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잠재력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756. 민수기 27:4, 8, 11
757. 시편 2:8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함한 온 땅이 예수님의 고유한 기업입니다. 시편 16:6에서 다윗은 약속의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 각 종족과 가문에 땅을 배정하던 관행을 언급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울은 한 무리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3) 우리 각 사람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12)

사회적 혹은 종교적 체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제는 결국 자기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교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758]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호감을 주면서도 정중하게 목소리를 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 되십시오. 캐나다의 신학자 존 스택하우스는 이 점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능한 한 분명히 보아야 한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명백한 한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려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이런 현실주의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서 대개 성공할 수 없는 세상, 빵 반 덩이에 자주 만족해야 하는 세상, 가치들의 충돌에 자주 맞닥뜨려 더 낮은 가치를 희생하며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 또는 계층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예컨대 특정 교회의 장로들은 많은 젊은이의 말을, 그들이 아무리 옳아도,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남성은 여성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좋지도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실제로 주어진 선택지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의 사회적 현실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논증의 타당성만으로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점에서 내 말이 잘못 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나의 믿음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중지, 곧 내가 "사회학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759]

열 개의 회중으로 이루어지고 수천 명이 모이던 이전 교회에서, 저는 동료 의사 결정자들, 곧 열 명 남짓으로 구성된 최고 리더십 팀의 신학을 실질적으로 비판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절반만 생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전체가 둘로

758. 이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옳으면서도 그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딸은, 자신들의 불만이나 불의하다는 느낌을 들어 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분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지도자들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을 보여 줍니다.
759.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99–100.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명만 생각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들은 일자리와 테이블에서의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사회학적 기적"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또는 대부분이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동시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760]

그래도 이 문제가 제 많은 형제에게 불안을 안겨 주었음에도,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점 덕분에 저는 여전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길게 내다보십시오. 스택하우스는 이렇게 이어 갑니다.

[상호주의를]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결혼이나 회중이 파열되고 심지어 파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념가는 자신의 순수함과 열심에서 개인적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신다.[761]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몰아붙이시는 일은 거의 없이, 우리를 그분의 뜻과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교회를 천천히 꾸준히 떠미는 일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고 계신 모든 참된 일에 대한 감사 어린 지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선택지를 고려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기적을 기대할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완고한 동료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가 구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품게 되기 전에 말이다."[762]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상호보완주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면, 기꺼이 목소리를 내려는 태도와 스택하우스가 "예언자적 망설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합하십시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망설일 때 기다림의 우선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죄성을 기억하고,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한다. … 행동하는

760. 어떤 이들은 왜 어떤 교회들은 상호보완주의와 상호주의를 둘 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규정적 신념"이라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교리에 속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 교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통에서 참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구원하는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주나 종말 예언에 관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규정적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 전반에서 논쟁이 되는 교리이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믿는지, 장로가 이끄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리고 물론 그 장로들의 성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답들이 교회의 실천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761.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100.
762.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100.

가운데 우리는 멈추고 되풀이한다 … 존중의 표시로서 말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땅을 나누어 쓰는 피조물들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을 표현한다. 우리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서는 가치와 실재들이 있다는 겸손이다.[763]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도로 적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해산을 앞둔 여인의 인내처럼 결국 더 나은 교회라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교회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남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교회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어떤 측면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교회를 떠날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들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의 뿌리에 있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족을 결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다고 여겨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 교회의 교리가 더 나아질 날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냥 떠나 버린다면, 그 교회가 언젠가 사려 깊게 교리를 바꿀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변화를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오래 참음을 최대한 본받고, 우리 교회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결혼 생활에서 성화의 과정은 종종 배우자를 상대에게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지점으로 이끕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결혼을 지킬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녀 상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교회에 남는 것이 견딜 수 없거나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자들이 교회에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제게 물을 때, 저는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시는 지역에, 직접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상호주의 교회가 있습니까?”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열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목록으로 만든다면, 남녀 상호주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처음 다섯 가지 안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다섯 가지 안입니까?”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 경험칙은 이렇습니다. 이 가치가 상위 다섯 가지

763. Glenn Tinder, The Political Meaning of Christianity, p.164. Cited in Stackhouse, p. 97.

안에 있다면, 그 교회에 계속 남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다섯 가지 안에 있다면, 아마도 어느 교회에 다닐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을 수도 없고, 우리 지역에 합류할 만한 적절한 교회도 없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새 교회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만 말입니다. 때로는 상호보완주의라는 실로 온통 꿰매어진 낡은 부대에 압력을 가하기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학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몸이 불편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

이제 천천히 …

예수님께서 …

보셨습니다 …

그 여인을.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남자로 하여금 그분이 한 여인에게서 보시는 것을 보도록 도우려 하시는 장면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남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764] 그분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꼬부라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창세기에서 하갈을 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그저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해방하십니다. 그녀의 위대함을 불러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앞으로 불러 이르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765] 그분이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녀는 즉시 몸을 곧게 펴고 그 어느 때보다 꼿꼿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764. 누가복음 7:44
765. 누가복음 13:11-13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녀를 고치셨다는 데 분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격노하시며, 그가 이 여인보다 자기 가축을 더 아낀다고 책망하십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여기 거의 20년 동안 몸이 일그러지고 고통으로 구부러진 채 이 신앙 공동체에 나와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것이 본분인 영적 지도자는, 그녀의 비참한 상태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그녀가 똑바로 서자 그제야 그는 불쾌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전에 한 번도 주어진 적 없는 칭호를 주심으로써 모인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충격파를 보내십니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사라 베시는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들어 보았지, 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와 함께, 그분은 그녀에게 아들들 곁에, 특히 그 모든 것에 대해 자기들의 소유권과 배타성을 내세우며 으르렁거리던 아들들 곁에 설 자리를 주셨다."[766]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그녀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새 이름만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그녀의 키, 곧 꼿꼿이 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징적 행동의 대가이십니다. 그녀의 굴욕과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부장적 세상에서는 모든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신이 때로 남성보다 못하다거나 남성 아래에 있다는 오해 아래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을 남성과 진정으로 동등하다고 여긴다 해도, 너무나 자주 자신의 은사와 기여를 온전히 펼칠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3대째 목회하는 노르웨이의 한 목사가 최근 여든 살 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후회가 딱 하나 있다.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내 아내는 한 번도 자기 은사를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있었다. 아내를 그늘 속에 묶어 둔 교회 문화에 맞설 수 있었다."

창조와 구속 모두, 남성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여성은 길들이는 가부장들의 책략에 맞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피터와 수전, 에드먼드와 루시 같은 이들은 나란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여성들은 부활하신 유다의 사자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예수님을 집에서 기르는

766. Sarah Bessey, Jesus Feminist, ch. 1.

애완동물처럼 길들이는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정작 사자의 피가 흐르는 그분의 왕족 자매들은 억누르고 있습니다.

수 세기 전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여성이 구부러져 있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맞서시고, 상한 갈대에 치유의 연고를 발라 주시며, 구부러진 묘목을 키 큰 의의 나무로 바꾸십니다. 이 거룩한 일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곧 모든 여성이 남성과 나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뜻하신 모든 것을 향해 몸을 펴고 위로 자라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부록 1: 하나님은 남성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로 남성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기 계시라면, 그분의 남성성은 이런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많은 페미니스트가 순전히 이 이유로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들이 만들어 낸 가부장적 창작물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와 권력을 편드는 인공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역사 내내 이것을 권력을 유지할 권리의 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거의 모든 다른 형태의 억압에 대해서도 그렇듯)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성성"에 대한 성경의 묘사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가부장제를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 길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신중하게 읽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진지한 신학자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생식기나 인간 남성성의 다른 표지가 있다는 생각을 일축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지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선택하시는 방식에서는 남성이면서 여성이십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성경의 첫 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767]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나님의 본질의 무언가를 가장 잘 구현하고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남성 형상 담지자는 하나님과 같고 여성 형상 담지자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그 본질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모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와 성경 설교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남성적인 방식으로 계시되시지만 남성이면서 여성이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몸담았던 교회 전통들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그분을 언제나 남성으로, 그리고 결코 여성은 아닌 분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67. 창세기 1:27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제공합니다. 마고 하우츠(Margo Houts)는 The IVP Women's Bible Commentary[768]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예로 드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어머니,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 젖 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를 부르고 가르치고 안고 고치고 먹이는 어머니로 나타납니다.[769] 성경 이야기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입을 옷을 짓는 재봉사, 출산을 돕는 산파, "여종이 긍휼을 바라는" 권위 있는 여주인, 반죽에 누룩을 넣는 여인, 그리고 거친 숨이 신적 권능의 이미지가 되는 해산하는 여인입니다.[770]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771]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위로하는 암컷 새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되는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772] 이 새는 흔히 독수리로 명시됩니다[773].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성난 암곰에 비유됩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774]

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엄선된 본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그 지혜를 통해 창조가 탄생하는 잠언 8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각자 이 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물었습니다. 제 딸은 하나님이 여자라는 점이 좋았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본문은 사실 지혜를 하나님도 피조물도 아닌 일종의 중개자적 존재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바울 자신과 그를 따른 많은 초대 교부와 고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경향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775] 지혜의 성육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그분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진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부 이레나이우스(Irenaeus)는 이 신비로운 여인을 하나님의 존재의 한 측면으로 해석하여, 성령 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요한복음 1:1-3과 히브리서 1:1-2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신약의 저자들과 이레나이우스가

768. Margo G. Houts, "Images of God as Female," in The IVP Women's Bible Commentary, p. 356-58. Cited by Peppiatt, ch. 1.
769. 민수기 11:12; 신명기 32:18; 이사야 49:14-15, 66:12-13; 호세아 11:1-4
770. 느헤미야 9:21; 시편 22:9-10; 71:6; 이사야 66:9; 시편 123:4; 누가복음 13:20-21; 이사야 42:14
771. 마태복음 23:37
772. 시편 17:8; 36:7; 57:1; 91:1, 4; 이사야 31:5
773. 신명기 32:11-12; 출애굽기 19:4; 욥기 39:27-30
774. 호세아 13:8
775. 고린도전서 1:30과 골로새서 2:3

"그녀"를 성자와 성령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여성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신비를 지우려는 우리의 시도에 도전합니다.

혀 짧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 신학자 장 칼뱅은 성경이 하나님께 "입, 귀, 눈, 손, 발"을 돌리는 방식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모들이 아기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혀 짧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작은 역량에 맞추어 준다(accommodate). 이를 위해 그분은 자신의 높으심에서 저 아래로 내려오셔야 한다."[776]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자신을 보이시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신학 용어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며, 이는 인간의 형태를 취함을 뜻합니다. "맞추어 준다"라는 말로 칼뱅이 의미한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심에서 몸을 굽혀 "혀 짧은 소리로 말씀하심"으로써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분은 우리의 언어와 사고 형식과 인간 경험의 범위에 기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맞춤은 많은 것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곧 정의상 피조물의 정신의 한계 안에 담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피난처가 되는 바위, 맹렬한 용사, 남편, 어머니, 아버지, 토기장이, 목자, 건축자, 그리고 왕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인 무언가를 말해 주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유들을 너무 멀리 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유비조차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성으로 계시하실 때, 그분은 혀 짧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별이 있고 다른 신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힌두교의 신들과 달리, 여호와는 문자 그대로 남성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남성성은 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유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팔과 눈은 언급되지만, 우리는 남성성이라는 유비 때문에 그분의 허리 아래까지 상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777]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그에 딸린 부속 기관을 갖춘 남성의 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은유는 기껏해야 실제로는 형언할 수 없는

77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13.1. Cited by Peppiatt, ch. 1.
777. 요한복음 4:24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이미지는, 교회가 실제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신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성별이 있거나 몸을 지녔거나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남성성은 왜 그토록 두드러지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남성이 아니시라면, 왜 성경에서 주로 남성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herself'(그녀 자신)가 아니라 'himself'(그 자신)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성경을 이루는 각 책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 아모스, 다윗, 베드로 등 각 저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 속에 있던 특정한 사람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의 감수성과 전제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문화의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답의 일부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으로서 고대 가부장 문화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캐나다 신학자 존 스택하우스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가 내놓는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을 인간에게 전하려 하신다. 첫째는 그분이 초월하시고, 전능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778]이시며 유지자이시고, 역사의 저자, 의의 수호자, 땅의 심판자, 시대를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문화 속 사람들에게 이 점을 어떻게 가장 잘 전달하실 수 있었겠는가? 주, 통치자, 군주, 재판관, 주인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다. 이것들은 그 문화들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차지했던 지위의 이미지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 하신, 이와 상호 보완적인 둘째 요점은 그분이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을 깊이 돌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돌보시고, 징계하시며, 자신과의 새로워진 교제로 우리를 이끄신다. 특히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여 소중히

778. 남성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거짓 신들과 다르시며, 또한 그분의 피조물에 관여하시면서도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성 창조자로서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여성 창조자이신 경우보다 이를 더 잘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생식에서 어머니는 자기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므로, 이 은유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범주적 구분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시고, 그들과 돌봄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과 함께 신실하고 서로 헌신하는 영원한 유대를 이루고자 하신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문화 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연인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다. 물론 부모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구혼자와 배우자의 이미지다. 주와 연인이라는 개념을 결합하려면 분명히 대부분 남성적 이미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구애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대개 신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부의 마음을 얻어 내야 했던 문화에서는, 남성 구혼자의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통했다. 남편과 아버지가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물질적으로 부양하며 지켜 주던 문화에서는, 남성적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통했다.

"혀 짧은 소리로 말할" 때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은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기 계시를 우리의 사고 형식과 문화적 이해에 맞추어 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들을 전적으로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계시하신다고 해서 군주제 정부가 민주제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어디까지 가시는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남성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성부와 성자로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아들 관계는 강력하고 풍성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그토록 효과적으로 계시하시는 방식을, 구약이 이스라엘과 약속된 다윗 계열의 왕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방식을, 그리고 성자와 성부가 나누시는 친밀한 관계(그리고 예수님의 입양된 형제자매인 우리가 아버지의 돌보심 안으로 환영받는 방식)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유비입니다. 은유의 모든 차원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적으로 출산된 아들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779]

이것은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의 성취, 곧 예수님께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부장제를 승인하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께서는 남성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 행위를 묘사하려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780]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된 선물은 한 인격이십니다. 지상에서의 그

779. 누가복음 1:31에서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
780. 요한복음 1:14

33년 동안, 나사렛 출신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다른 모든 방식을 능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소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신인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과 손과 입과 남성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남성이셨습니까?[781]

어쩌면 가부장적 세상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주님이자 남편이신 그분의 정체성과,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성성은 또한 메시아를 새 인류의 머리(새 아담), 새 출애굽(새 모세), 새 나라(새 다윗)로 드러내는 구약의 주제들을 절정으로 이끕니다. 그분의 남성성은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신 그분의 선택이 지닌 영향력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명예-수치 문화에서 여성은 이미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구주는 그 문화에 내재한 권력 구조를 더 잘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종의 역할을 취하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섬기시는 종 말입니다.

이런 성경적 모티프와 상황적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남성성의 의미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양성적 존재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을 때, 그분이 취하신 것은 남성성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남성의 성을 취하셨다기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 본성 전체를 취하셨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지상의 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그분의 육체성과 지상의 삶으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위에서 훑듯이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에 관한 너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그 인격의 겉만 훑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변모하시기 전에, 그들은 그분을 기적을 행하는 유대 지방의 유대인으로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781. 이어지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 루시 페피아트의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of Women" 첫 장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782] 루시 페피아트는 제자들의 경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성찰합니다. "예수님께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 요컨대,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것을 안다."[783] 지상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차적 자기 계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지상의 몸이 하나님의 배타적인 자기 계시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의 남성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으며, 이 사실은 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대한 흔한 반론 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남성 리더가 남성이신 그리스도를 더 잘 대표하는가?

일부 개신교회와 대부분의 가톨릭교회는 여성을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나 사제직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이런 논증을 내세웁니다. "남성은 남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교회에 예수님을 더 잘 대표한다."

가톨릭이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의 전통에서 사제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찬을 집전할 때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784]

설령 제가 목사/사제가 예수님을 특별히 대표한다는 이 생각에 동의한다 해도(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논증은 여전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남성성은 교회 지도자에게서 드러나야 하고, 그분의 유대인 됨(그렇다면 이방인은 배제됩니다), 신체의 온전함(그렇다면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독신(그렇다면 기혼자는 배제됩니다)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까? (덧붙이자면, 목록의 마지막 항목은 마침 가톨릭에서 사제 독신제를 지지하는 주요 논거이기도 합니다.[785]) 가톨릭은 교리를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교부들에게서도 끌어오지만, 이 생각은 교부들의 저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786]

782. 베드로후서 1:16과 요한복음 1:18
783. Lucy Peppiatt,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ch. 1.
784. 이 교리는 "in persona Christi"라고 불립니다.
785. 이 논증은 John Stackhouse의 "Finally Feminist"에 빚진 것입니다.
786. "키프리아누스(Cyprian)의 글 가운데 서품 사역에 관한 in persona Christi 신학의 초기 사례로 거론되어 온 구절이 하나 있지만, 이는 거의 확실히 오독이다." 라칭거 추기경(Cardinal Ratzinger)이 "Responsum Ad Propositum Dubiu"에서 이 교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처음부터 교회의 전통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적용되어 왔다"고 한 주장은 검증 가능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William Witt, Icons of Christ, ch. 1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 리더가 남성이신 그리스도를 더 잘 대표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대표자(representative)로서의 사제/교회 지도자와, 그리스도의 재현(representation), 곧 그리스도와의 신체적 닮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나 설교자가 예수님과 신체적으로 닮아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그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성경적 증거는 풍부합니다.[787]

787.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11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성별을 포함하는 용어인 “anyone”(누구든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록 2: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 (계속)

독자가 성경의 어떤 내러티브 부분이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미리 정해 버리면, 실제로는 그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본문의 분명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온갖 추론을 억측으로 끌어냄으로써 그 앞선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4장에서 저는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창세기 2-3장에 읽어 넣는 대중적인 추론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록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논증에 더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MAN'(사람)을 만드셨다"

어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인류가 (창세기 1:27에서) "man"(사람)이라고 불리므로,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이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레이 오틀런드(Ray Ortlund)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man'이라고 부르신 것은 남성의 머리됨을 속삭인다." 그러나 이 논증은 근거로 삼는 본문을 문맥 안에서 읽지 않습니다. 첫째, 이 논증은 문학적 문맥을 놓칩니다. 창세기 1:27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man(또는 mankind)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절은 이 "man"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788]

둘째, 이 논증은 남성 중심적(androcentric) 문맥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 문화의 언어 형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문화에서는 남성 명사가 흔히 두 성을 모두 대표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영어에서 "mankind"라는 단어는 더 포괄적인 "humankind"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어 자체에서 남성 중심적 경향이 가지치기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첫 독자들은 남성 중심적 언어가 의심받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셋째, 이 논증은 논리에 결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단어 ha'adam(이름 Adam이나 남성을 뜻하는 단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은 humankind(인류)를 뜻하지, malekind(남성 인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ha'adam을 "malekind"(남성 인류)라는 뜻으로 의도하셨다면(물론 그렇지 않으시지만), 여자는 단지 나중에 덧붙여진 존재이거나 인간보다 못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는 상호보완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여자가 열등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틀런드처럼 이것이 여자의 열등함을 뜻하지는 않고

788. "man"(또는 "mankind")이라는 이름이 두 성을 모두 가리키는 창세기 5:2도 보십시오.

단지 여자의 종속적 지위만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고 자의적이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동산에서, 아담이 유일한 인간으로 존재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는 뒤따를 모든 인류, 곧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조차 "아담 안에" 있었다는 통찰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몸은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남자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하와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죽음과 추방을 선고받은 것은 아담뿐이었지만, 하와도 수치 가운데 동산을 떠났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담의 대표 역할이 바울의 글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띠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아담이 자신의 선택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역할을 두 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789]

그렇다면 바울은 아담이 그의 실패에서 인류를 혼자 대표했다고 보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와가 이후의 인류를 함께 대표했다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790] 그러나 바울이 아담을 유일한 대표로 암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아담은 인류와 하와의 지도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대표 역할은 하와에 대한 이른바 기능적 권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암시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최초의 인간, 곧 우리 모두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고 최초의 여자 하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789. 로마서 5:9; 고린도전서 15:22
790. 아마 바울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닌 아담을 고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남성이면서 자기 종류 가운데 첫 번째인 사람을 고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담이 아담과 하와로 "번성하기" 전의 아담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죄를 지었지만, 여기서 아담은 인류의 하나 된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줄여 부른 이름입니다.

앞서 달린 자라고 해서 그가 이후의 모든 인간의 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와의 왕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담이 대표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인류(또는 하와)의 지도자였다고 추론하는 것은 신학적 범주를 잘못 뒤섞는 것입니다. 대표성은 리더십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를 대표할 수는 있지만, 하와의 섭정도 우리의 섭정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는 아직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 뒤에야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와(또는 다른 누구)를 다스리는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와(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타락한 대표 또는 원형이었지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더 이상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본문 모두에서 바울은 우리의 타락한 대표인 아담을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대조합니다. 죽음과 가부장제는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남녀 관계의 구속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데서 시작됩니다.

하와에 대한 아담의 권위를 주장하는 다른 논증들

아담이 타락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하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고 믿으려는 신학적 선입견은 네 가지 논증을 더 만들어 냅니다. 모두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산에서는 아담만 말한다. 그는 그녀가 자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선언하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하와에 대한 그의 리더십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관계를 시작하고, 그녀는 그의 주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이야기의 흐름을 흐리게 합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자신에게 알맞은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그가 할 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말에는 리더십이나 권위를 암시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알아봄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읽어 내는 것은 바로 그것, 곧 본문이 주는 것 이상을 본문에 읽어 넣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락 전) 창세기 2장에서 아담만 말한다는 사실이 여자에 대한 그의 리더십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타락 후) 창세기 4장에서 하와만 말한다는 사실이 남자에 대한 그녀의 리더십을 뜻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다. 상호보완주의자들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와가 생긴 뒤에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아내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녀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정보를, 심지어 자기가 들은 명령을 전해 줄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정보를 전해 듣는 사람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증대로라면 남편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논증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주의 깊게 읽으면, 창세기 3:3은 하나님이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번에는 하와가 있는 자리에서 되풀이하셨음을 암시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복수]는 … 열매를 먹지도 말고 너희[복수]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복수]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24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한다고 말한다. 일부 상호보완주의자들은 이것이 그가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 새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고대 가부장 문화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뜻으로 여자가 떠났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가 이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성 역할의 역전이었다. 1977년에 상호보완주의의 창시자 조지 나이트가 처음 제시한 이 논증은 제7장의 "속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다"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동산의 비극이 하와가 아담 아래 그의 종속자로 서야 했는데 오히려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읽으면, 참담한 일은 그녀가 아담 곁에서 그의 동반자이자 돕는 자로 서야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명시된 것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 부록과 제4장 "낙원에서 맺어진 동반자 관계"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특히 잘못 해석되기 쉽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상호보완주의의 논증은 모두 빈약한 내러티브 속에 읽어 넣은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 내러티브의 저자들은 해석의 통제 장치를 종종 이야기 속에 써넣습니다. 창세기 1-3장의 경우, 이야기 속에 엮여 있는 진술들이 남자와 여자에 관해 이야기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고 무엇을 추론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이 남녀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 남자는 여자와 함께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다(1:26-28).
- 여자는 에덴/땅을 다스리는 일에서 남자의 동반자이자 짝으로 주어졌다(2:18, 23-25).
- 타락 이후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3:16).

그러므로 창세기 내러티브의 이른바 암시에 근거하여,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일종의 창조주의 이상으로 삼는 모든 논증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루뎀은 상호주의자들이 "남자들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리더십 역할을 갖는 것은 …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할을 정하신 것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공평하다."[791]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권위-복종의 "역할을 처음부터" 전혀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특별한 상황적 이유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지켜보는 세상에 우리가 섬긴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잘못 보여 주는 것입니다.[792]

791. Wayne Grudem,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ch. 1.
792. 로마서 2:11

부록 3: KEPHALE의 의미

바울이 그리스어 단어 kephale를 사용할 때 무엇을 뜻할까요? 현대 영어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head"(머리)는 흔히 권위를 뜻합니다. 최고경영자가 회사의 head이고 지휘관이 소대의 head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현대인인 우리는 실제 몸의 실제 머리를 떠올릴 때, 뇌가 들어 있는 머리가 그러므로 몸의 통제 중추라고 가정합니다. 머리는 신경계를 통해 몸에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울이 kephale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무엇을 뜻했으며, 그의 원래 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진영의 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주고받은 논쟁을 추적해 보면, 그루뎀은 이 단어가 거의 언제나 다스리는 권위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런 뜻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바울 시대에, 그리고 분명히 바울의 용법에서 이 단어가 드물게만 권위를 암시했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793] 모든 은유가 그렇듯이 이 단어도 문맥에

793. 그리스어 단어 kephale는 1세기 이전과 1세기 동안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거의 언제나 그것은 실제 신체의 머리를 가리켰지만, 때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최고의 학자들도 이 단어의 비유적 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주로 이 은유적 단어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 1세기에 가장 흔하게는, 가장 두드러지며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사람의 머리가 온몸의 공적인 대표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가장 두드러진"을 뜻합니다. 2) 더 드물게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뇌가 몸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3) 역시 드물게는 영양이나 존재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입이 몸을 먹이는 방식, 또는 몸 없는 머리가 죽는 방식과 같이).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근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권위"를 뜻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 라틴어, 독일어, 영어(역사신학이 주로 이루어진 언어들)에서 머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 그리고 2) 교회가 사회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까지 여성의 열등함을 믿었고, 그래서 여성의 종속이 의심 없이 전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든 피의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주석이 보여 주듯이, 지난 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에 학계의 의견은 "근원"이라는 의미 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의견은 다시 한번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의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앤서니 티슬턴의 똑같이 권위 있는 고린도전서 주석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티슬턴은 바울이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피만큼 확신하면서도 "근원"보다 "두드러진 사람"을 택하는데, 그와 공동 연구진이 "간발의" 차이로 이 선택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모든 논증을 연구한 결과, 저는 이 단어가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와 티슬턴에게 동의하며, 바울의 글 밖에서 1세기에 이 단어가 "근원"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드물었다는 티슬턴의 관찰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신시아 웨스트폴의 최근 저작 "Paul and Gender"의 도움을 받아, 저는 바울이 "근원", 곧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존재나 공급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는 피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은유적 용법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모든 고대 그리스 저자들과 달리, 그가 이 단어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독특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3과 에베소서 5:23 모두에서 "근원"이라는 의미가 뒤따르는 본문들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3에는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문자적인 머리와 비유적인 머리에 마땅히 돌려야 할 존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25에서 바울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남편을 kephale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고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어 자체를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견해 4: 구속받은 paterfamilias(가장)로서의 남편"을 보십시오.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권위의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왜 매우 드문 의미였는지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바울 시대에 신체의 머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는 영어 단어와는 다른 은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 몇 세기 동안 머리는 때때로 몸의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머리가 온몸을 위한 샘이나 공급의 근원과 같다고 가르쳤고,[794] 많은 의학 저술가들도 이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는 신체의 머리가 남성 정액의 근원이며, 정액이 척수를 따라 생식기로 내려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던 유대인 교사 필론은 머리가 하늘에서 힘을 끌어와 그 생명력을 온몸에 나누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795]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머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그를 권위자로 가리킨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가 생명의 근원이나 시조가 되는 방식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간의 머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rosh이며, 영어처럼 히브리어에서도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권위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 이전에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이를 칠십인역 또는 LXX라고 부릅니다). 신시아 웨스트폴은 LXX에서 rosh가 권위를 뜻한다고 확실히 확인되는 171곳을 연구하고, 그리스어 번역자들이 kephalē라는 단어를 단 네 번만 사용했으며 거의 언제나 권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택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796]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어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rosh를 읽고, 그것이 신체의 머리를 가리키면 kephalē를 택합니다. 그러나 rosh가 비유적으로 권위자를 가리키는 경우의 97.7%에서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택합니다.[797] 이것은 바울 시대 직전 그리스인들의 생각 속에서 권위는 kephalē라는 단어의 흔한 은유적 의미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794. Aristotle, Problems 10 867a
795. "덕 있는 사람은 인류의 kephalē가 될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은 머리의 힘에서 생명을 얻는 지체와 같을 것이다." (Philo Det. Pol. Ins. 85)
796. 그루뎀의 가장 최근 계산으로는 14곳입니다. 그러나 웨스트폴은 저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루뎀은 바울이 rosh가 권위를 뜻하는 곳에서 kephalē로 번역된 LXX 본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rosh가 '권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171개 사례 가운데, kephalē로 번역되었으면서 이문이 없는 본문은 단 네 곳뿐이었다(사무엘하 22:44; 시편 18:43 [17:44 LXX]; 예레미야 31:7 [LXX 38:7]; 예레미야애가 1:5). 이 용례들은 칠십인역 번역자들의 서툰 번역 선택(히브리어 어법)일 수도 있고, 일부는 고대의 왕과 그의 백성 또는 영토 사이의 공생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네 본문은 바울의 kephalē 용법과 상호텍스트적 연결이나 의미적 연결이 전혀 없으므로, LXX 본문들이 바울의 kephalē 용법을 설명해 준다는 그루뎀의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R. S. 서빈(R. S. Cervin)의 논문도 웨스트폴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LXX는 kephalē가 지도자나 권위를 함축한다는 증거로서 과대평가되어 왔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GOWjqB
797.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문자적 번역을 선호하고, 히브리어 본문에 가깝게 머물기 위해 그리스어 단어를 평소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는 강한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방대한 고대 그리스어 사전인 The LSJ Greek–English Lexicon은 48가지 가능한 은유적 의미를 열거하는데, 그중 단 하나도 권위가 아닙니다. 최근의 Cambridge Greek Lexicon도 마찬가지입니다.[798]

바울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자란 그는 그리스어 관용 표현과 사고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유일한 성경 저자로서 바울은 대개 머리-몸 비유의 일부로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가 구원과 성령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4:15-16에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자랄 것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 사랑 안에서 자라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골로새서 2:19에서 바울은 우리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으니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머리-몸 은유를 풀어 설명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에 성장과 연결, 사랑과 생명, 양분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뇌의 실행 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진 현대인인 우리는 바울도 예수님이 지도와 방향을 제공하신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머리에 대한 그의 이해를 가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루뎀은 머리-몸 은유가 "근원"이라는 개념을 암시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799] kephalē가 권위를 뜻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생각에 반박하며, 군대 장군과 왕이 군대나 백성의 kephalē라고 불리는 문헌 사례들을 인상적인 목록으로 모읍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위해 주로 후대 문헌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마 그들의 지도자를 생명의 근원으로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죽습니다. 군대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나 왕을 죽이면 백성이 멸망합니다. 왕과 장군은 그들의 나라가 그들 아래에서 하나로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머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10에서 kephalē와 관련된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는 방식도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물(유대인과 이방인처럼)을 하나로 모으는 것, 곧 그것들을 한 머리 아래 통일하는 것이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권위 있는

798. Philip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p. 121. 또한 12세기 이후의 고전 세속 그리스어 사전들은 흔히 kephalē("머리")가 "근원"을 뜻한다고 열거하지만, "권위"를 뜻하는 신약 이전의 용례는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799. "우리가 입을 통해,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사실이며, 이 생각은 고대 세계에도 분명했다. 그러므로 '머리'가 '근원'을 뜻하는 은유가 나타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루뎀은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p.567)에서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머리 은유를 사용하여 그분의 권위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800] 바울이 골로새서 1:16-17에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근본이시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묘사들은 그분의 통치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다스리심과는 다른 예수님 사역의 측면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각각은 그분이 다스리실 능력과 자격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할 때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붙드시는 분, 생명의 근원, 시작이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개념들을 그분의 으뜸되심에 대한 진술과 나란히 놓지만, 우리는 그 의미들을 단순히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는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을 통해 지어지고 그분이 붙드시는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의미들을 뒤섞는 것처럼 보이는 두 곳, 곧 에베소서 1:22와 골로새서 2:10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들에서도 바울은 권위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개념과 kephalē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가까이 나란히 놓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로 융합하지는 않습니다.[801]

에베소서 1:22에는 "만물 위에 kephalē"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hyper)는 보통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hyper) 자신을 제물로 주셨다"(에베소서 5:2)라는 구절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22에서 이 단어는 위에, 넘어라는 뜻이지 ~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만물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를 도입합니다. 이 구절을 1:18-2:6의 문맥에서 읽을 때 놀라운 점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곧 머리와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물 위에 kephalē로 계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발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예수님이 kephalē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 위에, 또는 만물 위에 권위를 가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물론 그분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만물의 정당한

800. 신학자들이 바울의 "언약적 머리됨(federal headship)"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인류에게는 두 가능한 "머리", 곧 아담 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최초의 죄인인 아담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인 그의 처지와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구속받은 인류의 새로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의 높아진 지위와 형상을 물려받습니다.

801. 여기서 저는 신시아 웨스트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에베소서 1:22와 골로새서 2:10에서 kephalē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제 질문에, "The IVP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제2판을 위해 쓴 소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서신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권위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왕의 머리만이 아니라 왕의 온몸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10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어떤 번역들이 옮긴 것처럼 그 "위의"가 아니라) kephalē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kephalē이시라고 말하는 두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3에서 그분은 "각 남자의" kephalē라고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그리고 그에게서 비롯된 그의 아들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10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1:16에 이어지는데, 1:16은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모든 영적 권세의 창조주이신 근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자신들의 완성을 위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같은 피조물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본문은 그 문맥에 맞는 kephalē의 미묘한 의미를 끌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런 존슨은 kephalē라는 단어에 대한 모든 진영의 주요 연구 17편을 메타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은유로서의 kephalē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점점 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802]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kephalē인 장군과 왕이라는 그루뎀의 사례가 지닌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kephalē를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오직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만 적용합니다. 왕과 신하, 장군과 군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며, 각 영역은 서로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끌어낼 것입니다. 사실 바울 시대까지의 모든 고대 저자 가운데 이 은유를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울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1:3에서 아담은 하와의 kephalē라고 불리고, 에베소서 5:25에서 남편은 아내의 kephalē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서도 바울은 그 단어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3에서 그는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진 방식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와 안에 있는 자기 형상을 존중해야 하고, 하와(와 그녀의 딸들)는 자신이 비롯된 사람인 아담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단어는 권위가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보십시오.)

802.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GJ9Vnc

그리고 에베소서 5:25에서 바울은 몸의 머리 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아내의 생명의 근원인 남편 사이에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마땅히 자기 몸을 공급하고 돌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조차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kephale가 이런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803]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단어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으로 깊고 친밀하게 연결된 돌봄과 섬김의 근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을 보십시오.)

803.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1장의 각주 15에서 존 파이퍼는 일관성을 잃은 한순간에, 남자가 주로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자신의 성경 외적인 주장에 성경적 근거를 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5:25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부르신 것을 인용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에 공급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자가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머리라는 이미지는 그리스도께서 공급자이심을 암시한다 … " 여기서 아이러니는, 파이퍼가 틀림없이 자기도 모르게, kephale가 여러 의미 가운데 근원이나 공급자를 뜻할 수도 있음을 결국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변하는 상호보완주의는 이것을 단호히 부정하는데도 말입니다.

부록 4: 여성은 가르쳐도 되는가?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연합이 이 입장을 취합니다.[804] 많은 교회가 여자가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매주 드리는 예배 모임에서는 더더욱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자가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805] 존 파이퍼는 목회 훈련과 신학 훈련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강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다만 여성 신학자가 글을 쓰는 것은 지지합니다. 이것이 "저자인 여자를 독자의 시야 밖에 두고,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여성적 인격이라는 차원을 없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806]).[807]

그래도 일부 온건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는 예배 모임 밖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특별반이나 강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있지만, 주일 대예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특별히 교회 모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금지는 그 자리에 한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합니다.

둘째, 일부는 여자가 장로나 목사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그들이 정한 교리적 범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비유하자면 지휘자와 바이올린 연주자는 둘 다 베토벤을 "해석"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단지 해석을 전달할 뿐이며, 다른 사람의 감독과 지시 아래에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회 지도자들이 교리를 정하고, 여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 교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는 여자가 설교에서 "예언"하고 "권면"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사도적 핵심 교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가 이런 의미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804. 이 단체의 선임 기고자 케빈 드영은 복음주의 세계에서 여성의 설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도전을 계속해서 일일이 지목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BHFz0N.
805.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ENSkc4.
806. 다음을 보십시오: www.bit.ly/3wqsGXW.
807. 널리 알려진 파이퍼의 확신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세계적 수준의 한 여성 교사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나누는 말을 들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슬프고 좌절스러운 정도를 넘어서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견이 활자로 찍힌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신학 교육자이며 (삶과 리더십과 사역을 위한 영성 형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신학대학의 학장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을 해 왔습니다." www.bit.ly/31xWCWF

바울 자신도 "권면", "예언", "가르침"을 구별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예언"할 것을 기대하며, 여자가 회중을 "권면"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이 세 가지 선의의 시도를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것들은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을 피해 가려는 억지스러운 시도입니다.[808] 이 때문에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도들을 반박합니다.[809] 그러나 제가 제7장에서 설명하듯이,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상호보완주의적 해석을 버리면 이 주제를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에 따르면 누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여자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분명한 성경 본문이 디모데전서 2:12라는 모호한 본문을 더 잘 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 그들이 …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침이라"라고 말합니다.[810] 둘째,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7장에서 논증했듯이, 우리는 디모데전서 2:12를 왜곡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독자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앉아 가르침을 받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808. 첫 번째 입장이 틀린 것은 디모데전서 2장이 모인 예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며, 신약은 교회가 한 주 동안 가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모임을 날카롭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입장이 잘못된 것은, (그들이 믿듯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여자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장로들이 그 반대를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존 딕슨(John Dickson)이 다른 면에서는 훌륭한 책 "Hearing Her Voice"에서 처음 제시한 것인데, 그 결함은 목회서신에서조차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딕슨의 말처럼 권위를 가지고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해, 아무리 예언적이거나 권면적인 설교라 해도 사도적 교리를 전달하지 않고 30분짜리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809. 드영은 존 딕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www.bit.ly/3wqsXtW 마찬가지로 슈라이너는 앤드루 윌슨(Andrew Wilson)을 반박하려 합니다: www.bit.ly/2ZTCIoH
810. 디도서 1:11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811] 디모데에게 사도적 교리를 가르친 바울은 그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 훈련생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포괄적인 단어 anthrōpois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812] 바울은 장로들이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맡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사역을 결코 그들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813]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건전한 교리와 영적 성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적합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814]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에베소의 여자들도 장차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여성이 가르친 사례

여자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분명한 성경 본문이 디모데전서 2:12라는 모호한 본문을 더 잘 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라고,[815]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816]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817] 이 모든 본문은 디모데전서

811. 디모데후서 2:2. NIV는 이 사람들을 (ESV처럼) 'men'(남자들)이 아니라 'people'(사람들)로 올바르게 번역합니다. 그리스어 'anthropos'는 형태는 남성이지만 여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 'anthropos'를 사용하십니다(마태복음 6:14).
812.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4에서 이 단어는 분명히 여자들에게 쓰입니다.
813. 저는 서신서들이 장로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상호보완주의 학자 여러 명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단의 규칙일 수는 있지만, 성경의 규칙은 아닙니다. 이 학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쌓아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2:12; 3:2; 4:11-13; 5:17; 2:24-26; 4:1-5; 디도서 1:5-6, 15, 그리고 야고보서 3:1. 그러나 이 구절들은 장로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 배제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2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사실 외에도, 이 긴 "증거" 구절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중 세 구절(디모데전서 3:2, 5:17, 디도서 1:5-6)만이 구체적으로 장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구절은 장로가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도의 대리인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말합니다(디모데후서 4:11-13, 디모데후서 2:2, 4:1-5, 디도서 2:1-6, 15). 그런데 여자가 사도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서를 직접 전달한 뵈뵈를 생각해 보십시오(로마서 16:1-2). 더 분명하게는 (남편과 함께) 사도였던 여성 유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사도는 사도의 대리인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1(여기서 '형제들'은 '형제자매들'을 뜻합니다)은 남자나 장로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누구에게나 교사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둡니다.
814. 히브리서 5:14
815. 로마서 12:7, 고린도전서 12:28-30
816. 골로새서 3:16
817. 고린도전서 14:26

2:12에서도 쓰인 그리스어 단어 didaskein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818] 여자들이 지은 교리적으로 풍성한 많은 성경 본문들,[819] 그리고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한 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와 잘 들어맞습니다.[820]

브리스길라의 가르치는 사역에 관해서 말하자면, "풀어 이르다"(그리스어 exethento)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이며,[821]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묘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풀어 이르더라."[822] 그런데도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일의 단순한 의미를 흐려서, 디모데전서 2:12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추려 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이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를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공적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에베소 교회의 모임이 아마 바로 그 집에서 열렸고, (훨씬 후대의 교회 관행을 1세기 중엽으로 거꾸로 들여오려 하지 않는 한) 친밀하고 비공식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823]

그녀의 가르침이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에서 언급하는 "공식적"이거나 "권위 있는"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실제로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배가시키라고 말한 바로 그 가르치는 사역의 완벽한 예입니다.[824] 브리스길라는 단지 경건한 묵상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녀는 강력한 종류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의 잘못되고 불충분한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이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그녀의 가르치는 사역을 받은 아볼로는 나중에 충분히 준비된 채 파송되어 초대 교회 시대의 위대한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825]

818. 요한복음 4:39
819. 예를 들어 사사기 5:2-31; 사무엘상 2:1-10; 25:24-31; 누가복음 1:25, 42-45, 46-55를 보십시오.
820. 사도행전 18:26
821. www.bit.ly/3q7sZpi
822. 사도행전 28:23
823. 케빈 자일스는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about Women"(6장)에서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수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자신들의 현대 문화적 이해를 신약에 읽어 넣고, 그런 다음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규범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이해에 호소한다."
824. 디모데후서 2:2
825.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가 한 사역과 아볼로에게 한 그녀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보십시오: www.rb.gy/ttr2do

요약하자면, 성경 전체에 근거한 해석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뒤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을 갖춘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굴한 이 통찰에 대해 우리는 디모데전서 2:12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교만이나 죄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결론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은, 신약이 교회 안의 여선지자들을 높이 기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가르침의 기능과 겹치는 선포 사역이었으며,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은 전략적 중요성이 부여되었습니다.[826] 그러므로 오늘날 여자를 강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826.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12장 “여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부록 5: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온 두 가지 추가 논증

제12장에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을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묘사한 것에 근거한 상호보완주의의 논증을 다룹니다. 이 부록에서는 역시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하여 상호보완주의자들이 여자를 교회 리더십에서 배제하려고 제시하는 두 가지 논증을 더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3:11의 "여자들"이라는 수수께끼

바울은 장로의 자격 요건을 열거한 뒤, 집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여자들"이 언급되는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말고 술에 인박히지 말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827]

디모데전서 2:12-15 다음으로, 이것은 이 서신에서 두 번째로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 "여자들"이 누구였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deaconesses('집사'의 여성형), 곧 여성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이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이 불분명함은 번역자들의 작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영어 번역본 28개 가운데 18개는 "deacon's wives"(집사의 아내들)를, 2개는 "deaconesses"(여성 집사들)를 택하고, 나머지 8개는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women"(여자들)으로 둡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수의 번역자들이 "wives"(아내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몇 절 앞(2절)의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이라는 구절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절(12절)에서도 "아내"를 뜻하는 데 정확히 같은 단어 gunaikas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용법들 사이에 이렇게 가깝게 끼어 있는 이 단어가 여기서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827. 디모데전서 3:8-13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집사의 아내들로 보든 여성 집사들로 보든, 바울이 여성 장로를 허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합니다. 집사의 아내들을 가리킨다면, 바울이 두 집단, 곧 남성 장로들과 남성 집사들 및 그 아내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반면 여성 집사들을 가리킨다면, 일부 상호보완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세 집단, 곧 남성 장로, 남성 집사, 여성 집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여성 장로는 없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여성 장로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우선, 후자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질문은 남습니다. 바울은 모든 지역 교회에 세 직분, 곧 남성 장로, 남성 집사, 여성 집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편지를 쓰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알고 있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직분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의 됨됨이만 규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규정이 아니라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여성 집사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이 집사들(여성 집사를 포함하여)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할 때(12절), 이것은 예를 들어 디도서 1장의 장로 자격 요건에서 볼 수 있는 이 관용구의 성 포괄적 용법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들의 안수받은 직분으로 집사가 아닌 장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828] 이것은 성별을 배제하는 대명사나 관용구가 전혀 없는 디도서 1장의 장로 자격 요건이 여성 장로의 안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입장은 바울이 말하는 이 여자들이 여성 집사가 아니라 집사의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남성 장로와 남성 집사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약점은,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목록들을 모든 교회를 위한 입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추가 증거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서신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로마서 16:2는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추천하는 뵈뵈라는 여자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829]

다시 말해, 이 여자들에 대한 어느 해석이든, 디모데전서 3장의 바울의 본문이 모든 교회에서 여성 목사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상호보완주의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11절의 "여자들"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여자들이 실제로 집사의 아내들이나 여성 집사들(어느 쪽으로 보든)뿐만 아니라 장로의 아내들이나 여성 장로들도 포함한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이턴(Michael Eaton)이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그리고 고대의 글에서 흔했듯이,

828.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도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한 열한 번째 설교(Homily 11)에서 이렇게 씁니다. "한 여자의 남자들 . . . 이라는 말은 여성 집사들에 대해서도 하기에 적절하다."

829. 뵈뵈가 집사였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제12장의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이라는 소제목 아래 뵈뵈와 관련된 각주를 보십시오.

바울은 두 개의 비슷한 목록(장로를 위한 목록과 집사를 위한 목록)을 만들지만, 지나친 반복을 피하기 위해두 목록 모두에 적용되도록 의도된 내용을 두 부분에 나누어 놓습니다.[830] 그의 요점은 특히 이 본문에서 탄탄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에 관한 부분에서 1절은 그 일을 하려는 열망을, 7절은 외인에게서 받는 좋은 평판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집사에 관한 부분에서 9절은 믿음의 깊은 진리를 붙잡을 필요성을, 10절은 그 역할을 맡기기 전에 시험받을 필요성을, 13절은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요점은 모두 장로와 집사 양쪽에 적용됩니다. 고대 독자들은 우리 현대인보다 이것을 더 빨리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으로 장로와 집사를 훈련해 온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정리해 풀어 왔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집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하고 외인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사뿐 아니라 장로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안수받기 전에 시험을 받고, 잘 이끈 것에 대해 하나님께 상을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831]

그런데 보십시오. 일부 자격 요건을 두 집단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는 이 방식이야말로, 바울이 왜 "집사의 아내들"이나 "여성 집사들"이라고 쓰지 않고 단지 "아내들/여자들"이라고만 쓰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적용을 집사들에게만 한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1절에서 아내들을 뜻한다면, 그는 집사와 장로 양쪽의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 집사 뵈뵈가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본문에서 끌어낼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장로와 집사의 배우자(단지 아내만이 아니라)의 경건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1절에서 이 직분의 여성형을 뜻한다면, 그는 여성 집사와 여성 장로 양쪽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이 한때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은 이 해석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이 본문을 오래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수수께끼의 여자들이 누구였는지 덜 확신하게 되고, 11절이 너무 모호하거나 너무 특정한 문맥에 매여 있어서 어떤 건전한 해석 방법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여자의 안수를 금지할 충분한 근거가 거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830. "장로에게 적용되는 어떤 것들은 집사에게도 적용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두 주제에 대해 비슷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를, 다른 부분에 대해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식 글쓰기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히브리식 문체는 우리가 그것을 두 부분 모두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Michael Eaton, Preaching Through the Bible: Timothy)
831. 그래도 우리는 왜 바울이 두 집단에 걸쳐 많은 내용을 기꺼이 반복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가 특히 성품의 특성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특별히 강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아버지인가?

한 운동의 지도자였던 P. J. 스미스(P. J. Smyth)는 최근 남성만의 장로직을 지지하는 새로운 논증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것이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하고, 하나씩 평가하겠습니다.

현대의 기술 중심 세계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우리가 "장로"라는 용어를 비즈니스, 정치, 산업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같은 뜻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영역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 최고경영자, 회장, 관리자의 자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성경이 장로의 역할을 묘사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업식 리더십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그림은 훨씬 더, 아버지들이 감독하고 보호하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다.

스미스는 가정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므로 성별이 다시 한번 은사보다 우선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똑같이 은사가 있는 여자들이 있더라도 남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논증은 두 가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합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이끌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이끈다는 언급은 모두 그리스-로마 세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죽지 않은 한 paterfamilias(가장)가 각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녀를 이끄는지에 대해 성경이 (단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을 찾아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가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영역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왔고, 이를 너무나 널리 실천해 와서 그것이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일 수는 있지만(제8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아마 어차피 권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가 가정을 이끄는 것은 오직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832] 마찬가지로 성경은 무려 네 곳에서 "남자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공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 리더십을 확증합니다.[833] 이 공식은 아들이 두 부모가 이끄는 가족을 떠나, (아마도) 다시 두 부모가 이끄는 새 가족을 시작하는 모습을

832. 에베소서 6:1
833. 창세기 2장,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보여 줍니다.[834] 성경은 어머니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권위 구조 중간쯤에 앉은 2급 지도자로 그리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몸"으로 팀을 이루어 가정을 이끌도록 규정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도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팀을 이루어 자녀를 이끄는 것입니다.[835]

많은 사람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생각에서 남편이 가족의 머리라는 생각으로 잘못 비약하지만, 신약의 어떤 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 첫 번째 사례는 2세기 헤르마스(Hermas)의 셋째 책입니다.[836]

둘째, 스미스는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은유(가족)를 다른 은유(몸)를 지워 버리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떠받치는 두 가지 주요 은유를 제공합니다. 스미스는 은사라는 개념 자체를 기업이나 국가와 연결함으로써 다기능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를 경시합니다. 그의 말대로 교회가 소속에 근거한 가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은사에 근거한 유기적인 몸(단지 조직이 아니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은사 중심성은 세속 기업이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 교회는 현대의 회사와 비슷합니다. 둘 다에서 은사를 인정하는 것은 성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은, 스미스가 이어서 말하듯이 "훨씬 더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이 편지에서 교회를 가족과 직접 동일시하는 구절은 단 한 절뿐입니다.[837] 오히려 바울의 편지는 주로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로마 가정들의 모임으로 보고 초점을 맞춥니다. 디모데는 이 고대 가정들 안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과부와 기혼자를 지혜롭게 섬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스미스는 그의 논증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합니다:

834.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잠언 1:8). "너를 낳은 아비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언 23:22). 그 밖의 많은 구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출애굽기 20:12; 레위기 19:3; 신명기 6:6-9, 21:18-21, 27:16; 에베소서 6:1-4; 골로새서 3:20; 디모데후서 1:5; 누가복음 2:51도 보십시오).
835. 게다가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복수의 지도자를 염두에 둔다는 사실에 근거해 여러 아버지가 팀을 이루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비약입니다.
836. Hermas, Similitudes 7.3에서 그 남자는 "네 가족은 집의 머리인 네가 고난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837. 디모데전서 3:1

[그] 교회[는] 아버지들이 감독하고 보호하는 가족이며, [그 아버지들의] 일차적 자격은 아버지로서의 경건한 성품이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특히 분명한데, 남자는 자기 생물학적 가족의 좋은 아버지일 때에만 장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이다. 장로는 아버지여야 한다.[838]

그의 논증의 이 측면도 다시 두 가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장로를 오직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서 바라봅니다. 이 편지의 원래 독자들이 살던 고대의 상황을 오해한 스미스는 이 지도자들의 가정이 단지 "생물학적 가족", 아마 자녀 두세 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목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어 단어(oikos)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household)"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에는 종, 세입자, 다른 친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자녀의 아버지였으므로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한다는 스미스의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일관성을 지켜 목사들이 교회의 남편 노릇, 주인 노릇, 집주인 노릇도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도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839]

둘째, 앞서 제12장에서 말했듯이, materfamilias(여성 가장)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도 능력은 고대 세계에서도 남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뒷부분에서 집을 다스리는 기혼 여성에 대해 말하며,[840]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신자 공동체가 루디아가 다스리던 집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841]

그런 다음 스미스는 그의 논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임이 틀림없다. 여자는 아버지가 될 수 없으므로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842]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아버지 노릇으로 축소한 스미스는 그 축소를 이용해 목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은유, 곧 아버지 노릇이라는 은유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바로 이

838. 앨런 프로우도 이와 똑같은 순환 논증을 펼칩니다. "장로는 아버지와 같고, 장로의 아내는 어머니와 같다. 그들은 함께 교회를 양육하지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는 성경적 가정에서처럼 교회는 장로들이 이끈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장로가 여자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www.bit.ly/2ZPRZGH
839. 이것은 고대의 가정 상황이 오늘날의 핵가족과 얼마나 달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 문화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의 주요 측면에는 "자녀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일이 포함되었지만, 아내를 잘 이끄는 일과 종, 친척, 세입자처럼 그의 가정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2절에서 바울은 두 범주를 분명히 구분하여, 집사들이 한편으로는 자녀를 잘 다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집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집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사들도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840. 디모데전서 5:14
841. 사도행전 16:14-15, 40
842. P.J. Smyth, Elders, ch. 12.

편지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젊은 남자 디모데에게 나이 든 남자들을 맡김으로써 고대 가정 위계의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젊은이들을 사도로 택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미스의 가정과 달리, 디모데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또래에게는 형제로서 영적으로 이끌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습니다.[843] 결국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일차적 은유는 부모 노릇이 아니라 목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목사들은 "하위 목자들(under-shepherds)"입니다.[844]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아버지이시므로 목사들이 "하위 아버지들(under-fathers)"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845] 사실 예수님이 정반대의 기본값을 명령하시는 만큼, 남성 장로를 교회의 아버지로 강조하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846]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성경적 은유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어떤 지상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참 아버지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흔히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로 봅니다.

게다가 교회를 주로 아버지들이 이끄는 가족으로 보는 스미스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저는 정중히 그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건강한 가족 단위가 그렇듯이 함께 이끄는 "부모"의 팀, 곧 남성 목사와 여성 목사 모두로 이루어진 팀을 갖는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843. 디모데전서 5:1-2
844. 베드로전서 5:1-4
845. 성경은 드문 경우에만 영적 지도자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 사도의 후계자와의 관계(디모데후서 1:2), 2) 그들이 처음부터 개척한 교회와의 관계(고린도전서 4:14-15), 3) 그들의 사도적 돌봄 아래 있는 교회와의 관계, 특히 그 사도가 이제 노인인 경우(요한일서 2:1)입니다.
846. 마태복음 23:9

부록 6: 왜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정보를 원한다. 성장하려면 이전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생각을 버리는 일에 열려 있어야 한다." 제임스 클리어(James Clear)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그야말로 틀림없는 진리(gospel truth)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에게 말해 줄 때까지 기다려 봐! 그들도 모두 믿게 될 거야." 감사하게도 몇몇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별 위계에 대해 제 생각을 바꾸는 일(그리고 그 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에 처음 접근할 때도 저는 비슷한 순진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한,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어 온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존재하지 않는 옷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훌륭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옷을, 그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보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몹시 당혹스럽게 했지만, 마침내 저는 그럴듯한 설명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지 편향입니다.

알고 보니, 많은 교회가 나누는 종류의 신학적 대화는 온갖 편향이 작동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중 누구도 생각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조차 감정에 이끌린다

우리는 오직 사실에만 근거해 마음을 정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객관적인 선택조차 실제로는 감정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주관성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The Righteous Mind에서 감정적 사고를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인간에게서 직관과 합리성의 상대적 역할은 코끼리와 그 기수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직관은 도덕적 코끼리이고, 합리성은 그 기수다. 기수는 자신이 코끼리를 조종한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끼리를 섬기고

있으며, 대개는 그 사람의 직관적 판단에 대해 사후적인 정당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한다."[847]

다시 말해, 모든 이성은 감정에 의해 동기 부여됩니다. 어떤 생각과 정보는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된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보통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먼저 어떤 믿음에 마음을 정해 두고, 그다음에 "영리한 정당화"를 만들어 내거나 붙잡습니다. 스택하우스는 이 원리를 특히 성에 관한 우리의 신학에 적용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 두자. 이처럼 중대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지 신학적 논증만을 근거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어떤 지적 고지에 앉아, 정밀하게 조율된 지성과 완전히 성화된 영혼의 저울에 각 항목을 차분히 달아 보고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무엇이든 성에 관한 특정한 일련의 가정에 어찌할 수 없이 철저히 매여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관점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사회 구조에 얽혀 있다. 이 거대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결정할 때, 우리는 결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성에 관해 정말로 무엇을 믿고 싶은가?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란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정보를 찾기보다 현재의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우리는 확증하는 증거를 부풀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피하거나 버리거나 축소합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논증이 약한 논증일 때조차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논증이 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 논증이 강하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그것이 강하다고 "의지로" 믿어 버립니다.

경제학자 J. K. 갤브레이스(J. K. Galbraith)가 말하듯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그럴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은 증명하느라 바빠진다."[848]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로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앞뒤가 맞는 한 그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빈약하고 어쩌면 서로 관련도 없는 데이터 점들을 이어 붙여, 실제로는 그 몇 안 되는

847. Jonathan Haidt, The Righteous Mind, p. 32.
848. John Galbraith, Economics, Peace and Laughter

점들로 뒷받침되지 않는 더 큰 그림을 만들 때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정보로 작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보가 알아야 할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때 상호보완주의라는 이야기가 제게 이치에 맞았던 것입니다. 수정된 성별 위계의 창시자인 조지 나이트의 1977년 책이 낸 길을 따라, 저는 성경의 몇 구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구절들에 대한 추측성 추론들을 짜 맞추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점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게 충격을 준 것은 그것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관련이 없는지였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하늘의 별자리와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별을 이어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 있다고 상상하고(그러면서 빠진 점 몇 개를 채워 넣고), 그것을 처녀자리나 궁수자리라고 부릅니다. 별자리는 상호보완주의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존재합니다.

일단 점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어 놓으면, 그 별자리를 "보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라도 가장 둔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아직 아무 생각도 형성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것도 가장 지적인 사람에게 분명히 이해시킬 수 없다. 그가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 말이다." 실로 거기 없는 것을 보는 것은 특이한 종류의 눈멂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의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서 리더십과 복종의 관계를 일단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동등함과 상호성의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확증 편향이 번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믿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종결 욕구, 곧 어떤 문제에 대해 확정적인 결정에 이르려는 욕구가 더 큽니다. 이렇게 타고난 우리는 모호함을 즐기지 않고, 이전의 결론을 다시 의심하는 것도 즐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긴 대화 과정을 참지 못합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의 한쪽 면만 듣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 한쪽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으면, 우리는 (종결 욕구 때문에) 기꺼이 그쪽에 헌신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큼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는 것은 없다

하이트가 말하는 감정에 이끌리는 코끼리는 본질적으로 위협은 피하고 기회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감정적 충동 가운데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보상의 가능성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 자체보다 상실입니다. 부정성 편향(또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우리의 뇌는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결혼 생활에서 남녀 상호주의가 남녀 위계를 대체할 때 얻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잃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새로운 신학적 입장을 탐구할 때, 그들은 "이것이 참인가?"를 일차적으로 묻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를 묻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단기적 상실의 가능성 앞에서 왜소해집니다.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 상실의 가능성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849]

아마 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상실의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스택하우스가 관찰했듯이, "우리는 모두 … 성에 관한 우리의 관점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사회 구조에 얽혀 있다."[850] 대개 우리는 우리의 부족, 곧 우리의 일차적 관계망이 옳고 참되다고 믿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정을 주는 지도자를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우리의 동지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우리의 모든 사고에 스며드는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올바른 사고에 조금도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며, 사실은 결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한 하버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받아들여지거나 정죄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한 가지 기능은 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믿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동맹, 보호자, 제자를 가져다주는 믿음을 갖는 것일 수 있다."[851]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체성 표지가 되는 믿음을 그토록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관계망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제로는 그들에게 자기 부족을 바꾸라고 설득하려는 과정이 됩니다. 기존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첫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바꾸는 것이 사회적 유대를 잃게 할지를 평가합니다. 스택하우스는 많은 상호보완주의 집단 안에서 비슷하게 흥미로운 역학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849. 제가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질을 이해하게 된 한 가지 방법은 "Roger's Bell Curve"(로저스의 종형 곡선)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논리가 타당해 보이면 혁신가나 얼리어답터가 되는 경향이 있는 16%의 사람들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훨씬 더 오래 망설이고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850.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102.
851. Steven Pinker, Language, Cognition and Human Nature

어떤 그리스도인 집단들에게 성 문제는 종교적 권위, 신학적 방법, 세속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결된 "경계" 표지와 "정체성" 표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문제는 진지한 재검토에 부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커져 버린다. 그래서 재검토되지 않는다.[852]

자기 집단의 믿음이 옳다고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위한 공동체의 변증 문서로 돌아가거나, 운동이나 교단의 "대표적 학자들"에게 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어김없이 대응합니다. 문제는 그 집단의 믿음을 직업적으로 정의하고 변호하는 "전문가들"만큼 그 집단에 깊이 뿌리박힌 사람은 없고, 따라서 자기 사고의 결함을 인정할 때 그들만큼 잃을 것이 많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학자들 가운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가, 곧 자기 집단에서의 존경을 잃고 아마도 직장까지 잃게 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상호보완주의 운동의 학자들이나 상호보완주의 교회의 교리 대변자들만 이 교리를 변호하러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 특히 남성 지도자들의 아내들도 그 변호에 나설 것입니다. 이 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이 보기에) 사실만으로 설득된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더 무의식적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케빈 자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든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언제나 현 상태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 고전적 귀족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계적 사회 질서를 가장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질서를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들을 다스리며, 자신들의 낮은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853]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위계를 변호하는 데는 아주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주의자의 아내로서 그들은 오래전에 남편의 사역(과 생각)을 지지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며, 어쩌면 그들의 일차적 공동체인 자신의 결혼 생활의 조화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852. John Stackhouse, Finally Feminist, p. 103, fn. 35.
853. Kevin Giles,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p. 225.

군인처럼 생각하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믿음이 의문에 부쳐지면, 우리는 쉽게 군인 모드로 돌아갑니다. 불편한 사실들에 직면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현재 입장을 더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에 관한 신학을 둘러싼 이 논의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그들은 생각을 바꾸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논의가 그토록 빨리 격추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그래도 여전히 비극적입니다).

실제로 이 대화를 자기 교회에 가져가려 했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협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사람과 그 생각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순간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쏠 뿐 아니라 그들을 가스라이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일 리가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주의 교리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만큼, 경험 많은 상호보완주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바꾸고 그 결과 그들을 떠난 교인들의 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도 왜 이 지도자들이 더 자주 멈추어 자신의 신학을 주의 깊게 재검토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그 답은 다시 한번 인지 편향의 형태로 돌아오는데, 이 편향은 전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전선을 지키기 위해 이미 치른 대가가 클수록, 우리는 같은 대가를 계속 치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1년 동안 이어진 1916년 베르됭 전투에서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하나의 전선을 정했고, 거기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이 그저 참호를 버리는 편이 나았을 텐데도, 잃은 생명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생명을 계속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게다가 집단으로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집단 밖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집단사고(groupthink)에 굴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맹점을 난공불락으로 만드는 집단적 편향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관점을 보호하고 대안적 관점을 성급하게 무시할 때,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경고가 될 만한 공개적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반박되지 않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이나, 주택담보 파생상품 붕괴를 키운 금융계 인사들의 집단이 그 예입니다. 재앙적인 집단사고의 두 사례 모두 "자기 확증적인 하향 나선 속에서 반증하는 자료를 무시한" 고립된 의사 결정자 집단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854]

854. Daniel Goleman, Focus: The Hidden Driver of Excellence, ch. 7.

다행히 군인 모드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문지기와 정찰병

물론 교회를 이끄는 우리, 성문에 서 있는 우리는 교회의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벽에 다가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쏘는 군인이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앉은 좋은 장로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방문자와 그들의 짐을 평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것은 가두고 믿지 않는 것은 막아 버리는 여리고 성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 틀렸을 가능성에 열린 마음과 그 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상호 작용해 온 역사입니다. 한쪽 극단에는 문화가 언제나 틀렸다고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 극단에는 문화가 언제나 옳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며,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방어 모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줄리아 갈레프(Julia Galef)는 한 TED 강연에서 우리가 정찰병 모드로 살고 생각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찰병의 임무는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정찰병의 임무는 이해하는 것이다. 정찰병은 실제로 무엇이 거기 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실제 군대에서는 군인과 정찰병 모두 필수적이다."[855]

우리의 마음이 군인 모드일 때 우리는 방어 의식과 부족주의에 이끌린다고 갈레프는 말합니다. 반면에,

정찰병은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 기쁨을 느끼거나 퍼즐을 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린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신의 기대와 모순되는 것을 만나면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 [또한]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약해 보인다고 말할 가능성은 더 적다.

다시 말해, 정찰은 편향에 맞서는 전략입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이전 결론이 틀렸을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856]

855. www.bit.ly/3BKjApP
856. 베드로전서 3:8

패러다임 전환

과학, 철학, 신학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돌파구와 패러다임 전환은 이런 열린 마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수 세기 동안 한 분야는 모든 사람의 가정을 지배하는 확고한 패러다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이상 현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선교학자 앨런 허쉬는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패러다임 내부로부터 이상 현상에 대한 감각,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커진다. 또는 적어도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패러다임 자체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느낌이다. 역설적이게도 합의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사람들은 대개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익힌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 신학에서는 칼뱅과 바르트가 그렇다. 진짜 전문가들이야말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여 쿤이 "마음의 방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된다. 미리 정해진 가정과 해법의 틀에 기대지 않고 이상 현상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의 감각이다.[857]

이것은 위계주의라는 패러다임에서 상호주의가 부상한 경우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별 간의 더 온전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간 제 자신의 여정을 어느 정도 묘사합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수많은 근거 논증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증명하려 했을 때, 저는 마치 네오(Neo)처럼,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매트릭스의 결함을 점점 더 많이 마주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호보완주의자로서 왜 그렇게 믿는지를 더 철저히 설명할 수 있을수록, 저는 그것을 믿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제가 성경을 군인이 아니라 정찰병으로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존 골딩게이(John Goldingay)는 그의 책 Models for Interpretation of Scripture에서 성경을 우리의 기존 믿음을 떠받치는 변증 문서로 다루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런지 아닌지 시험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읽은 무언가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을(더 좋게는, 행동을) 바꾼 것이 언제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성경을 [우리의 믿음에] 맞서게 하기보다 확증하는 데 사용하며, 단지 '우리 자신을 복제하는' 데 사용한다."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 틀렸음을 깨닫는 불안하고 겸손해지는 느낌보다 자신감과 확신의 느낌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에 노출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옳다는 느낌을

857. Alan Hirsch, On the Verge, ch. 2.

떨쳐 내기 힘들어합니다. 인지 편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편향을 타당성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허쉬는 한때 모든 사람이 그토록 굳건히 변호하던 옛 패러다임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배적인 사물 인식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마침내 티핑 포인트에 이른다."[858]

그러나 대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동틀 때, 옛 패러다임은 강력한 반대 속에서 다시 자신을 내세웁니다. 옳다는 것만으로는 빠른 의견 변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의 실재라는 "이단"을 철회함으로써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쉬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그 패러다임에 투자했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859]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 옛 패러다임을 대체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가 말했듯이,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저항을 받는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십 년 전 제가 처음 성경에 대한 상호주의적 해석을 접했을 때, 당시 제 느낌으로 그것은 조롱과 저항의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그것은 저항과 자명함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자유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사에 가장 보수적인 해석을 지향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미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가운데 4분의 1이 여성 목사와 설교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860] 티핑 포인트는 이미 지났고, 실개천은 이미 홍수가 되었으며, 이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계주의에서 상호주의로 옮겨 온 우리에게 특히 해당하는 편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후 확증 편향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생각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이전에 믿던 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믿음을 바꾸면(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옛 믿음의 내용을 기억해 내기 어려워하며,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줄곧 올바른 관점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편향이 작동하면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왜곡됩니다.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사회 운동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정죄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후 확증 편향 아닐까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과거에 다른 것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는, 자신이 작년에 믿었던 것을 아직도 믿는 "편협한 사람들(bigots)"을 맹렬히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덕분에 생각을 바꾼 뒤에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858. Alan Hirsch, On the Verge, ch. 2.
859. Alan Hirsch, On the Verge, ch. 2.
860. www.bit.ly/3COXZxW

이제 이 말로 제 책을 마치며, 제 사역 생애의 대부분 동안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깊이 탐구한 끝에 갖게 된 믿음, 곧 여러분이 숙고해 보시도록 권하는 관점을 요약하겠습니다:

남녀 상호주의는 성경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나란히 섬기고 동역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입장을 취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사와 전문성은 성별과 관계없이 인정받고 기려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큰 감사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팀인 줄리, 일라이(Eli), 핀(Fynn), 아이비, 찰리(Charlie), 샘(Sam)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머리와 마음과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참아 주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인 조이(Joy)와 키스(Keith), 그리고 Nest Deli의 제2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커피를 손에 들고, 멋진 산의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곳은 제가 이 책을 쓰는 데 필요한 안전하고 넉넉한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 특히 셰이 월턴(Shae Walton)과 에드위나 한슬로(Edwina Hanslo)에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너무나 외롭게 자판을 두드리던 어느 날 여러분의 음성 메시지가 왔던 그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당신을 두셨어요, 테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계속하세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며 당신을 응원하고 계세요.”

제게 더 나은 성경 읽기를 열어 준 수많은 성경학자들, 예를 들어 루시 페피아트, 자민 휘브너, 윌리엄 위트, 앨리스 매슈스, 데릭 모퓨, 카티아 애덤스 박사님들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특히 오랫동안 외로운 예언자적 목소리였던 네 명의 성경학자가 평생 공로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신시아 웨스트폴, 크레이그 키너, 필립 페인, 케빈 자일스 박사님입니다. 진리를 위해 섰다는 이유로 때로 이단처럼 취급받기도 했던 여러분은 참으로 교회의 영웅입니다. 언젠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지성과 분별력의 은사, 깊은 용기,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뿌렸을 모든 눈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보타(Ryan Botha),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디자인 재능을 이 책의 표지와 아이콘에 빌려주어 감사합니다. 편집과 교정 솜씨를 보태 준 제 아내 줄리, 크리스틴 반 와이크(Christine Van Wyk), 크레이그 매켈러(Craig McKellar)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격려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들, 폴 반 콜러, 세라와 스티브 비노스(Sarah and Steve Binos), 데이비드 차일드(David Child), 젠 피더슨, 개러스와 앤절라 매릴리어(Gareth and Angela Marillier), 줄리언과 카티아 애덤스, 켈리와 가이 체넬스(Kelly and Guy Chennells), 수와 앤트 라이언(Sue and Ant Ryan), 마이크 데이(Mike

Day), 톰과 제스 바슨, 그리고 제 형제자매 맨디(Mandy)와 리처드(Richard)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요 참고 문헌

Barr, Beth Allison, 2021,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How the Subjugation of Women Became Gospel Truth.” Brazos Press

Bartlett, Andrew, 2020: “Men and Women in Christ: Fresh Light from the Biblical Texts.” Intervarsity Press.

Beck, James R. (ed), 2005: “Two Views on Women in Ministry (Counterpoints: Bible and Theology).” Zondervan

Bessey, Sarah, 2013: ”Jesus Manifesto: An Invitation to Revisit the Bible's View of Women.” Howard Books

Davidson, Richard, 2012, “Flame of Yahweh: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Baker Academic

Frymer-Kensky, Tikva, 1992,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Ballantine Books

Giles, Kevin, 2019: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on Women.” Cascade Books

Gregoire, Sheila; Lindenbach, Rebecca; Sawatsky, Joanna, 2021: “The Great Sex Rescue.” Baker Books

Grudem, Wayne, 2012: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An Analysis of More Than 100 Disputed Questions.” Crossway

Hübner, Jamin, 2013: “A New Case For Female Elders: An Analytical Reformed-Evangelical Approach.” PhD Thesis www.bit.ly/3BNaSY8

Hübner, Jamin, 2015: “Translating Authentein in 1 Timothy 2:12a.” www.bit.ly/3EKqWM8

Keller, Kathy, 2012: “Jesus, Justice and Gender Roles: A Case for Gender Roles in Ministry.” Zondervan

Keller, Timothy and Kathy, 2016: “The Meaning of Marriage.” Penguin Group

Knight III, George, 1977: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Role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 Baker Books

Köstenberger, Andreas: Köstenberger, Margaret, 2014: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 A Biblical-Theological Survey.” Crossway

Köstenberger, Andreas; Schreiner, Thomas, 2016: “Women in the Church: A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1 Timothy 2:9-15.” Baker Academic

Mathews, Alice, 2017: “Gender Roles and the People of God.” Zondervan

Payne, Philip, 2015: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Zondervan Academic

Peppiatt, Lucy, 2019: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IVP Academic

Pierce, Ronald; Groothuis, Rebecca; Fee, Gordon (eds), 2005: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Complementarity without Hierarchy.” IVP Academic

Piper, John; Grudem, Wayne (eds), 2021: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A Response to Evangelical Feminism.” Crossway

Stackhouse, John, 2005 “Finally Feminist: A Pragmatic Christian Understanding of Gender.” Baker Academic

Storkey, Elaine, 2018: “Scars Against Humanity: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Violence against Women.” IVP Academic

Westfall, Cynthia, 2016: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Baker Publishing Group

Westfall, Cynthia, 2014: “The Meaning of Authentein in 1 Timothy 2:12.” www.bit.ly/3EL7OgM

Witt, William, 2020: “Icons of Christ: A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for Women’s Ordination.” Baylor University Press

Wojtyła, Karol, 2002: “Mulieris Dignitatem: On the Dignity and Vocation of Women.” Catholic Truth Society

교회를 위한 다음 단계: 추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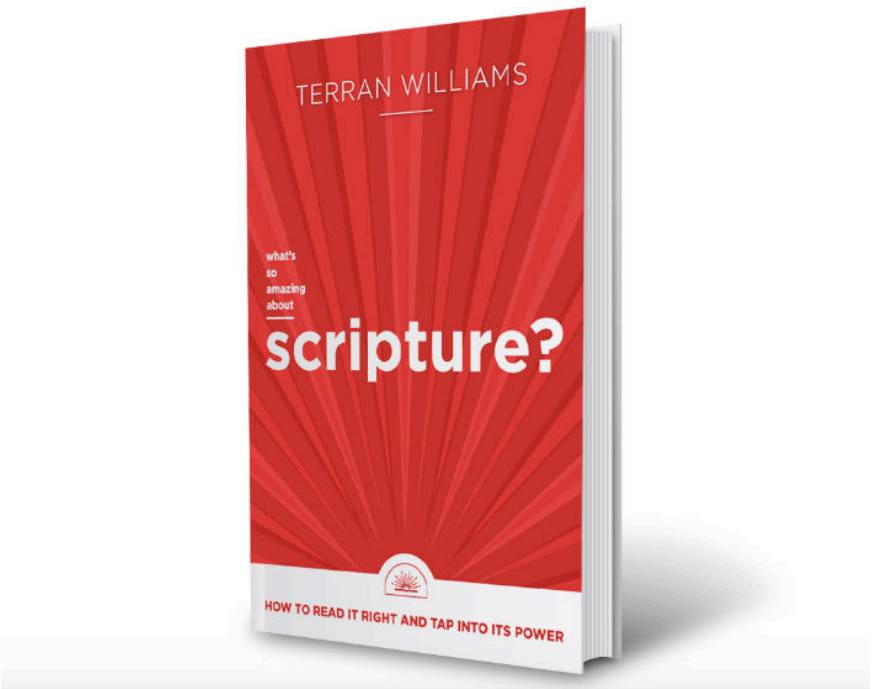
Cole, Kadi, 2019: “Developing Female Leaders: Navigate the Minefields and Release the Potential of Women in Your Church.” Thomas Nelson

Dixon, Rob, 2021: “Together in Ministry: Women and Men in Flourishing Partnerships.” IVP Academic

Williams, Terran, 2022: “How God Sees Women: End of Patriarchy, 10 Session Group Study Guide.”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회에 걸쳐 이 책을 살펴보십시오. 무료 Study Guide(학습 가이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www.bit.ly/37FBBfQ

테런 윌리엄스의 다른 책

What's So Amazing About Scripture? How To Read It Right And Tap Into Its Power



테런 윌리엄스는 단순함 아래 깊이를 담아 글을 씁니다. 이 책은 쉽고 읽기 편하지만,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신학 문헌을 최근 것까지 폭넓게 읽은 바탕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열정을 가지고 씁니다. 모든 장에서 그가 자기 주제를 그저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거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며, 그 중심의 주인공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그의 열정에 "감염되기를" 기도합니다.

—데릭 모퓨 박사, Breakthrough와 The Kingdom Reformation의 저자, 국제 Vineyard Bible Institute 설립자

성경과 씨름하도록 사람들을 도우려 애쓰는 목사로서, 저는 성경이 무엇이며 무엇에 관한 책인지, 성경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책을 찾아다녔습니다. 저 같은 노련한 성경 독자와 목사들뿐만 아니라 초보자와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인 책 말입니다. 어려운 주문이었지만, 마침내 그 책을 찾았습니다!

—그랜트 클라크(Grant Clark), One Harbour 목사

테런 윌리엄스는 성경학자들의 복잡한 연구를 생생하고 쉽게 종합해 내는 천재적인 일을 합니다. 성경을 파고들 영감을 얻고 스스로 성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생 최고의 여정에 나설 준비를 하십시오.

—미나 코엘라, 목사이자 Beautiful Gates 대표

성경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단순하고 흥미롭지만 더 복잡한 성경의 역학을 다루지 못하거나, 복잡하고 학문적이지만 일반 독자를 돕지 못합니다. 이 드물고 놀라운 책은 둘 다 해냅니다.

—스티븐 폴먼(Stephen Pohlman), The Reason For Everything의 저자.

저는 테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상가이자 연설가이자 작가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매우 흥미롭고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탈진실" 문화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크레이그 보타(Craig Botha), 목회자 훈련가

"What's So Amazing About Scripture? How to Read it Right and Tap Into Its Power" — 이 책은 Amazon 종이책과 Kindle 전자책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www.terranwilliams.com